

2023

사회적금융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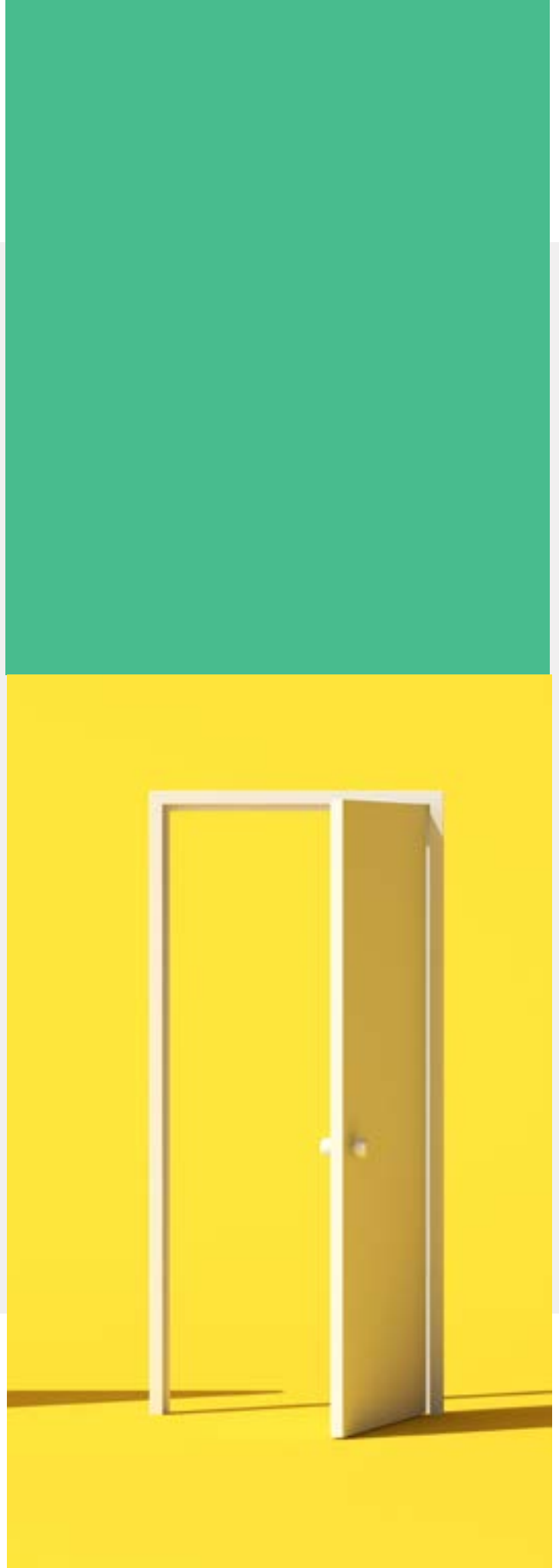
www.socialfinanceforum.net

FORUM RESOURCES

발표자료 모음

2023 5.25-26
목-금

-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 온드림소사이어티





제1회 사회적금융포럼

2023. 5. 25-26

팬데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즈니스 주체들의 역할과 행동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금융의 영향력을 떠올려 보면, 지속가능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에 금융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됩니다. 변화를 촉진하는 금융의 역할에 거는 기대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거나 적어도 재무적 가치와 균형 있게 추구하는 금융입니다.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서민금융, 지역 순환경제를 만드는 지역금융, 사회 혁신을 추동하는 임팩트 금융은 사회·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공익적 가치의 파괴를 막고 대안을 발굴해 확산시켜 왔습니다. 위기에 처한 경제·생태 시스템을 구출하려는 지속가능 금융과 국내에서 조용히 성장해 온 사회적 금융은 목적과 원리에 있어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적금융포럼은 변화의 시기 우리 사회에서 금융의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만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얻는 자리입니다.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을 화두로 달라지는 국내외 제도환경을 함께 짚어 보고, 미래를 전망하며, 실천 사례를 나누는 혁신 플랫폼으로 성장해 가고자 합니다.



사회적금융포럼

SOCIAL FINANCE FORUM 2023

Financing Our Common Future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금융: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금융의 역할

일시: 2023. 5. 25 ~ 26 (목~금)

장소: 서울시 중구 명동11길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 온드림 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재)금융산업공익재단

주관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후원: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주)코스콤, 삼성생명,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iCOOP,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협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거래경제사회연구원, 오마이컴퍼니

포럼 장소

위치: 명동11길 (서울시 중구)

공간1.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개회식/폐회식, 기조세션, 토론세션, 등록

공간2.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 워크숍 세션

공간3. 온드림 소사이어티

- 워크숍 세션

명동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금융의 중심지, 민주화의 성지라는 이름으로 대변되는 역사적 활동을 담아낸 공간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의지와 희망으로 아침 저녁 명동 거리를 오가던 이들의 묵묵한 열정이 지금의 우리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명동에는 여전히 많은 금융기관이 자리하고 있고, 100년 넘게 자리를 지켜 온 시민활동의 못자리에는 사회혁신을 꿈꾸는 새로운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금융을 통한 지속가능한 세계로의 이행을 꿈꾸는 사회적금융포럼은 이곳 명동에서 지금시대의 위기에 맞서는 지혜와 용기를 만나고자 합니다.



오시는 길

교통편(지하철)

- 2호선 을지로입구역
- 3호선 을지로3가역
- 4호선 명동역

주차 안내

- 명동성당 지하 주차장 (유료)
- 은행회관 지하 주차장 (유료) - 공간 협소

2023년 포럼 주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금융의 역할

투명성 TRANSPARENCY

- ESG 금융 실천 동향 및 제도화 과제
- ESG 시대의 사회적 가치 측정 흐름
- 기업의 공급망 실사 개념, 현황 및 적용례

역량강화 EMPOWERMENT

-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 로컬 임팩트 펀드 생태계 조성 및 이해관계자 역할
- 민간 지역기금 조성 및 운용

자금 순환 CAPITAL MOBILIZATION

- 사회적경제 기업 융자사업 실무
-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 임팩트 생태계의 토대,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포용금융 INCLUSIVE FINANCE

- 엔데믹 시대, 포용금융 실현 전략
- 일하는 사람들의 연대, 모두를 위한 사회 안전망
- 플랫폼 금융의 포용잠재력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

회복력 RESILIENCE

- 노란우산공제 설립과 성장 과정
- 협동조합 공제의 포용력과 공동체 강화 역할, 제도 개선 과제

참여 방법

2023 사회적금융포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록 비용은 무료입니다.

www.socialfinanceforum.net



5. 25 (목)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09:30

-

10:40

[개회 연설]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금융 [기조 패널] 포용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Opening Remarks] Financing our common future
[Keynote Panel] Finance for inclusive transition

11:00

-

12:20

[패널토론] ESG 금융 실천동향 및 제도화 과제

[Discussion] Practices of ESG finance and its institutionalization

13:30

-

14:15

[특별대담] 기후금융, 잃어버린 "S"를 찾아서

[Featured Session] Seaching for missing 'S' in climate finance

14:30

-

15:50

[패널토론] 엔데믹 시대, 포용금융 실현 전략

[Discussion] Strategy for inclusive finance in endemic period

16:00

-

17:20

[패널토론] 협동조합 공제의 포용력과 공동체 강화 역할

[Discussion] Role of cooperative mutuals in inclusive community building

5. 25 (목)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11:15
-
12:00

[딥다이브] 토스뱅크 사례로 알아보는 플랫폼금융 포용잠재력

[Deep dive] Potentials of platform finance in inclusiveness: case of Toss Bank

14:00
-
14:45

[이슈토크] ESG 시대의 사회적 가치 측정 흐름

[Issue talk] Social Impact Measurement Trends in ESG Era

15:00
-
15:45

[딥다이브] 노란우산공제의 설립과 성장 과정

[Deep dive] Mutuals for MSMEs : case of Yellow Umbrella Mutuals

16:00
-
16:45

[튜토리얼] 기업 공급망 실사의 개념, 현황 및 적용례

[Tutorial] Concept, current practices & examples of supply chain due diligence

5. 26 (금)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09:30

-

10:30

[기조 연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금융의 역할

[Keynote Speech] The role of finance for sustainable world

10:45

-

12:05

[패널토론]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Discussion] Building an ecosystem for community-based social finance

13:30

-

14:15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Featured Se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14:30

-

15:30

[패널토론] 일하는 사람들의 연대,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Discussion] Worker's solidarity, social safety net for all

15:45

-

16:45

[패널토론] 임팩트 생태계의 토대,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Discussion] Impact investment by foundations, infrastructures of impact ecosystem

17:00

-

17:10

[폐막식]

[Closing Ceremony]

5. 26 (금)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11:00
-
12:20

[SFF X H-ESG포럼] SK CSES 사회적가치 연구 동향

[SFF X H-ESG Forum] SK CSES social value research trends

14:00
-
14:45

[이슈토크] 로컬 임팩트펀드생태계 조성 and 이해관계자 역할

[Issue talk] Building ecosystem for local impact funds and stakeholders' roles

15:00
-
15:45

[튜토리얼] 민간 지역기금 조성 and 운영

[Tutorial] Establishing and managing grassroots funds

16:00
-
16:45

[딥다이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

[Deep dive] Role of financial industry for sustainable society

T01. 개회식, 기조 패널 / 5.25 (목) 09:30



이덕훈 좌장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자문위원장
(전) 수출입은행장

Lee, Deokhun
Advisory Board Chair of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former CEO of
Korea Exim Bank



페드로 마누엘 사샤 산토스 기조 패널

유럽 윤리대안금융연합회 FEBEA 이사장

Pedro Manuel Sasia Santos
President, European Federation of Ethical
and Alternative Banks and Financiers(FE-
BEA)



박준식 환영사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장
한림대학교 교수

Joonshik Park
Chairperson of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Professor, Hanlim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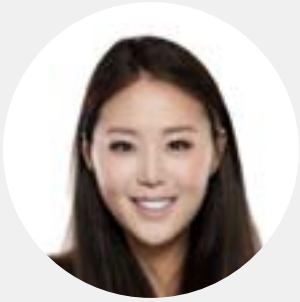
포용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

5.25 (목) 09:30~10:4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이 세션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 이 세션은 대담 방식으로 진행되어 발표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캐시 김 기조 패널

미국 지역개발신협연합회 Inclusiv Capital 국장

Cathi Kim
Director of Inclusiv-Capital (Association of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s),
USA



도시아키 와다 기조 패널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Toshiaki Wada
Chairperson of Japan CO-OP Insurance
(Kyosai) Consumers' Co-operative Federa-
tion (CO-OP Kyosai)

3년 간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팬데믹은 산업과 생활 영
역 곳곳에 불확실성을 한껏 높여 놓은 채 물러가고 있습
니다. 변화의 물결이 교차하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모두
가 회복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험을 잘 관
리하는 방식으로 안전해질 수 있을까요. 회복력을 높이
기 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사고가 필요합니다. 금융 시
스템의 회복 탄력성은 위험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것
인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약한 고리에 위험을 전가하
는 방식이 아닌 금융 참여자 모두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
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션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 전 세계 금융기
관들이 팬데믹 위기에 대처한 사례를 통해 "포용적 전환
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의 실마리를 찾아 봅니다.



송경용 환영사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성공회 신부

Rev. Kyong Yong Song
Chairperson, Korea Social Value and Soli-
darity Foundation

T02. 기조 연설 / 5.26 (금) 09:30



글로벌 임팩트 투자기관 네트워크 GSG 대표와 지속가능성(ESG)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ISSB 위원을 초대해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또한 ESG 금융의 최전선을 형성하는 기후금융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봅니다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금융의 역할

5.26 (금) 09:30~10: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백태영 기조 연사
ISSB 위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Paik, Tae-Young
Board Member, ISSB;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SKKU)



제현주 기조 연사
인비저닝파트너스 설립자, 대표

Hyunjoo Je
Founder & Managing Partner, Envisioning Partners



클리프 프라이어 기조 연사
글로벌 임팩트투자 운영그룹 GSG 대표

Cliff Prior
CEO, GSG for Impact Investment
(Online Participation)



기조연설

ESG/지속가능성 공시 주요 이슈와 ISSB 기준 현황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ISSB 위원)

ESG/지속가능성 공시 주요이슈와 ISSB 기준 현황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ISSB 위원)

지속가능경영 개념

◆ 지속가능경영/투자(Sustainable/Sustainability Management/Investment)

- 기업이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impact)과 환경/사회이슈의 기업에 영향을 고려
- 주주/투자자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
- Triple Bottom Line 강조: 3P(Profits, Planet, People)
- 지속가능경영/투자(이해관계자중시 경영/투자)의 스펙트럼:
 - 수동적 수단: 규제/소비자/투자자의 변화에 대한 수동적 대응, 협의의 CSR, 위험관리
 - 능동적 수단: 기회, 전략적 활용, 장기적 기업가치에 중요하다는 인식
 - 목적: 다중 이해관계자 이익 향상 자체를 기업목적으로 봄 (B Corp, 사회적 기업)

2019년 Business Round Table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 선언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의 주도자/참여자



백태영 (성균관대)

3

기업과 환경/사회 영향(Impact) 방향성

▶ 외향적 영향

- ▶ 기업 → 환경/사회, 지속가능경영(ESG)성과, 환경/사회적 임팩트
- ▶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 사회적 임팩트 중요성
- ▶ 부정적 영향의 해결은 정부가 할 일이나 기업이 더 잘할 수 있음

▶ 내향적 영향

- ▶ 기업 ← 환경/사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현금흐름과 자본비용 영향
- ▶ 투자자 관점, 기업가치 관점, 재무적 중요성(Financial Impact/Materiality)
- ▶ 물리적 위험(Physical Risk), 전환위험(Transition Risk)

▶ 두 가지 방향의 중복성/연결성

- ▶ 중대한 외향적 영향은 그 자체(기후변화 예)나 이해관계자의 압력에 의해 내향적 영향을 줌. 동적 중요성(Dynamic Materiality)

백태영 (성균관대)

4

지속가능성(ESG) 공시

▶ 자발적 공시와 강제공시

- ▶ 현재: 자발적 공시
- ▶ 2025: 자산 2조 이상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거래소 공시의무
- ▶ 2030: 모든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지속가능성 거래소 공시의무

▶ 영향 공시 방향

- ▶ **내향적 영향 공시(Financial Materiality)** : 재무적 중요성 관련 공시
ISSB(SASB, IIRC, CDSB), TCFD, SEC
- ▶ **외향적 영향 공시(Impact Materiality)** : GRI(Global SSB)
- ▶ **양방향 영향 공시(Double Materiality)** : EFRAG(ESRS)

▶ 공시 범위(Scope)

- ▶ Scope 1: 해당 조직
- ▶ Scope 2: 구입된 에너지 관련
- ▶ Scope 3: 가치사슬 상하류 (공급업체, 고객)

백태영 (성균관대)

5

임팩트 방향과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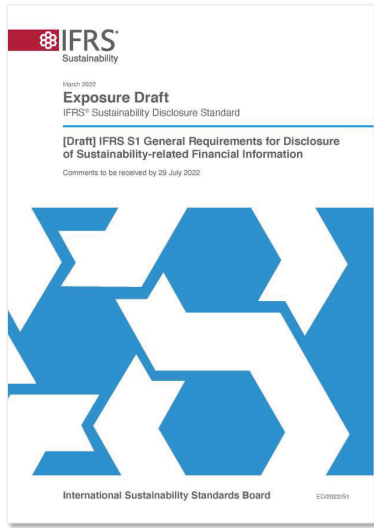
백태영 (성균관대)



백태영
(성균관대)

첫 2개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확정 임박

1



일반요구사항 공시기준, S1

2



기후관련 공시기준, S2

IFRS재단의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방향성

기업가치창출을 위한 투자자중심 Investor focus for enterprise value	우선과제로 기후문제부터 제정 Sustainability scope, prioritising climate
현존하는 기존 프레임 활용하여 제정 Build on existing frameworks	빌딩블록 접근법 Building blocks approach

백태영 (성균관대)

구조(TCFD 기반)

1. 지배구조
2. 전략
3. 위험관리
4. 지표와 목표
(산업별 지표: SASB 기반)

첫 2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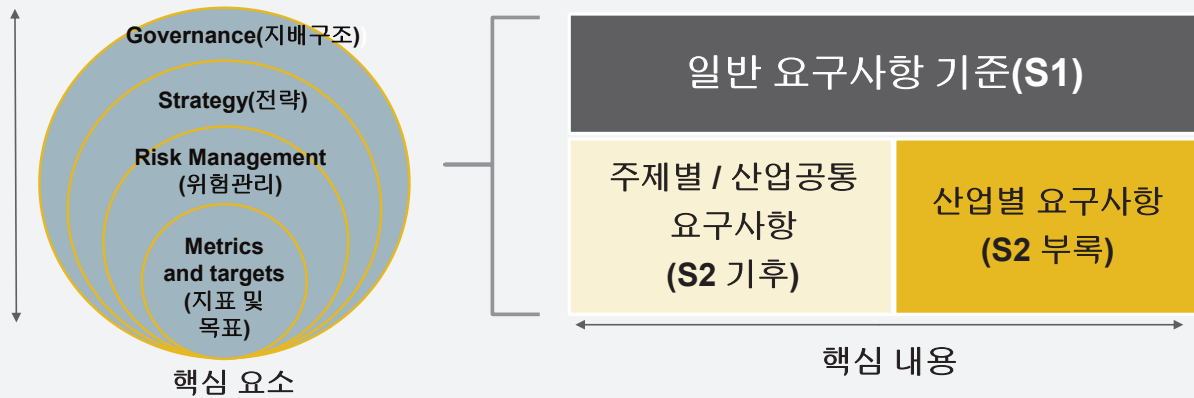
(2023년 상반기 확정
2024년 1월1일 유효시점)

1. S1 일반 요구사항
2. S2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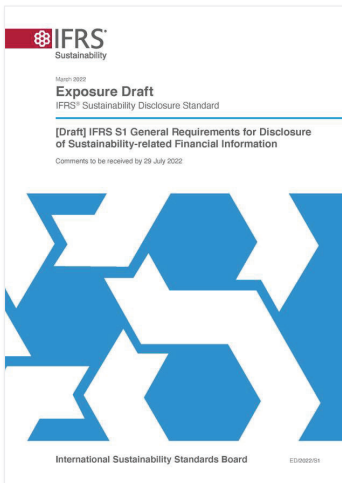


▶ 기준 구조

투자자 정보이용자와 기업가치 증점



▶ 일반요구사항 기준 (S1)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모든 **(유의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요구함

- 다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구체적 공시를 설명(S2과 후속 기준)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없는 경우, 다른 기준과 프레임워크를 참고(SASB, CDSB 등)



▶ 기준 구조

**거버넌스
(지배구조)**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를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된 절차
와 통제

전략

중대한 위험
과 기회를 다
루는 전략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이
파악, 평가,
관리, 축소
되는 방법

TCFD 권고와 일치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성과를 계속
모니터하고
관리하는
정보

백태영
(성균관
대)



▶ 주요 특징: 통합보고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 간의 일관성과 연결 필요를 강조, 정보의 연결과 관련 가정의 일관성을 사용하기 위함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공시가 동시에 발표되도록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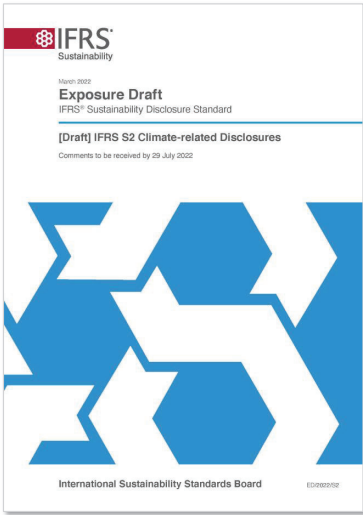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일부로 공시, 별도 공시 불가능 (각 국가 도입을 돕기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의 제공위치를 명시하지 않고 추가 정보 제공을 허용)

백태영
(성균관
대)



백태영
(성균관대)

▶ 기후 관련 공시기준 (S2)



(유의미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 공시

- TCFD 권고를 수용
- 부록: SASB 기준의 기후 관련 산업별 요구사항을 포함 (현재는 자발적 이용의 예시, 궁극적으로 요구)
- 공시 요구내용
 - 물리적 위험, 예: 홍수 위험
 - 전환위험, 예: 규제변화 영향
 - 기후 관련 기회, 예: 신 기술=>사업상 민감 정보 공시 유예



백태영
(성균관대)

주요 특징



전환 계획
배출량 목표와 탄소 상쇄의 사용



기후 회복력
다양한 시나리오에서의 사업전략의 회복력



Scope 1-3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요구



백태영
(성균관대)

▶ 산업별 요구사항: S2 부록

68개 산업을 위해 개발된 요구사항

개별 기업의 활동에 관련된
산업별 요구사항을 적용



ISSB에 대한 오해

- ▶ **기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시?**
 - ▶ 기업이 가진 환경/사회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재무적 중요성으로 판단하여 공시
 - ▶ 기업 자체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 모두를 공시하는 것이 아님
- ▶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일 표준화?**
 - ▶ SASB, CDSB 통합과 유럽, 미국 기준과 일치 노력
 - ▶ 여전히 GRI, 각국 기준(ESRS, SEC 기준 등)과 공존
- ▶ **국제적 최소기준?**
 - ▶ 투자자를 위한 국제적 기준선(Global Baseline)을 제공
 - ▶ 투자자 정보 요구 충족을 위해 많은 정보 요구
- ▶ **국제회계기준과 같은 위상과 지위?**
 - ▶ 장기적으로는 지향하고 국가별 상황 다름

ISSB 공시기준이 중요한 이유

- **자발적 공시에서 의무 공시로 변화**
 - 국제금융규제기관(IOSCO)의 지지
 - 의무공시 기준으로 채택가능성 높음
 - 인증(제3자 검증) 강화
- **재무제표 공시와 연계**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의 재무제표 반영이 강화됨
 - 재무제표 공시와 외부감사에 영향
- **경영결과와 경영활동 공시**
 - 지속가능성 관련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의 경영활동 공시
 - 저탄소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현재/미래 재무적 영향 공시
 - 가치사슬 전반(Scope 3) 공시

백태영 (성균관대)

일반요구사항 공시기준 (S1) 한시적 완화안

- ✓ **(비교정보)** 모든 지표의 기간간 비교정보를 공시
=>첫 해만 유예, 비교정보의 추정치 업데이트 요구
- ✓ **(공시시점)**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도입 첫 해 차기 반기 재무보고서와 같이 보고
- ✓ **(공시위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의 일부로 공시
=>도입 첫 해만 유예
- ✓ **(공시범위)** 모든 재무중요성의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도입 첫 해 기후관련 공시(S1) 이외의 주제 공시 유예

백태영 (성균관대)

ISSB 일반요구사항 공시기준 S1 완화 검토안

확장성 수단

- 특정 조건에 의해, 공시 면제나 단순한 공시로 대체
- 기준 적용 지원을 위한 자료(자체 가이드스, 외부 자료 언급) 제공

추가 이슈

-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위험과 기회) 참고범위: 타 재무중요성 기준(SASB, CDSB 등)
-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내용(지표 등) 참고범위: 타 재무중요성 기준(SASB, CDSB 등), **GRI, ESRS(임팩트/이중중요성 기준) 포함**
- SASB 국제화 : S2 부록B처럼 미국법규 대체 및 전반적 기준내용 국제화 진행
- 디지털 분류체계(Taxonomy): IASB, SASB, ESRS Taxonomy와 일관성 고려

백태영 (성균관대)

19

ISSB 기후 관련 공시기준 S2 산업공통지표

- ▶ 온실가스 배출량
 - ▶ Scope 1, 2, 3 총배출량
 - ▶ 연결회계실체, 피투자회사, JV, 비연결 관계회사 배출량
- ▶ 전환위험: 전환위험에 취약한 사업활동의 규모와 비율
- ▶ 물리적 위험
- ▶ 기후 관련 기회
- ▶ 자본 배치
- ▶ 사내 탄소가격
- ▶ 기후 관련 활동/성과 연계 보상

백태영 (성균관대)

20

IFRS S2 문단 21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21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산업전반 지표 범주와 관련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기준(Greenhouse Gas Protocol Corporate Standard)**에 따라 측정한 보고기간에 발생한 온실가스 절대 총 배출량(단위: CO₂e):
 => 해당 기업이 이미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도입 첫 해 허용
 해당 국가가 다른 방법을 요구하면 계속 사용 가능
 - Scope 1, 2, 3 배출량 모두 별도 공시

(나) 문단 21(1)(가)①~③의 각 scope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물리적 또는 경제적 산출물 단위당 CO₂e); => 제거

(다) 문단 21(1)(가)①~②에 따라 공시한 Scope 1 및 Scope 2 배출량에 대해, 기업은 다음 ①과 ②의 배출량을 별도로 공시한다.

① **연결기업**(지배기업 및 그 종속기업);

② 문단 21(1)(가)①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기업, 공동기업, 비연결대상 종속기업 또는 계열사**;

백태영 (성균관대)

IFRS S2 문단 21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라) 문단 21(1)(가)②에 포함된 기업의 배출량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한 **접근법** (예: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 기준의 지분할당 접근법 또는 운영통제 접근법);

(마) 문단 21(1)(라)의 접근법을 선택한 **이유**와 그 선택이 문단 19에서의 공시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설명;

(바) 문단 21(1)(가)③에 따라 공시한 Scope 3 배출량의 경우:

① 기업은 Scope 3 배출량 측정에 **상류(upstream)** 및 **하류(downstream)** 배출량을 포함한다.

② 기업은 일반목적재무보고 이용자가 보고된 배출량에 어떤 Scope 3 배출량이 포함되고 제외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Scope 3 배출량 측정에 포함된 **범주**를 공시한다.

③ Scope 3 배출량 측정에 보고기업의 가치사슬 내 기업들이 제공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업은 그 **측정 근거**를 설명한다. => 세부공시 강화

④ 기업이 문단 21(1)(가)③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는 경우, 기업은 이를 **생략**하는 **이유**(예: 충실한 측정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를 기술 한다.

백태영 (성균관대)

22

기후 관련 공시기준 (S2) 조정안

● 산업별 공시 지표 (부록B)

- 한시적 **자발적** 공시, 궁극적으로 의무공시

● Scope 3 배출량 보고부담 완화 검토안

- **적용시점 연기: 도입 첫 해 면제**
- **안전피난처 조항: 국가별 결정사항 권고**
- **데이터 질 계층 공시**
- **공시범위 재평가 시점: 중요 변화시, 매년 재평가 불필요**
- **관련 기업 보고기간 불일치 자료 사용 허용: Scope 1, 2, 3 모두**

백태영 (성균관대)

23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 관련 결정

● 산업별 공시 지표(부록B)에서 분리하여 **완화 제외**

- 금융배출량은 의무공시
- 촉진배출량(Facilitated Emission)은 **철회**
- 배출집약도 공시 요구 **철회**

● 금융배출량 공시부담 **완화 검토안**

- **탄소관련 산업 분리공시 철회**
- **파생상품 제외**

● 금융산업 분류: **활동기준**

- 금융기관 명칭보다 **활동 중심 분류 및 공시**

백태영 (성균관대)

24

공시부담에 의한 공시요구 완화 세부내용

- ‘보고일에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 를 다음 세부 공시내용에 사용
 - 1) 위험과 기회의 식별
 - 2) 가치사슬의 범위
 - 3)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 4) 미래 재무적 영향 공시*
 - 5)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
 - 6) 특정 산업전반 지표 계산
- * 기업내 기술, 역량, 자원을 고려
- 적용시 요구사항
 - 1) 이미 알려진 정보를 포함하여 보유한 정보 등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 2) 합리적 근거 필요
 - 3) 완전한 조사는 불필요
 - 4) 보고일에 이용가능한 과거, 현재, 예측정보를 고려

백태영 (성균관대)

25

후속 연구(후속 기준 주제 및 후속 작업) 고려대상

- (환경) 생물다양성, 생태계
 - (a) 민물 및 바다 자원과 생태계 사용
 - (b) 토지 사용 변화
 - (c) 오염 (공기, 수질, 토양)
 - (d) 자원고갈 (예, 광물채굴, 순환경제)
 - (e) 외래종 침범
- (사회) 인적 자본: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우선
 - (a) 직원복지 (정신적 건강과 복지 포함)
 - (b) 직장문화 (DEI 포함)
 - (c) 인적자본 투자
 - (d) 대체인력
 - (e) 가치사슬상 근로조건
 - (f) 인력 구성과 비용

26

백태영 (성균관대)

후속 연구(후속 기준 주제 및 후속 작업) 고려대상

- (사회) **인권**
 - (a) 가치사슬상 근로자 권리 (예, 건강과 안전, 공정보수, 강제노동, 아동노동)
 - (b) 가치사슬상 지역 권리 (예, 원주민 권리, 토지 및 물 영향, 보건 영향).
- (후속작업) **회계 공시와의 연계, 통합보고**
 - (a) 경영진의견(Management Commentary), 통합보고(Integrated Reporting)
 - (b) 기타 연계

위 4 가지 대분류 주제 및 세부주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집을 2023년에 진행한 후, 연구작업을 수행하고 후속 기준 작업을 할 예정

27

백태영 (성균관대)

기업준비 권고사항

- **S2 (기후 관련 공시) 2023년 6월말 확정 후 기업내 시험 적용**
 - 공시시점을 3월로 당기는 시스템 변경 필요
 - 회계기준원(삼일법인) 프로젝트: KB, SK
- **나머지 지속가능성 이슈 공시 준비**
 - SASB, ESRS 기반 적용 시도
 - SASB 적용 도입이나 강화 필요
- **전사적 과제이므로 사내 교육과 인식 고취 필요**
 - 홍보용 사회공헌 강조에서 **지속가능성 재무중요성** 강조로 전환 필요
 - 상황의 **심각성과 긴박성** 인식 필요
 - **어려우나 필요한** 과제임 인식 필요
 - 경영결과 공시가 아닌 **경영활동 공시** 필요
 - 불확실한 **미래 관련 정보** 취급 필요

28

백태영 (성균관대)

Q & A

typaik@gmail.com

백태영 (성균관대)

29

기조연설

기후 대응을 위한 자본 - 기회와 과제

제현주 (인비저닝파트너스 대표)

기후 대응을 위한 자본

기회와 과제

제현주 대표

인비저닝
파트너스

envisiOning
partners

envisiOning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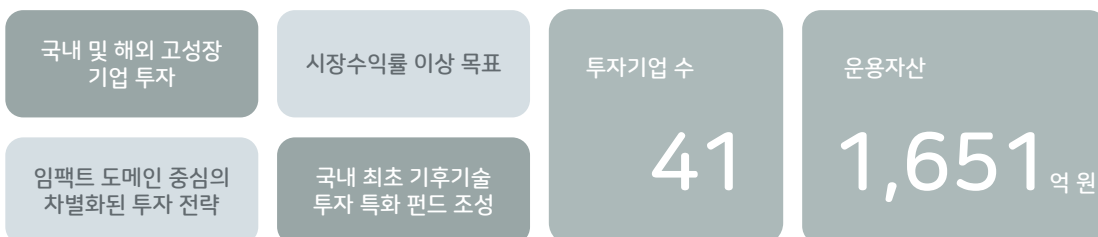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사회적 환경적 임팩트 창출을 통해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는 임팩트 투자사입니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큰 시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회사에 투자합니다.

인비저닝은 국내 1세대 임팩트 투자기관인 옐로우독의 주요 구성원들과 기존 투자자산을 이관 받아 설립되었습니다.

국내 임팩트 생태계가 태동하던 시점부터 ESG 및 임팩트 투자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업계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해왔습니다.

2021년 국내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climate tech)에 특화된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2023년 4월말 기준



Envisioning Climate Solutions Fund Snapshot

펀드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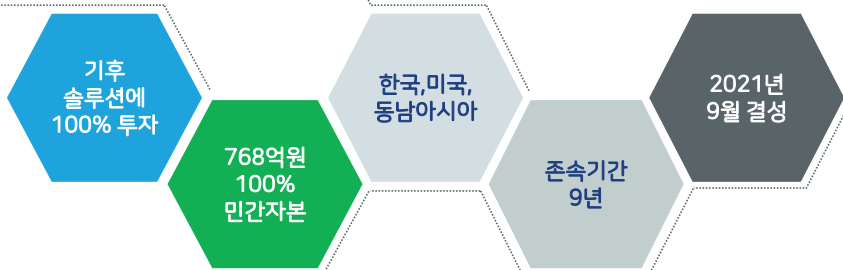
-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 한국 및 아시아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이바지

투자 영역

- 기술 기반의 혁신적 탈탄소 솔루션에 100% 투자
- 한국 및 미국, 동남 아시아 내 선진시장에 집중 투자

주요 투자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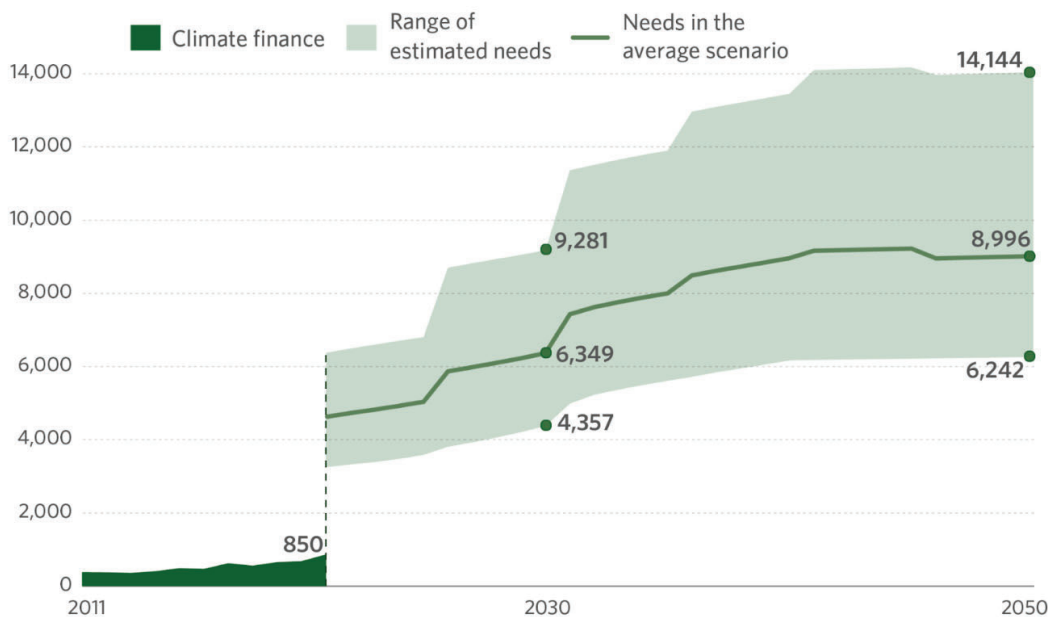
- Energy Solutions
- Sustainable Food
- Industrial and Circular Economy Solutions
- Carbon Capture & Utilization



펀드 주요 조건

- 초도 투자시 주로 Series A+/- 에 건당 10-50억원 투자
- 펀드의 20-30%는 후속 투자로 집행 예정
- 펀드 존속기간을 9년으로 하여,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인내심 있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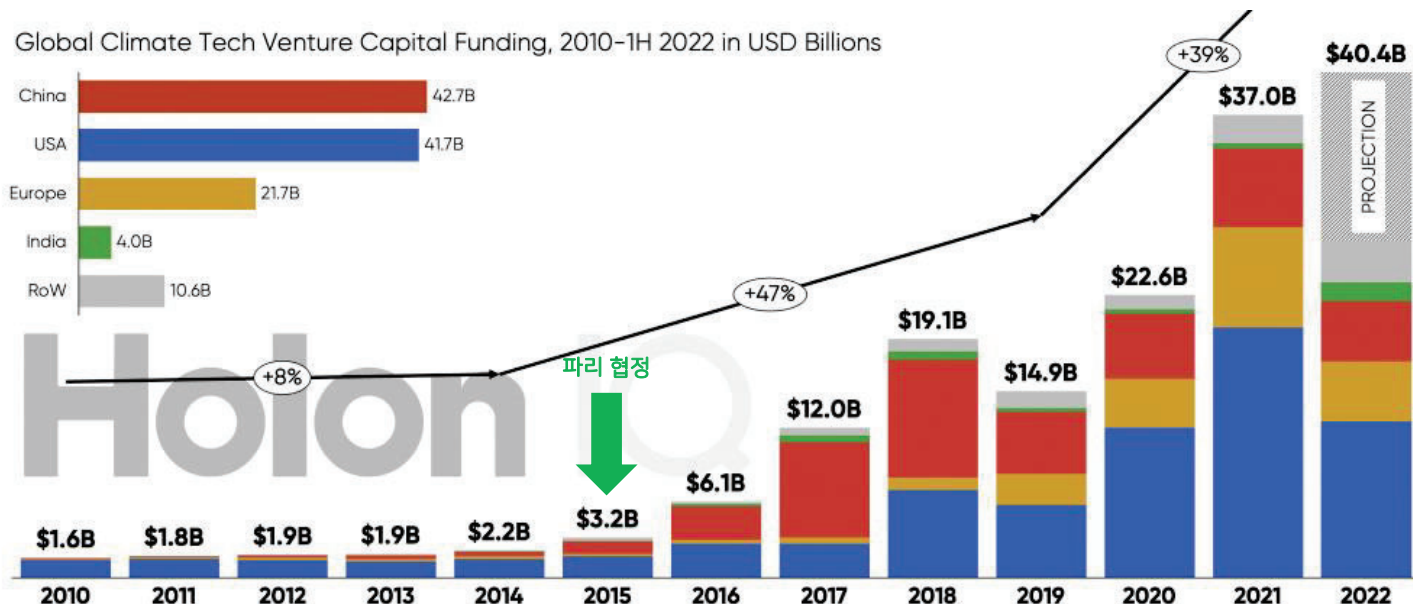
Climate Finance Required to Avoid Climate Catastrophe



Note: Global climate finance flows and annual climate investment need through 2050. \$850M represents climate finance tracked in 2021. Source: [Climate Policy Initiative](#).

Climate Tech Venture Funding Has Been Growing Rapid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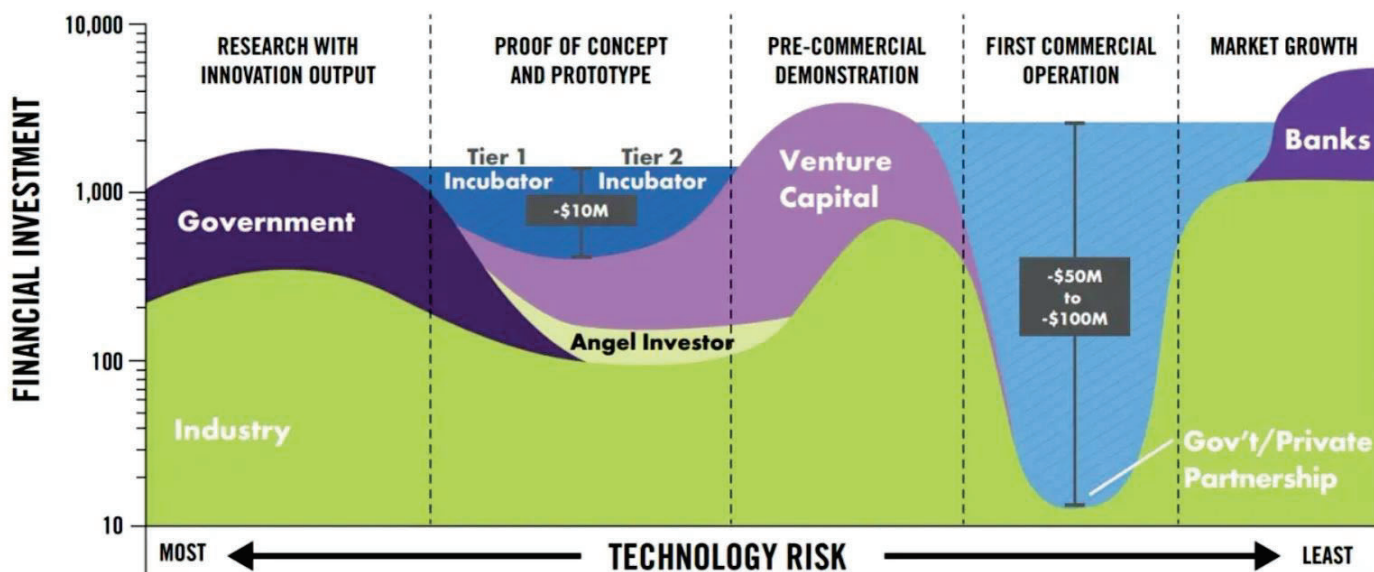
Global Climate Tech Venture Capital Funding, 2010-1H 2022 in USD Billions



Source: HolonIQ, 30 June 2022. All numbers rounded and may not sum exactly due to rounding.

www.holoniq.com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Significant Funding Gap



극복해야 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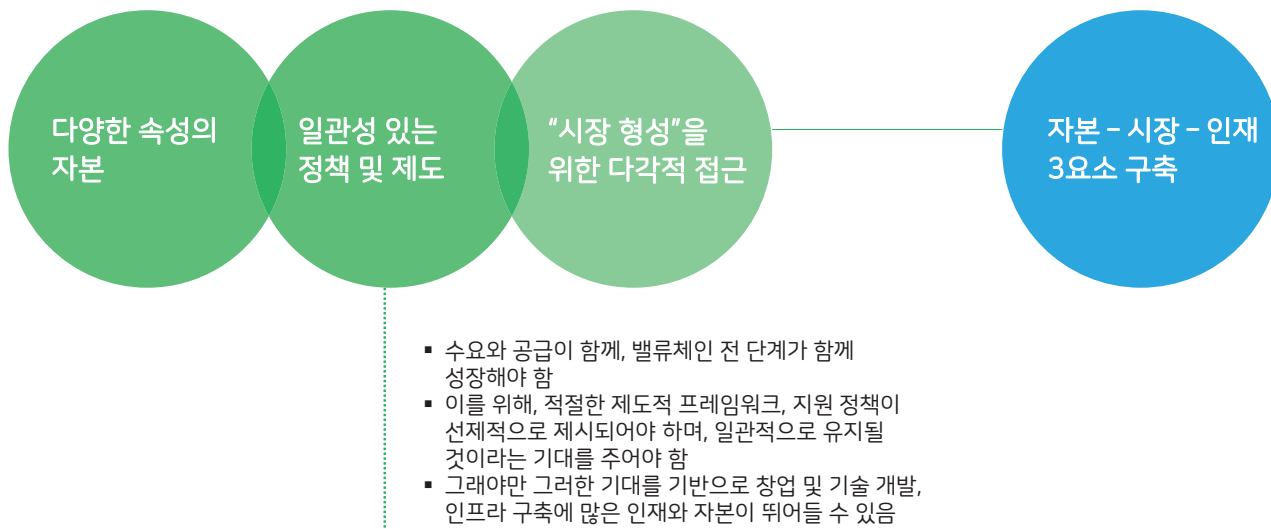
규모화를 위한 자본	“전략적” 속성의 명과 암 Equity 유치 외의 선택지 부족
인재 pool의 다양성과 크기	창업자의 모수 절대적 부족 글로벌 관점, 기술 전문성, 비즈니스 관점
다제적, 다원적 협력	학계 - 산업 - 금융 - 공공 간 silo
수요와 공급의 매치	필요가 아니라 리스크로 투자 영역 결정

기후테크 생태계에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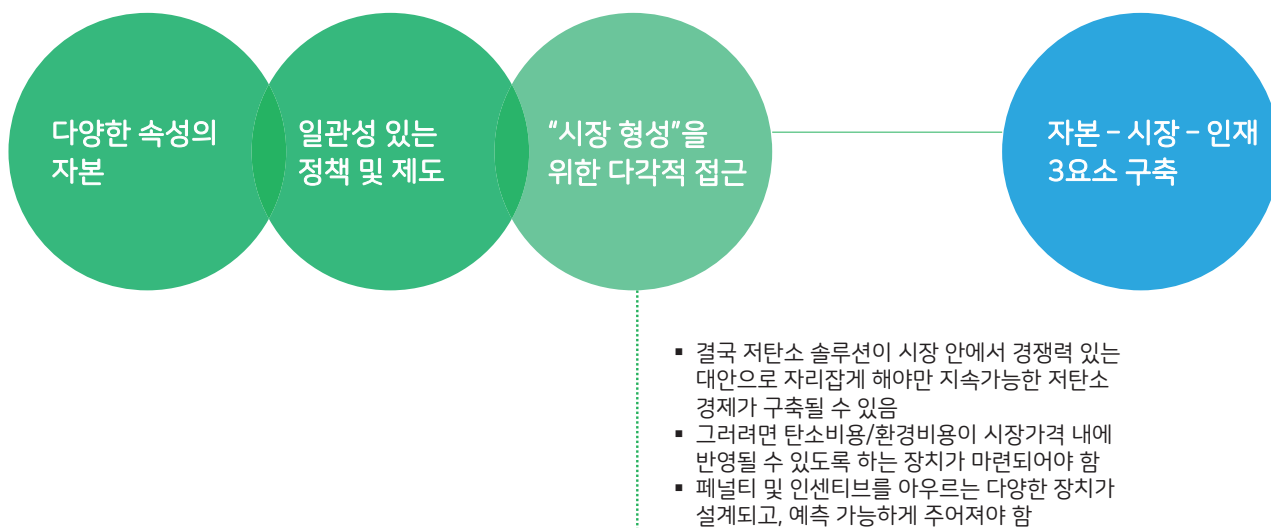


- 하드웨어/deep tech 스타트업의 규모화를 위해서는 grant-equity-debt(project financing) 등의 다양한 자금원이 필요함
- 발전 단계 마다 risk type에 알맞은 financing option이 시장 내에 존재해야 함

기후테크 생태계에 필요한 것



기후테크 생태계에 필요한 것



T03. 특별대담 / 5.25 (목) 13:30



이진우 진행
경제전문기자, 삼프로

Lee, JinWoo
Journalist, Co-president of Sampro TV



이덕준 발표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설립자, 대표

Lee, DeokJun
Founder & CEO, D3 Jubilee Partners

첫날 특별대담은 기후금융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기후 금융이 단순히 환경(E) 가치 추구만으로 구현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다룹니다. 기후 위기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는 금융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둘째날 특별대담에서는 윤리적 금융의 원칙을 다룹니다. 유럽의 윤리대안금융연합회 FEBEA(European Federation of Ethical and Alternative Banks and Financiers) 이사장을 모시고 윤리적 금융의 원칙과 그것이 실제 작동하는 모습에 대해 알아 봅니다.

기후금융, 잃어버린 "S"를 찾아서

5.25 (목) 13:30~14:15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이 세션은 한국거래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KRX 한국거래소

삼성생명

특별대담

기후금융, 잃어버린 'S'를 찾아서

이덕준 (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대표)

기후금융, 잃어버린 S를 찾아서

2023. 5. 25

이덕준 / D3 주빌리 파트너스

발표자 소개

발표자 소개



이덕준

D3 쥬빌리 파트너스 대표

이전 경력:

G마켓 CFO 부사장

Credit Suisse Group, Citi Group 투자은행

KAIST K스쿨(창업원) 겸임교수

런던정경대학, 회계 & 재무 석사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기후(E)금융에서 왜 S를 얘기하나

기후와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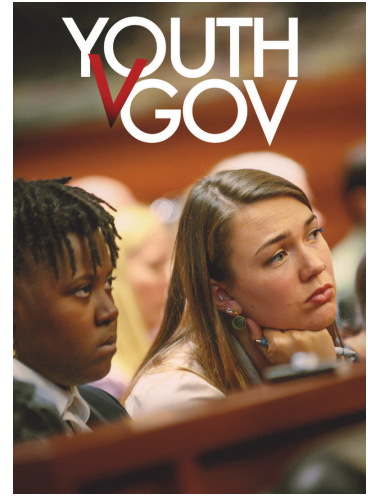
기후 정의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책임의 분배가 적정하여야 하고(분배적 정의),

정책수립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기존의 화석연료 생산구조와 생산 방식을 전환시켜(생산적 정의),

지구적 차원의 이익과 생태계의 존재까지 인정하고 서로 공존할 수(인정적 정의)있는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출처: 한상운 한국환경연구원

출처: Netflix

공정한 전환 (Just Transition)

공정한 전환 - 2018년 폴란드에서 열린COP24에서 도입. EU는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그린딜'에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Just Transition Mechanism이 있음. 2021-2027년 동안 전환의 사회, 경제적 피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65 ~75€ billion의 예산을 책정하였음.

한국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 공정한 전환을 위해 향후 5년간 13조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한 바 있음. (경희대학교 오형나 교수, 2021년에 발표, 출처; 임팩트온, 21. 5. 6)

Climate Action 100+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이 넷제로로 이행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2022년부터 공정한 전환 관련 지표를 기업 평가에 추가하였음.

CA 100+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세계 최대 채권운용사인 핼코(PIMCO), 세계 3대 연기금운용사인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등 전 세계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등 615개 투자기관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프랑스 전력회사 Engie의 탈탄소 계획

- 프랑스 전력회사 Engie가 2016년 11월 호주 빅토리아주 Hazelwood 화력 발전소 폐쇄를 결정. 450명의 직원과 300개의 계약업체들, 고객 (빅토리아주 전력의 1/5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됨에 불구하고 대책이 부재.
- 산업노조가 정부에 개입을 요청하고 협상을 거쳐 2018년 5월 전A\$266m (1인당 \$330,000 지원 및 대체 일자리 지원) 전환 패키지가 발표. 빅토리아주의 최대 전환 패키지이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만든 의미있는 사례가 되었음

캐나다 알버타주(2017년)

- 캐나다 알버타 주 2030년까지 석탄 폐쇄 목표. 탄광 커뮤니티를 위한 자문 패널에서 2017년 공정한 전환을 위한 35개 권면사항 제시. 이 중에서 18개는 탄광 근로자들의 소득과 연금, 직업 교육과 관련된 것. 주정부는 이를 위해 C\$40m 의 자금 지원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 독일 831개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18만명의 시민 참여 + 조합이 발전소 운영 및 이익 공유
- 2000년 재생에너지법과 협동조합법 개정 - 재생에너지 사용 우선권, 20년간 발전차액 지원, 시 민발전소의 전기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 허용

시민들의 Climate Action; Urgenda climate case



네덜란드 시민 886명이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 (20 December, 2019, 최종 판결)

2015년 6월에 1심 판결 - 헤이그 법원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에서 최소 25% (그 당시 정책 목표는 17%) 감축하여야 함. 더 효과적이고 긴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명함. 주정부의 항소가 이어졌고, 결국 2018년 10월에 원고 승소. 2019년 1월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항고하였으나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였음.

법원은 네덜란드 헌법 제21조, EU 배출 감축 목표, 유럽 인권 협약, 국제법의 "no harm" 원칙, 그리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있는 위험한 태만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지속가능성 원칙; 그리고 유럽 기후정책에 있는 높은 수준의 보호 원칙, 예방원칙을 적용하였음. 법원은 정부가 감축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배출권 거래나 세금 대책 등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이것은 국가들에게 법적 의무 이외의 이유로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도록 명령하는 세계의 어떤 법원의 첫 번째 결정이다. (출처: climatecasechart.com 에서 요약 번역)

금융/투자기관들의 Climate Actio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투자 정책과 의사결정에 ESG를 적용하겠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결정. 2006년 UN의 지원 하에 시작되어 현재 3,000개 이상 기관 투자자들이 서명했으며 이들의 운용자산은 \$89 Trillion



Climate Action 100+

- 전세계 160개 고탄소배출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탄소감축을 하도록 압력.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및 TCFD 채택 하도록 유도. \$40 Trillion의 자산을 보유한 450개 투자기관이 참여



Net Zero Asset Owner Alliance

- 2050년까지 투자 포트폴리오 Net Zero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금융기관들의 연합으로 Allianz, AXA, CalPERS 등 대형 보험사 및 연기금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운용자산은 \$4 Trillion



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 ("GFANZ")

- COP 26 에서 형성된 탄소중립을 앞당기기위한 금융기관들의 포럼. 500+ member firms, 45+ countries



임팩트 투자 자본, 10년 사이 \$1 trillion 규모로 성장

10년전, 영국 벤처캐피탈의 대부이자 임팩트투자의 선구자인 Sir Ronald Cohen 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금융 서비스, 교육 등 글로벌 임팩트투자 시장이 장기적으로 현재의 벤처캐피탈 및 프라이빗 에쿼티 시장의 규모인 \$3T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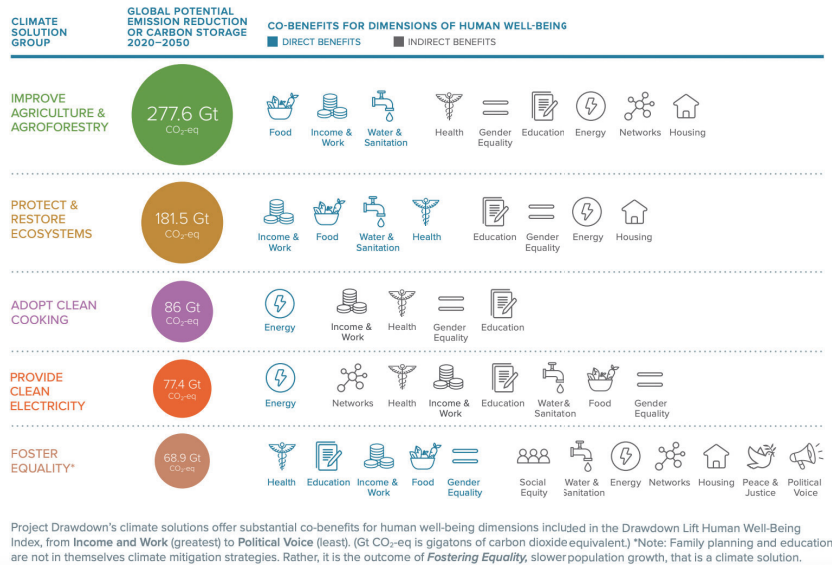
오늘날 글로벌 임팩트투자 자본은 \$1T로 성장했다 (GIIN, 2022). 한편, 전세계 ESG 투자 자본은 \$35T 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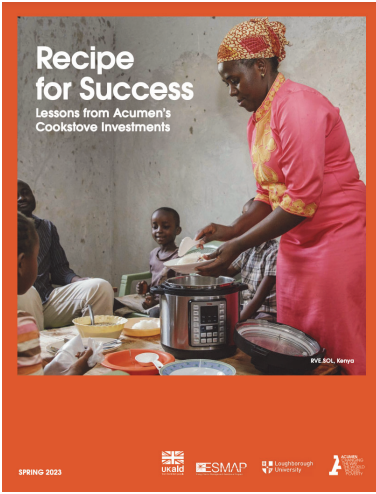
25개국, 400명의 임팩트 투자자, 패밀리오피스, 재단, 자산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그룹으로 기후변화 관련 섹터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기후 문제는 가난(소득), 식량과 건강, 에너지 접근성, 사회적 형평성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해 풀어야 하는 문제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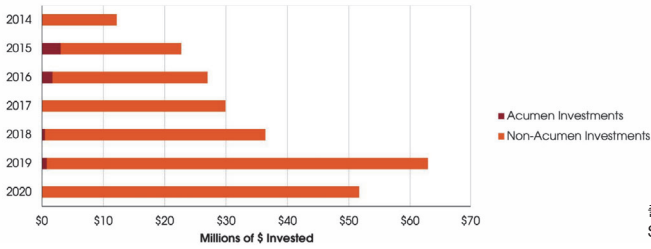
어큐먼펀드 투자 사례; 쿡 스토브



전세계 24억명은 Clean Cooking(청정연료에 의한 쿡스토브)에 대한 접근성이 없다. 대부분, 땀, 숯 또는 분뇨를 태워 요리와 난방을 한다. 비효율적인 조리용 레인지는 시간의 낭비가 심하고 대기를 오염시킨다. 연료 나무 수집은 산림 황폐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실내 공기의 유해 성분은 매년 3백만명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대부분 여성과 소녀들이다.

어큐먼 펀드는 2015-19 동안 아프리카의 Clean Cooking 5개 회사(e.g. BioLite, BURN)에 \$6M을 투자하였다. 모두 3백8십만개의 스토브를 판매하였다. 이는 2천1백만명에게 혜택을 가져다 주었으며, 연료비와 건강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18백만톤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 어큐먼의 클린쿠킹 투자수익은 다른 분야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였다. 어큐먼의 선도적인 움직임에 힘입어, CleanStove 에 대한 투자가 유입되며 연간 \$60M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30년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클린 쿠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5.4billion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CHART 1: TOTAL DEBT & EQUITY INVESTED IN COOKSTOVE SECTOR, 2014-2020



출처: Acumen, Recipe for Success, Spring 2023

자본의 성격에 따라 기후투자의 영역별 비중이 다르다



출처: Project Drawdown

D3의 기후&임팩트 투자

D3 쥬빌리 파트너스 - 국내 임팩트/기후테크 투자의 Pioneer

혁신을 통한 재무수익과 사회적 임팩트가 극대화할 Sweet Spot을 발굴



주요 연혁

- 2011.07 임팩트투자를 사업목적(정관)으로 설립, 국내 최초
- 2012-2014 임팩트 벤처 엔젤투자클럽 D3+임팩트투자클럽 운영
- 2012.11 D3Cleantech, LLC(美) 설립 - 글로벌 임팩트투자 시작
- 2014 임팩트 벤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D3임팩트엔진 운영 (미래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선정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 2014.01 샌프란시스코 자회사 설립
- 2016 ~ 2022 D3-Tonic 아시아 임팩트 투자포럼 (제주)
- 2018.0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 2018.08 D3 임팩트 벤처투자조합 제1호 결성
- 2019.08 D3 임팩트 벤처투자조합 제2호 결성
- 2019.12 201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벤처창업진흥 유공
- 2020.07 2020 대통령상 표창 :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유공
- 2021.05 D3 ESG 벤처투자조합 결성(3호)
- 2021.08 D3 미래환경 Eco 벤처투자조합 결성(4호)
- 2022.06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 정보문화유공
- 2023. 4 지역혁신 스마트시티 D3 벤처투자조합 결성(5호)

G마켓 실리콘밸리 거쳐 임팩트투자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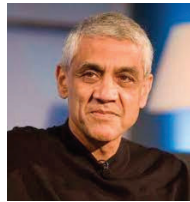
- 24개국, 400명의 임팩트 투자자, 패밀리오피스, 재단, 자산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그룹으로 기후변화 관련 섹터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실리콘밸리 Ex 창업가 투자자; Tech, Impact, Climate



Charky Kleissner
NEXT (w/ Steve Jobs)



Vinod Khosla
Sun Microsystems



Pierre Omidyar
eBay, ON



Jeff Skoll
Skoll Foundation



Steve Case
AOL



Bill Gates
Microsoft



Mitch Kapor
Lotus 1-2-2



John Doerr
Kleiner Perkins

임팩트투자의 Climate Investing Go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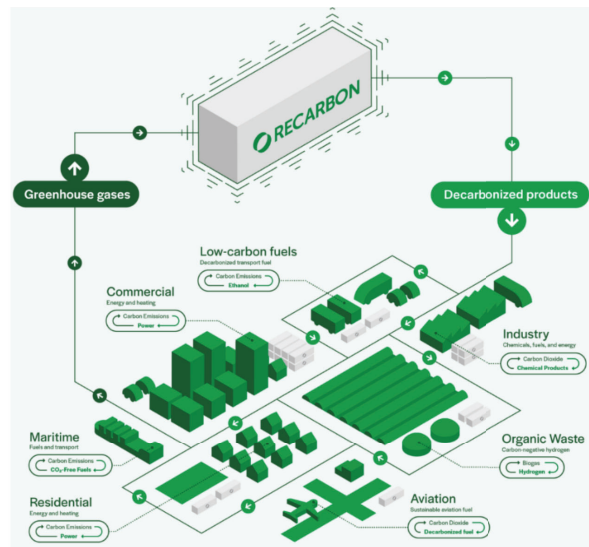
	MITIGATION	RESILIENCY	ALPHA
DESCRIPTION	Slow the pace of climate change by reducing emission sources and creating emission sinks.	Help communities adapt to a changing climate and build resilience to its effects.	Reduce risk and enhance financial return for an investment portfolio.
METRIC	Emissions reduced	Vulnerable people protected	Long-term financial return and reduced volatility
TYPICAL DRIVER	Impact and financial returns	Impact	Financial returns
APPROACH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ven solutions Emerging solu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mmunity solutions Resilient infrastruc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Risk mitigation Upside capture
COMMON THEMES	Renewables, Transport, Manufacturing, Energy efficiency	Climate justice, Agriculture, Access to water, Gender equity	Low-carbon portfolios, Low-carbon transition



D3 투자 사례 - C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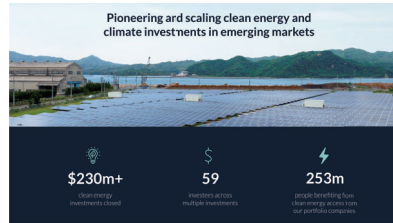
- ReCarbon은, 메탄(CH₄)과 이산화탄소(CO₂)를 수소를 포함한 산업용 합성가스(H₂+CO)로 전환하는 마이크로 플라즈마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
 - 리카본의 PCCU(Plasma Carbon Conversion Unit)를 이용한 탄소 자원화 기술은 현존 CCUS 기술들 대비 뛰어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경제성을 자랑
- 회사는 현재 호주 Woodside Energy社 (천연가스 생산업체) 및 미국의 LanzaTech社 (생명공학 기업)과 함께 'zero-carbon ethanol' 생산을 목표로 공정 개발 중**
 - Woodside가 공급하는 input gas (온실가스)를 ReCarbon이 합성가스로 전환하면, 이것을 LanzaTech의 미생물 기술로 ethanol로 전환하는 공정
 - 향후 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 항공유) 생산, Ammonia Cracking (암모니아를 분해하여 수소로 전환) 영역 등으로 확장 예정
- 탄소배출 저감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①청정연료의 경제적 생산과 ②온실가스의 직접적 저감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 아래 리카본의 기술은 이 두가지를 함께 해결**



D3 투자 사례 - 이머징마켓 클린에너지 핀테크



- SunFunder는 아프리카/인도 중심의 태양광 발전 사업 전용 debt-financing(채권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 중개 플랫폼; **동남아시아로 확장 중**
 - 기관투자자가 지역적으로 다각화 된 태양광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투자자에게는 성장성 있는 개도국에의 투자 접근성을, 지역적 특색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 사업자들에게는 자금에의 접근성을 제고
 - 2012년 설립 이후, 극심한 및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3개 국가 58개 태양광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M 이상의 자금을 중개
 - 2022년 프랑스 임팩트 투자사 Mirova 에 인수, 2022년 내 클로징 목표로 \$500M 규모의 "기가톤 펀드" 조성하며 스케일을 키워가고 있음
- 사하라 이남 5억 이상 인구 중 상당 수가 여전히 나무를 태워 에너지원으로 쓰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활성화의 희망과 단초를 제공
 - 회사 설립 이후, **2억5천만명의 인구가 태양광 발전 전력에 접근**하게 되었고, 이는 **연간 75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한 효과
 - 해당 지역들에 **전기가 공급되어 관개농업이 가능**해지면서 **농업 생산성이 높아져 소득 수준 제고 및 식량 부족 해갈**에 기여
- 현지인 채용/현지 사무소 운영으로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 드문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공급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음
 - 직원의 55%가 여성



D3 주빌리 파트너스 - 공신력있는 펀드 운용 뿐 아니라 국내외 ESG/임팩트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

2016 년 이후, 연례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 포럼인 'Asia Impact Nights (아시아 임팩트 나이트)'를 개최

2022 Asia Impact Nights
Embracing Complexity and Biodiversity

Speakers:
 Jed Emerson (Strategy Director, Greenpeace Asia)
 Annie Chen (Chair, ESG Group Asia)
 Choe Jae-Chun (Executive Director, Korea Investment Partnership)
 Lee Duck-jun (Founder & CEO, D3 Justice Partners)
 Fleur Pellerin (CEO, KPMG Capital)
 Kevin Lhu (Founder, Sustainable Capital)
 Ian Monroe (President & CEO, First Capital)
 Joe Hsueh (Co-founder & CEO, SIFRO)
 Eugenia Koh (Head of ESG & Sustainable Finance, Standard Chartered)
 Dominic Mellor (Co-founder, ACB Institute)
 Chung Nami (President, Asia Network Foundation)
 Will Lee (Head of Impact Research, Allianz World Services (AWRS))

Topics: BIODIVERSITY, SUSTAINABILITY, CLIMATE, NET ZERO, INVESTOR'S ACTION, SYSTEMS CHANGE

Hidden Cliff Hotel & Nature, Jeju island, South Korea
Oct. 24 — 25, 2022
 Retreat on Oct. 26



2019, 2022 년 '아시아 임팩트 나이트'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자 네트워크인 Tonic과 공동개최

- 한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150여 명 투자자들이 모여 기후/환경을 주제로 도전과 해결 과제에 대해 논의



투자자



Serving the needs of others is the only legitimate of business today.

감사합니다

T04. 특별대담 / 5.26 (금) 13:30



페드로 마누엘 사샤 산토스 발표
유럽 윤리대안금융연합회 FEBEA 이사장

Pedro Manuel Sasia Santos
President, European Federation of Ethical
and Alternative Banks and Financiers (FE-
BEA)



김정현 대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자문위원

Kim,, Junghyun
Advisor,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CFA



로렌스 콕 진행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자문위원
(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 사무국장

Laurence Kwark
Advisor,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
ty Foundation; former Secretary General,
GSEF

윤리적 금융의 원칙

5.26 (금) 13:30~14:15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특별대담 - 발표문

윤리적 금융의 원칙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페드로 마누엘 사샤 산토스
Pedro Manuel Sasia Santos
유럽 윤리은행연합회 FEBEA 회장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페드로 마누엘 사샤 산토스)

- FEBEA 개요-배경, 역사 및 주요 활동
-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 가치와 원칙을 적용한 윤리적 은행 사례
- 윤리적 은행의 임팩트

FEBEA의 역사

2002
Fonds garantie solidaire

2010-2011
Europe Active Initiative
고용창출 아틀라스

2014
COOPMED: 남부
및 지중해 국가 지원



2001
시작: FEBEA의 기금

2006
COOPEST: 동유럽 지원

2011
FEFISOL: 아프리카
카농촌에서 활동

2017
Social Economy
Europe 가입

2020
다양한 유럽 프로젝트
작업

2022
EU Call
CFF와 전략파트너십



2015
유럽집행위(EC)사회연대
경제위원회 전문가 그룹

2019
전문성 있는 사무국 설치

2021
카이로스 - 참여적 전략방
안 수립과정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페드로 마누엘 사샤산토스)

- FEBEA 개요-배경, 역사 및 주요 활동
-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 가치와 원칙을 적용한 윤리적 은행 사례
- 윤리적 은행의 임팩트

제한

- 특정 신용 활동에 대한 부정적 스크리닝

EEFF 프로젝트의 등장

특성화

- 사회적 요구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소액금융, 클라우드펀딩, 지역신탁, 씨앗자본, 공제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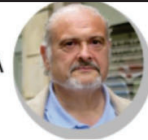
금융활동의 내부적 사회가치에 대한 재고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투명성, 보상구조, 세금회피처, 투기,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등)

책임있는 시민의식 고양

- 금융상품의 책임있는 소비
- 사회 환경이슈에 대한 정치적 참여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페드로 마누엘 사샤산토스)

- FEBEA 개요-배경, 역사 및 주요 활동
-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 가치와 원칙을 적용한 윤리적 은행 사례
- 윤리적 은행의 임팩트

- 돈은 공동선(Common Good)을 위해 일한다.
- 윤리적 금융의 신용활동은 항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부가가치의 성취를 추구한다.
- 윤리적 금융의 자금은 투명하다. 이는 실물경제에서 와서 실물경제로 돌아간다.
- 윤리적 은행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 윤리적 은행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나 사업에 대해 단기간의 금융 거래나 투자를 통한 투기를 거부한다.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페드로 마누엘 사사 산토스)

- FEBEA 개요-배경, 역사 및 주요 활동
-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 가치와 원칙을 적용한 윤리적 은행 사례
- 윤리적 은행의 임팩트

흥미로운 사례

- 모든 신용의 ESG 평가
- 모든 금융활동의 정보 (웹 포함)
- 30%이상의 금융활동을 사회적 경제사업에 투자
- 이익은 배분하지 않고 고유활동에 재투자
- 거버넌스 분산
- 최대/평균 급여 비율 10:1 이하

Atti Parlamentari - 1 - Camera dei Deputati
XVII LEGISLATURA - SEZIONI DI LEGGE E RELAZIONI - DOCUMENTI

CAMERA DEI DEPUTATI N. 3985

PROPOSTA DI LEGGE

D'INIZIATIVA DEI DEPUTATI

MARCON, CAUSI, GIANCARLO GIORGETTI, PALESE, SBERNA, PALMIERI, PANNARALE, PATRIARCA, MELILLA, NARDUOLO, CIVATI, PAGLIA, ALBINI, PELLEGRINO, FOSSATI, REALACCI, NICCHI, PATRIZIA MAESTRI, ARAUDO, CENNI, FASSINA, RUBINATO, FRATOIANNI, MOGNATO

a) valutano i finanziamenti erogati a persone giuridiche anche dal punto di vista sociale e ambient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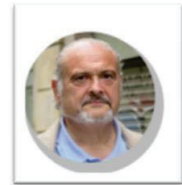
b) danno evidenza pubblica, anche via web, dei finanziamenti erogati a persone giuridiche con riferimento almeno alla ragione sociale dei beneficiari, all'attività svolta, all'importo del finanziamento erogato e alla sede dell'attività;

c) devolvono almeno il 30 per cento del proprio portafoglio crediti a organizzazioni non profit o imprese sociali;

d) non distribuiscono profitti, ma li reinvestono nella propria attività;

e) sono caratterizzati da una gestione interna a forte orientamento democratico e partecipativo caratterizzato da un azionariato diffuso;

f) adottano politiche retributive tese a contenere al massimo la differenza tra la remunerazione maggiore e quella media della banca, il cui rapporto comunque non può superare il valore di 10 ».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페드로 마누엘 사사 산토스)

- FEBEA 개요-배경, 역사 및 주요 활동
-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 가치와 원칙을 적용한 윤리적 은행 사례
- 윤리적 은행의 임팩트

정당성의 축

- 조직과 개인을 지원하는 확고한 중심
- 사회적 책무성
- 핵심 가치와 미션 공시
- 초기부터 금융적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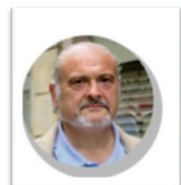
동기부여의 축

- 사회구조에 참여
- 성과에 대한 스토리텔링
- 문화적 활동
- 뜻을 같이 하는 기관 및 창립기관과 함께 캠페인 참여
- 리더 및 참여자들이 "가치"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가짐

역량의 축

- 도구적 역량(장비, 자원, 노하우)
- 지지 네트워크
- 비영리: 도구로서의 경제적 효용성

핵심전략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페드로 마누엘 사샤 산토스)

- FEBEA 개요-배경, 역사 및 주요 활동
-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 가치와 원칙을 적용한 윤리적 은행 사례
- 윤리적 은행의 임팩트

두터운 협력 네트워크

- 참여와 공동 책임
-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 상호작용

중개자만이 아닌 시스템

- 지속적인 문화 활동
- 옹호활동
- 특정한 신용의 필요에 대응하는 준 은행 활동

네트워킹

- 사회내 다른 동료 부문과의 네트워킹(대학, 정부, 노조, 시민사회 등)

조직의 "DNA"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페드로 마누엘 사샤 산토스)

- FEBEA 개요-배경, 역사 및 주요 활동
-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 **가치와 원칙을 적용한 윤리적 은행 사례**
- 윤리적 은행의 임팩트

- 모든 신용에 대한 **사회 환경 평가(외부 검증)**
- **1인-1표**
- 보상체계의 통제 (**급여 비율**)
- 거버넌스에 있어서 **젠더** 할당제
- **이사회 구성**: 창립 회원과 점차 사업에서 중요해 지는 신규 회원이 함께 참여하는 등 전 조직에서 고르게 구성
- 사회적 임팩트가 높은 부분의 **특별한 전문성(질 높은 포트폴리오)**
 - 공동주택
 - 노동자공동매입
 - 재생에너지 등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페드로 마누엘 사샤 산토스)**
- FEBEA 개요-배경, 역사 및 주요 활동
 -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 **가치와 원칙을 적용한 윤리적 은행 사례**
 - 윤리적 은행의 임팩트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페드로 마누엘 사샤 산토스)**
- FEBEA 개요-배경, 역사 및 주요 활동
 -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 가치와 원칙을 적용한 윤리적 은행 사례
 - **윤리적 은행의 임팩트**

임팩트 선호 프레임워크(Impact Appetite Framework)

이탈리아의 방카에티카(Banca Etica)의 경우, 관리규칙에 설정된 리스크 선호 프레임워크(Risk Appetite Framework)에서 영감을 받아, 2018년에 임팩트 측정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자체적인 임팩트 선호 프레임워크(IAF)로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사회-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이사회에 분기별로 보고하였다. 이 '프레임워크'는 측정가능한 사회-환경 지표를 포함하며, 이는 모두 이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선호')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페드로 마누엘 사샤 산토스)

- FEBEA 개요-배경, 역사 및 주요 활동
- 윤리적 은행의 가치와 원칙
- 가치와 원칙을 적용한 윤리적 은행 사례
- 윤리적 은행의 임팩트

임팩트 선호 프레임워크(Impact Appetite Framework)→ 지표(Indicators)

- **환경:** 기후변화 대응, 폐기물 관리, 유기농업 등에서의 자원조달, 은행의 직접적인 탄소배출량
- **권리:** 사회적지원, 자원조달을 통한 취업 지원, 금융소외지역에서의 대출/기금 비율, 사회주택지원, 이탈리아의 소액대출, 비영리기관 지원, 금융부문의 고용 창출 등
- **거버넌스:** 은행 내부 급여 차이, 적극적 주주, 투표권이 있는 주주, 은행 내 고위직의 성평등, 전년도 은행의 퇴직/해직 비율
- 국제 평화 및 정의: 국제협력지원, 국제 소액금융 지원, 임팩트 투자
- 윤리적 금융 촉진: 대중 및 주주를 위한 공공 행사 주최, 현장 방문 조직, 언론 홍보, 블로그미터(소셜미디어 반응)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특별대담] 윤리적 금융의 원칙

연사대상 질문:

전환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금융부문의 관계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금융의 역할에 대한 연사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거버넌스는 중요합니다.

- 기업의 거버넌스를 넘어
 - 도전을 이해하고자 하는 구조 및 과정
 - 윤리적 관리감독 체제
- 협력적 문화는 내부의 단결을 증진한다.
 - 공정한 원격근무
 - 일반적인 전문적 책임을 넘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
- 적법한 운영은 필수이다.
- 회원(가치 보유자)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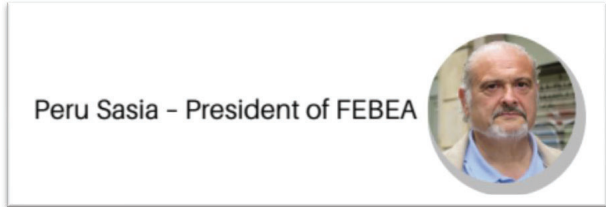
사회의 맥락에 따른 활동

- 옹호활동
- 문화활동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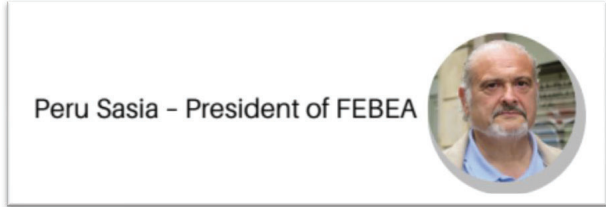
Session Description [Featured Discu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Session Description: [Featured Discu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Pedro Manuel Sasia)
Introduction of FEBEA – background, brief history, main actions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Examples of ethical banking and how the bank apply and utilize the principles to their businesses
 Impact of the ethical banking

HISTORY OF FEBEA



Session Description: [Featured Discu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Pedro Manuel Sasia)

Introduction of FEBEA – background, brief history, main actions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Examples of ethical banking and how the bank apply and utilize the principles to their businesses

Impact of the ethical banking

Restriction

- *Negative screening to certain credit activities*

Specialization

- *New services adapted to social demands (microfinances, crowdfunding, local credit coops, seed capital, mutualities...)*

Revision of the internal social value of the financial activity

- *Focus on a new business models (transparency, compensation schemes, tax havens, speculation, local community, governance...)*

Promotion of responsible citizenship

- *Responsible consumption of financial products*
- *Political engagement in social&environmental issues*

How emerges an EEFF Project?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Session Description: [Featured Discu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Pedro Manuel Sasia)

Introduction of FEBEA – background, brief history, main actions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Examples of ethical banking and how the bank apply and utilize the principles to their businesses

Impact of the ethical b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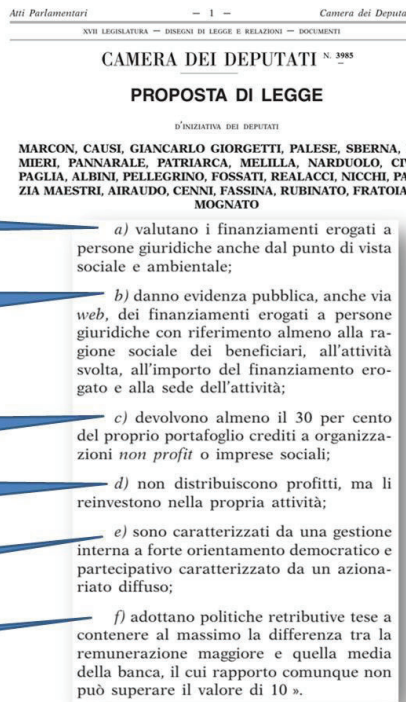
- Money at the **service of Common Good**
- Ethical finance credit activities always seek to achieve a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added value.**
- Ethical finance money is **transparent.** It comes from the real economy and **goes back into the real economy.**
- An ethical bank **does not aim solely at profit.**
- Ethical banks **refuse speculation** in short-term financial transactions or investments in countries or operations that do not share their vision of society.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Session Description: [Featured Discu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Pedro Manuel Sasia)
 Introduction of FEBEA – background, brief history, main actions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Examples of ethical banking and how the bank apply and utilize the principles to their businesses
 Impact of the ethical banking



A stimulating example

- ESG evaluation of all the credits
- Information (also via Web) of all the financing activity
- More than 30% financial activity dedicated to Social Economy projects
- No distribution of dividends. Profit is reinvested in own activity
- Difuse governance
- Max/Average salary ratio under 10:1



Session Description: [Featured Discu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Pedro Manuel Sasia)
 Introduction of FEBEA – background, brief history, main actions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Examples of ethical banking and how the bank apply and utilize the principles to their businesses
 Impact of the ethical banking

- The pillars for **Legitimacy**
 - A solid core of promoting organizations + individuals
 - Social accountability
 - Public Statement of Core values and Mission
 - Some financing “experiments” from the beginning
- The pillars for **Motivation**
 - Participation of the socio-structure
 - Storytelling of outcomes
 - Cultural activity
 - Engagement in campaigns with allies and founding organizations
 - Promoters (and followers) have clear ideas about what “value” means
- The pillars of **Capacity**
 - Instrumental capacities (equipment, resources, know-how)
 - Support Networks
 - Non for profit: Economic utility as a mean

Key strategies



Session Description: [Featured Discu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Pedro Manuel Sasia)

Introduction of FEBEA – background, brief history, main actions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Examples of ethical banking and how the bank apply and utilize the principles to their businesses

Impact of the ethical banking

- **Dense cooperative network:**
 - Participation and Co-responsibility
 - On-line and face to face continuous interaction
- **Not only intermediation, but a System:**
 - Continuous cultural work
 - Advocacy
 - Para-banking activities to respond to some credit needs
- **Networking** with other allied social actors (university, administrations, trade unions, civil society...)

Organisational “DNA”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Session Description: [Featured Discu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Pedro Manuel Sasia)

Introduction of FEBEA – background, brief history, main actions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Examples of ethical banking and how the bank apply and utilize the principles to their businesses

Impact of the ethical banking

- **Social & Environmental evaluation** of all credits (external verification)
- **One person – one vote**
- Control of compensation schemes (**salary ratios**)
- **Gender** quotes in Governance
- **Board of Member Organisations**, which brings together main organizations, such as the founding members and the new members that have gradually become important for the project.
- **Unique expertise** in high social impact areas (high quality portfolios)
 - Cohousing
 - Workers buyout
 - Renewable...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Session Description: [Featured Discu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Pedro Manuel Sasia)

Introduction of FEBEA – background, brief history, main actions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Examples of ethical banking and how the bank apply and utilize the principles to their businesses

Impact of the ethical banking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Session Description: [Featured Discu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Pedro Manuel Sasia)

Introduction of FEBEA – background, brief history, main actions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Examples of ethical banking and how the bank apply and utilize the principles to their businesses

Impact of the ethical banking

Impact Appetite Framework

In Italy, Banca Etica developed an impact measurement methodology in 2018 inspired by the Risk Appetite Framework (RAF) set out in the supervisory rules. It then defined its own Impact Appetite Framework (IAF), a tool to continuously monitor activities in terms of socio-environmental impact, produced quarterly and available to the board of directors. The 'framework' in the title contains measurable socio-environmental indicators, each of which links to a defined goal that the board intends to pursue ('appetite').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Session Description: [Featured Discu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Pedro Manuel Sasia)

Introduction of FEBEA – background, brief history, main actions

Values and Principles of Ethical Banking

Examples of ethical banking and how the bank apply and utilize the principles to their businesses

Impact of the ethical banking

Impact Appetite Framework → Indicators

- **Environment:** financing for combating climate change, financing for waste management, financing for organic farming, direct emissions of CO₂ by the bank.
- **Rights:** financing for social assistance, job placements generated by financing, loan/funding ratio in provinces at risk of financial exclusion, financing for social housing, investment in microfinance in Italy, financing of non-profit organisations, jobs generated by financing.
- **Governance:** internal salary range of the bank, active shareholders, voting shareholders, gender equality in positions of responsibility in the bank, rate of resignation/dismissal in the bank in the previous year.
- **International peace and justice:** financ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microfinance, impact investments.
- **Promotion of ethical finance:** number of public events organised by the bank and shareholders, participants in public events, unique visits to the site, press coverage, Blogmeter (impressions on social media).



Session Description: [Featured Discussion: Principles of Ethical Finance]

Questions to 2 speakers:

What will be your advice to the actors in financial sector striving to overcome difficulties in the times of transition and thinking what should be the role of finance.

GOOD GOVERNANCE IS IMPORTANT

- Beyond Corporate governance
 - Structures & processes aimed to understand the challenges
 - Ethical surveillance mechanisms
- Cooperative culture boosts internal solidarity
 - Fair teleworking
 - Exceptional efforts beyond usual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are often required
- Legitimated management is vital
- Participation of members (Value-holders)

ACT ON THE CONTEXT

- Advocacy
- Cultural

Peru Sasia - President of FEBEA



특별대담 - 토론문

**FEBEA 윤리적 은행의 5 Pillars
& 25 Criteria에 대한 몇가지
세부질문**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자문위원,
CFA)

FEBEA 윤리적 은행의 5 Pillars & 25 Criteria에 대한 몇가지 세부질문

FEBEA 대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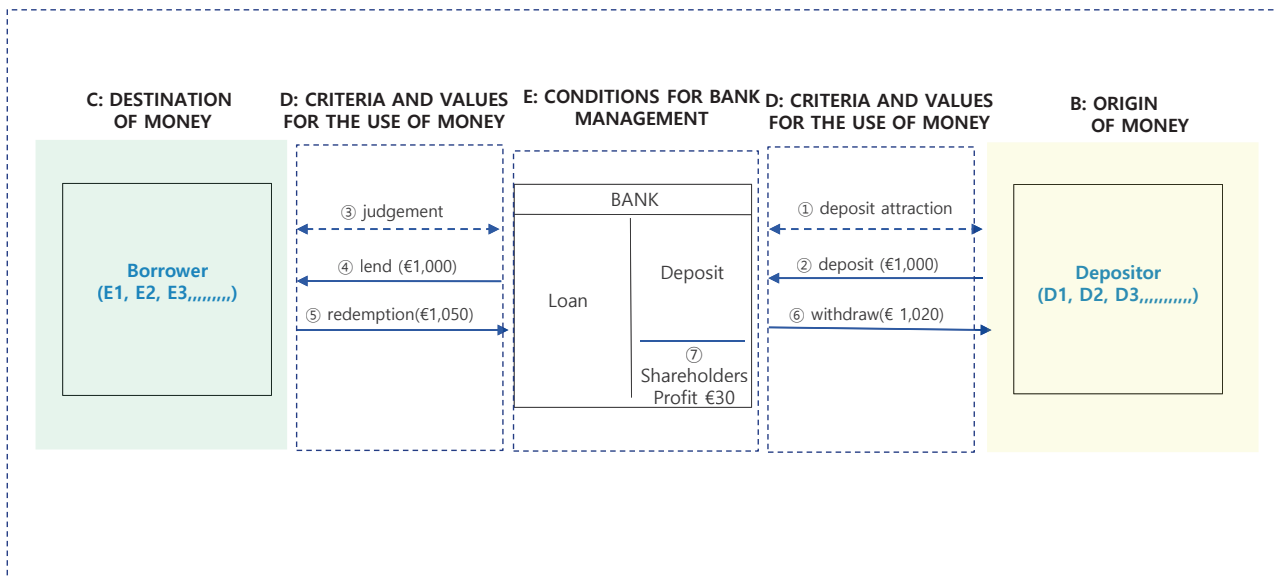
May 26th, 2023

김정현, CFA, 자문위원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FEBEA의 5 Pillars and 25 Criteria

FEBEA의 5 pillars와 25 criteria를 보면, 5가지 pillars는 i) 은행은 사회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깊은 통찰위에, 은행업무의 각 영역, 즉, ii)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iii) 돈을 누구에게 사용할 것인가, iv) 이런 활동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돈을 할당할 것인가 v) 이런 활동을 지배하는 거버넌스 구성과 경영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25가지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자세하게 이해해보려는 맥락에서 25가지 기준들을 기존은행의 원리와 비교해보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A: ROLE OF AN ETHICAL BANK



A. ROLE OF AN ETHICAL BANK

Pillar	Ethical Bank	Commercial Bank	Ques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리적인행은 사회속에서 뭐하는 곳인가? 윤리적인행은 은행기능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그 목표가 일반 은행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Common Good)을 위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을 모으고 분배하는 은행의 기능을 통해서 문화적, 환경적, 사회적프로젝트가 신용을 공여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 이런 활동을 통해 i) 사회적포용성, 지속가능한발전, 사회적경제의 발전, 사회적기업가정신을 증진하는 것 ii) 돈의 역할과, 단기적이고 수익성만을 유일한 목표로 하는 경제의 실패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높이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기능은 자금이 남는 곳(예금자)에서 자금이 부족한 곳(차입자)을 연결시키는 것(기능적정의, 가치중립) 이러한 기능이 시스템적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감독체계를 구성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이 높은 경제 부분에 단/장기 자금 공급 이러한 시스템을 제공한 댓가로 얻는 이익(대표적으로 예대마진)은 Equity 제공자(주주)에 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FEBEA의 헌장을 보면, 원래 은행은 윤리적인행이어야 한다는 내용(헌장에, 현재 은행들이 20세기초부터 그 본래의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표현 등..)이 보인다. => Q1: FEBEA, 또는 FEBEA의 회원은행은 일반은행들이 모두 윤리적인행들로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반은행들 속에서 의미 있는 영역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이후, 은행의 "공공"적(윤리적인행의 "공익"과는 다른 의미, 즉 "망하게 놔두기에는 너무 크고, 그 기능이 중요하고, 은행시스템이 무너지면 경제가 망한다"는 논리로) 성격이 부각되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살렸다. => Q2: 윤리적인행의 기준에서,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한 평가나 아쉬움은?

B. ORIGIN OF MONEY

Pillar	Ethical Bank	Commercial Bank	Ques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로부터 예금을 받고, 자본을 유치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물경제의 활동으로 축적된 고객의 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rty Money는 예금이나 자본으로 받지 않음 => Dirty Money에 해당되는 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활동으로 조성된 돈 범죄집단이나 마피아의 돈 군수산업 고 오염유발산업 은닉자금(undeclared Mone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특정 다수 예금유치를 위한 경쟁, 기본적으로 예금을 넣느냐 마느냐는 예금자의 선택 자금출처에 대한 검증은 존재하지만, 예금자가 누구냐에 따라 예금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지는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Q3: Dirty Money는, 특히 예치자가 개인인 경우에,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해당 돈이 dirty money인지를 확인하나? Q4-1: 과거에는 그 산업에 종사하여 돈을 벌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산업과 절연하는 기업의 돈은 예치하는가? Q4-2 혹은 그렇게 조성된 돈이라도, 예치과정이 투명하고, 예치의 대가로 은행과 뒷거래가 없으면 예치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돈은 가치중립적이고 사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 Q4-3 실물경제활동이 아닌 파생상품투자로 돈을 번 금융가의 돈은 예치하는가?

C. DESTINATION OF MONEY

Pillar	Ethical Bank	Commercial Bank	Questions
<p>➤ 누구에게 대출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환경적,문화적이익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활동”에 신용을 공여함. 이러한 목적은 특히 비영리기관을 통한 지원을 통해 달성함.=> 취약계층, 빈곤 지역, 사회적통합과 고용증진에 헌신 • 대출대상과 파트너십관계 • 경제적임팩트와 사회적·환경적임팩트를 분리하지 않고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 경제적평가외에 자세한기준에 따른 사회적·환경적평가 수행=>윤리적인행은 조성된 자금의 90%이상을 이러한 평가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배분 • 윤리적인행은 자신이 행한 사회적·환경적임팩트를 체계적으로 평가 • 이러한 복합적인 평가는 은행의 위험을 낮추는 역할로 인식 •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담배, 도박,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무기, 원자력, 음란물, 폭력으로 이루어진 생산물, 동물학대, 억압적정부와의 협력, 인권침해 등)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음 • 마이크로크레딧을 통한 자영업자, 청년, 여성기업가의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가짐 • 윤리적인행은, 이러한 모든 가치를 지역/국가적차원에서 지지할뿐 아니라, 국제연대의 원리로 외국에서 구현되는 것을 지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하는 활동에 신용공여 • 대출대상과 평가자,평가대상자관계 • 사회적·환경적임팩트는 부가적인요소, 경제적임팩트와 분리 • 사회적·환경적평가는 별도의 ESG활동으로 분리해서 리포팅 •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홍보활동으로 간주 •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야의 범위가 좁음 • 대형기업 선호, 청년,여성기업가등은 사회공헌차원에서 지원 • 국내적으로 경쟁, 국제연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5: 대출대상과 파트너십관계라는 것은, 대출교섭시, 내부심사시, 대출이 나간이후 상환까지, 상환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가? ✓ Q6-1: 윤리적인행이 사회적·환경적인임팩트를 평가할때, 회원사들 공통으로 적용했으면 하는 권고하는 tool이 있는가? ✓ Q6-2: 임팩트에 대한 공통의 평가 또는 각기 다른 임팩트 평가에 대해 그것이 맞다고 확인해주는 별도의 인증 기관이 있는가? ✓ Q6-3: 복합적인(사회적,환경적,경제적) 평가가 은행의 위험을 낮춘다는 확신을 얻은 좋은 사례를 소개해 줄 수 있나? ✓ Q7: FEBEA나 FEBEA의 회원은행들은, 윤리적인행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확산을 위한 액션플랜이나 프로그램이 있는가?

D. CRITERIA AND VALUES FOR THE USE OF MONEY

Pillar	Ethical Bank	Commercial Bank	Questions
<p>➤ 자금을 사용(대출, 투자)할 때 기준이 되는 것과 가치들은 어떤 것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는 투명하게 다루어 짐 (몇몇 윤리적인행들은 예금고객에게 그들의 예금의 일부가 투자에 할당되는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 • 윤리적인행의 사업모델은 주로 전통적인 은행활동인 예금과 대출로 이루어지고, 모아진 돈의 대부분은 신용활동에 사용됨 • 하나의 대출건 금액은 자체자금 규모의 15%를 최대한도로 함. • 대출시 담보나 보증외에 해당대출이 일어나는 지역의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개인적, 사회적보증도 고려한다. • 윤리적인행은, 높은 수준의 금융자유화가 있는 나라에 재정적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지 않음. 반대로 이러한 나라에 있는 윤리적인행의 존재는 투명한 금융관행과 절차의 지지와 확산을 위한 기반이라고 인정 => 윤리적인행은 은닉자금을 받지않고, tax haven을 통해 세금절감하는 고객을 들지 않음. • 단기적인 투기거래(고객을 위한거나, 은행자체의)를 하지 않고, 실물경제에 대한 장기적인 접근, 파생상품거래나 신용목적의 매매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익은 주로 대출에 부과된 이자로 만들어짐. • 고객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자율적으로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에 적극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투자의사결정에 예금고객이 참여하는 경우나, 통로는 존재하지 않음. • 수익성제고를 위해 예대마진뿐 아니라, 투자, 수수료를 받는 사업모델로 확장 • 동일인여신한도는 개별은행 자기자본의 20% • 사회적 보증 개념 없음 • 재정적목적으로 tax haven지역에 회사설립 빈발 • 위험해지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신용안정목적의 신용상품거래 일반적 • 절세상품을 만들어 고객에 제공하는 것을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우위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8: 예금고객이 은행의 투자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수준이, 은행이 투자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할당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개별투자건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인가? ✓ Q9: 모아진 돈의 대부분을 전통적인 예대업무로 수행하는 이유는? ✓ Q10: 자체자금 규모의 15%한도는 유럽의 다른 일반은행의 한도에 비해 높은 것인가 낮은 것인가?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 Q11: 사회적보증은 보증을 해주는 주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로 인정하는 것인가? ✓ Q12: 파생상품이나 신용목적의 trading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한 운용을 위해?, 아니면 고려되는 다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Q13: 일반은행의 세금절감목적의 여러 행위나, 고객에 절세의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어떤 윤리적인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E. CONDITIONS FOR BANK MANAGEMENT

Pillar	Ethical Bank	Commercial Bank	Questions
<p>▶ 은행경영부분에서 윤리적인행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조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은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수익 동기를 위한 활동은 주목적이 아님 • 공정한 이익(적정이익?)은 은행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활동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이를 위해 자기자금에 대한 보상에 한도를 설정, 이익의 대부분은 고유의 목적을 위해 재투입됨 • 윤리적인행은 그 설립된 지역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고, 이것은 그의 고객과 돈이 공급되는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게 해줌 • 항상 직원, 주주, 회원이 은행의 경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것이 수용되는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며, 이러한 참여가 은행의 경영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코드화된 절차와 규정으로 정립된 문서로 보장되어야 함 • 투명성은 윤리적인행의 근본적 가치임. 예금출처와 돈 사용, 은행의 신용상태, 사업운영에 관한 투명성을 모두 포괄. 이러한 투명성은 특히 고객들에게 보장되어야 함. •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경영, 그렇게 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의 원칙을 참조할 수 있음. • 직원급여(연봉+ 상여금)는 최고와 최소의 격차한도는 7:1이며, 임금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직원들의 임금을 연차로 공표함 • 은행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가 없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경영은 은행기능의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 정부의 정책적 고려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수익성이 기본원칙이고 이는 주주를 위한 것 • 수익은 주주에 배당하거나(최근 높이는 사회여론) 은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또다른 수익을 위해 재투자 • 신탁,농협,새마을금고등 협동조합은 행이나, 지역공고를 제외하고는 전국적네트워크를 가진 일반은행의 지역지점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없음 • 직원의 경영참여는 거의 없음, 회원으로 구성된 공제회같은 기관은 총회등을 통해 영향을 끼침 • 법상 규정상 요구되는 한도내에서 공개 •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은행산하 재단 등을 통해 사회적 공헌관점에서 참여, 경영자체에 사회적책임을 경영기본원리로 채택하지는 않음 • 최고/최소 임금간의 격차에 대한 한도 규정 없음 • 한국의 경우 시중은행은 동일인 주식 소유한도는 의결권주식의 10%(지방은행은 15%), 비금융주력자의 소유 한도는 의결권부주식 4%(무의결권부포함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14: "Fair Profit은 어떻게 정의되나? 그 실제적 수준은 총 자금 운용금액의 몇%수준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운영비용정도만 총당되는 각 은행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으로 규정되는가? ✓ Q15: 지역경제와 사회적경제네트워에 깊이 뿌리내려 일반은행이라면 할 수 없는 프로젝트에 돈이 공급되어 더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를 소개 ✓ Q16: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여 윤리적인행의 목적달성에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례 소개 ✓ Q17: 투명성의 관점과 개인비밀 정보보호와 상충되는 측면은 없나? ✓ Q18: 혹시 최근에 은행내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최소급여와 최대급여차이를 좁히려는 추세인가, 넓히려는 추세인가? 어느 쪽이든 그 이유는 무엇인가? ✓ Q19: 나머지 24개 조건을 충족 하더라도, 지배주주가 존재하면 윤리적인행으로 정의될 수 없는가?, 이 지배주주의 존재여부가 왜 그렇게 결정적인가?

T11. 투명성 트랙 - 패널 토론 / 5.25 (목) 11:00



문철우 좌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G7코리아 ESG금융위원장

Moon, Chul Woo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Chairperson, G7 Korea ESG Committee



윤재숙 발제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

Yun, Jae Suk
Director General of ESG Policy & Disclosure,
KRX

한국은 2025년 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 채널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국내에서 ESG 금융을 먼저 시작한 기관들과 함께 각 분야별 실천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논의한 후,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책 과제를 짚어 봅니다.

ESG금융 실천 동향과 전망

5.25 (목) 11:00~12:2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이 세션은 한국거래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KRX 한국거래소

삼성생명



황소영 발제
신한은행 ESG기획실장

Hwang, So Young
Director, Department of ESG Strategy, Shinhan Bank



김동양 발제
NH투자증권 이사

Kim, DongYang
Researcher, NH Investment & Securities



정우용 지정토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Jung, WooYong
Vice President on Polices,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정도진 지정토론
중앙대학교 교수

Jung, DoJin
Professor, Joongang Univ.

ESG 금융 실천 동향과 제도화 과제

ESG 공시 의무화 준비 현황과 과제

윤재숙
(한국거래소 ESG지원부장)

K O R E A E X C H A N G E

ESG 공시 의무화 준비 현황과 과제

KRX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목차

K O R E A E X C H A N G E

1. ESG 공시 개요
2.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현황
3.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준비 현황
4.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과제

KRX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K O R E A E X C H A N G E

1. ESG 공시 개요



1. ESG 공시 개요

- |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투자, 평가 전반의 시장 형성 및 제도화 움직임이 진행 중
- ESG 공시는 ESG 평가 및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ESG 금융의 필수 요소
 - 공시-평가-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1. ESG 공시 개요

I 글로벌 이니셔티브 현황

- ESG 공시는 2000년대 이후 비재무정보의 공개 표준이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
- 강제성 없는 자율적 지침으로, 기업들은 GRI, TCFD, SASB 등 다양한 기준을 선택하여 활용

【 ESG관련 대표 글로벌 이니셔티브 현황】



(출처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ESGATOZ」, 2021)

1. ESG 공시 개요

I 최근 ESG 공시 동향

- 국가 및 지역별 ESG 공시 제도화 움직임
 - 유럽 및 미국 등에서 ESG 공시 의무화 추진 중
 -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을 계획



IFRS재단 산하 ISSB 설립

- IASB*와 별도로 단일의 글로벌 지속가능보고기준 제정 목적
 -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K O R E A E X C H A N G E

2.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현황

- 1) EU
- 2) 미국(SEC)
- 3) ISSB



2.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

I EU

- NFRD, CSRD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ESRS)를 마련하여 제시
 - EU 지침(Directive)으로, 각 EU 회원국들은 EU 지침을 반영하여 국내법 마련 필요

〈EU의 ESG 관련 주요 제도 개요〉



2.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

EU

NFRD	CS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 EU 회원국 기업들의 ESG 정보 비교 가능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정 ('14.10월) ○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기업*을 대상으로 '17년 회계연도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수 500인 이상 & 자산총액 2천만유로 이상 등의 상장기업 및 은행·보험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기존 NFRD*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개정안 성격의 공시지침 제정('2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된 공시기준 부재(자율선택), CoE(Comply or Explain) 방식 등 다소 완화적 ○ 보고대상 기업은 EU 상장·비상장 대기업 및 일부 외국기업 ○ 부속규범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SRS) 도입 예정

2.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

EU

ESRS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EC로부터 위임 받은 '유럽 재무보고 자문그룹(EFRAG)'이 CSRD가 규정하는 지속가능성 공시지침을 구체화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ESRS)' 초안을 발표('22.5월)
- 현재까지 발표된 ESRS 기준은 **공통기준(2개)** 및 **주제별 산업무관 공시기준(10개)**을 제시

포괄적 공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SRS1 (일반요구사항) ESRS2 (일반공시사항) 						
주제별 산업무관 공시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2bc;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환경</td> <td style="padding: 5px;">기후변화, 오염, 물 · 해양자원, 생물다양성 · 생태계, 자원사용 · 순환경제</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2bc;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사회</td> <td style="padding: 5px;">기업의 노동자, 밸류체인 내 노동자, 지역사회, 소비자·최종사용자</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2bc; color: white;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거버넌스</td>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비즈니스 수행</td> </tr> </table>	환경	기후변화, 오염, 물 · 해양자원, 생물다양성 · 생태계, 자원사용 · 순환경제	사회	기업의 노동자, 밸류체인 내 노동자, 지역사회, 소비자·최종사용자	거버넌스	비즈니스 수행
환경	기후변화, 오염, 물 · 해양자원, 생물다양성 · 생태계, 자원사용 · 순환경제						
사회	기업의 노동자, 밸류체인 내 노동자, 지역사회, 소비자·최종사용자						
거버넌스	비즈니스 수행						

- '23.6월까지 최종 공시기준 확정 예정이며, 산업별 공시기준은 개발 중

2.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

I EU

● '25년부터('24회계연도) 단계적으로 CSRD 지침 준수 필요

- 단, EU회원국들은 CSRD에 따라 별도 국내법을 마련할 예정으로 국가별 공시대상 및 시기 등은 CSRD 지침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EU CSRD 공시 대상회사 및 시기 】

구분	대상회사	의무공시시기
1	NFRD 요건 해당 기업 (일정규모(大) * 이상의 EU 상장기업)	FY24 ('25년 공시)
2	EU 소재 대기업 (일정규모(大) ** 이상의 EU 상장·비상장기업)	FY25 ('26년 공시)
3	EU 소재 중소기업 (일정규모(中小) 이상의 EU 상장·비상장기업)	FY26 ('27년 공시)
4	EU 매출액이 최근 2년 동안 연간 1억5천만유로 이상인 非EU기업, EU에 일정규모 이상의 종속기업이나 지점을 보유한 非EU기업	FY28 ('29년 공시)

* ①근로자수 500인 이상이고, ②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

** ①근로자수 250인 이상, ②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③자산총액 2천만 유로 이상 중 2가지 이상 충족 기업

2.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

I 미국(SEC)

● 美 SEC(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 의무화 초안을 발표('22.3월)

- '24년부터('23 회계연도)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의무 적용 계획
- 기존에도 공시의무('09년 환경, '20년 사회·지배구조)는 있었으나, 공시대상 정보 등을 기업 자율에 맡겨 실효성은 낮았음
 - 기후 관련하여,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가이드스('10년)」도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음

●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규정(Regulation S-K*)을 통해 상장기업에 법정공시 의무를 부여

* 증권법(1933) 및 증권거래법(1934) 등을 근거로 한 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SEC 규정

※ SEC는 1933년 증권법(발행시장 공시의무 규율) 및 1934년 증권거래법(유통시장 공시의무 규율) 상의 공시사항을 통합하여, 재무제표 관련 사항은 Regulation S-X, 비재무정보 관련 사항은 Regulation S-K를 통해 규율

2.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

미국(SEC)

SEC 기후공시 초안 주요내용

- TCFD 및 GHG 프로토콜에 따라 Regulation S-K 하위 항목을 신설, 기후공시 사항 명시
- 공시대상은 모든 상장기업(미국에 상장된 해외기업 포함)
- 온실가스배출량(Scope 1·2·3) 공시시기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Scope3에 대해서는 면책조항 도입
- Scope 1·2 공시에 대해서는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 '24년 제한적 검증부터 적용 후 '26년부터 합리적 검증으로 강화
- 제3자 검증인 또는 검증기관의 자격요건*을 규정

* ① 법적 요건을 이행하고, 의견서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온실가스 배출 측정, 분석, 보고 및 검증 관련 풍부한 경험(전문성)이 있을 것 ② 기관인 경우 합리적 검증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것 ③ 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등

2.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

미국(SEC)

SEC 기후공시 초안 주요내용

【 SEC 기후공시 관련 Regulation S-K 주요 신설조항 】

Item No.	주요내용
1501	기후 관련 거버넌스 공시
1502	사업 및 일반적인 환경 관점에서 기후 관련 활동 영향 공시 - 사업 또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끼치는 단·중·장기 위험 또는 기회 - 물리적·전환 위험이 전략, 사업모델이 미치는 영향 등
1503	기후 관련 위험 식별·평가·관리 절차 포함 위험관리 전략 공시
1504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표 공시(Scope 1·2·3)
1505	Scope 1 및 Scope2 배출 공시 검증 - 전문기관에 의한 검증 보고서 제출

2.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

I 미국(SEC)

🕒 '24년부터('23회계연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및 검증 의무 단계적으로 적용

【 SEC 단계적 공시의무 적용 일정 】

	대상회사	FY23 ('24년 공시)	FY24 ('25년 공시)	FY25 ('26년 공시)	FY26 ('27년 공시)	FY27 ('28년 공시)
1	Large Accelerated Filer (유동주식 시총 7억달러 이상)	Scope 1&2	+제한적검증		+합리적검증	
			Scope 3			
2	Accelerated Filer (시총 0.75억~7억 달러 & 매출 1억 달러 이상)		Scope 1&2	+제한적검증		+합리적검증
				Scope 3		
3	Non-Accelerated Filer (시총 0.75달러 미만 또는 시총 0.75~7억& 매출 1억 달러 미만)		Scope 1&2			
				Scope 3		

2.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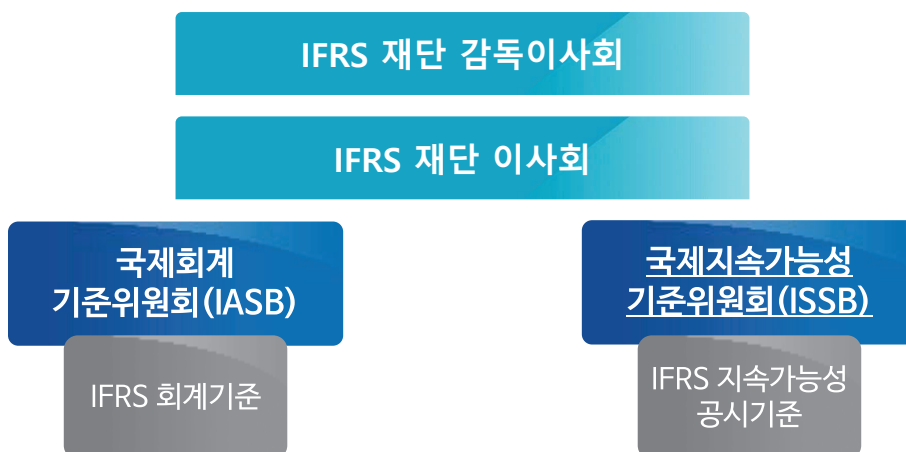
I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

🕒 IFRS 재단은 국제표준으로 활용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및 관리를 위해 ISSB를 설립('21.11월)

🔄 기존의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 기구인 CDSB* 및 VRF**와의 합병을 통해 각 기구의 핵심역량을 활용

*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 기후 및 환경 공시체계 마련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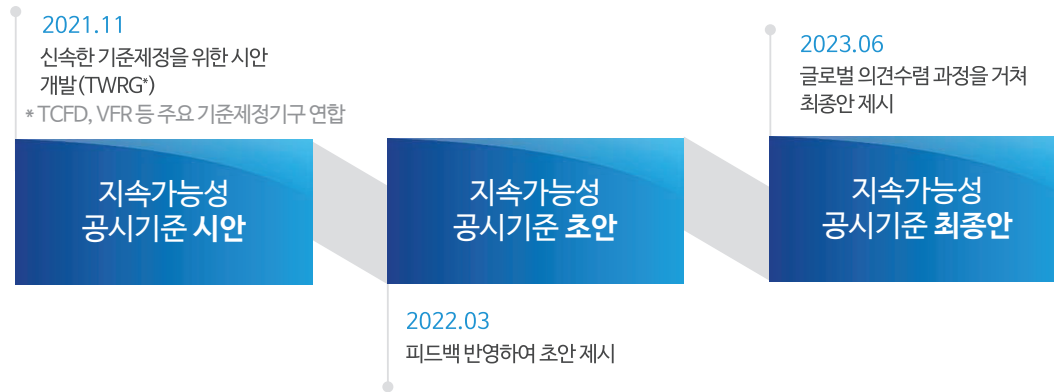
** Value Reporting Foundation : IIRC(ESG 정보와 재무성과의 통합공개 추구)와 SASB(산업별 ESG 공개지표 제시)의 통합기구



2.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

I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

- ISSB는 '23.6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 제시 예정('24년 이후 시행)
 - 도입여부 및 적용 시점은 각 국가에서 결정



-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FSB(금융안정위원회), WEF(세계경제포럼), G20 등의 지지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선(baseline)으로서 역할 기대

2.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

I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

-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 중에서도 주로 투자자 의사결정 및 기업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중심
 - ISSB는 지속가능성 기준제정 관련 4가지 전략방향을 제시

전략방향	세부 내용
투자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중이해관계자 보다 투자자중심* 정보 제공 * 재무적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슈 중심
환경·기후에 우선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 및 기후 이슈에 우선 집중 * 앞으로 생물다양성, 인권 등 세부주제 확대 계획
Global baseline 접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SSB 공시기준을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안 * 각 국가별 법령 및 규제에 따라 공시사항 추가 가능
기존 표준과의 연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관련 사항은 TCFD 권고사항을 기본으로 개발 IIRC와 SASB 통합(VRF), GRI와도 긴밀히 협력

2. 글로벌 주요 ESG 공시제도 현황

I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

● 일반 요구사항(S1) 및 기후 관련 공시기준(S2)으로 구성

○ 일반 요구사항은 TCFD 권고안을 기반으로 “핵심 공시항목” 및 “일반 요구사항”을 제시

- (핵심 공시항목)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 (일반 요구사항) 보고기업, 보고빈도 등 공시이행 관련 준수사항

○ 기후관련 공시기준은 기업이 노출된 기후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

- (공시항목) 기후 관련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 (부록B) 산업기반 공시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 대부분 SASB기준을 차용

● 생물다양성, 인적자본, 인권 등 후속 기준의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 중

K O R E A E X C H A N G E

3.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준비 현황

3.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준비 현황

I 정부의 ESG 공시 의무화 추진방안

'25년부터 KOSPI 일정규모 기업부터 ESG 공시 의무화 단계적 시행 추진

	(1단계) 거래소 공시				(2단계) 법정 공시					
적용대상	상장시장	자산 규모	'25	'26	'27	'28	'29	'30	'31	'32
	유가증권	2조원 이상	거래소		법정					
		1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거래소	법정				
	코스닥	5천억원 미만					거래소		법정	법정
5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거래소		법정		
공시기준	KSSB 간소화 기준				KSSB 일반 기준					
공시시기	사업보고서 제출일 기준 5개월 이내 (8/15)				사업보고서 제출일 기준 5개월 이내 (8/15)					
제3자 인증	제한적 인증 의무화				제한적 인증 의무화					

※ 제 3차 릴레이세미나('23.5.12)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료 중

'23년 3분기 중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 발표 예정

내용 :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국내 ESG 공시기준/ 제3자 검증체계

3. 국내 ESG 공시 의무화 준비 현황

I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 현황

금융위는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기구로 회계기준원내 KSSB 설립('23.1월)

KSSB는 ISSB의 국제 표준 마련에 대한 국내 의견 제출 및 국내 공시기준 마련 수행

〈IFRS재단 구조 vs 한국회계기준원 구조〉



K O R E A E X C H A N G E

4.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과제



4.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과제

I 기업 우려사항

-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 증대
 - 보고서 기획 및 작성에 매년 상당 금액이 소요되며, ESG 전략 마련 등으로 컨설팅 범위 확대시 비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ESG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경우 비용 추가 상승 우려

-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법적 부담 증대
 - 측정이 어렵거나 예측 정보가 많은 ESG 정보 공시 의무화할 경우, 공시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기업의 법적 리스크 증가 우려

4.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과제

I 거래소 등 유관기관 과제

● ESG 공시 컨설팅 지원

- 국내기업의 ESG 공시 컨설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검토 필요
- 유관기관의 기업 컨설팅 확대 제공(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 글로벌 공시기준 국문 번역자료 및 작성지침·모범사례 제공

- ISSB, 유럽(EU) 등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국문 번역 자료 제공
- 원활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작성지침·모범사례 등 제공 필요

● 투자자를 위한 ESG 정보 실효성 제고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기업별 ESG 정보의 비교가능성 제고

감사합니다

K O R E A E X C H A N G E

ESG 금융 실천 동향과 제도화 과제

신한의 지속가능금융 현황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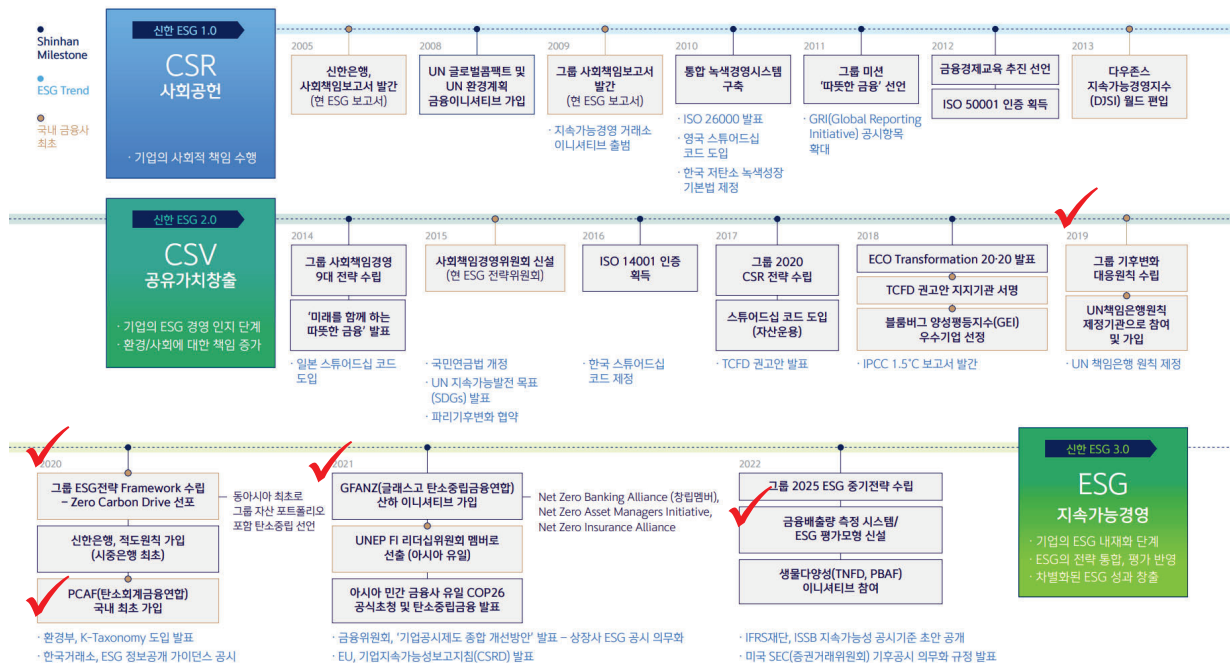
황소영
(신한은행 ESG기획실장)

[사례 보고]

신한의 지속가능금융 현황과 과제

황소영, 신한은행 ESG기획실장

I. 신한금융그룹의 ESG Milestone



II. 신한금융그룹의 핵심 ESG 전략: Net Zero, 친환경금융, 상생금융

신한 ESG 바(바르게), 빠(빠르게), 다(다르게)

ESG 슬로건 | Do the Right Thing for a Wonderful World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전략방향	친환경 DO THE GREEN THING for a Wonderful World	상생 DO THE BRAVE THING for a Wonderful World	신뢰 DO THE FAIR THING for a Wonderful World
5대 Impact 과제	✓ Zero Carbon Drive 탄소배출량 감축과 상쇄로 탄소 배출 Zero화 추진 ✓ 신한 Green Way 친환경 금융 확대	Triple-K 국내 스타트업 육성 통한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 ✓ Hope together SFG 금융을 통한 사회공헌 확대	사회 다양성 추구(SHeroes) 여성리더 육성 및 다양성 확대로 사회적 불평등 축소 금융 소비자 보호 고객 보호 관리 강화
10대 전략지표	1 친환경금융확대 2 내부 탄소배출량 감축 3 자산 탄소배출량 감축	4 혁신/뉴딜 금융 확대 5 스타트업 사업 강화 6 포용 금융 지속	7 여성 리더 육성 8 직원 만족도 제고 9 금융 교육 강화 10 고객 만족도 제고
지향점	그룹의 탄소배출량을 Zero로 만드는 0 Carbon	혁신기업 발굴/육성 통해 10개의 유니콘을 만드는 10 Unicorns	그룹과 함께 하는 모두의 만족도를 100%로 만드는 100% Satisfaction

II. 신한금융그룹의 핵심 ESG 전략: 금융배출량, 친환경금융, 상생금융

투자, 대출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즉 금융배출량 관리를 최우선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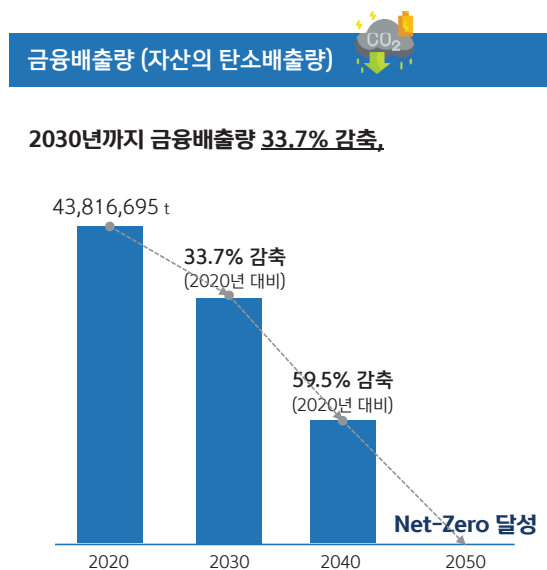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이란?

거래 기업의 총 배출량 × $\frac{\text{신한의 대출/투자 금액}}{\text{거래 기업의 총 자산}}$

예시
2020년 기준 포스코의 배출량 7,560만톤, 총 자산 56조 중 신한이 대출/투자한 금액이 5.6조원이라면
신한은 금융배출량을 7,560만t x 5.6/56 = 756만t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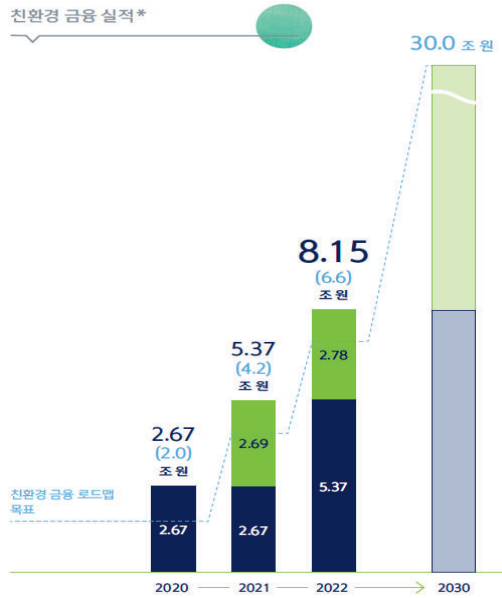
2020년 말 기준 신한이 금융배출량
4,382만 t*

*단위는 tCO₂eq를 줄인 것으로, 모든 탄소 종류를 CO₂로 환산



II. 신한금융그룹의 핵심 ESG 전략: 금융배출량, 친환경금융, 상생금융

2030년 누적 30조원을 목표로, 친환경금융 독려



CI Energy Transition Fund, CI Advanced Bioenergy Fund

덴마크의 에너지 인프라 전문 자산운용사 '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시설 투자펀드들로, 국내 금융기관 최초 그린수소 특화 펀드 투자 (각 2,500만, 1,300만 유로 투자)



General Atlantic Beyond Net Zero Fund

글로벌 성장기업에 자본 및 전략적 지원을 제공하는 미국 'General Atlantic'이 조성한 C-테크 투자 펀드 (2,000만 달러 투자)



Ascend Elements

미국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전환우선주 인수



스마일게이트 녹색성장 펀드

폐기물을 감소시켜 자원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등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40억 원 투자)

II. 신한금융그룹의 핵심 ESG 전략: 금융배출량, 친환경금융, 상생금융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상생금융 확대를 통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

RECOVERY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재기 지원

지원 규모 (2027년 목표)

15.1 조 원

2022년 실적

3.1 조 원

- 자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 채무조정 (대원대출 포함) 지원
- 금리인하 등을 통한 이자부담 완화

RESIDENCE

서민 주거 및 생활 안정 지원

지원 규모 (2027년 목표)

13.6 조 원

2022년 실적

1.8 조 원

- 주택구입 금융 지원
- 전·월세자금 금융 지원
- 취약차주 생활자금 지원

RE-START-UP

창업·일자리 지원, 청년 도약 지원

지원 규모 (2027년 목표)

4.7 조 원

2022년 실적

0.21 조 원

- 창업촉진 및 벤처 생태계 구축 지원
- 청년 자산증대 지원
- 일자리 창출 (예산: 1,675억 원)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 수행

2022년 실적

403 억 원

- 금융 사각지대 지원 (예산: 632.5억 원 + α)
-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후원 (예산: 234억 원)
- 청년층 출산·육아(교육) 지원 (예산: 372.5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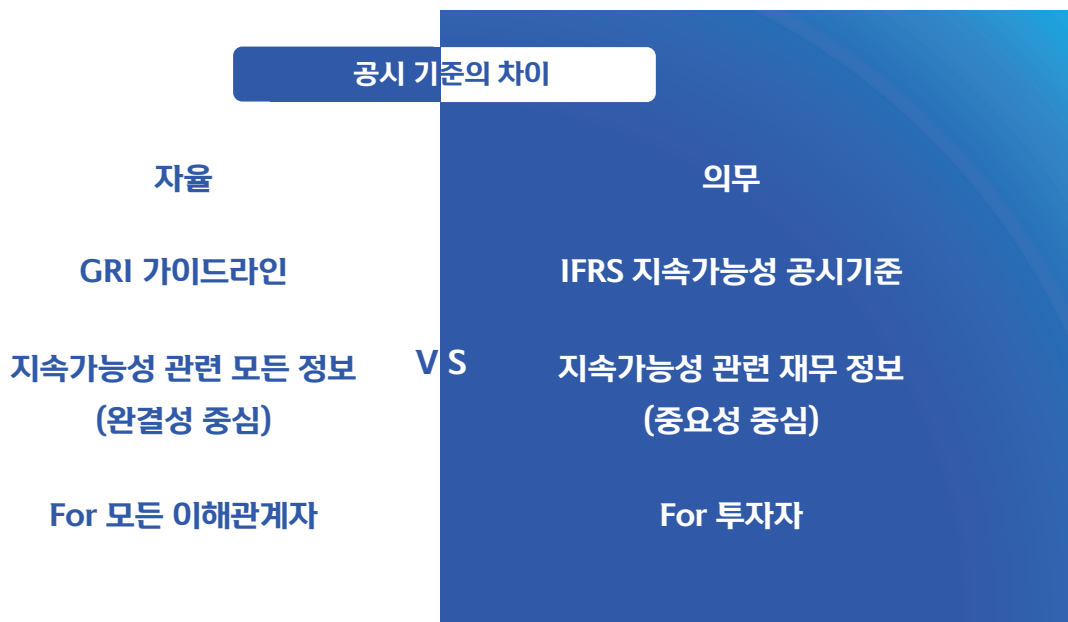


III. ESG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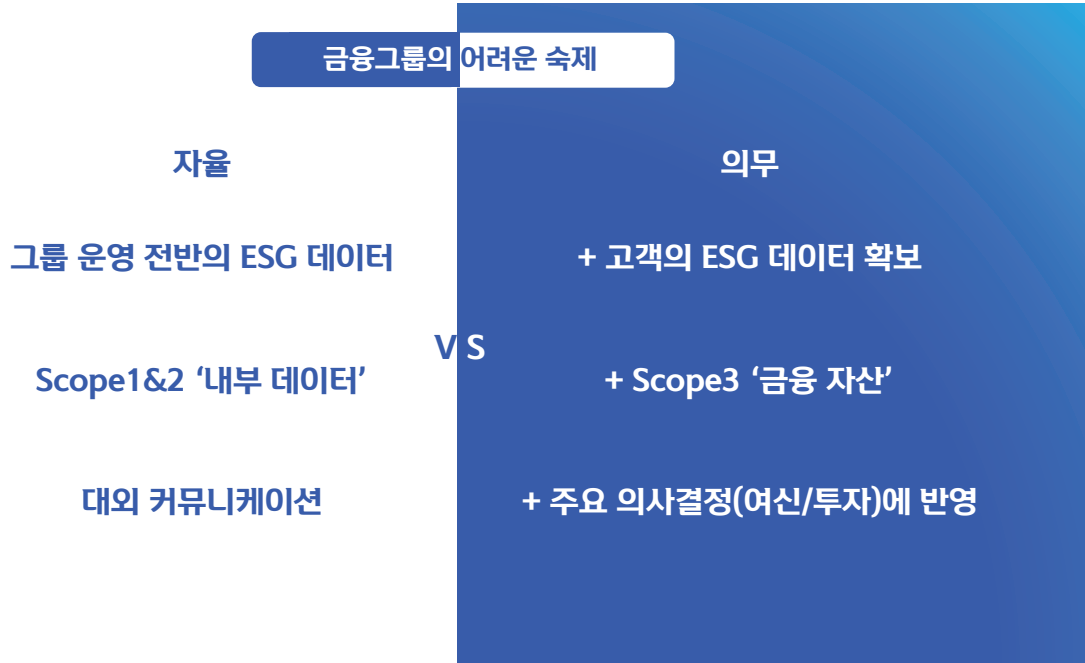


IV. ESG공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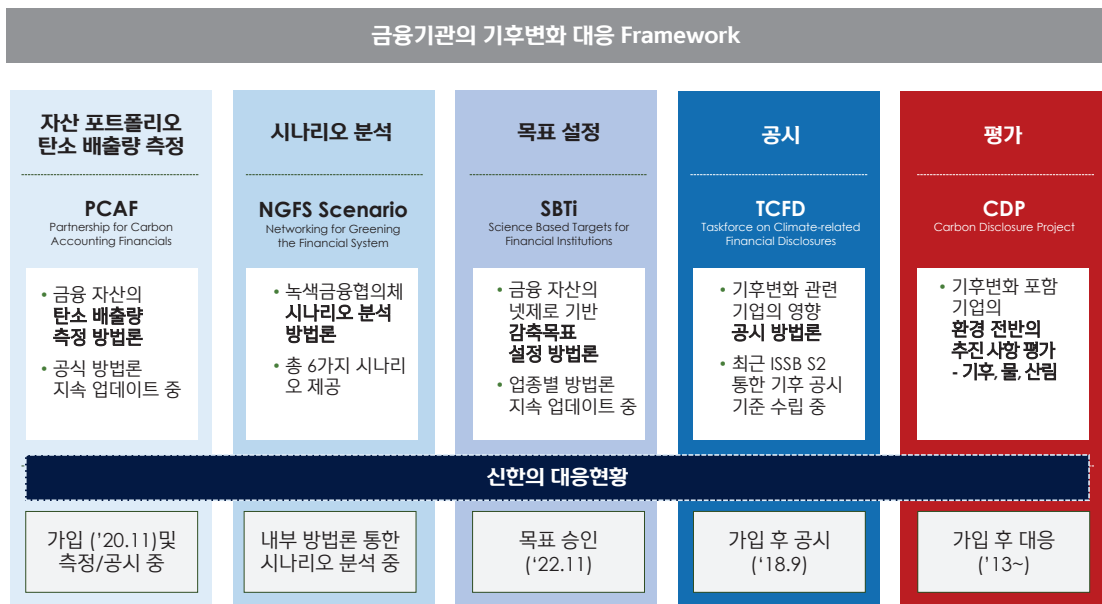
신한은 FY24년부터, IFRS*(국제회계기준원)와 SEC(美증권거래위원회)의 ESG 공시 의무화 대응 준비



IV. ESG공시 의무화 : 금융그룹의 입장



IV. ESG공시 의무화: 기후변화 대응 Framework 현황



V. 지속가능금융 Key Factor

지속가능금융을 고도화 를 위해 여전히 필요한 핵심 과제 (Key Factor)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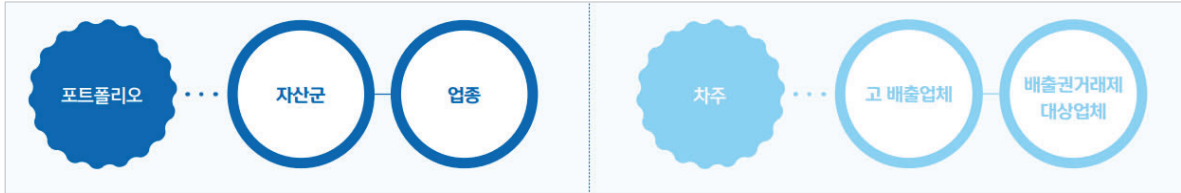
<p>탄소배출 감축 규제 강화 지속으로 고탄소 배출 기업 비용 부담 ↑</p> <p>EU -역내 수입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 조정제도 최종 합의(22.12월) → 최종안은 기존 대비 규제 수준 高</p> <p>USA -바이든 대통령, 과거 파리협정 탈퇴 사과. '30년까지 탄소배출 목표 달성 천명'(22.11월)</p> <p>→ EU, 美 규제 본격화시 국내 주요 업종 이익 급감 (철강 10%, 석유화학 5% 이상 하락)</p>	<p>고탄소배출 섹터 자금수요 확대로 익스포저 관리 중요성 ↑</p> <p>* 상장사 유동부채 증가율 ('22.3Q, yoy)</p> <p>(Fnguide)</p>	<p>금융회사 포트폴리오 내 그린워싱 기업 배제 책임 ↑</p> <p>Goldman Sachs - 美 증권거래위원회는 ESG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골드만삭스에 400만달러 과징금 부과</p> <p>RBC - 탄소 저감에 앞장선다고 과대광고한 RBC 은행에 대해 캐나다 경쟁국의 조사 진행중</p> <p>→ 美, 유럽 등 각국 그린워싱 규제 확대 → 韓 금융당국, 그린워싱 방지 위한 ESG 채권평가 가이드라인 제작(23.1월)</p>
--	---	--

★ 포트폴리오 내 고탄소배출 기업 비중 축소, 그린워싱 배제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Key Factor** 도출

<p>친환경 포트폴리오 구축 체계화를 위한 3가지 Key Factor</p>	1	Seg.별 탄소배출 감축 목표 및 금융지원 기준 정교화	} 고탄소기업 비중 축소, 그린워싱 배제
	2	친환경 전환 자금수요 발굴 및 상품·솔루션 고도화	
	3	친환경 인프라 투자 수요 및 관련 기술 주목	} 환경 친화적 수익기반 확대

VI. [준비현황/과제①] 금융배출량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ESG대시보드 운영/ 모니터링 이행



리스크 구분	익스포저			금융 배출량				집약도			
	2020.12	2021.12	2022.10	2020.12	2021.12	2022.10	참고수준	2020.12	2021.12	2022.10	참고수준
업종 A	10조	12조	13조	100만톤	130만톤	160만톤	●	35.0톤	37.5톤	43.0톤	●
업종 B	8조	9조	11조	10,000톤	3,500톤	15.0톤	●	10.5톤	10.0톤	9.5톤	●
업종 C	13조	10조	8조	30,000톤	7,000톤	18.0톤	●	17.5톤	18.0톤	18.3톤	●

VI. [준비현황/과제②]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고도화

분석 방법론

- ▶ 한국은행 분석 결과 및 NGFS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미래 시점 기업의 재무 정보를 예측하고, 탄소배출비용을 영업비용을 추가 반영하여 신용등급 변동을 파악
 - ☞ 온실가스 배출량 기반, 탄소 가격(배출권, 탄소세 등)을 곱하여 탄소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영업 비용에 반영
- * NGFS 시나리오 상 한국GDP, 탄소가격 등을 반영하여 기업의 자산, 수입 및 비용 등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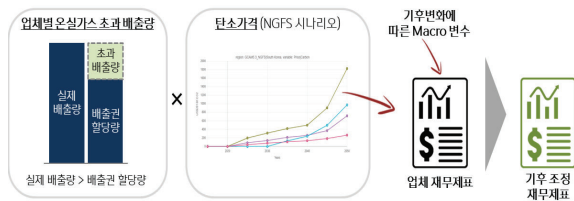
개선대상

- ✓ **업권별 차별적인 수요/공급변화 반영 필요**
 - 에너지, 화석연료 관련 업권 등의 수요/공급 변화는 반영되지 않고 성장 수준이 동일하게 반영
- ✓ **개별업체의 대응 수준,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미반영**
 - 온실가스 저감 기술 수준 및 경쟁력,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등 업체별 차별적 대응 수준은 미반영

향후 개선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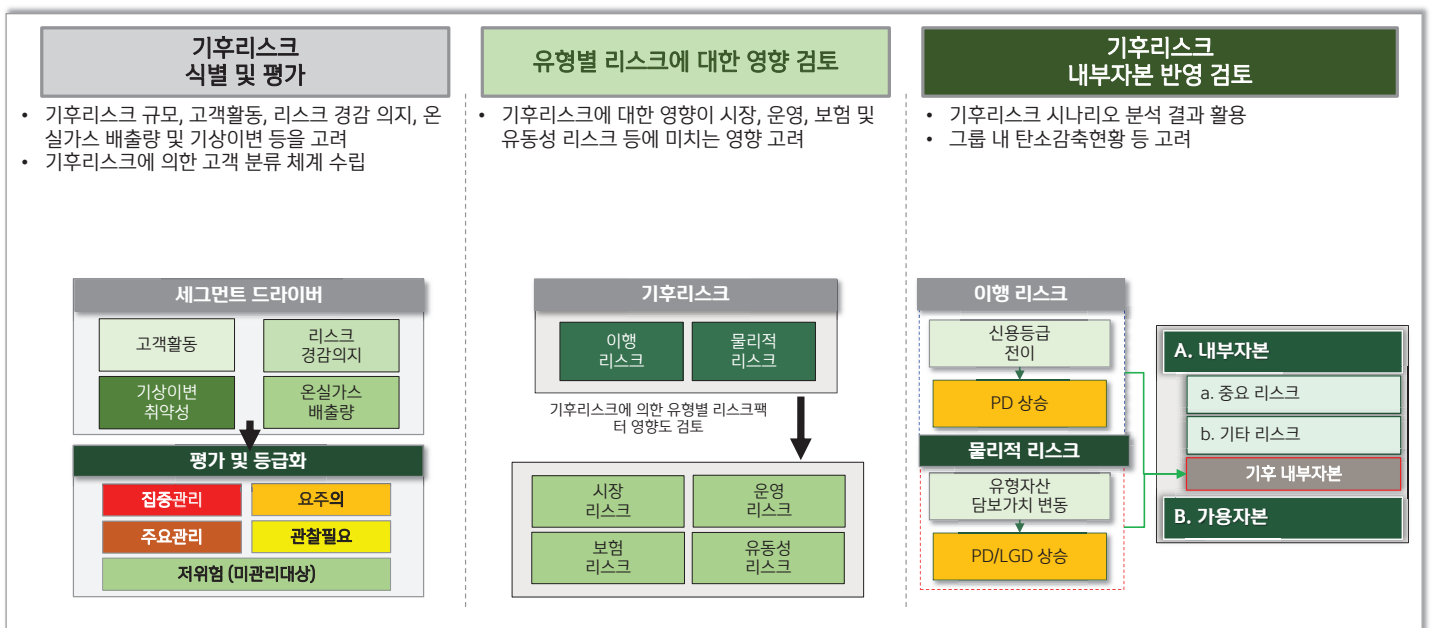
- ✓ **외부 분석 모형 벤치마크, 내부 검토 등을 통한 분석 모형 지속 정교화 추진**
 -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차별적인 분석 방법 적용 등
- ✓ **내부 시나리오 모형 개발 및 내재화를 통한 분석**
 - 국가 계획 등에 따라 시점별 변동 가능한 변수 적용 등

[現 이행리스크 분석 방법(개념도)]



*'21년 ESG보고서 상의 이행리스크 시나리오 분석은 한국은행 분석 결과를 활용한 Top-down 분석과 S&P의 CCA(Climate Credit Analysis)를 활용한 Bottom-up 분석 결과를 공시

VI. [준비현황/과제③]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VI. [준비현황/과제④] 전환금융 정책 수립

전환금융 정책수립

- 고탄소 업종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금융인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에 대한 명확한 정의
- 고탄소 업종 차주의 온실 가스 감축 의지 고취를 위한 그룹차원의 정책 수립

그룹사 교육 및 합의

- 정교화된 전환금융 정책에 대한 소그룹사 교육 및 합의
- 관주체인 차주의 인식 전환과 공조를 위한 신한그룹의 정책 공유

관리체계 구축

- 지주 및 은행에 전환금융 현황 모니터링 프로세스 구축
- 전환금융 대상 차주의 탄소배출량 모니터링
- 성과평가 등 내부목적에 활용하여 전환금융 확대

전환금융 정의

탄소감축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US 시설자금 제조 방식 변경자금 전원믹스 변경자금 등
녹색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생에너지 투자 녹색금융(K-Taxonomy) 관련 기업 투자 등

그룹차원 정책수립

- 탄소배출량 공개 전환 독려 정책
- 업종특성 고려한 금융지원 정책
- 포트폴리오 전환을 위한 Positive / Negative 전략 수립

정책 교육 및 독려



감사합니다

ESG 금융 실천 동향과 제도화 과제

ESG펀드 현황과 과제

김동양
(NH투자증권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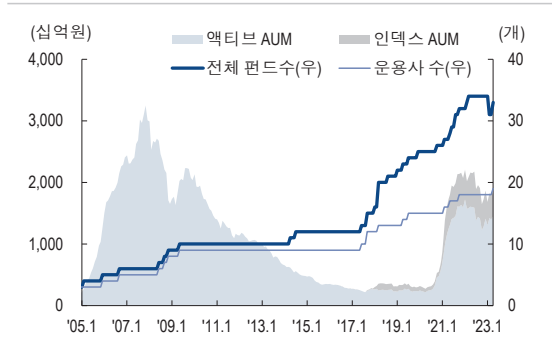
ESG펀드 현황과 과제

김동양, NH투자증권

우리나라 책임투자 급성장 후 정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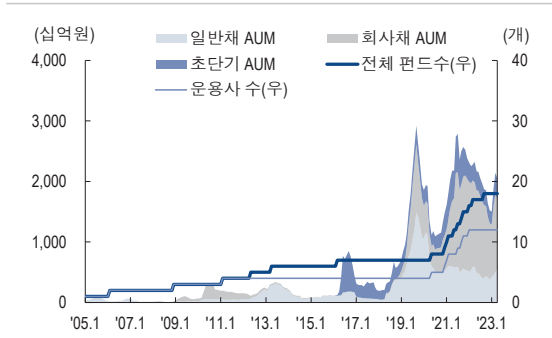
-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와 운용사의 책임투자 확대 니즈. 주식형 ESG 공모펀드 빠르게 리바운드: 2007년 3조원 반짝 유행 → 성과 부진 및 차별화 실패로 장기 침체 → 2018년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2~3천억원 수준 회복 → 국민연금 ESG 투자비중 확대계획 알려진 2020년말 기점으로 급속 증가. 2023년 4월 현재 **19개 운용사, 33개 펀드, 1.8조원 규모**(2023년 들어 액티브펀드 2종 설정)
- 채권형 ESG 공모펀드도 비슷한 규모: 2023년 3월 현재 **12개 운용사, 18개 펀드, 2.1조원**
- 패시브펀드, ETF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ESG 지수도** 증가 중: 2015년 KRX ESG Leaders 150 시작으로 11개 ESG 지수. ETF는 ESG 추종 ETF보다는 그린테마 ETF 중심으로 확대 중

주식형 ESG 공모펀드 성장 추세



주: 2023년 4월 3일 기준
자료: FnSpectrum,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채권형 ESG 공모펀드 성장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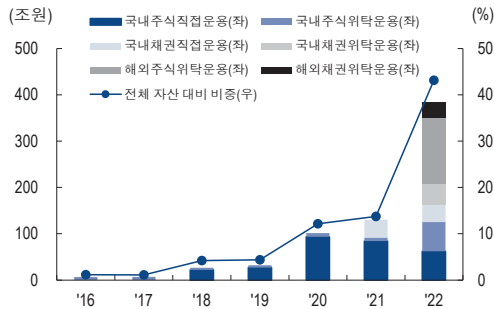


주: 2023년 4월 3일 기준
자료: FnSpectrum,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국내 주요 연기금, 책임투자 고려자산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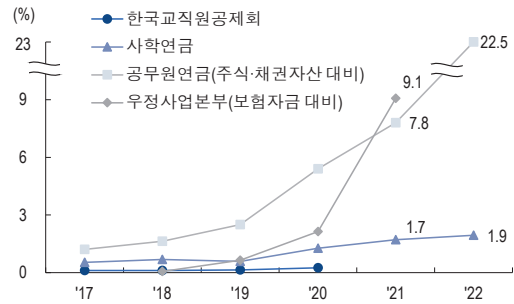
- 국민연금은 2020년 국내주식 책임투자 비중 50% 상회, 2022년 전체 자산대비 43.1%(384.1조원, +195% y-y): 2021년 국내채권 직접운용, 2022년 국내채권 위탁운용, 해외주식 위탁운용, 해외채권 위탁운용 등으로 **책임투자군을 확산**. 2022년 **국내주식운용의 100%(‘유형’ 이 아니라 ‘고려’ 임, 2020년 국내주식직접운용과 같은 케이스 추정)**, 해외주식운용의 59.2%, 국내채권운용의 26.8%, 해외채권운용의 51.8%가 책임투자
- **기타 연기금 책임투자 비중 빠르게 상향 중**: 우정사업본부 2021년 9.1%(5.3조원)까지, 공무원연금 2022년 22.5%(0.8조원)까지 비중 확대. 규모나 비중에서 국민연금이 많이 뒤처짐. 대체로 국민연금을 따라온 관행 고려하면, **향후 업사이드는 매우 커 보임**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고려 자산 추이



자료: 국민연금,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기타 주요 연기금의 책임투자 고려 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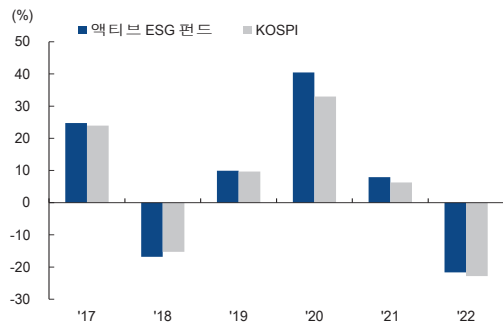


주: 공무원연금은 국내외 주식채권 자산대비, 우정사업본부는 보험자금 대비, 나머지는 증권투자자산대비 비중
자료: 각 연기금,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ESG 펀드, 수익률은 나쁘지 않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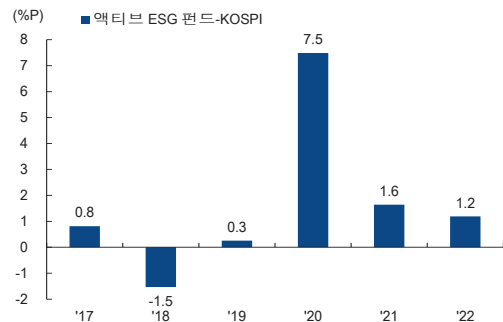
- 주식형 액티브 ESG 펀드 성과는 시장대비 양호. 2023년에도 대형펀드들이 연초이후 10%내외 양호한 성과
- 그러나, 운용전략이 대부분 ESG 통합투자, 소수가 (-)ve 스크리닝
- BM도 ESG Index 아닌 경우가 대부분(KOSPI)

주식형 액티브 ESG펀드 연도별 평균 수익률 추이



자료: FnSpectrum,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식형 액티브 ESG펀드 연도별 평균 수익률 추이(KOSPI대비)



자료: FnSpectrum,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ESG 투자전략 분류

- ESG 투자전략은 크게 (1)스크리닝(네거티브/포지티브/규범기반)투자, (2)ESG 통합투자, (3)지속가능성 테마투자, (4)임팩트투자, (5)주주관여활동 등으로 분류
- 보편적이지 않지만, Sharia Screening(이슬람율법), Fonds Solidaire(佛사회연대경제법 총족 연대펀드) 등도 ESG 투자전략
- 임팩트투자자와 주주관여활동은 투자대상기업/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포함

ESG 투자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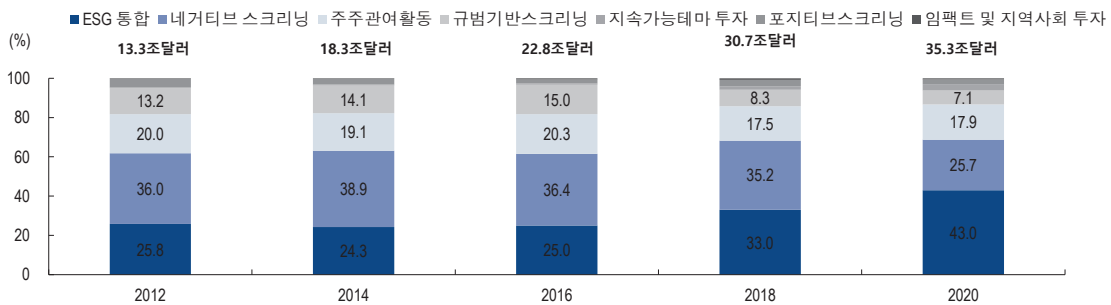
전략	내용
네거티브 스크리닝 (Negative/exclusionary screening)	- 특정 ESG 항목에 근거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평가되는 산업 또는 기업을 포트폴리오나 펀드의 구성에서 배제하는 방법
포지티브 스크리닝 (Positive/best-in-class screening)	- 동종 업종의 비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ESG 성과를 보이는 산업,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법
규범기반 스크리닝 (Norms-based screening)	- OECD, ILO, UN 및 UNICEF 등 국제적 규범에 근거하여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의 충족 여부를 반영한 투자를 수행하는 방법
ESG 통합 (ESG Integration)	- 재무 분석 프로세스에 ESG 요소들을 체계적 명시적으로 융합시키는 방법
지속가능 테마 투자 (Sustainability themed investing)	- 지속가능성(청정 에너지, 녹색 기술 또는 지속가능 농업 등)과 관련된 테마 또는 자산에 투자하는 방법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Impact/community investing)	- 사회 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또는 환경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
주주관여활동 및 주주행동 (Corporate engagement and shareholder action)	- 직접적인 주주관여활동(회사 경영진과의 소통 등), 주주 제안 및 포괄적인 ES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법

자료: GSIA,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ESG 통합투자가 대세

- GSIA 격년 조사(2012년~): **CAGR 13.0%**. 보통 2개 이상 투자전략 혼용(투자전략별 운용자산 합은 전체 운용자산 60~80% 상회)
- GSIA 2020년 조사: 책임투자 **총 35.3조달러로 전체 운용자산의 35.8%**(vs. 2014년 19.5%). ESG 통합 43%로 처음 1위 등극, (-)ve S 25.7%, 주주관여 17.9%. 미국 ESG 통합(66.9%) vs. 유럽 (-)ve S(42.0%)
- 미국의 책임투자 고속 증가(CAGR 20.9%) vs. 유럽은 2018년 지속가능투자 정의 개정으로 운용규모 축소(2년전대비 -14.6%)
- 우리나라 ESG 투자는 ESG 통합 위주. 일부 (-)ve S 지향

ESG 투자 전략별 운용규모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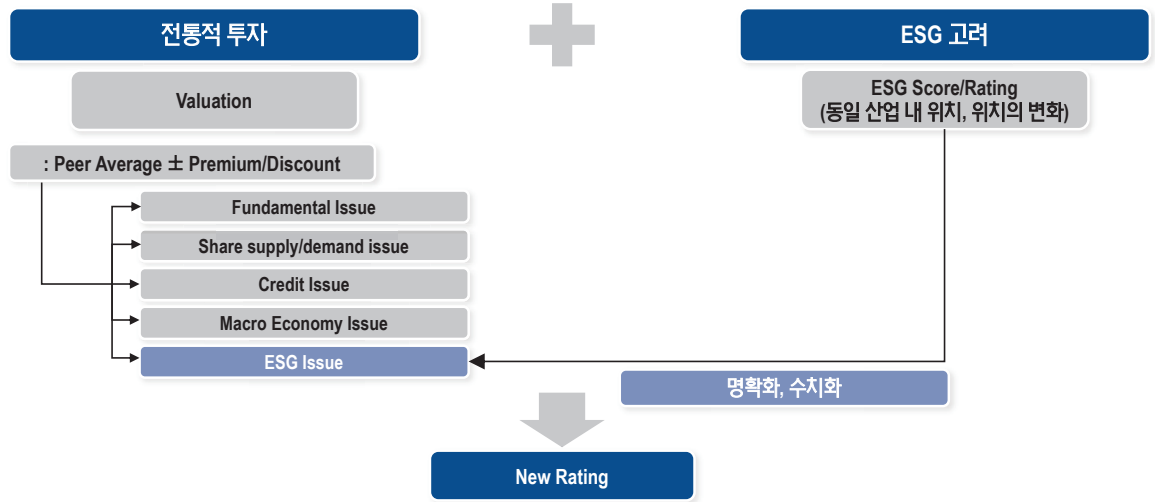


자료: GSIA,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낮설지 않은 ESG 통합투자

- 이미 주식시장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어 온 ESG Integration: 동일 산업 내의 유사한 A, B 기업간 밸류에이션 격차는 사실 환경사 고 리스크(E), 평판 리스크(S), 오너 리스크(G) 상당 부분 반영

궁극적으로 리서치 리포트에서 ESG Integration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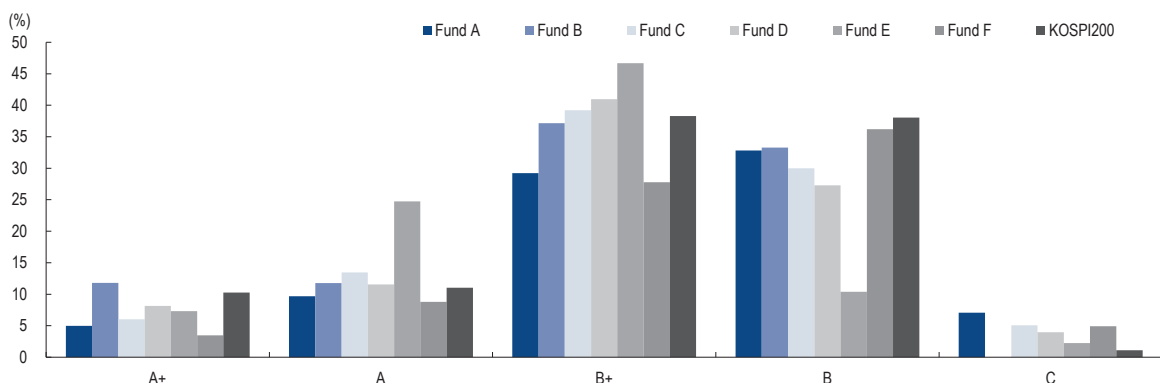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ESG 통합투자의 고도화 필요

- 주식형 액티브 ESG 공모펀드는 대부분 ESG 통합투자인데, ESG 등급이 높은 종목에만 투자할까? 아니면 ESG 등급이 좋아질 종목도 투자할까? → 실제 보유 종목 ESG 등급 분포는 KOSPI200 ESG 등급분포와 유사. 대부분 KOSPI를 BM으로 사용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
- ESG Index를 BM으로 채택해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들의 책임투자 BM 변경(KOSPI → ESG Index)
- ESG 통합투자 운용원칙 개선 필요. Ex) 'ESG 최저 등급 종목 편입하려면, 사유서 작성해야 한다' → 사실상 편입 제약 없음

주요 주식형 액티브 ESG 공모펀드의 ESG 등급별 구성종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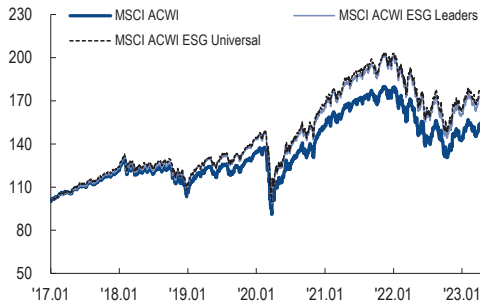


주: 2019년 8월 기준
자료: KCG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우리나라 ESG Index 이슈

- MSCI ESG Index(Leaders-기초지수 중 50%의 ESG우수기업편입, Universal-기초지수와 추적오차 최소화)는 해당 기초 Index 꾸준히 아웃퍼폼
- 우리나라 ESG Index들은 ESG 등급평가기관 막론하고 KOSPI200 대비 꾸준한 아웃퍼폼 어려움 → 삼성전자의 압도적 비중 때문 (380조원, 약 22%). 삼성전자 비중 높은 ESG Index(KOSPI200 ESG, KRX S, MSCI Korea ESG Universal) vs. 삼성전자 비중 낮은 ESG Index. 삼성전자 주가 퍼포먼스에 따른 엇갈린 행보

MSCI ESG Index 꾸준한 아웃퍼폼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우리나라 ESG Index 성과는 구간별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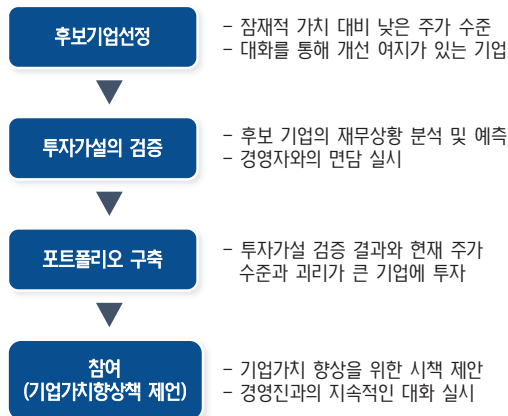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ESG펀드의 투자 전략 다변화 필요

- 일본 스팅스 자산운용의 스투어드십 펀드(일명 '대화의 힘' 펀드) 사례
- 운용전략으로 '주주활동(Engagement) 투자전략' 을 명확히 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향상책 제언
- 월간운용보고서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 제안 및 기업의 피드백 업데이트

일본 스팅스 자산의 '대화의 힘' 펀드



자료: Spax AM,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대화의 힘' 펀드의 운용 성과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다양한 ESG 평가 기관들- 다듬어온 방법론

- ESG 평가: 장기 수익성 제고 위한 ESG 투자의 출발점
- 2000년 전후 글로벌 지수개발 및 신용평가사들의 ESG 평가 시작. 패시브 펀드 본격화, ESG ETF 출시와 함께 성장 가속화
- **M&A 통한 대형화, 부문별 방법론 강화:** MSCI(RiskMetrics, Innovest, KLD, IRRC, GMI Ratings, Measurisk, Carbon Delta), S&P Global(RobecoSAM, Trucost, HIS Markit), LSEG(FTSE Russell, Refinitiv, Grizzly Ratings), Morningstar (Sustainalytics, RR, CES Int'l), Moody's(427, Vigeo Eiris, SynTao Green Finance), ISS(IW Financial, Oekom Research)

주요 ESG 평가기관의 평가 방법론

기관명	평가항목수			평가방법론		결과제공방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평가절차	컨트로버시처리	
KCGS	11개 (금융사: 14개)	38개	265개 (핵심평가 항목)	•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 부정적 ESG 이슈에 대해 감점 방식의 심화평가	• S-D까지 7등급 체제 • 연1회 정기등급 부여 및 연 3회 등급 조정
서스틴베스트	14개 (평가 항목)	40개 (평가 지표)	95개 (세부 지표)	•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 컨트로버시에 대해 ESG 각 영역에서 자감	• AA-E까지 7등급 체제 • 연 2회 등급 평가
MSCI	10개 (테마)	37개 (키 이슈)	1,000개 이상 (세부 지표)	•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 E와 S는 가점방식, G는 감점방식을 통해 10점 만점 기준 평가	• 키 이슈에 대한 컨트로버시도 심각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점수에 반영	• AAA-CCC까지 7등급 체제 • 연 1회 등급평가 및 주간 업데이트 반영
S&P Global	12개 (평가 항목)	16개 (산업별 세부 지표)	N/A	•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 E, S, G 각각 30%, 30%, 40%의 가중치 및 산업별 세부 가중치를 적용	• N/A	• E, S, G 각각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부여 • 연 1회 등급 평가
FTSE Russell	14개 (테마)	300개 이상 (세부 지표)	N/A	•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 테마별 노출 수준에 따른 가중치 적용	• N/A	• 0-5점까지의 ESG별 점수 부여 • 동일 산업 내 백분위 순위 점수 부여 • 연 2회 등급 평가
Refinitiv	10개 (카테고리)	25개 (테마)	500개 이상 (세부 지표)	•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 • 산업군에 따른 ESG 항목별 가중치 부여	• 23가지 항목에 대한 컨트로버시 점수를 감점방식으로 계산 후 통합 ESGC 점수 제공	• 100% 만점의 백분위 점수 부여

자료: 각 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현실은 '평가 기관별 상이한 결과'

- 평가 기관별 상이한 평가결과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오래된 이슈
-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형 7개 상장사에 대한 국내외 6개 평가기관의 최대-최저 등급차이 평균은 4.4등급(7등급 환산시)
- 원인은 세 가지: **(1)기초데이터**(공시정보 불충분, 조사 충실도, 부재데이터 처리), **(2)평가 방법론**(평가지표 차이, 산업 분류방식 및 산업간 민감도 보전방식 차이, 정성평가 및 컨트로버시 계량화 방식 차이), **(3)결과 제공방식**(등급제(등급 갯수 및 구간 차이) vs. 점수제(가점식, 감점식))

국내 주요기업의 평가등급-7등급 환산시 최대-최소 등급차이 평균 4.4

MSCI 기준 환산 등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AVER	카카오	LG화학	현대차	POSCO
KCGS	BB	A	A	BBB	BB	A	A
서스틴베스트	AAA	AAA	AA	A	AAA	AAA	AAA
MSCI	A	BBB	AAA	BBB	BB	B	BBB
S&P Global	BBB	AA	CCC	CCC	A	A	AA
Sustainalytics	BBB	A	A	BB	BBB	B	B
Refinitiv	AAA	AA	A	A	A	AA	AA

주: 각 평가사의 등급 및 점수를 MSCI의 7단계 등급(AAA, AA, A, BBB, BB, B, CCC)으로 환산
자료: 각 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주요 기업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지표	SK			삼성물산			현대차			LG			롯데지주			LX인터내셔널			GS			평균 준수율		
		'21	'20	'19	'21	'20	'19	'21	'20	'19	'21	'20	'19	'21	'20	'19	'21	'20	'19	'21	'20	'19	'21	'20	'19
주주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X	X	X	O	O	X	O	O	O	X	X	X	X	X	X	O	X	O	X	X	X	35.6%	29.1%	18.7%
	전자투표 실시	O	O	O	O	O	O	O	O	O	O	O	X	O	O	X	O	O	X	O	O	O	80.1%	71.4%	42.7%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O	O	O	O	O	X	O	O	O	O	X	X	X	X	X	O	O	X	O	O	X	74.9%	62.9%	48.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X	X	X	O	O	X	55.0%	48.0%	34.5%
이사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O	O	O	O	O	O	O	O	O	O	O	O	X	X	O	X	X	O	O	O	O	44.5%	43.4%	52.6%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85.3%	88.0%	95.9%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O	O	O	O	O	O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26.7%	30.3%	28.1%
	집중투표제 채택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5.2%	5.7%	5.3%
	기업가치 훼손/주권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정책 수립 여부	X	X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X	70.2%	70.3%	67.8%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9.5%	92.0%	83.6%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8.4%	96.6%	88.9%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O	O	O	O	O	O	X	X	X	O	O	X	X	X	X	X	X	X	O	O	O	53.9%	53.7%	50.9%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여부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96.9%	94.9%	95.3%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O	O	O	X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74.9%	81.7%	66.1%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00.0%	100.0%	99.4%
	준수항목	12	12	12	13	14	12	12	12	12	12	11	9	9	9	8	10	9	9	12	12	9	10	10	9

주: 2021년 평균 준수율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91개사 대상, 2020년 평균 준수율은 175개사 대상, 2019년 평균 준수율은 171개사 대상
 자료: 각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활용(1): 간이 ESG 등급표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의 지배구조(G) 및 ESG 전체 등급과 높은 상관관계
- 2018년도(보고서공시 2019년 6월, 등급발표 2019년 10월), 2019년도(2020년 6월, 2020년 10월) 모두 준수 점수 5등급의 최상위 구간부터 차례로 G, ESG 등급(S, A+, A, B+, B, C, D) 평균 내려감

2018년 핵심지표 준수율과 ESG등급의 상관관계

2018	핵심지표 13~15개 준수 기업	핵심지표 10~12개 준수 기업	핵심지표 7~9개 준수 기업	핵심지표 4~6개 준수 기업	핵심지표 0~3개 준수 기업
해당기업 수	SK텔레콤 등 총 2사	SK 등 총 33사	LG 등 총 94사	한진칼 등 총 28사	다우기술 등 총 4사
KCGS ESG 등급 평균	5.00점 (A)	4.27점 (B+)	3.80점 (B+)	3.27점 (B)	2.50점 (B)
KCGS Governance 등급 평균	6.00점 (A+)	4.13점 (B+)	3.81점 (B+)	3.31점 (B)	2.75점 (B)

주: (1) KCGS ESG 및 G 등급을 S=7점, A+=6점, A=5점, B+=4점, B=3점, C이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균 계산;
 (2) 동일 기간 비교 위해 2019년 6월 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2019년 10월 발표 KCGS ESG등급 사용
 자료: KCGS, 각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2019년 핵심지표 준수율과 ESG등급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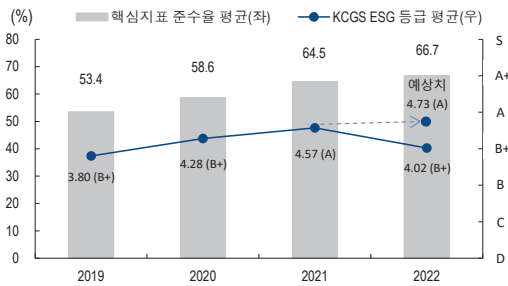
2019	핵심지표 13~15개 준수 기업	핵심지표 10~12개 준수 기업	핵심지표 7~9개 준수 기업	핵심지표 4~6개 준수 기업	핵심지표 0~3개 준수 기업
해당기업 수	SK텔레콤 등 총 4사	SK 등 총 62사	LG 등 총 81사	하이트진로 등 총 24사	0사
KCGS ESG 등급 평균	5.50점 (A+)	4.90점 (A)	4.16점 (B+)	3.22점 (B)	해당 없음
KCGS Governance 등급 평균	5.75점 (A+)	4.90점 (A)	4.19점 (B+)	3.30점 (B)	해당 없음

주: (1) KCGS ESG 및 G 등급을 S=7점, A+=6점, A=5점, B+=4점, B=3점, C이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균 계산;
 (2) 동일 기간 비교 위해 2020년 6월 공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및 2020년 10월 발표 KCGS ESG등급 사용
 자료: KCGS, 각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활용(2): ESG 등급 개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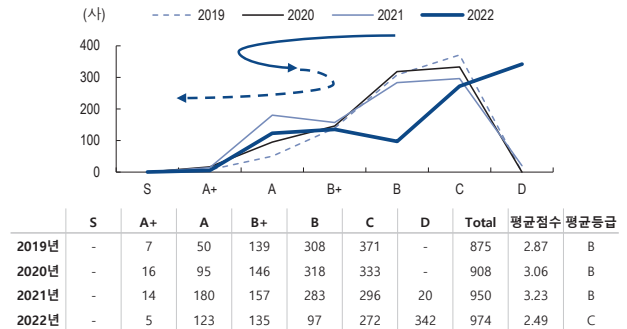
- 2018년 161개 의무공시기업 핵심지표 준수를 평균 53.4%(8/15), KCGS G등급 평균 3.80(B+), ESG등급 평균 3.80(B+)
- 2019년 171개 의무공시기업 핵심지표 준수를 평균 58.6%(9/15), KCGS G등급 평균 4.24(B+), ESG등급 평균 4.28(B+)
- 2020년 175개 의무공시기업 핵심지표 준수를 평균 64.5%(10/15), KCGS G등급 평균 4.53(A), ESG등급 평균 4.57(A)
- 2021년 191개 의무공시기업 핵심지표 준수를 평균 66.7%(10/15), KCGS G등급 평균 4.68(A), ESG등급 평균 4.73(A) → 4.02(B+)
 - 2021년 ESG 모범규준 개정을 반영한 ESG 평가모형 고도화의 영향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 핵심지표 준수를 전체평균과 ESG 등급



자료: KCGS, 각사,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KCGS ESG 등급분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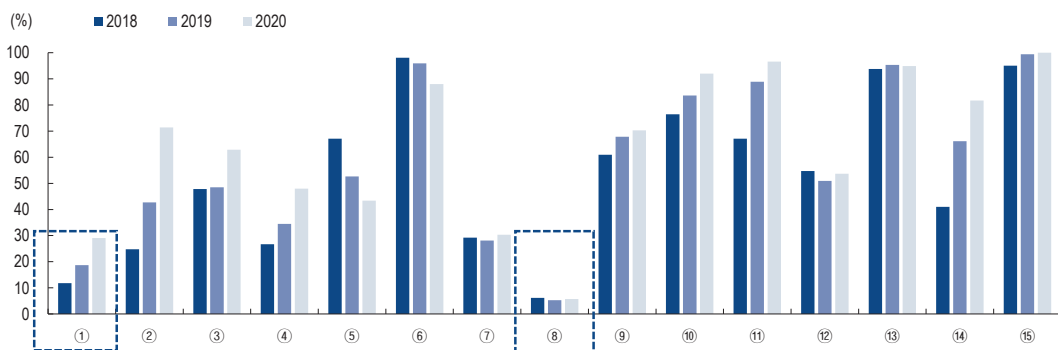


주: (1)2019, 2020년은 C, D 등급 통합발표, (2)KCGS ESG 등급을 S=7점, A+=6점, A=5점, B+=4점, B=3점, C=2점, D=1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균 계산
자료: KCG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활용(3): ESG 등급 상향 대응

- ESG 등급 상향 평준화 가능성: 의무공시 단계적 확대, 기업들의 ESG 평가등급 상향 노력
- 변수는 2021년 ESG 모범규준 개정: KCGS 평가 방법론도 바뀔 것으로 예상
- 투자자의 변별력 강화 방안: (1)컨트론티미 활용한 네거티브스크리닝, (2)소수 핵심지표 활용한 포지티브스크리닝(평가지표 100개 가정시, 지표당 변별력은 1%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

공시대상 기업의 핵심지표 준수를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감사합니다

ESG 금융 실천 동향과 제도화 과제 - 토론편

국내 ESG금융 확대, 공시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국내 ESG금융 확대·공시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 앞선 세 분의 발제자께서 글로벌 ESG 공시와 관련된 최신 동향과 ESG펀드 현황, 금융회사의 지속가능금융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주셨음.
- 또한 기업이 ESG 금융과 공시 의무화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것에 동감하며,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특히 Scope 3가 금융그룹으로서도 어려운 숙제임이 분명하다는 것에 크게 공감하며, 이는 금융그룹만이 아닌 대다수의 중소·중견기업에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더욱 큰 부담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음.
- ESG 금융과 더불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의 ESG 정보 공시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등 투자자 및 기업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음.
 - 그러나, 법제화를 통해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이행부담이 편익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이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을 것임
- 동 토론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ESG 금융 확대 및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와 그와 관련된 문제점,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함.

국내 ESG 금융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과제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도입 시기 연기와 보고 대상 축소를 통한 금융기관의 Scope3 배출량 공시 부담 경감 필요

-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배출량 개념 중 Scope3는 현재 ESG와 관련된 가장 큰 쟁점 사항 중 하나임

- Scope3란 사업장 외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공급망, 운송·유통, 구성원 통근·출장, 금융투자 등이 이에 해당함.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금융 탄소배출량이라고도 불림.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IFRS를 전면 도입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만간 IFRS S1, S2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S2에 포함되는 Scope3에 대한 의무 역시 곧 주어질 것이라 예상됨.
- 그러나,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미국, EU에 비해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4%¹⁾로 가장 높으며, 그 중에서도 에너지多소비 업종의 비중이 8.4%로 역시 가장 높고²⁾ 이에 따른 부담 역시 큼
- 앞서 발표해주신 것처럼 에너지多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의 이익이 각각 10%, 5%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뿐더러, EU와 미국·중국을 상대로 한 주요 수출업종이 내야 할 탄소국경세가 2023년 기준 약 6,100억원, 2030년에는 1억 8천 70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음³⁾
- 또한, 코스피 상장회사의 약 80%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 대기업은 20%에 불과
- IFRS S2를 도입하게 된다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투자를 받은 거의 모든 중소·중견기업들, 대다수의 코스피 상장회사들은 금융기관의 Scope3 배출량 공시 의무에 따른 신규 대출 및 투자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Scope 1, 2 배출량 공시가 필수불가결할 것임
 - 이를 위하여 외부컨설팅, 시스템 구축 비용은 물론 주주 및 채권자 등 투자자의 추가적인 정보공시나 더 높은 자기자본비용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후 변화 관련 담당조직과 인력 충원과 더불어, 대출금리 상승, 담보가치의 하락 등 막대한 부담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됨⁴⁾.
 - 따라서, S2 기후 관련 공시 도입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Scope3 배출량 공시에 대한 유예기간을 조금 더 주는 것은, 이익에 집중하기에도 빠듯한 중소·중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 해주는 효과

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안)', 21.3.31

2) '19년 기준, (EU) 16.4/5.0, (美) 11.0/3.7, (韓) 28.4/8.4, 전계보고서

3) 'EU 탄소국경세, 국내 철강업계 얼마나 내야 할까', 연합뉴스-EY한영회계법인 보고서 참고, 21.7.17

4) 정준희,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IFRS S2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45권 제1호, 2023.3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정한 기온 상승 상한선인 1.5도의 기준점이 5년안에 66%의 확률로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 세계기상기구(WMO)의 발표가 있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위주의 우리나라가 발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우리나라의 시장 또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반 여건들이 보다 무르익을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多소비 제조업의 비중이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 중소·중견기업에 기업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

국내 ESG 공시 의무화의 문제점 및 과제

ESG 평가 기관별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기업 혼란

- 전 세계적으로도 ESG 평가기관 간의 상이한 평가결과는 꾸준히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임.
- ESG 평가기관은 전세계적으로 130여개, 로컬 기관들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 600개를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음⁵⁾
- 평가기관들은 기초데이터에 해당하는 습득된 공시정보량과 부재데이터 처리 방법, 평가지표차이, 등급·점수제에 따른 결과 제공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평가결과가 평균 1.4단계, 최대 5단계까지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⁶⁾
- 본회가 2021년 자체적으로 진행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상 설문에서도 ‘ESG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이 불명확해 정보 공개에 혼란’을 느낀다는 응답이 118개사 (48.1%)에 달함
- 또한 5개 주요 신용평가사의 기업 채권 신용 등급의 상관관계가 0.98에 달하는데 반해, ESG 평가사 쌍 간의 평균 0.48에 불과한 상관관계가 나타남⁷⁾은 ESG 평가 등급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을 시사함.

5) 김광기(2021. 4. 4), 「[ESG의 이해] ‘ESG 평가’ 등급이 들쭉날쭉인 까닭 ... 정답이 없기 때문」,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3. 5. 10).

6) 전경련, 국내외 ESG 평가 동향과 시사점, 2021. 4. 26

7) 박지원·이예림, 국내외 ESG 평가사별 점수 비교: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자료 22-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12.30

- ESG 평가기관 별로 평가 철학과 목적, 기준이 달라 평가 점수 또는 평가 등급이 다를 수 있으나, 지나친 불일치성은 기업의 ESG 노력에 적절한 보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에서의 평가 절하로 인한 기업의 ESG 수준 제고 유인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평가기관들의 평가기준, 평가방법론 등 평가결과산정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혼란 경감과 ESG 평가사 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시기 조율 필요

- 앞서 발제자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거래소 자율공시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2025년 자산 2조원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체 상장사가 대상이 될 예정
- 여러 글로벌 기준(GRI, TCFD, SASB 등) 중 선택하여 공시가 가능하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준은 GRI이며⁸⁾, 국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대부분도 동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 그러나 IFRS 재단 산하 기관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별도의 국제표준을 제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동 기준이 ESG 관련 비재무보고 기준으로 준용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순차적인 ESG공시 일정을 발표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기준 마련 상황과 또한 그 기준이 국내 산업여건과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수용성 있는 기준으로 정착되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ESG 공시는 아직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착되기 전이므로 어느 정도 정착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옳은 방향일 수 있음.
-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IFRS를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나 여전히 도입하고 있지 않은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있는 것처럼 ESG 공시 의무화 역시 심도있게 논의 되고 있지 않은 나라가 아직은 대부분임

8) 박태호, 혼란의 ESG 공시...어떤 기준 따라야 할까, Deloitte insights,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특집호, 2023 금융산업 전망, 엔데믹 위기의 시작과 극복, 2022.10

- 현재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60% 이상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반대로 해석하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약 20%만이 이를 공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 상장회사의 9%에 불과함
- 본회 설문조사에서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시기에 대한 질문 항목에 빠르다고 응답한 회사가 157개사, 전체 응답사의 61.4%에 달함
-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국내에 처음 등장한 2003년 이래로 약 20년이 흐르는 동안 기업 자율로서 공시해오던 사항이 점진적이라고는 하나 앞으로 7년 이내에 전체 상장사의 무려 40%의 기업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과도하며, 우리기업들에게 보다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음

중복 공시에 따른 기업 공시부담 완화 방안 마련

- 국내 ESG 관련 정보 중 환경(E)·사회(S) 관련 정보의 경우 사업보고서, 거래소, 개별법(환경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공시채널을 활용하여 공시되고 있음⁹⁾.
 - 또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현황보고 등 지배구조(G)와 관련된 기존 공시항목¹⁰⁾들이 있으며, 여기에서도 이미 중복 공시에 대한 기업의 어려움이 있음
- 공시 항목의 통합과 공시채널의 일원화가 가장 시급
 - ESG 공시의 주요한 평가항목과 글로벌 요구사항 역시 환경 관련이 대부분이며 국내 대기업의 경우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정보공개 대상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를 자본시장의 주도로 취합 및 검증하여 ESG 정보공시제도에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 또한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9) 이상호, 'ESG 기업공시 개선방안', 「자본시장포커스」2021-17호, 2021

10) 이상호, '국내 ESG 공시제도 개선방안', 「2023년 제3차 자본시장 릴레이 세미나 - 『뉴노멀(New Normal) 대응 전략 - 국내 ESG 공시제도 및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방안』, 2023.5.12

맺음말

- 마지막으로, ESG 금융과 공시의무화는 기업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투자인 측면도 분명히 있으나, 기업입장에서는 규제에 해당함.
 - 때문에, 제도화 과정에서 수용자인 기업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반영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이에 ESG와 관련된 규제 신설에 따른 기업 공시 부담 완화 방안으로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를 위한 One-in, Two-out 기조와 발맞춰, 분기보고서 공시 의무의 자율화를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음
 - 일본의 경우 수차례¹¹⁾에 걸친 금융심의회 「디스클로저 워킹그룹」에서의 논의 끝에 기존 TCFD 기준에 찬동하는 기업이 상당함¹²⁾에 따라, 지속가능성 정보의 기재란을 신설하고 Scope3를 제외한 Scope1·Scope2의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 대해선 적극적 공시 의무를 부과함
 - 그와 동시에 기업의 공시 비용 절감, 효율화 차원으로 1·3분기의 분기공시의무를 폐지하는 안을 함께 검토하였으며, 최근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23.3.14)되어 가결 시 '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이처럼 ESG 공시 의무는 일정 기준에 의한 시장의 자율적 공시 문화가 정착되었을 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부담 완화책을 강구할 필요

11) '21년 9월 ~ '22년 12월, 약 1년 4개월간, 총 13회

12) 2023.4.28.일 기준, 1,306개 기업 및 기관이 TCFD에 대해 찬동,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energy_environment/global_warming/tcfd_supporters.html

ESG 금융 실천 동향과 제도화 과제

토론문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문] ESG금융 실천 동향 및 제도화 과제

-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발제1) ESG 공시의무화 준비현황과 과제

□ 발제자에 대한 질문

- 2025년부터 시작하는 ESG 공시 의무화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특히, 그러한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 과제로 제시한 공시비용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는지? 또는 ESG 공시 의무화에 따른 비용보다 효익이 크다는 확신이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 발제에 대한 의견

- 하나의 자본시장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ESG 공시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규모별로 투명성에 차별화를 둔다는 것임
- 동일한 자본시장에서는 균등한 투명성을 유지해야 함
- 따라서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ESG 공시의무화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2030년 또는 일정 시점에 최소한 한 자본시장에서는 전체 상장기업에 대해 ESG 공시의무화를 시행해야 함
- 물론, 기업 스스로 선행 적용하는 것은 허용함

(발제2) ESG 펀드 현황과 과제

□ 발제자에 대한 질문

- 회계과목 수강자 487명을 대상으로 실험실 조작연구를 수행한 결과, 제3자가 제시한 ESG 등급은 재무제표만 제시한 경우와 비교해서 차별화된 투자 의사결정을 유도하지 못함. 즉, 투자 의사결정에서 유용성을 검증하지 못함. FGI 결과, 그 주된 이유가 발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평가결과의 신뢰성이었음
- 반면에 기업이 작성·공개하는 지속가능보고서는 재무제표만 제시한 경우와 비교해서 ESG 등급보다 차별화된 투자 의사결정을 유도함
- 만약 이런 실험실 연구를 실제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행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예상되는지, 아니면 다른 결과를 예상하는지?

□ 발제에 대한 의견

- 공시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한 질적 특성은 첫째,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둘째, 표현이 사실에 충실해야 함
- 이의 주어는 당연히 기업임에도, 현재 진행중인 ESG 공시의무화는 기업 주도형이 아닌 정부 주도형임
- 정부의 역할은 언제 누가 ESG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제하기에 앞서, 단순히 ISSB 기준을 수용 또는 준용하면 된다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국에 맞는 목적 적합하고 기업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지지 않도록 사실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ESG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2011년 세계화라는 당위성에 전면적으로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가 국내 기업에 미친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임 (일본 사례, 중국 사례 등)

(발제3) 신한의 지속가능 현황과 과제

□ 발제자에 대한 질문

- 발제문에서 ESG 자율공시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의무공시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 그런데 직접금융 중심의 서구자본주의 시장에서 ESG 공시의무화의 주된 고객이 되는 투자자와 간접금융 중심의 한국시장에서 ESG 공시의무화의 주된 고객이 여전히 자본시장의 투자자인가?
- ESG 공시의무화의 대상에 대한 명칭이 무엇이든 자본시장의 환경이 다르고 실질적인 대상이 다름에도, 서구자본주의에서 주장하는 ESG 공시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 발제에 대한 의견

- 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차입금을 통한 자금조달보다 이론적으로 저렴함
- 이론대로 해외 기업들은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차입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단기차입금 중심임
- 우리나라는 이론과 달리 사채보다 차입금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함
- ESG 공시의무화의 주된 대상을 투자자라 하면서도 자본시장의 차별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ESG 기준의 무조건적인 도입은 그 효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함
- 결론은 Leading Strategy보다는 Following은 아니라더라고 Herding Strategy가 필요. 끝.

T12. 투명성 트랙 - 이슈토크 / 5.25 (목) 14:00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설립자, 대표

Dho, Hyunmyung
Founder & CEO, Impact Square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

Heo, Jaehyong
CEO, Root Impact

국내외 임팩트 측정 및 관리 체계 동향을 따라 잡아 보고, ESG 인프라와 연계성을 이야기해 봅니다.

ESG 시대의 사회적 가치 측정 흐름

5.25 (목) 14:00~14:45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 이 세션은 한국거래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KRX 한국거래소

삼성생명

* 이 세션은 대담 방식으로 진행되어 발표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T13. 투명성 트랙 - 튜토리얼 / 5.25 (목) 16:00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인권 전문관

Yoon, SukMin

WSpecialist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Rho, Kwangpyo

Director, Korea Employment and Labor
Education Intitute; Board Member,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KFIF)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을 위해 제정한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의 내용과 민간기업 활용 사례를 통해, EU를 중심으로 제도화 단계에 들어선 '공급망 실사'가 작동하는 모습을 가늠해 봅니다.

기업의 공급망 실사 개념, 현황 및 적용례

5.25 (목) 16:00~16:45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 이 세션은 한국거래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 이 세션은 대담 방식으로 진행되어 발표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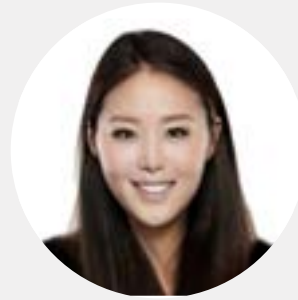
T21. 역량강화 트랙 - 패널 토론 / 5.26 (금) 10:45



김종걸 좌장

한양대학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

Kim, JongGul
Professor, Hanyang University



캐시 김 발제

미국 지역개발신탁연합회 인클루시브 캐피탈 디렉터

Cathi Kim
Director, Inclusiv-Capital



손석조 지정토론

신탁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장

Son, SeokJo
Director of Social Finance,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박진영 지정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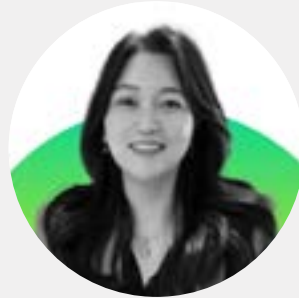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

Park, JinYoung
Director, Daegu Social Economy Center



김은경 발제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im, EunKyung
Senior Researcher, Gyeonggi Research
Institute



정운영 발제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Jung, WoonYoung
Chairperson, Finance and Happiness Net-
work



김영식 지정토론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Young Kim
Secretary General, National Associaton of
Local Governments f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5.26 (금) 10:45~12:05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이 세션은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평등한 생태계 조성: 미국 지역개발금융 기관(CDFI) 개관 및 지역경제에의 영향

**Building Equitable Ecosystems: An Overview of
US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Impact On Local Economies**

캐시 김 Cathi Kim
(미국 지역개발신협연합회
Inclusiv-Capital 디렉터)



/ inclusiv /

평등한 생태계 조성: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개관 및 지역경제에의 영향

미션

저소득 계층과 공동체가 신용협동조합을 통해
재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게 함

Inclusiv는 진정한 금융 포용과 권한 부여가 기본적 권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소외된 지역사회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격차를 줄이고 금융 기회의 장벽을 없애고자 합니다. Inclusiv 는 인증된 CDFI 중개기관으로, 지역의 진보를 지속적인 국가적 변화로 전환합니다.

/ inclusiv /
한 눈에 보기

회원기관

492

총 회원수

18,290,313

총 자산

\$260B

/ inclusiv /



1974년부터 우리는 금융 포용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선도적으로 신용 조합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우리는 CDFI 및 저소득층 대상의 신용 조합을 위한 주요 자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정 및 보조 자본(Secondary Capital)에 대한 규제 및 제도를 만드는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CDFI 기금 출연을 옹호하고 보조 자본에 유리한 규제 변화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CDFI 기금 설립을 위한 연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CDFI 신용 조합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 포용성을 촉진하고 악덕 대출업자에 대응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관리합니다.

/ inclusiv /₃

역량 개발: 자본 연계: 혁신: 저투자된 공동체의 임팩트 강화 및 회복력 개선



/ inclusiv / network

- CU 운영 및 규정 준수, 웨비나, 컨퍼런스, 기술 지원, 연구, 교육 및 옹호를 통해 지역사회 개발 및 금융 포용을 위한 신용 조합 역량 구축
- Juntos Avanzamos 및 소수 민족 커뮤니티와 같이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에 다가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



/ inclusiv / ca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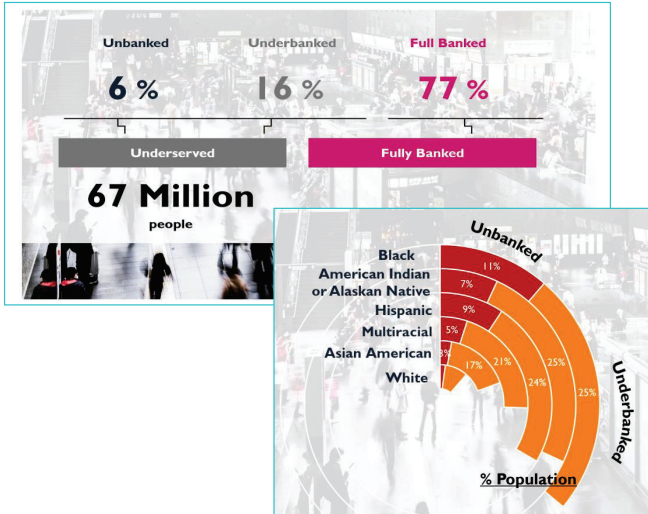
-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저렴한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CDCU를 성장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본 및 기술 지원 예의 접근성 강화
- 회원의 담보 대출을 위한 교육 및 2차 시장을 통해 CDCU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 inclusiv / next

- 기술과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여 타겟팅을 개선하고 규정 준수를 강화하며 신용 조합이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Pathways to Financial Empowerment'나 데이터분석플랫폼 등의 혁신 솔루션 제시
- 회복력과 청정 에너지 센터 (Center for Resilience and Clean Energy) 운영

미국 가계의 재정적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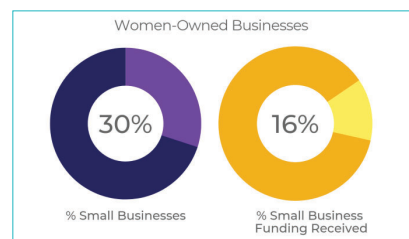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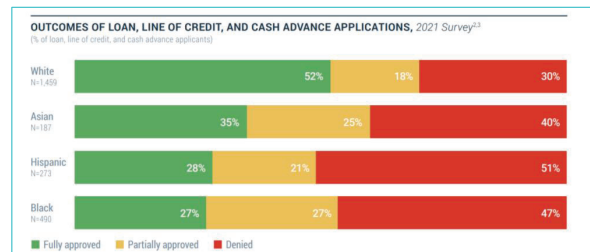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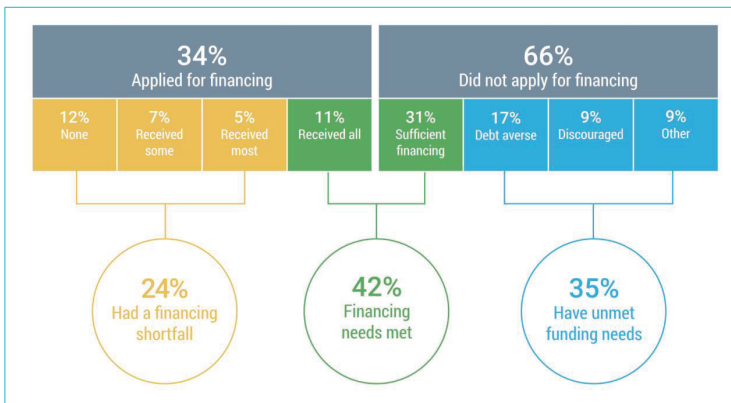


- 금융 소외 계층 소비자는 수수료와 이자로 1,890억 달러 이상을 지출.
- 평균 소득이 2만 달러 이하인 은행 미이용자는 수표 현금화 및 우편 송금에 매년 \$1,200, 일생 동안 불필요한 수수료로 \$40,000 이상을 지출
- 신용 점수가 낮거나 전혀 없는 소비자는 신용 점수가 좋은 소비자보다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평생 20만 달러를 더 지불함.
 - 미국 소비자 4,500만 명은 신용 기록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음.
 - 1억 2,100만 명의 미국 소비자가 비우량담보대출 (Subprime Credit) 보유.

금융 포용성은 식민지배, 인종차별 및 배제와 관련된 법 등의 역사적 정책과 시스템을 포함한 일련의 요인에 영향을 받음

소기업과 창업자들의 자본 접근성

소기업은 미국 경제 활동의 44%를 차지하며 자산을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함. 그러나 소외 계층의 경우 자본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비대칭적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의 차이

U.S. Economy Sees Sharp Downturn Amid COVID-19 Cri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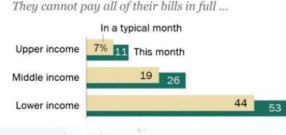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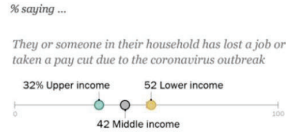
Quarterly real GDP growth in the United St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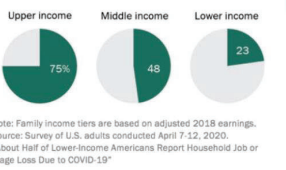
* percent change from previous quarter
Source: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Economic fallout from COVID-19 is hitting lower-income adults ha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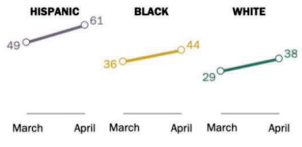
They have rainy day funds that would cover their expenses for three months in case of emergency



Note: Family income tiers are based on adjusted 2018 earnings. Source: Survey of U.S. adults conducted April 7-12, 2020. *About Half of Lower-Income Americans Report Household Job or Wage Loss Due to COVID-19*

Hispanic and black Americans have been hardest hit in COVID-19 wage, job losses; most do not have rainy day funds

% saying they or someone in their household has lost a job or taken a pay cut due to the corona virus outbreak



% who said in April they do not have rainy day funds to cover expenses for three months in case of emer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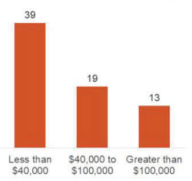


EMPLOYMENT

Job Losses by Pre-Coronavirus Income

- Job losses were concentrated among workers with lower incomes.
- 39 percent of workers with household incomes under \$40,000 reported a job loss in March.
- 13 percent of workers with household incomes over \$100,000 reported a job loss.

Job losses in March among people working in February 2020 (by househol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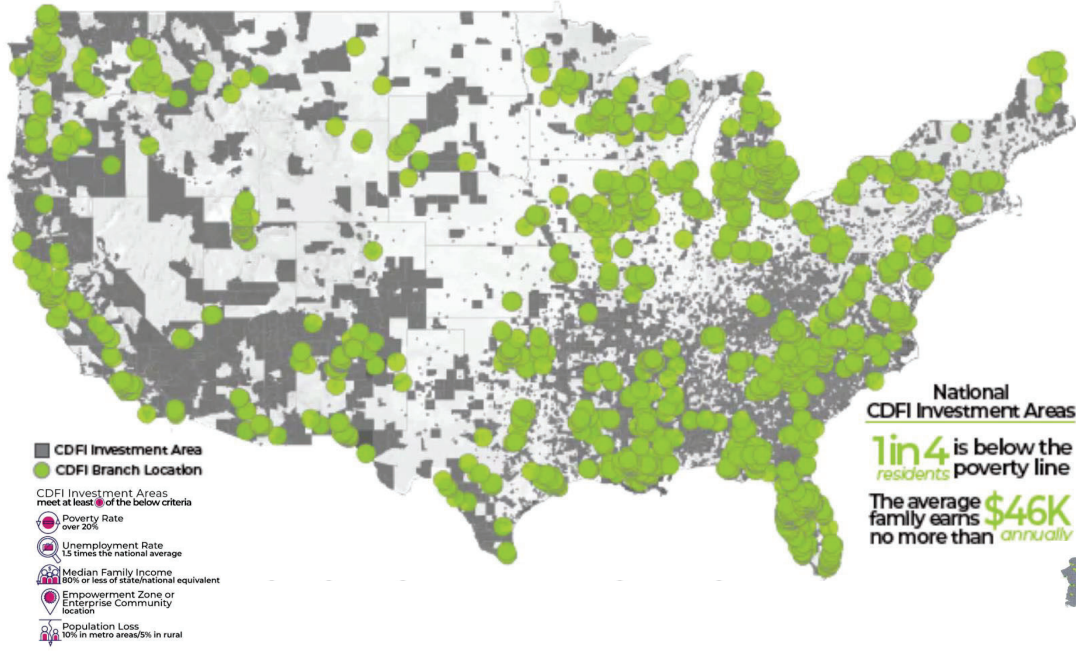
미국 가계와 지역사회의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포용성을 강화하고 소외된 시장에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 시장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 inclusiv /

CDFIs in Action
A National CDFI Profile



CDFIs 와 미국의 사회적 인프라 정책 (US Social Infrastructure Policies)

/ inclusiv /

CDFI란 무엇인가?

"지역사회가 경제적으로 번영하려면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지불 가능한 신용과 투자 자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저소득층 커뮤니티와 개인에게 이 접근은 제한되었다."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은 소외된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저렴하며 공평하고 포용적인 금융 상품과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사명을 가진 금융 기관이다.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이 기관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저소득층 및 소외된 지역사회에 직접 투자한다.



/ CDFI란 무엇인가? / 인증을 위한 7가지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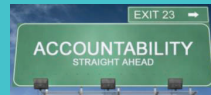
법인 테스트



타겟 시장 테스트



금융기관 테스트



책무성 테스트



기본 미션 테스트



비정부기관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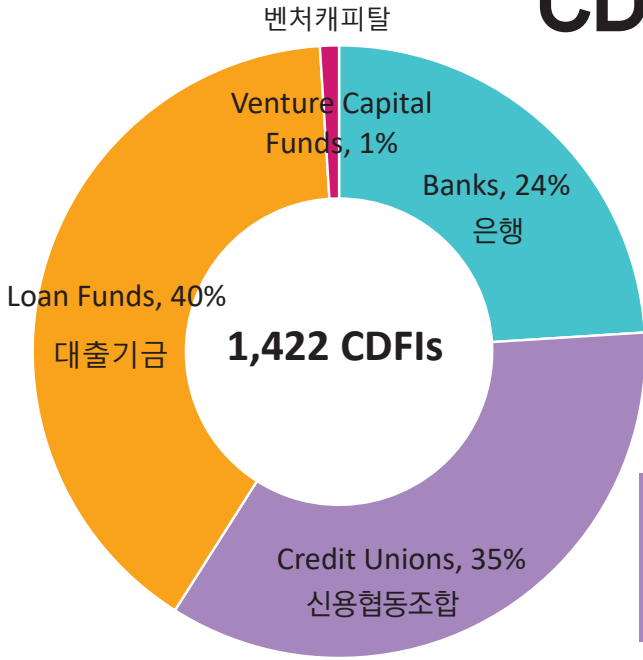


개발 서비스 테스트

/ inclusiv /



CDFI 산업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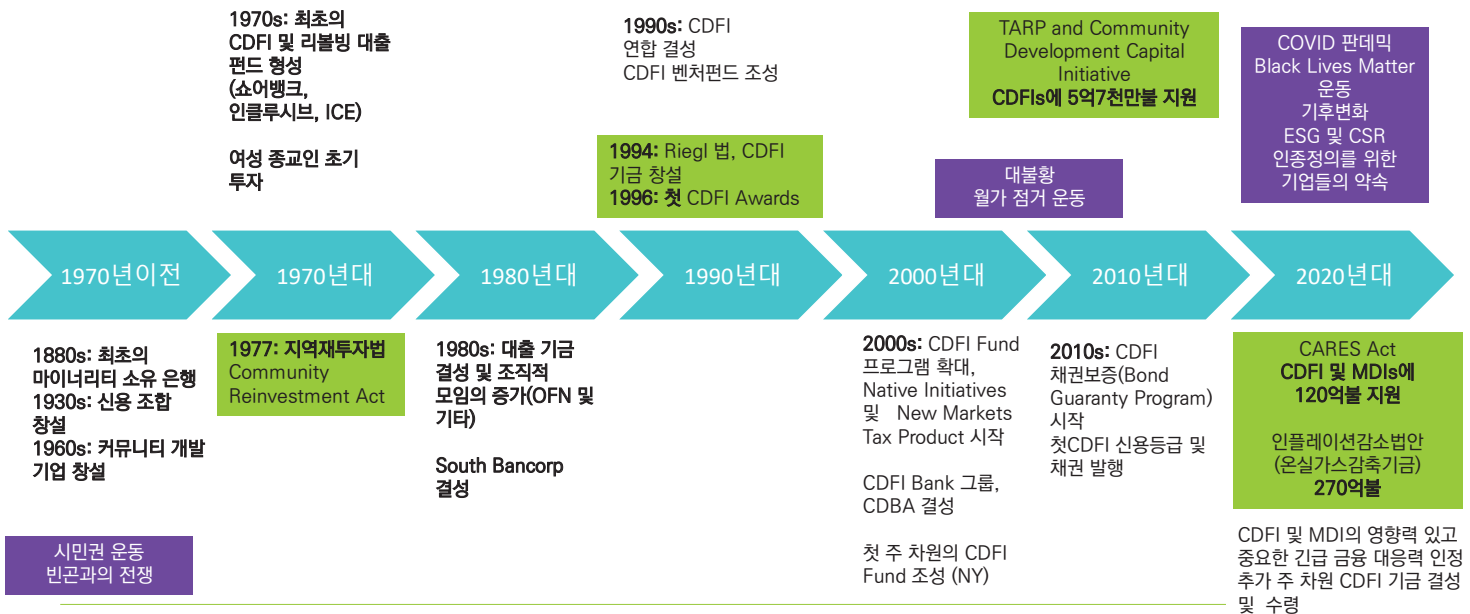
- 1,422 개의 인증 CDFIs이 소외 지역에서 주민들에 의해,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활동
- 50개 주, 워싱턴 DC 및 푸에르토리코
- 1994년 의회에서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CDFI)'의 성장과 역량을 지원하여 소외된 사람들과 지역사회에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안(" Riegle Act ") 제정

CDFI 신용협동조합:

- 저소득, 도시, 농촌, 소외 지역 거주 1천8백만 회원
- 지역사회가 관리하는 2천5백 20억달러의 자산
- 지역 주민과 공동체에 1천8백8십만달러 대출

/ inclusiv /¹⁴

CDFI의 역사: 사회운동과 자본 동원



Sources: CDFI Fund, Opportunity Finance Network, Democratizing Finance: Origins of the CDFI Movement, Clifford Rosenthal

운동에서 시장 조성으로: 부문 간 파트너십을 통한 기회 창출 및 공정한 생태계 조성

- 연방 및 신설된 주 차원의 CDFI 기금
Inclusiv는 CDFI 연합의 창립회원으로 CDFI 기금 설치를 위한 옹호활동에 참여
 - 1996-2022: CDFI Funding 기금 42억 달러
 - 2020-2022: 120억 달러(CARES Act)
 - 2022: 270억 달러(Inflation Reduction Act)
- 민관 파트너십과 투자
 - 여성종교인들로부터 받은 첫 투자로 부터 은행, 재단, 종교기관, 임팩트 투자자 및 기업들로 확대 (미국 사회정책, ESG, CSR, 지속가능금융, 인종평등)
 - 인종평등을 위한 2천억달러 규모의 기업 지원 (McKinsey)
 - 지역사회 투자 기관에 4천5백 8십억 (US SIF)
 - 경제적 기회 연합(Economic Opportunity Coalition) 결성 (인종 평등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

/inclusiv/16

미국 사회 인프라 정책

- **지역사회 재투자법(CRA):** 은행이 영업하는 지역의 신용 수요를 충족하도록 요구하여 임대 주택, 소규모 사업 개발 및 지역 사회 시설 지원을 위한 상당한 대출 및 투자 유도.
- **프로그램 관련 투자(PRI):** 재단이 양허적 투자를 하고 이를 연간 의무 자선 기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 미국 국세청(IRS) 지정 자선 투자.
- **CDFI 기금:** "지역사회 개발 금융기관(CDFI)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 주로 CDFI 인증, 기술 지원,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신시장 세금 공제 프로그램으로 구성.

/inclusiv/17

CDFI의 포용적 경제 조성: 임팩트와 사례

/ inclusiv /

CDFIs: 금융의 최초 대응자(respon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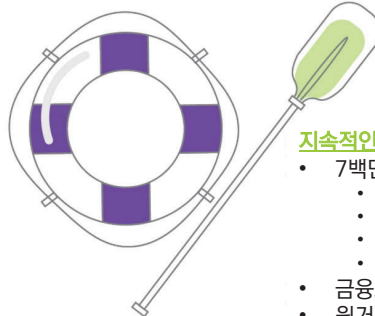
CDFI는 저소득층 지역사회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의 중소기업에 340억 달러 이상의 SBA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을 제공했음.

취약계층 - 특히 빈곤층은 기후 위기 대응력이 약하고, 경제위기시 의지할 재정적 여유가 적으며,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날 때 회복력이 적다.
aiding recovery from economic shocks.



위기대응

- ATM 및 기타 수수료 면제
- 납부 생략
- 저이자 라이프라인 대출
- 응급 코칭
- 혈액 및 물품 모집
- 소기업지원
- 정보공유
- 온라인 리소스



지속적인 금융서비스

- 7백만건 이상의 미결제대출 - 1,010억달러
 - 5백만건의 소비자대출 - 5백억달러
 - 26,000건의 기업대출 - 110억달러
 - 447,000건의 담보대출 - 350억달러
 - 160만건의 소액대출 - 40억달러
- 금융코칭
- 원거리, 온라인 접근성



지역개발실험은 훈련된 최초 대응자이자 미국의 가장 타격이 큰 지역에 긴급하게 목표한 경제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다가간다.

CDFI는 포용적이고 회복력있는 지역공동체를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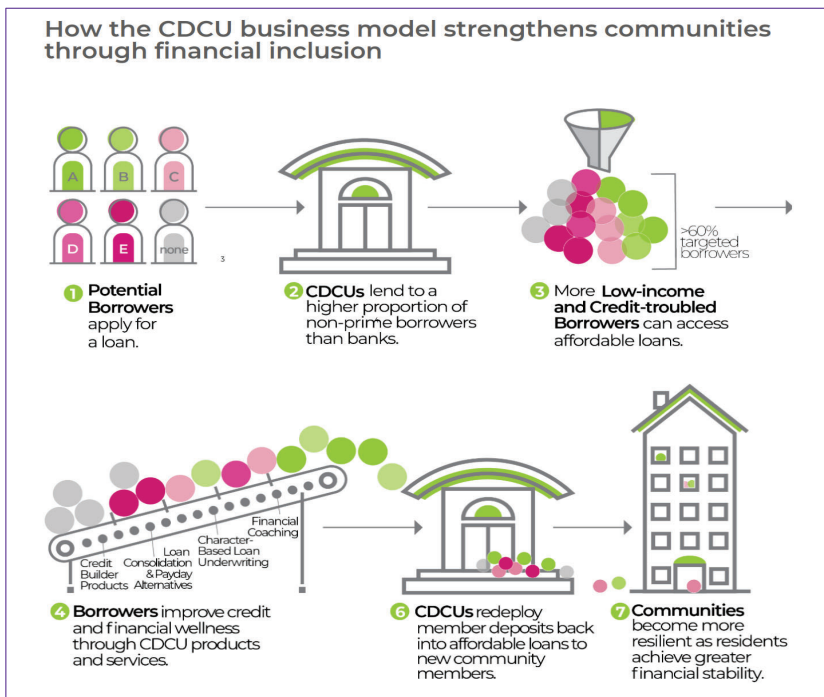
12:1 레버리지(leverage) 민간/ 공공 투자	696,000 개 소기업 창업/확장
230만 주택 개발/ 복구	> \$5,000억 지역 대출 (지난 5년간)
13,600 지역공동체시설 프로젝트	>\$2,500억 공동체 운영 자산
260만 고용 창출/유지	>1800만 회원 이용



- 커뮤니티 소유권을 통한 커뮤니티 자산 증대
- 주택 소유 및 소규모 비즈니스를 통한 소비자 저축 및 부의 축적
- 더 강력한 커뮤니티, 더 안전한 거리, 더 높은 부동산 가치
- 주택 소유 증가
-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및 고용 안정성 향상
- 소규모 비즈니스의 성장과 생존을 통한 지역 경제 번영
- 자산 구축 및 약탈적 대출 기관에 대한 의존도 감소

/inclusiv/20

CDFI의 비즈니스 모델 및 임팩트 모델



어떻게 지역개발신협(CDCU)의 비즈니스 모델은 금융포용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가

- 1) 대출희망자들이 대출을 신청
- 2) CDCU가 은행보다 높은 비율로 신용도 낮은 대출자에게 대출 실행
- 3) 보다 많은 저소득, 저신용 대출자들이 적정 이자의 대출에 접근
- 4) CDCU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들의 신용과 재정성이 향상됨
- 5) CDCU는 회원들의 예금을 새로운 지역 회원들에게 적정이자 대출로 재사용
- 6) 주민들의 재정 안정성이 향상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회복탄력성 향상

CDFI의 재무 성과 및 회복력



KEY FINDINGS

This paper draws on prior research, public resources, and loan-level data submitted by 97 credit unions certified as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s) by the US Treasury Department. The research conducted for this paper supports five key findings:

- 1) **Credit Unions that focus on community development and financial inclusion are more profitable, grow faster and are more active lenders than their peers across the industry.**
While the higher risks of inclusive lending are generally reflected in higher rates of delinquencies and charge-offs, most CDCUs manage these risks and outpace their peers overall financial performance.
- 2) **CDCUs are inclusive lenders that deploy more loan dollars to borrowers in lower credit tiers.**
The loan data from 97 CDFI credit unions suggests that in 2017 alone, CDCUs issued more than 1.5 million loans in CDFI Target Markets worth more than \$19 billion, including \$8 billion in non-prime consumer loans.
- 3) **CDCUs do not shut out risks, but engage, manage and mitigate them.**
Peer financial performance ratios for CDFI credit unions illustrate the consistency of a CDCU business model that successfully manages the higher credit risks in their loan portfolios and also produces higher earnings and growth.
- 4) **CDCUs specialize in high-impact products and services.**
These include products such as payday alternative, micro business and credit builder loans as well as key services such as financial counseling, free tax preparation and first-time homebuyer programs.
- 5) **CDCUs leverage grants and investment for growth and impact, but their stronger financial performance does not require external subsidy.**
While CDFI grants have been particularly important for small CDCUs and can greatly increase the impact of larger credit unions, they have not measurably contributed to the financial results of most CDFI credit unions. Indeed, every asset class includes "Benchmark" CDCUs that lead their peers in both financial performance and financial inclusion without any CDFI grants whatsoever.

- CDCU는 성장,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수익 측면에서 동종 업계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임
- CDFI는 특히 경제가 어려울 때 회복력이 강하고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함.
- 대불황 기간 동안 CDFI CU 대출 포트폴리오는 상업 은행보다 연체율과 상각률이 낮음



지역: 노스캐롤라이나(Durham 및 Charlotte 포함)
 전체 자산: 9억270만 달러
 이용 회원: 113,963

임팩트 분야:



지역 공동체 개요:

- 2000년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에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라틴계 이민자들의 요구에 대한 시민의 대응으로 설립.
-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개인과 이민자 커뮤니티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용 조합 및 지역 사회 개발 금융 기관의 전국적인 모델.
 - 65%의 조합원이 은행 거래 경험이 없었음
 - 6,400명의 첫 주택 구매자
 - 라틴계 및 이민자 대출 비율 97%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활기찬 지역 경제와 커뮤니티 조성:
 라티노 신용 협동 조합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라틴계 및 이민자 회원들에게 16억 달러 이상의 커뮤니티 대출을 투자함. 지점 개설로 인해 총 자산 가치의 4%(98억 달러) 상승.



지역: Deep South(Alabama, Arkansas, Louisiana, Mississippi, Tennessee)
총자산: 5억3천6백만 달러
이용회원: 37,294

임팩트 분야:



지역 공동체 개요:

- **미션:** 고품질 금융 상품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지역의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자산을 구축하며 삶을 개선함.
- 지역 사회 개발, 빈곤 완화 및 아프리카아메리칸들의 부의 창출 측면에서 이를 선도하는 국내 리더임.
 - 은행 거래 경험이 없는 회원 46%
 - 86% 첫 주택 구입자
 - 유색인종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 90%
 - 여성에 대한 담보대출 비율 64%



Community-Owned
 HOSPITAL IS A VITAL LIFELINE



지역: Guaynabo, Puerto Rico
전체 자산: \$107.5 Million
이용 회원: 9,299

임팩트 분야:



지역공동체 개요:

- 1959년 경제적 필요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지역 가톨릭 교구의 지원을 받아 농촌 지역 사회 단체가 조직함.
- 가치: 소외 계층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신뢰, 보살핌, 공동체 증진
- 푸에르토리코의 40% 이상이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음
- 주민의 35%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Jesus Obrero는 푸에르토리코 전역의 협동조합을 위한 태양광 대출 모델을 개발, 에너지 부담과 지역 전력망의 취약성에 대응하여 중요한 필요를 충족.



39 Broadway, Suite 2140
New York, NY 10006-3063
www.inclusiv.org

Cathi Kim
Director
Inclusiv/ Capital
ckim@inclusiv.org

/inclusiv/²⁶



/ inclusiv. /

Building Equitable Ecosystems: An Overview of US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Impact On Local Economies

Our Mission

To help low-income people and communities achieve financial independence through credit unions

At Inclusiv, we believe that true financial inclusion and empowerment is a fundamental right. We dedicate ourselves to closing the gaps and removing barriers to financial opportunities for people living in distressed and underserved communities. Inclusiv is a certified CDFI intermediary that transforms local progress into lasting national change.

/ inclusiv. /
at a glance

Policy Members

492

Total Members Served

18,290,313

Total Assets Represented

\$260B

/ inclusiv /



Since 1974 we have been the leading credit union resource for financial inclus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We are the main industry resource for CDFI and Low-Income Designated Credit Unions.



We led efforts to develop the regulatory frameworks for Low income designation and Secondary Capital.



We advocate for CDFI Fund appropriations and favorable changes in secondary capital rules.



We were instrumental in coalition that created the CDFI Fund and are recognized as experts in matters related to CDFI credit unions.



We conduct research and manage pilot programs that promote financial inclusion and fight abusive lenders.

/ inclusiv /₃

build capacity : connect capital : innovate : deepen impact and advance resiliency in underinvested communities



/ inclusiv / network

- CU Operations & Compliance, Webinars, conferences, technical assistance, research, training and advocacy to build credit union capacity for community development and financial inclusion
- Innovative approaches to reaching and serving historically underserved communities, such as Juntos Avanzamos and Minority Communities



/ inclusiv / ca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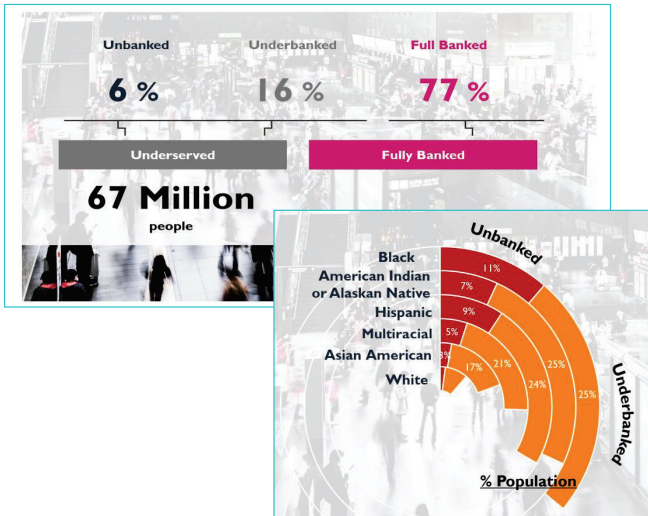
- Access to capital and technical assistance that can be leveraged by growing CDCUs to expand safe and affordable lending to local communities
- Training and secondary market for members' mortgage loans enabling CDCUs to magnify impact in their communities



/ inclusiv / next

- Innovative solutions, including Pathways to Financial Empowerment and our Data Analytics Platform, that harness the power of technology and data to improve targeting, strengthen compliance and help credit unions serve their members
- Center for Resilience and Clean Energy

Financial State of US Househ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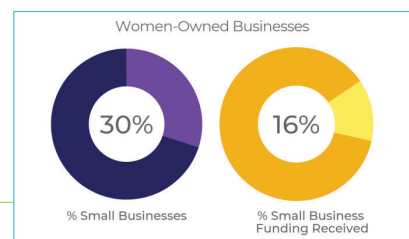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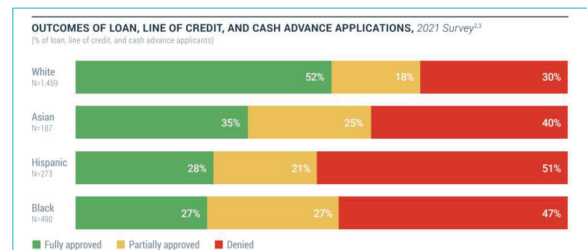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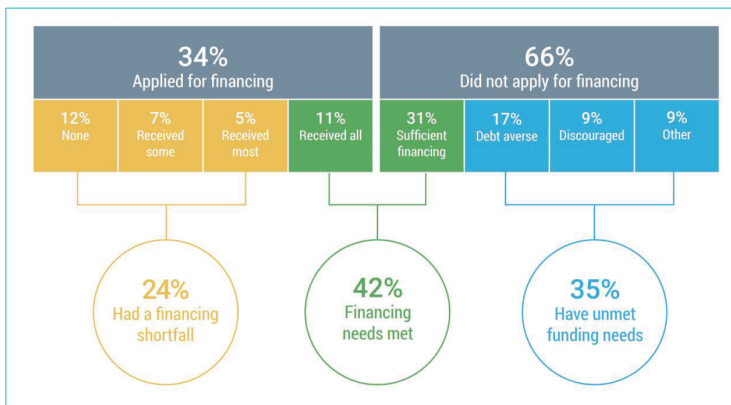


- Financially underserved consumers spent more than **\$189 billion** in fees and interest
- An unbanked person with average income of \$20k or less will spend **\$1,200** a year on check cashing and money orders
Over **\$40,000** in unnecessary fees in their lifetime
- Consumers with low or no credit scores may pay **\$200,000** more over a lifetime for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than those with good scores
 - 45 million US consumers have insufficient or no credit history
 - 121 million US consumers have subprime cred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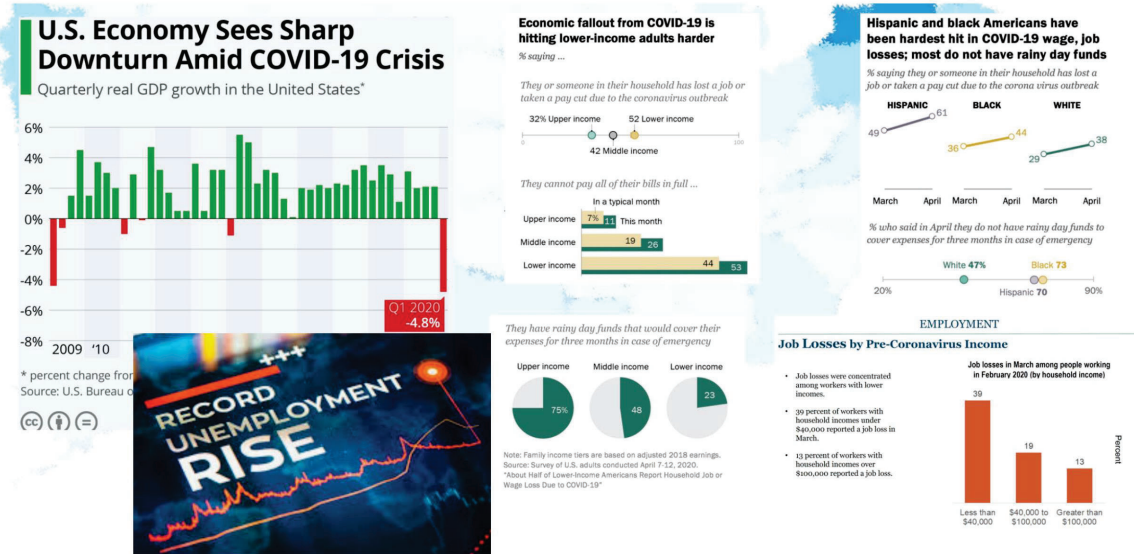
Financial inclusion is impacted by a series of factors, including historic policies and systems of colonization, redlining, and exclusion laws.

Capital Access for Small Businesses and Entrepreneurs

Small businesses account for 44% of US economic activity and are vital to building assets and stronger local economies. However, access to capital is constrained and asymmetrical for marginalized groups.



Disparate Impacts of the COVID Pandem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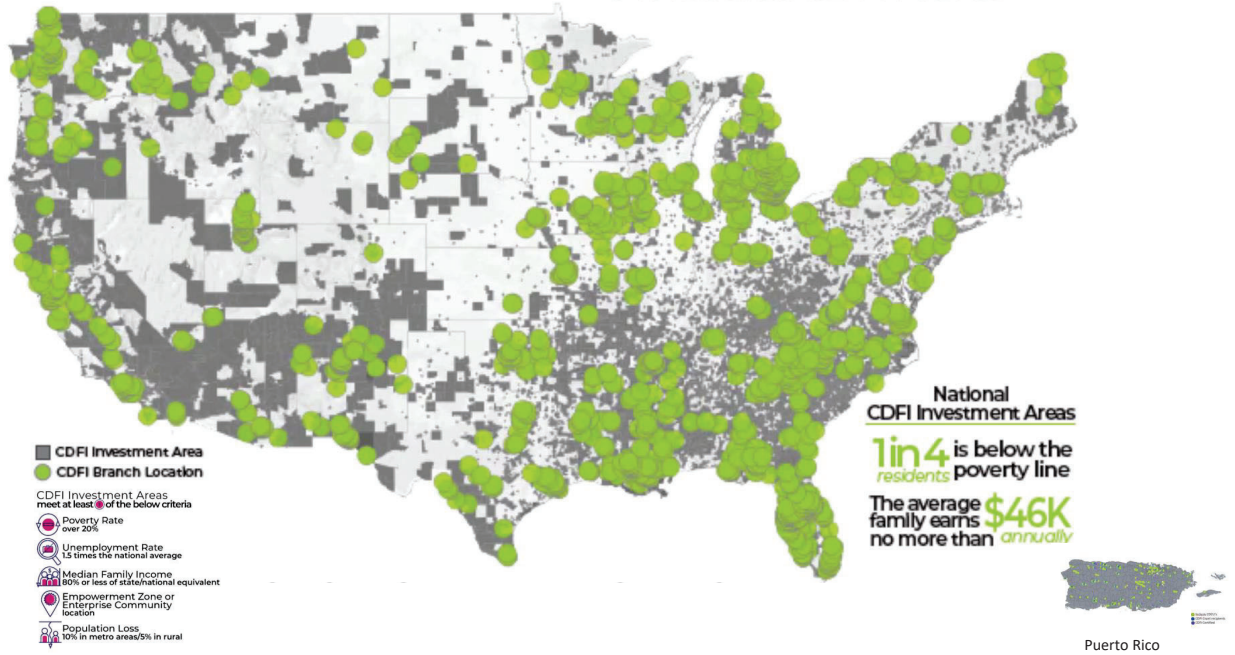
How might we strengthen the financial health of US households and communities?

How might we redesign the financial markets to strengthen inclusive and build assets in underserved markets?

How might we build sustainable business model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 inclusiv. /

CDFIs in Action
A National CDFI Profile



Overview of CDFIs and US Social Infrastructure Policies

/ inclusiv. /

What is a CDFI?

“For a community to thrive economically it requires access to basic financial services, affordable credit, and investment capital. Yet historically, for low-income communities and individuals, that access has often been limited.”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s) are mission drive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expand economic opportunity by providing safe, affordable, equitable and inclusive financial products and development services to underserved communities.

Designated by the US Department of Treasury, a majority of their investments are directly invested in low-income and underserved communities.



/ What is a CDFI? / Seven Tests for Certification



Legal Entity Test



Target Market Test



Accountability Test



Financing Entity Test



Primary Mission Test



Non-Governmental Entity 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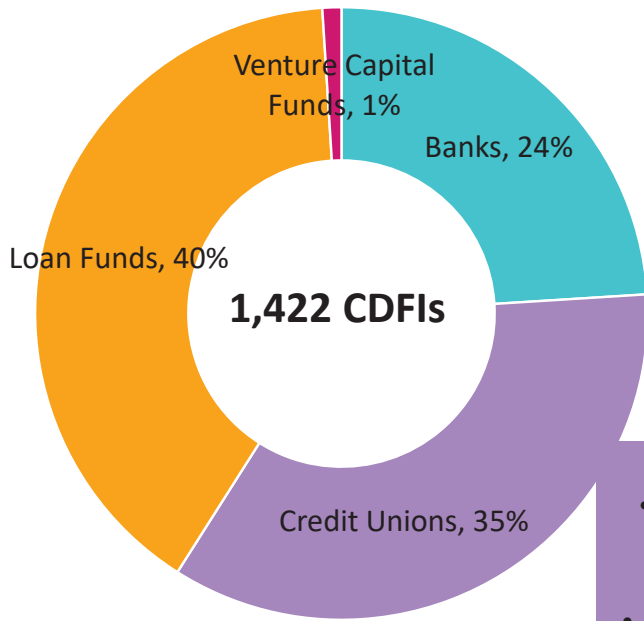


Development Services Test

/ inclusiv /



Overview of CDFI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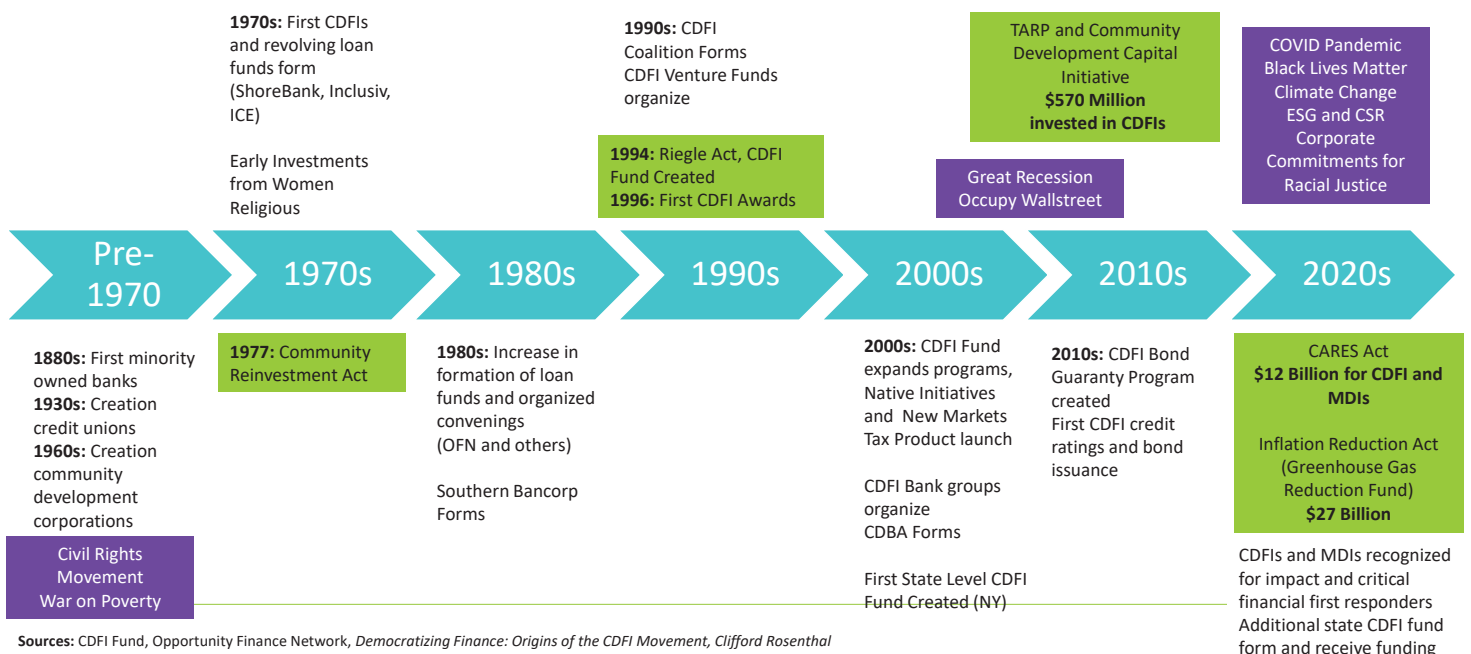
- 1,422 Certified CDFIs led by and for underserved communities
- 50 states, DC and Puerto Rico
- Established by Congress in 1994 (“Riegle Act”) to expand economic opportunity for underserved people and communities by supporting the growth & capacity of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s)

CDFI Credit Unions:

- 18 Million members of low-income, urban, rural, and underserved communities
- \$252 Billion in community -controlled assets
- \$188 Billion in loans to local residents and communities

*/ inclusiv /*¹⁴

History of CDFIs: Social Movements and Capital Mobilization



Sources: CDFI Fund, Opportunity Finance Network, *Democratizing Finance: Origins of the CDFI Movement*, Clifford Rosenthal

From Movements to Market Building: Creating Opportunities and Equitable Ecosystems Through Cross-Sectoral Partnerships

- Federal and Emerging State CDFI Funds
 - Inclusiv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CDFI Coalition and advocates for creation of CDFI Fund
 - 1996-2022: \$4.2 Billion CDFI Funding
 - 2020-2022: \$12 Billion (CARES Act)
 - 2022: \$27 Billion (Inflation Reduction Act)
-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Investments
 - First investments from women religious and expanded to banks, foundations, religious institutions, impact investors and corporations (US Social Policies, ES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ustainable Finance, Racial Equity)
 - \$200 million corporate commitment for Racial Equity (McKinsey)
 - \$458 billion in community investing institutions (US SIF)
 - Formation of Economic Opportunity Coalition (Public and Private-Sector Efforts to Advance Racial Equity)

/ inclusiv /¹⁶

US Social Infrastructure Policies

- **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 Requires banks to help meet the credit needs of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operate, resulting in significant lending and investing for rental housing, small business development, and support for community facilities
- **Program Related Investments (PRIs):** Philanthropic investments designated by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that allow foundations to make concessionary investments and count them towards their annually mandated philanthropic giving
- **CDFI Fund:** Promotes “economic revitaliz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through investment in and assistance to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s).” This happens primarily through CDFI certification, technical assistance, and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as well as the New Markets Tax Credit Program

/ inclusiv /¹⁷

CDFIs Build Inclusive Economies Impact Profiles and Case Studies



CDFIs: Financial First Respon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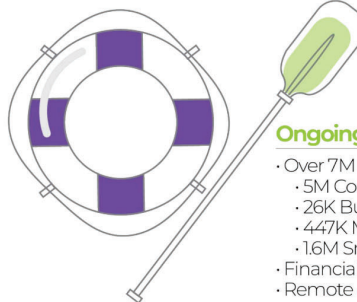
CDFIs Provided More than \$34 Billion in SBA 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s to Small Businesses in Low-Wealth Communities and Communities of Color

Vulnerable populations—especially those living in poverty—are less able to prepare to weather a crisis, have smaller financial cushions to rely on in times of economic hardship, and will be less resilient during recovery from economic shocks.



Crisis Response

- Waived ATM & other fees
- Skipped payments
- Low-interest lifeline loans
- Emergency coaching
- Blood & supply drives
- Small business support
- Information sharing
- Online resources



Ongoing Financial Services

- Over 7M outstanding loans—\$101B
- 5M Consumer loans—\$50B
- 26K Business loans—\$11B
- 447K Mortgages—\$35B
- 1.6M Small Dollar loans—\$4B
- Financial Coaching
- Remote & Online access



Community development credit unions

are trained first responders, expert in rapidly deploying targeted economic stimulus into America's hardest hit communities to reach our most vulnerable populations.

CDFIs Build Inclusive and Resilient Commun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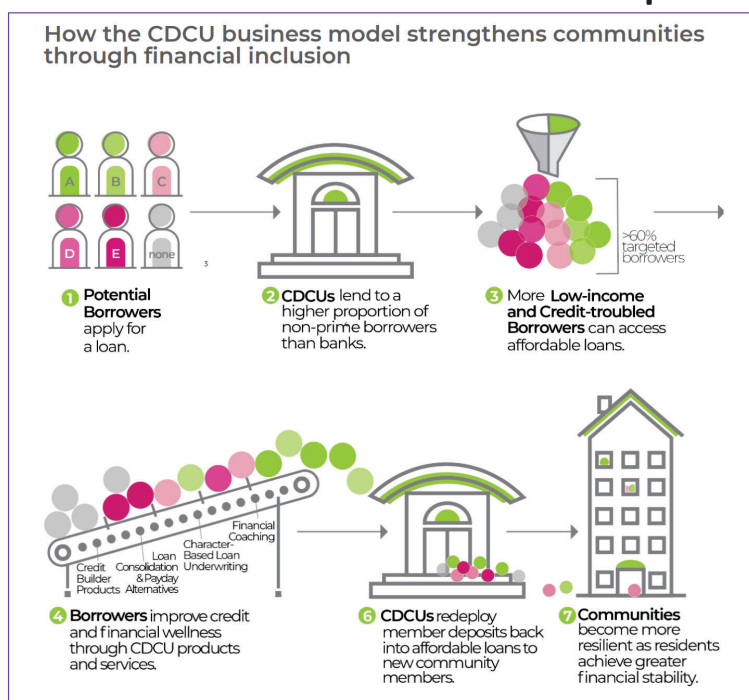
12:1 Leverage Private/ Public Investments	696,000 Small Businesses Started/ Expanded
2.3 Million Housing Units Developed/ Rehabilitated	> \$500 Billion Community Loans in Past 5 Years
13,600 Community Facility Projects	>\$250 Billion Community Controlled Assets
2.6 Million Jobs Created/ Maintained	>18 Million Members Served



- Increase community assets through community ownership
- Consumer savings and wealth building through homeownership and small businesses
- Stronger communities, safer streets, and higher property values
- Increase homeownership
- Increase access to transportation and job security
- Thriving local economies through growth and survival of small businesses
- Asset building and reduced dependence on predatory lenders

/ inclusiv / 20

CDFIs Business Model and Impact Model



Financial Performance and Resilience of CDFIs



KEY FINDINGS

This paper draws on prior research, public resources, and loan-level data submitted by 97 credit unions certified as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s) by the US Treasury Department. The research conducted for this paper supports five key findings:

- 1) **Credit Unions that focus on community development and financial inclusion are more profitable, grow faster and are more active lenders than their peers across the industry.**
While the higher risks of inclusive lending are generally reflected in higher rates of delinquencies and charge-offs, most CDCUs manage these risks and outpace their peers overall financial performance.
- 2) **CDCUs are inclusive lenders that deploy more loan dollars to borrowers in lower credit tiers.**
The loan data from 97 CDFI credit unions suggests that in 2017 alone, CDCUs issued more than 1.5 million loans in CDFI Target Markets worth more than \$19 billion, including \$8 billion in non-prime consumer loans.
- 3) **CDCUs do not shut out risks, but engage, manage and mitigate them.**
Peer financial performance ratios for CDFI credit unions illustrate the consistency of a CDCU business model that successfully manages the higher credit risks in their loan portfolios and also produces higher earnings and growth.
- 4) **CDCUs specialize in high-impact products and services.**
These include products such as payday alternative, micro business and credit builder loans as well as key services such as financial counseling, free tax preparation and first-time homebuyer programs.
- 5) **CDCUs leverage grants and investment for growth and impact, but their stronger financial performance does not require external subsidy.**
While CDFI grants have been particularly important for small CDCUs and can greatly increase the impact of larger credit unions, they have not measurably contributed to the financial results of most CDFI credit unions. Indeed, every asset class includes "Benchmark" CDCUs that lead their peers in both financial performance and financial inclusion without any CDFI grants whatsoever.

- CDFI credit unions outperform their peers in terms of growth, community impact, and earnings
- CDFIs are resilient and have strong portfolios, especially in times of economic distress.
- During the Great Recession, CDFI CU loan portfolios had lower delinquencies and charge-offs than commercial banks.



Locations: North Carolina (including Durham and Charlotte)
Total Assets: \$902.7 Million
Members Served: 113,963

Impact Areas:



Community Profile:

- Founded in 2000 as a grassroots response to needs of unbanked Latino immigrants in Durham, North Carolina.
- National model for credit unions and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seeking to serve unbanked individuals and immigrant communities.
 - 65% members previous unbanked
 - 6,400 first-time homebuyers
 - 97% loans to Latinos and immigrants



Transforming Crises into Opportunities and Vibrant Local Economies and Communities:

Latino Community Credit Union has invested more than \$1.6 billion in community loans to the unbanked and underbanked Latino and immigrant members.

Branch openings were credited with raising property values by 4 percent compared to the total appreciation, or \$9.8 billion.



Locations: Deep South (Alabama, Arkansas, Louisiana, Mississippi, Tennessee)
Total Assets: \$536.0 Million
Members Served: 37,294

Impact Areas:



Community Profile:

- Mission: To strengthen communities, build assets and improve lives in economically distressed areas of the Deep South by providing access to high quality financial products and related services.
- National leader in community development, poverty alleviation and Black wealth building
 - 46% members previous unbanked
 - 86% first-time homebuyers
 - 90% mortgages to People of Color
 - 64% mortgages to women



Community-Owned
 HOSPITAL IS A VITAL LIFELINE



Locations: Guaynabo, Puerto Rico
Total Assets: \$107.5 Million
Members Served: 9,299

Impact Areas:



Community Profile:

- Organized in 1959 with support from the local Catholic parish by a rural community group in search of alternatives for their economic needs
- Values: To promote trust, care, and community in meeting economic needs of the underserved
- More than 40% of Puerto Rico lives below the poverty line
- 35% of residents do not have access to financial services

Jesus Obrero developed the solar lending model for cooperativas across the island, meeting critical needs given the energy burden and vulnerability of local grids





39 Broadway, Suite 2140
New York, NY 10006-3063
www.inclusiv.org

Cathi Kim
Director
Inclusiv/ Capital
ckim@inclusiv.org

/inclusiv/₂₆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 발제문

지역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왜 지역 기반인가?

지역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시민 연대의 기본 공간

- 지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을 위한 공간적 인프라이며 관계적 자산
- 지역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발전을 위한 공간적 기반
- 글로벌 경쟁의 격화속에서 지역경제의 중요성 부각
- 자본주의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불평등에 반영
- 세계화와 개방화는 글로벌 무대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 자치 확대
- 디지털 전환은 모든 부문에서 분권화와 분산화의 물적 기반 강화하여 지역의 역할 강화 가능
- 탄소중립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은 지역

한국의 사회적 금융생태계 현황

공공 주도 서민지원 개념의 사회적 금융

- 한국에서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 실현보다 중소기업 지원이나 서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의 하나로 간주 경향
- 공적 재원은 융자나 특례 보증의 형태로 공급되어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 민간 재원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임팩트 투자, 소셜벤처 등 투자 및 컨설팅 형태로 지원하거나 사회적경제 조직이 기금을 마련하여 회원사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자금공급은 2020년 5,700억원 규모인 반면 민간부문의 공급 규모는 2020년 1,394억 원
- 한국 최초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은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5

한국의 사회적 금융은 초기 단계

● 연도별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 추산액

(단위: 억 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비영리 민간기금 융자	70 (7.8)	90 (2.9)	100 (2.0)	110 (2.0)	135 (2.1)	자조기금, 벤처자선
민간주도 임팩트투자	150 (16.7)	200 (6.3)	160 (3.3)	410 (7.5)	465 (7.1)	임팩트펀드, 직접 투자
지자체 기금융자	113 (12.6)	165 (5.2)	297 (6.0)	472 (8.6)	368 (5.6)	사회적경제 기금
정책기관 융자	235 (26.2)	459 (14.5)	787 (16.0)	918 (16.7)	1,167 (17.8)	서민, 중기, 소상공인
정책기관 보증	328 (36.6)	2,006 (63.5)	2,713 (55.2)	2,808 (51.0)	3,110 (47.4)	신보, 기보, 지역신보
정책성 자금 출자펀드 투자	-	237 (7.5)	855 (17.4)	784 (14.2)	810 (12.4)	모태펀드, 성장사다리
합계	896 (100.0)	3,157 (100.0)	4,912 (100.0)	5,502 (100.0)	6,555 (100.0)	

자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작성

6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시급

● 주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현황

기관명	설립년도	사업분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2000	마이크로크레딧, 사경 지원기관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2002	마이크로크레딧, 사회적기업가육성
(재)함께일하는재단	2003	공익목적 기금운용, 사회적기업가육성
(주)아크임팩트자산운용(舊 아크투자자문)	2003	소셜벤처 경진대회, 임팩트펀드 운용사
(주)크레비스파트너스	2004	소셜벤처 투자, 임팩트펀드 운용사
(사)나눔과미래	2006	주거복지, 사회주택기금 운용
(재)열매나눔재단	2007	국제개발, 사회적기업가육성
(주)소풍벤처스(舊 sopoong)	2008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터
(주)임팩트스퀘어	2010	임팩트비즈니스 컨설팅, 액셀러레이터
전국주민협동연합회	2010	자활공제사업, 자활기업 대출
(주)Mvsc엠와이소셜컴퍼니	2011	임팩트비즈니스 컨설팅, 액셀러레이터
(주)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2011	창업투자회사, 임팩트 투자사
(재)한국사회투자	2012	공익목적 기금운용, 액셀러레이터
(주)오마이컴퍼니	2012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7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역할 강화 시급

● 주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현황(계속)

기관명	설립년도	사업분야
(주)루트임팩트	2012	에너지 분야 컨설팅, 기후금융 P2P
(주)HG이니셔티브	2013	소셜벤처 육성, 임팩트펀드 운용사
(사)피피엘	2014	비영리 대출, 사회적기업가육성
재단법인 밴드(舊 한기협 공제사업단)	2014	사경기업 공제사업, 액셀러레이터
팬임팩트코리아유한책임회사	2015	SIB 운영기관
한국사회혁신금융(주)	2015	사경기업 공제사업, 액셀러레이터
(주)한국사회혁신금융	2016	SIB 운영기관
(주)비플러스	2016	P2P 금융, 임팩트 투자 플랫폼
(주)인비저닝파트너스(舊 옐로우독)	2016	임팩트 투자사
(주)FK임팩트금융	2017	임팩트 투자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2019	도매기금 운영, 중개기관 육성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2019	대부업, 저리 대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8	비영리 대출
(재)대구사회가치금융	2022	비영리 대출

자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작성

8

사회적 경제 육성 기금은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역할

구분	지자체	기금 명칭	설치년도	조성액	'23예산
광역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2012	90,700	5,470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2016	29,650	9,998
	세종시	사회투자기금	2018	1,000	-
	충남도	사회적경제기금	2019	1,680	812
	전북도	사회적경제기금	2020	1,500	527
	경남도	사회적경제기금	2020	3,420	330
기초	경기 성남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0	2,075	63
	전북 완주	사회적경제육성기금	2011	1,050	-
	경기 화성	사회적경제지원기금	2014	60,800	5,627
	서울 성동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4	1,750	600
	서울 성북	사회투자기금	2015	1,958	491
	서울 은평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5	3,650	900
	서울 강동	사회적경제투자기금	2016	300	100
	전북 전주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019	2,000	300

주: 조성액은 지자체 전입금 누계액으로 2023년 1월 기준
 자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작성.

용자 중심의 사회적 경제기금

구분	항목	내용	사례
기금 투·용자	사회적경제 기업 (일반) 용자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저리 용자, 5천~3억원 한도, 이자 2~3%, 기간 3~6년 (※ 금융기관 협조용자는 담보대출 시행, 최대 5억 원, 15년 이내)	대부분 시행
	우수기업 용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성장 지원 용자, 일반 용자에 추가 한도 제공, 3~5억 원 한도, 기간 5~10년	서울시, 경기도
	특화 분야 용자	소셜하우징 용자 (사회주택 건설자금) 10억원 한도, 이자 3% 이내, 기간 15년	서울시
	지역 자산화 용자	사회적경제 지역 자산화 프로젝트 용자 6~10억 원 한도, 이자 1.5~2%, 기간 10~15년	서울시, 경기도
	불안정 고용 노동자 등 종사자 용자	불안정 고용 노동자 생활자금 용자 (5백~1천만 원, 3% 이내, 3년) 사회적경제 종사자 대상 용자	서울시, 화성시
	자조 기금 운영기관 용자	민간 자조기금 운영기관 매칭 용자 (3억 원 이내, 무이자, 기간 7년) 대출금리 4% 이내	경기도
	소셜벤처 투자	소셜임팩트펀드 투자 (모태펀드 출자) 대략 1~2억 원 규모	서울시
금융기관 이용 지원	이자지원	시중은행/상호금융기관 협약 통해 저리 대출 (금융기관 이차보전) 사회적경제기업 이차 부담 지원 (기업별 이차 지원)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 충남도, 전북도
	보증제공	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 협약 통해 보증부 저리 대출 (보증료 지원, 이차보전),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 상호금융기관 협약 (보증부 저리 대출)	경기도, 세종시, 성남시
역량 개발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가치 우수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청년 소셜벤처 사업개발비 지원	화성시, 성북구
	교육 · 컨설팅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교육	경남도
기타	인프라 운영	소셜벤처허브 운영,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서울시, 화성시

자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작성.

재정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의 발전 필요

- 한국 금융 시스템은 중앙 집중적, 서울 중심적 시스템
- 정부의 사회적 금융 정책은 자금공급은 늘렸지만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성과는 미미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여전히 금융 사각지대
 - 임팩트 투자의 대부분은 신생 소셜벤처로 집중
- 비영리 중개 기관의 경우 투자조합을 결성하려고 하지만 투자자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
- 융자 중심의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은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측면에서는 악순환 구조
 - 낮은 융자 이자율과 작은 기금 규모 → 비용을 상쇄할 만한 수입 부족 → 민간 중개기관의 운영비 지원 필요와 이차보전에 대한 수요 지속 발생 → 지방재정의 한계로 사회적경제 기금 재원 감소 → 융자규모 축소 등 지원 감소 → ...

프랑스 사례

사회적 경제가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 차지

- 2014년 7월 31일 사회연대경제법(ESS법) 제정
- 2020년 기준 ESS는 164,540개 기업, 222,331개 개인 사업체, 프랑스 고용의 10.5%,
- 민간 임금 고용의 14%인 2.4백만 명 고용(68% 여성) 1,200만 명의 자원봉사자 등 포괄
 - 사회서비스에는 고용의 40%가 ESS, 보건 부문에는 여성 고용의 80%가 ESS,
 - 주거와 식당에는 25,000명 근로자와 전국에 3,700개 기관, 교육에는 35만 명 고용,
 - 농업에서는 농민의 ¼이 협동조합, 농식품 생산 및 산업 부문에 35,700명 고용,
 - 예술 및 공연에는 22,000개 협회가 있어 예술 공연단체의 ¼를 차지하고 고용의 25%,
 - 스포츠에는 70,600명이 고용되어 개인 사업체의 84%를 차지하고 10명 중 6명이 ESS 고용,
 - 보건 보조 기관의 73%가 ESS
- 공공 및 민간 고용에서 차지하는 ESS 비중은 농촌지역 13.8%, 교외지역 11.4%, 도시지역 10.2%

사회적 금융은 금융 시장에서의 비중은 낮지만 증가 중

- 사회적 금융은 2019년 기준 156억 유로이고 2019년에만 30억 유로가 조달되어 458백만 유로가 사회적, 환경적 목적으로 2019년에 투자 (그중 ESS는 약 105백만 유로)
 - 460만 유로는 2019년 110개 협회를 가진 연대예금의 기부로 조달
- 지분참여 크라우드 펀딩은 총 잔고가 629.1백만 유로이고 402백만 유로는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이루어 졌으며 투자기금과 소셜 임팩트 계약도 발전 중
- 2020년 10월부터 개인이 지속 가능한 연대 개발 통장(LDDS)을 소유하면 ESS에 기부 가능

다양한 공공자금 지원 및 지원 수단

- 영토은행 NovESS 임팩트 투자, Bpifrance는 지난 4년 동안 ESS에 평균 3억 5천만 유로 투자(기관 활동의 2%), 사회혁신기금 FISO2는 약 2,100만 유로 200개 프로젝트 지원
- France Active는 ESS 기업 대출 및 자문, IMPACT 보증, 투자가 연결, Sogama 공동 보증, 협동조합 임팩트 펀드, NEF는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활동 자금 지원 등
- Banque Triodos는 윤리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프로젝트 자금 조달, Adie는 은행 대출 불가능 프로젝트 지원, '기업가 네트워크'는 지역 기업인들에게 무이자 대출 제공 및 임팩트 투자, Initiative France 와 Raiseherpas 기부 기금은 기업인 무이자 대출
- 크라우드 펀딩: ESS 전용 Solydend, 사회적, 환경적 효용성이 높은 영세소기업 소액대출 Babyloan, 농업 및 식품 Miimosa, Blue Bees,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위한 Tudigo,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프로젝트 MyMoneyHelp, NEF 기부 플랫폼 Zeste 등
- 일부 레지옹은 ESS 프로젝트 지원

15

연대금융의 발전

- 연대금융은 ESS에 투자하는 금융으로 2021년 120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 240억 유로 자금, 1,260,000명이 새로운 연대 투자 가입
 - 생명보험 계약 시 연대기금 제안 의무로 51억 5천만 유로 모금
 - 현재 180여 개의 Finansol(연대금융) 라벨이 붙은 금융상품 운용
- 연대금융은 2020년 1,660개의 협회와 기업, 4,660개 마이크로 기업 지원, 평균 투자는 236,000유로
 - 사회적기업 67%, 부동산 투자 14%, 사회적 대출 7%,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자금지원 6%, 환경 대출 6% 등의 순으로 투자하며, ESS에 대한 자본 투자는 25% 세제 혜택
- 연대금융은 연대저축 상품 가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회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협회와 연결

16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축 제도

- 연대저축은 목적 지향적 자본으로 연대활동을 지원하는 연대금융의 하나
 - 유형에는 공유 투자, 연대 투자, PEE, PERCO 등과 같은 급여 저축, 연대 기업 자본 참여, 크라우드 펀딩과 참여형 펀딩 유형 등이 있고, 직접 또는 투자기금을 통한 연대 투자와 공유 저축이 대표적
 - ‘90/10 펀드’(투입 금액의 10%는 연대금융, 90%는 전통적인 증권 투자)와 이자를 연대 프로젝트 지원에 투입하는 유형이 대표적
 - 공유 저축은 저축자가 투자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선적, 교육적, 과학적, 사회적, 인도적, 문화적 또는 환경적 단체에 기부하며 일부 금융기관은 고객 기부금에 매칭 참여
 - * 공유 저축은 1983년 신용협동조합이 공동 투자 기금 “Faim et développement”를 설립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투자 원칙은 기금 이익의 일부 (50% 또는 75%)를 가톨릭 기아 및 개발 위원회에 지급
 - 연대 투자는 투자 금액의 10%로 제한되고 저축자가 회수 가능하며, 비상장주식과 정기예금의 2가지 투자가 있어 비상장주식 투자는 세금 혜택 제공(최소 5년 동안 자본 투자)되며, 정기예금은 일정 기간(12~25개월) 동안 자원을 이용하고 기간에 따라 보상

17

임팩트 투자도 추진 중

- Le French Impact
 - 2018년 임팩트 프로젝트를 촉진하기위해 Business Angels 및 재단 등이 함께 Impact 투자 펀드를 하고, 경제부와 영토은행의 지원을 받는 Impact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공 해커 프로그램으로 지역 혁신 촉진 및 기업가들과 공공 주체 연결
 -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1,000개의 임팩트 프로젝트를 만들고 27개의 파트너 커뮤니티가 연합
- FAIR(Financer, Accompagner, Impacter, Rassembler)
 - 연대금융의 주체인 Finansol과 임팩트 혁신 연구소인 iiLab의 합병으로 2021년에 탄생하여 소셜 임팩트를 하는 금융 주체들을 연합한 FAIR는 120개 이상의 연대 기업, 은행, 관리 회사, NGO, 주요 학교 및 혁신적인 인사들로 구성
 - 포용적인 금융 활동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고용과 주택으로의 복귀, 재생에너지 및 유기농 개발, 개발도상국 기업이 정신 지원 등
 - 2020년에 실현한 투자액은 약 5억 1,300만 유로

18

해외 사회적 금융 특성 비교

	영국	프랑스	일본
주요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주도 민관협력 투자 • SVC • SI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공자금 중심 • 연대금융, 연대저축, 연대투자 등 금융시스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B • PFS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적 형태의 법적 기반 • 민간 중심 또는 민간 주도 • 사회투자 전문기관 육성에 초점 • 사회투자시장 조성 강조 •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고한 법적 기반 및 국가 지원 • 공공자금 중심 • 조직적 네트워크 지원 • 금융시스템의 사회적 금융 참여: Finansol • 다양한 사회적 금융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기반 없이 정부 정책 방향에 기반 • 민간 주도에서 공공부문 확장 중 • 지자체 참여 • 민간 금융기관의 투자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면예금 • 민간 금융기관 지원 • 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공자금 • 연대금융을 통한 민간 저축 및 투자 • 크라우드 펀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면예금 • 기부 • 정부 지원 시작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생태계 구축 전략

지역 기반 관계금융 추진

1) 한국형 지역 재투자법 제정

2) 지역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합리화

- 획일적 규제가 지역 금융시스템 위축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양
- 지역 금융기관들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3) 전국은행의 지역 지점과 지역 금융기관의 분업 및 협력체계 구축

- 공익 활동보고서 발간
- 산하 저축은행들의 지역 금융기관화
- 지역금융기관의 컨설팅 제공 능력 제고

4) 지역금융기관의 개혁과 활동의 혁신

금융기관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사회적 금융 강화

- 사회적 금융은 일반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제고 방안의 하나로 기능
 - 상업적 금융기관 자체가 사회적 금융을 실행하여 사회적 금융 생태계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 상업은행의 사회적 금융에 대한 대출 및 투자 비중 제고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이나 소액금융기관에 자금 공급
- 사회적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 개발
- 전국은행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서 사회적 금융 지원 강화
- 중앙정부는 금융기관들의 사회적 책임 제도화와 인센티브 규정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효율화

1) 기금의 운영 목표를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으로 설정

2) 성과지표 설정

-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지표: 고용, 매출, 조합원 참여 등
- 지역 사회 정책의제 지표: 지역 일자리 창출(일자리 양, 질 개선), 사회서비스 공급, 지역 자산화(사유화되지 않는 커먼스 형태의 지역자산 형성·전환 건수), 참여자 규모, 기타 지역 의제 등
-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지표: 제도권 금융기관 참여 확대(참여기관 수, 공급 규모, 관행 개선), 사각지대 자금공급(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자금공급 건수, 규모), 다양한 사회적 투자자 개발(투자자 수, 투자 규모), 풀뿌리 중개기관·자조기금 육성 등

3)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 간 관계 정립

- 기금사업에 관한 구체적 내용(용자지원의 대상자, 용자조건, 용자신청 및 결정 절차, 용자금액 기준, 용자의 제한, 중복용자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용자금 상환, 상환유예 및 거치기간 등 연장, 사후관리 등), 수행기관에 관한 내용(수행기관 조건, 용자시행, 수행기관의 임무 등)을 조례로 규율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 효율화

- 대손 부담 문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손실지원’ 확대 고려(예: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은 손실액의 70% 부담)
-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협약금리의 유연화
- 사업의지, 준비 정도, 의사결정 수준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자금수요 조사

4) 지역 금융기관의 개혁과 활동의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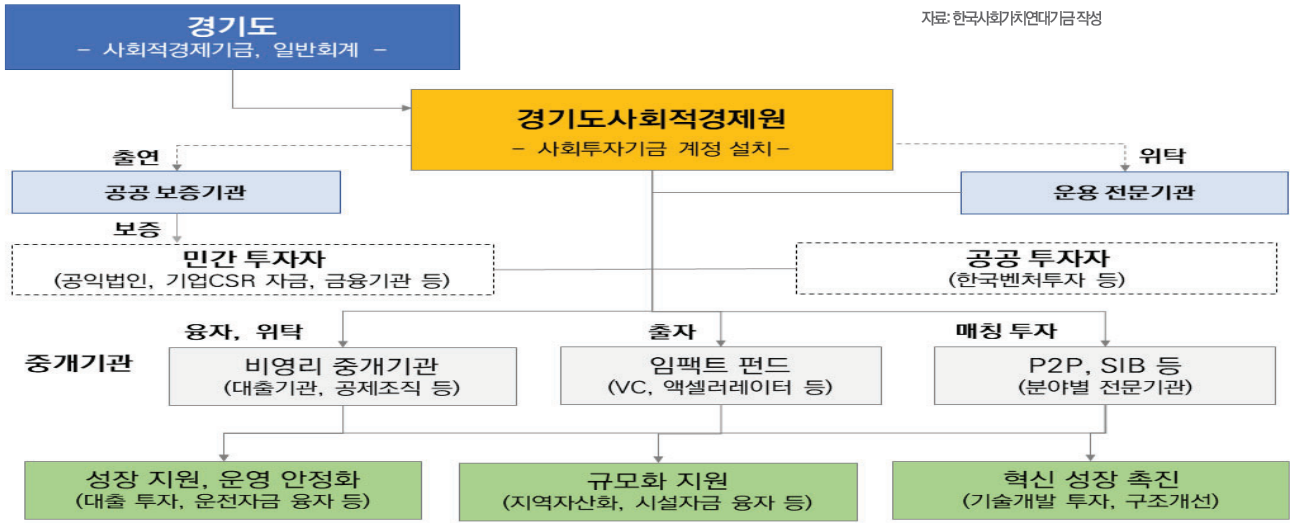
- 민간자금과 결합해 공공자금의 레버리지 효과 유도
- 성장잠재력 높은 기업의 집중 투자와 육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 용자를 넘어 타펀드의 출자를 통한 간접 운용 방식으로의 기금운용

5) 기금과 고도화 프로그램 연계

-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활성화와 재무 건전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재무, 마케팅, 인사 등 일반 경영 영역)을 고도화

사회적 경제 지원기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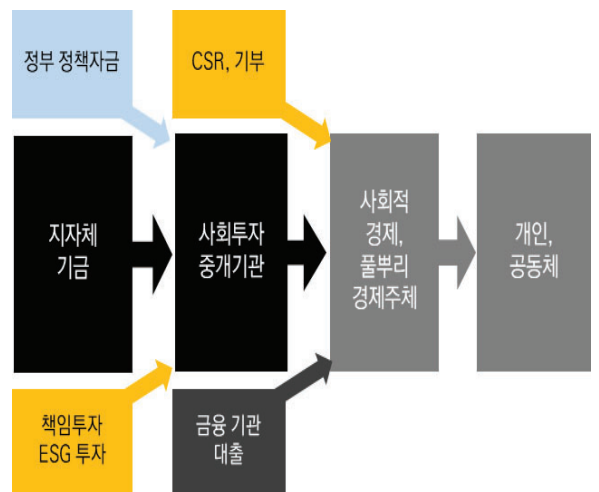
- 예: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금 운용(안)



지자체 기금을 활용한 지역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 다양한 중개기관 지원, 자금공급 사각지대 축소, 사업(상품) 다양화, 촉매 자본 형태로 대손 공동 부담, 운영비 지원 등 민간재원 결합력 등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금융기관, 중개기관,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 사회적 금융 협의회’ 구성

● 지자체 기금을 통한 지역 사회적 금융생태계 조성



자료: Rowell(2014) 한국사회기치연대기금수정하여 재작성

사회적 금융 투자의 제도화

- 중개기관 설립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
- 금융 및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공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중개기관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

● 사회적투자 제도화 추진 방안

구분	내용
사회투자기관 / 사회투자조합	사회적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사업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투자, 용자 -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용자 - '사회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도매형 사회투자기관 / 사회투자 모태조합	기관에서 신청, 심사 통해 지정, 정관 인가 사업 내용 - '사회투자 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 - 사회투자기관 육성, 사회투자 성과 관리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도매형 사회투자기관에 출자, 출연 가능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안행배의원 등 17인)(2021.12.9)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사회투자연대(가)금 정리.

민간 공익법인의 사회적투자 활성화

- ‘(가칭)공익목적투자제도’ 도입
 - 공익법인이 수익 창출이나 자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용자, 지분투자, 보증 등으로 하는 사회적투자는 ‘공익목적투자’
 - 공익목적투자의 경우 의무지출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분 보유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활성화
- 간접투자 방식의 사회적투자 집행
 - 전문적인 운용 역량을 갖춘 중개기관을 통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사회적투자

자금 공급 수단별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구분	관련부처	관련 근거 마련 (안)
사업예산 할당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접근성 제고	중기부	「중소기업진흥법」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 신설 ex. 중소기업진흥법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참고
정부보증 통한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금융위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ex. 중소기업진흥법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5 참고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예산을 책정해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 연 30억원 출연, 5~600억원 특례보증)
모태펀드 출자로 임팩트 펀드 촉진	중기부	「벤처기업법」 제16조의8 (소셜벤처기업) ※ 이미 처리
서민금융 연계, 사각지대 대응	금융위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협의회 통해 관계기관 협력/조율	금융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위원회/협의회에 금융위, 중기부 참여 구조 마련 또는 「사회적기업법」 내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하고 시행령에 참여 대상으로 명기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재단(금)작성

- 신탁의 사회적경제 조직 출자를 위한 신탁법 개정 등

Thank you!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 발제문

지역 기반 '사회적 은행' 설립 제안
- 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회 의장)

지역 기반 '사회적은행' 설립 제안

- 제주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정운영(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회 의장)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필요성

사회적금융과 사회적은행의 의의

- 복합위기시대 금융의 역할
 - 소득 불평등, 양극화 심화, 지역 불균형과 지방소멸위기, 청년실업증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금융소외 증가 등 우리사회 핵심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
 - 현재의 복합위기를 극복하기에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은 한계
 -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투자, 지역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년 등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평가와 투자, 정책 서민금융지원 등
 - ✓ 새로운 금융의 역할과 이를 수행하는 금융시스템 구축 필요함
- 사회적금융과 사회적은행의 의의
 - 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한계
 - 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여·수신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권 금융기관 설립과 시스템구축이 절실히 필요함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 필요성

- 제주지역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 ‘사회적은행’
 - 제주지역 부의 양극화와 지역적 양극화 문제 감소 필요
 - 제주산업의 낙후 및 고도화 필요성 대두
 - 타 시도 대비 낮은 재정자립도
 - 제주지역 사회적금융 수요의 증대-사회적경제기업 수 대비 자금 공급 절대 부족한 상황 - 사회적금융 수요 부족
 - 지역 사회적자본의 확충 필요 및 양적 확대 요구
- 이를 통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기에 농업, 관광위주의 제주 산업을 고부화함과 동시에신재생에너지, 신소재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혁신 중소기업 및 지역 기반 기업들의육성과 성장 도모- 제주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야 함

사회적은행의 국내외 동향

5

국내 현황

- 국내의 경우 여수신을 하는 전문적인 사회적은행은 존재하지 않음
- 현재 국내는 소액자금을 무담보 또는 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비영리법인들의 소액신용대출사업과 대부업체들의 융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위한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7년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 2018년 금융위원회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사회적금융의 양적 성장- 사회적은행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됨
- 이에 따라 일부 비영리법인들이 사회적은행의 설립을 위해 움직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초기 국내에 사회적금융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 등 논의가 있었으나 이 부분이 현실화되지 못하였음
- 최근 신용협동조합의 형태로 여수신이 가능한 사회적신협을 만들려는 시도:사회연대신협, 청년신협추진위원회

6

해외 현황

- 사회적은행은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은행법상의 일반은행 형태, 협동조합은행, 신용협동조합, 특별법령상의 은행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
- 일반은행 형태 (네덜란드 트리오도스 은행)
- 협동조합은행 형태 (독일 GLS 은행)
- 신용협동조합의 형태 (캐나다 밴시티 신협)
- 특별법령에 의한 은행 형태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

7

제주지역 사회적은행 설립방안

8

제주지역 사회적금융 현황

- 제주 지역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사회경제기업으로 판단됨
- 제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효과 타 지역 보다 월등
- 사회적경제기업 수 대비 자금 공급이 절대 부족
- 제주 지역 대기업, 공사 등 사회적금융 기여 미흡
- 사회경제적 기업 전용 사회적 목적 지향 자금의 절대 부족
- 제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인내 자본 필요
- 기존 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 산업 생태계 구축 금융 필요

9

법·제도적 검토

-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설립 검토
- 「상호저축은행법」상 설립 검토
- 「신용협동조합법」상 설립 검토
- 「새마을금고법」상 설립 검토
- 특별법을 통한 사회적은행 설립 검토

10

운영을 위한 실행방안

- 제주형 사회적 가치평가
- 자금조달방안_자본금 규모 산정
- 자금조달방안_자금 확보방안
- 고도화 상품 운영 방안_여수신상품, 제주형 혁신펀드 상품
- 기타운영방안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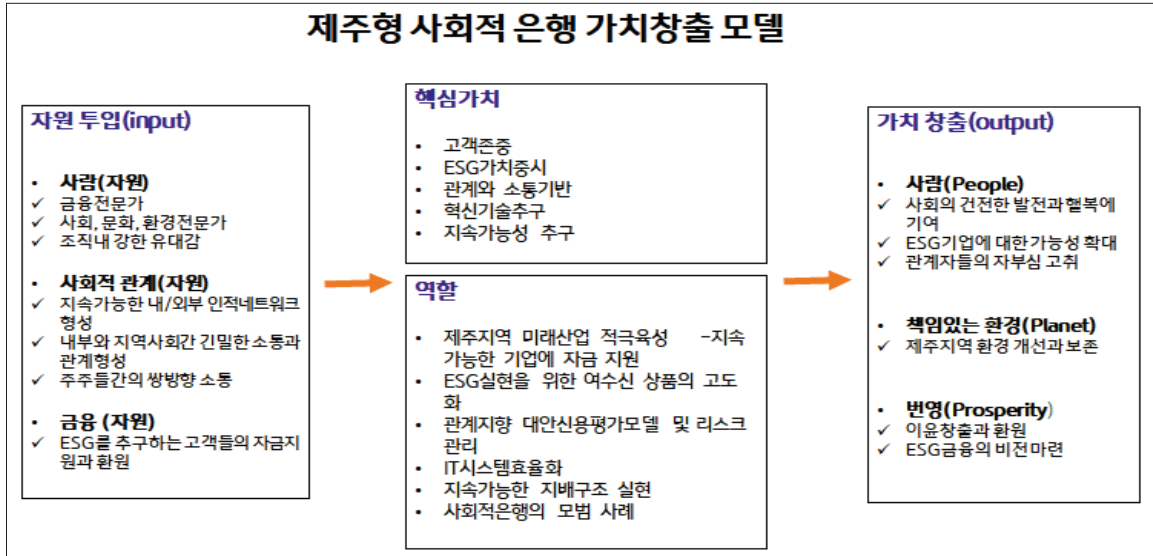
설립추진전략

- 법률적 환경에 따른 검토
 - 설립인가의 질적요건은 상대적이므로 금융당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중요
 - 금융당국 및 지방자치단체, 제주도민들의 사회적은행의 특수성 이해 중요
 - 최근 은행,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미 과포화상태이고 제주지역에도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상당수 자리하고 있으므로, 신규설립이 어려울 수 있음
- 제주형 사회적은행(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설립이 기존 금융기관과 차별성을가지며 사회적 가치 위주의 사업 및 기업에 투자한다는 점을 명확히 홍보하여야함

12

설립추진전략

■ 설립추진 방향성



설립추진전략

■ 설립추진 방향성

- 제주의 미래 성장 지향:관광과 농식품축어업은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신재생 및 바이오와 같은 미래산업은 육성을 가속화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자금을 집중 공급하는 투·융자 상품을 구성하도록 함
- 소셜 임팩트 지향:불평등 해소, 지역 고유 문화 계승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추구하기 위한 소셜 임팩트를 평가하고, 측정, 관리 시스템 기반을 구축-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환경 등 환경적 가치를 적극 추구하는 스타트업과 벤처를육성하는 금융 서비스 제공
- 관계 지향:강한 사회적 연대를 반영한 관계 금융 모델
- 운영 최소화를 위한 제주 지역 ICT 대기업과의 협력으로 은행 운영시스템(IT 시스템) 효율화 지향

결론 및 제언

15

- 특정 대기업이 아닌 다수의 대기업, 공사, 도민 참여 등 제주도 전체가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참여형 사회적 은행 출범이 바람직함
- 지역개발금융으로서의 역할 필요 - 사회적은행을 통해 기술혁신 기업 및 고부가 핵심 기술기업의 도 내 유입 촉진
- 관계형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 필요
- 사회적은행이 아닌 새로운 네이밍 필요
- 각 법마다 사회적은행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 필요
-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16

- 제주도민과 제주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
- 제주지역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의 확대
- 인내자본 확대로 자금 공급 확대
-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을 통한 고부가산업 기반 강화
- 지역 기반 중소기업, 벤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기업의 성장을 통해 제주지역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역량이 증대됨으로써 제주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도모
- 추후 설립을 위해서는 실제 제주도민들의 사회적은행 설립에 대한 도민 의향성 평가와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함

Thank you!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지정 토론: 실험 사례 중심

손석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장)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 지정토론 : 신탁 사례 중심 -

손석조,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장

용어 정리, 미국CDFIs 시사점

• 주제 관련 용어 정리

- (지역기반) 지역주민, 지자체, 사업주체 및 사업기반, 조력자 등 폭넓은 참여
- (사회적 금융)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회문제 해결, 인내자본, 모험자본, 다양한 방법론 (투자, 융자, 보증, 출연 등)
- (생태계) 민간주도, 지속가능성, 상호협력

• 미국 CDFIs 시사점과 함의

- 정부주도의 기금조성, 상당한 규모
- 법제 기반,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 기존 금융기관을 충분히 활용 : 은행(24%), 신탁(35%), 대부펀드(40%), 벤처캐피탈(1%)
- * 사업분야 및 사업 노하우, 사업기반 및 금융수단, 인프라(가용자원, 자기자본 등),
- * 사업 대상의 다양성(저소득층, 소상공인, ESG, 인종차별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 등)

국내 사회적 금융여건 및 지자체 사례

- **공급자 중심의 사회적 금융:**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기존 금융기관
 - (정책 일관성 부재) 관련 법규제정 지연, 정권변화에 따른 부침성(담당조직 및 예산축소)
 - (양적 목표 중심) 쏠림 현상, 정작 자금이 필요한 곳(역량미흡 등으로 기준미달)은 자금이 유입되지 않음
 - (협업 미흡) 민, 관, 당사자, 기존 금융기관 → 수평적 관계가 아닌 ‘갑을 관계’
-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사례**
 - (충남) 위험분담(70%), 자원의 협력, 운영과정에 당사자 참여 (육성위원회, 실무위원회)
 - (경기도) 충분한 자금 공급량
 - (화성시) 중간지원기관, 당사자 단체, 개별 사회적경제 기업과 신탁 간 연대와 협력 (상호거래)

제도권 사회적금융 추진현황 비교

구분		기관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누적	구성비	23년 목표
대출	공공	서민금융진흥원	28	63	78	84	76	329	1.3	1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86	639	911	1,117	1,024	4,077	15.9	700
		소상공인진흥공단	42	85	84	115	94	420	1.6	80
	민간	신탁	95	237	453	477	276	1,538	6.0	300
		새마을금고		30	115	160	222	527	2.1	200
소계			551	1,054	1,641	1,953	1,692	6,891	26.9	1,380
보증	공공	신용보증기금	1,077	1,609	1,655	1,803	1,913	8,057	31.4	1,500
		지역신용보증재단	145	165	184	163	157	814	3.2	150
		기술보증기금		841	1,239	1,476	2,061	5,617	21.9	-
	소계			1,222	2,615	3,078	3,442	4,131	14,488	56.5
투자		성장금융	196	311	257	383	468	1,615	6.3	600
		벤처투자	63	645	724	683	526	2,641	10.3	616
	소계			259	956	981	1,066	994	4,256	16.6
합계			2,032	4,625	5,700	6,461	6,817	25,635	100.0	4,246

출처 : 사회적금융협의회

신협의 사회적 금융추진 방향

1 사회적금융 안정적 확대

- 신협사회적경제지원기금(100억)운용
- 사회적경제 인식개선 교육/홍보
- 사회적금융 상품개발 및 보급
- 지자체 협력사업 발굴, 확산

2 사회적금융거점신협 지정

- 경영진 세미나, 실무책임자 간담회
- 전국단위 워크숍 개최
- 지역별 사회적금융연구회 운영
- 사회적금융 성과공유회 개최

3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협동조합 창업 및 성장 지원
- 세무회계 지원(CU-bizcoop)
- 공간공유, 판로지원, 행사지원
- 마을관리coop 운영지원

4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 전국 단위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
- 지역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참여
- 대한민국사회적경제박람회 참여
- 지자체별 사회적경제한마당 지원

신협의 사회적금융(여수신) 현황

▪ (상생협력대출) 신용 1.5억(한도), 전국 154개 신협, 961개 기업, 지역 편중(수도권 67%)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구성비
전체 대출	신용	290	2,098	3,588	12,571	23,946	12,883	8,833	64,208	40.7
	담보	680	1,856	4,106	11,958	21,370	34,736	18,802	93,508	59.3
	합계	970	3,954	7,694	24,529	45,316	47,619	27,635	157,716	100.0
지자체 협약 대출	경기				2,696	12,579	7,481	4,702	27,458	17.4
	충남					2,482	2,205	804	5,491	3.5
	경남						300	774	1,074	0.7
	합계				2,696	15,061	9,986	6,280	34,023	21.6

(참고) 기초 지자체 협약대출 : 화성우리(사회적경제기업+중사자), (인천) 서로, 해남우리

▪ (신협사회적예탁금) 정기예금의 1%를 사회적경제조직을 후원하는 착한 예금 (단위: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누적
금액	123	3,468	5,986	8,083	17,659

신협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의견

- 지역기반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신협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제고
 - 지역사회 관여: 지역주민이 조합원, 지역에 투자와 배당,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선순환 기여(은행과의 차별성)
 - 협동조합 간 협력: **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함께 설계하는 사회적 금융 확대** - 예술인(북서울신탁), 재생에너지 등
 - 자금조달 설명회, 재무관리/세무회계교육 강화: 지자체별 또는 업종별(중간지원조직, 업종별 연합회 연계)
 - 신협사회연대경제기금(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확대/개편: 배당금 1% (+ 지자체기금) → 다양한 투자와 지원
- 신협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신협법 개정(타 법인 출자 허용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 확대
 -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영리기업과 다른) **별도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담 완화**
(현재) 3년 연속 결손금 보유, 자기자본 잠식,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고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미달 (1년 이내 신설법인 제외) => 대출거래기간 중 연체가 없더라도 '요주의'로 분류, 대출금의 10%를 대손충당금(비용) 설정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관련 의견

-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상호협력(생태계 구축)**
 - (주체) 지역 금융협동조합, 민간자금 중개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간지원기관, 지자체
 - (현장) 아직도 서로 잘 모른다, 상호이해와 신뢰형성에 상당 시간 소요
 - (방향) 일방적이지 않는 '상호거래'를 통한 지속성 확보 (예: 신협사회적예탁금 이용-공동행동)
- **냉정하고 현실적인 고민 필요 (사회적 금융)**
 - 외부자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자기책임성 담보 (**협동조합 등 조직운영의 기본**)
 - 사회적가치 추구 + 자립기반 확보 필요 (수익성, 건전성, 지속가능성)
 - (현실적 문제) 사전심사 및 선별, 실행 (30%) + 사후관리(회수, 추심) (70%)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수행자, 지원기관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 해소**

- 감사합니다 -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토론문: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과제**

박진영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과제

- 박진영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본부장)

사회적가치와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구축 필요성에 굉장히 공감

- 미국에서 포용적 금융 상품과 지역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FI 기관들의 성과와 역할, 또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인프라 정책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었고,
- 현재 용자 중심의 지자체 사회적금융은 생태계 구축의 측면에서는 악순환 구조에 직면, 개선점으로 관계금융 인프라 구축, 기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회적경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김은경 연구위원님의 제안은 향후 지역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될 필요, 동시에 제주도의 사회적은행 설립을 위한 야심찬 도전에도 박수와 지지를 보냄

지역기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공간과 특성이 반영될 필요

- 지역은 사회·경제 생활공간이며 공간적인 인프라와 동시에 격차의 공간을 의미
 -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정책환경과 인적자원, 자원의 양과 기회, 집중과 소멸의 차이가 존재, 사회적금융 환경에서도 지자체의 기금출연, 금융전문가 및 재정지원, 임팩트투자기관의 유·무 등 격차가 존재
- 본 토론에서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지방)차원에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안

첫째, 지역 내 기존 사회적금융(공공과 민간재원)의 공백을 찾고 필요한 역할부터 시작해야

- 현재 사회적금융 상품은 보증(신보기금, 지역신보재단), 융자(민간중개기관), 투자(임팩트투자사) 등이 있고, 금융의 용도로는 운전자금(신보기금의 보증, 민간중개기관의 융자), 자산화 및 (제품)기술개발(중기금, 임팩트 투자) 등이 있음
- 지역의 사회적금융이 제한된 자금과 열악한 운영구조 내에서 필요한 역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신뢰자본, 관계자본, 사회적자본을 구축해 나가야 함.
 - 사회적경제 종사자 대출(사회적경제기업이 보증 및 이자부담), 기업 간 공제적 성격에 기반한 대출, 공기업 및 기업 연계 크라우드펀딩 및 임팩트 대출 등

둘째, 사회적금융 생태계가 공동체적 부(Community Wealth Building)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될 필요

- 사회적경제 기업 간에도 보증 및 융자(대출), 임팩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제한적이고,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의 영향도 상대적임. 문화예술, 교육 등 대인서비스업의 매출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온라인 기반 플랫폼, 유통서비스업의 매출액은 급격히 증가.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성장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연대금융에 기반 된 순환경제가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간 거래 활성화, 수익을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의 공동투자 및 연대 금융의 기회를 만들 필요
 - ex) 대구사회적경제 기업의 유통판매 플랫폼인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52개사 출자)은 코로나 시기 매출액이 급격히 증대, 대구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시 1억 원의 기금을 출연, 향후 공공구매 플랫폼 및 유통밴드로서 자리매김하여 공동체적 부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셋째, 다양한 사회적금융 자원 확보 필요

- 프랑스의 사례처럼 다양한 공공자금, 연대금융, 시민참여 저축제도 등, 특히 공공자금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화(지역사회재투자, 사회적기본법 등)가 필요
- 현실적으로 다양한 재원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모금 상품 및 공동기획이 필요
 - 지역에서 상공회의소를 비롯 주요기업들은 대부분 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음. 공동모금회가 사회복지사업법 내 기관에 대한 배분사업을 수행하지만 모금분야에서는 특정주체에 대한 공동모금이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 간 거래 및 연대사업, 공익형 사업 등을 개발하여 공동의 수익을 추구할 필요. 끝.

지역 기반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

토론문: 지역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제언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

지역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제언

지정토론문

2023.5.26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지역 사회적 금융 생태계: 필요성과 구축의 방향

-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을 통해 지역 사회적 금융의 필요성과 효과를 확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금융약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 미국 CDFI의 성장과정이 주는 시사점
- 지역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
 - “**지역단위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사회적 금융의 자율성 강화 필요**”에 특히 공감
-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경제 관련 기금 운영에 있어 기금운영의 자율성은 필수
 - 개약됐던 지자체 기금관리법 개정을 우리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이유
 - 21대 국회에서 기금관리법이 개정: 지방기금 관리, 운용 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자율 운영이 가능해짐 (2021.4.6 시행)
- 제도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적 금융의 조달과 운영 거버넌스가 잘 구성되어야 함.

[제언1] 지역 사회적 금융 활성화 관련 입법의 적극적 추진

- 과거 지역 사회적 금융의 구성과 운영이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영향 받는 경우가 발생
 - 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등
- 안정적으로 사회적 금융이 지역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치환경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을(덜 받을) 거버넌스와 제도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사회적 금융 관련 입법이 필요한 이유
- 지역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논의되어온 입법과제들은 대략 다음과 같음.
 - 한국형 CRA 법 제정
 - (가칭) 공익목적 투자제도 도입
 - <사회적경제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재 국회 계류 중
 - 서민금융법, 신탁법 개정 등

3

[제언2] 사회적 금융 수요에 대한 정교한 분석 필요

- 그동안 (지역) 사회적 금융 논의는 공급측면에서의 접근한 경우가 다수
 - “어떻게 필요한 돈을 만들 것인가”에 초점
- 그 결과 조성된 자본(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실제 수요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기존 금융권과 유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자금이 ‘필요한 곳’에 가지 않고 ‘용자/투자할 만한 곳’에만 자금이 흘러가는 부작용 발생
- 따라서 지역 사회적 금융의 ‘수요’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분석, 설계한 후 그에 맞는 자본조달 및 운영방식을 고민
 - 예)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긴급 운영비 지원 수요: 공제 또는 용자방식이 적절할 수 있음.

사회적 경제 기업의 스케일업: 임팩트 투자 방식 적용 가능

4

[제언2] 사회적 금융 수요에 대한 정교한 분석 필요 (계속)

- <(가칭) 제주 사회적 은행>설립의 취지에 공감하며 크게 응원하는 입장
 - 은행설립도 일종의 창업 → 수요 측면에서 설립목적이 간명하게 설명될 필요
 - 예) 제주지역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한 은행?
 - 제주도의 금융약자/서민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은행?
 - 목적에 따라 어떤 조직형태의 설립이 가능할지/바람직할지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
 - 실제 은행 등 금융기관 설립 인가의 조건(예: 자본금 규모)과 절차는 다양
-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 기금 운용에 있어서 수요와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계는 더욱 중요
 - 기금조성과 운영 과정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 위해 필수

참고: 금융조직 형태별 설립인가 구분

구분	일반은행	저축은행	신협	인터넷전문은행
자본금	1,000억원 이상 (* 지방은행의 경우 250억원 이상)	* 본점 소재에 따른 구분 ① 특별시: 120억원 ② 광역시: 80억원 ③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40억원	* 출자금 합계액 최저한도 (지역조합 한정) ① 특별시·광역시: 3억원 ② 특별자치시·도: 2억원 ③ 군: 5천만원	250억원 이상 (* 은행법상 규정상 최저자본금 특례적용)
기타조건	- 적정한자금 조달방안 수립 - 법령에 의거한 주주구성 계획 -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등 - 타당한 사업계획 - 물적 시설(전문인력 및 영업시설, 전산 체계 등) - 관련 법에 적합한 발기인 및 임원 구성	- 물적 시설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 - 타당한 사업계획 -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등	- 조합구성 (30인 이상 발기인, 100인 이상 조합원) - 물적 시설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등) - 타당한 사업계획 - 발기인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등	은행법상 기타조건 준용
인가주체	처리기관: 금융위원회(은행과) 협조기관: 금감원(은행감독국)	처리기관: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협조기관: 금감원(저축은행감독국)	처리기관: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협조기관: 신협중앙회(감독부), 금감원(상호여전감독국)	처리기관: 금융위원회 협조기관: 금융감독원
인가 소요기간	1개월(예비인가생략시 3개월)	1개월(예비인가생략시 3개월)	설립인가 신청 후 60일 이내	은행법 기준 적용

[제언3] 사회적 금융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연대 필요

- 아직 초기 단계인 한국의 사회적 금융 생태계 현실을 감안할 때 한 기관이 다양한 사회적 금융의 수요와 욕구를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우리도 다양한 필요를 감당하는 사회적 금융 공급망이 형성되도록 사회적 금융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함.
 - 지역 사회적 금융의 지평을 넓히고 협력의 범위를 확장
- 실제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역에 사회적 금융을 제공하는 시도가 필요
 - 예) 기존 금융기관이 사회적 금융 전용 계정을 매년 할당하여 자금 배분
 - 핵심적인 사회적 금융 기관으로서 신탁의 역할과 책임, 권한을 강화 (예: CDCU)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을 통한 기금운영의 전문화, 세분화, 다양화 추진 등 (특히 지자체 기금 운용에 있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의 참여 보장)
 - 신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발굴과 육성: 특히 비수도권 소재 기관

7

[제언3] 사회적 금융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연대 필요 (계속)

- 현재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기금 등 사회적 금융 공급은 소수를 제외하면 가장 기본적인 용자 수준
 - 지방정부가 민간과 협력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 지역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 가능
 - 예)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외에 '성동 ESG임팩트 펀드' 결성
- 미국의 Inclusiv (CDFI) 사례는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할 매우 좋은 사례
 - "Financial First Responder"로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최전선 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 지역에서 다양한 섹터간 협력을 추동해내는 리더로서 역할
- 지역 사회적 금융은 지역을 살리기 위한 자원의 우선순위 배분 측면에서 접근해야 !
 - **외부 자원의 유치 + 내부자원의 집결 = 지역 사회적 금융 생태계 활성화 필수조건**
 - 지방정부와 민간의 사회적 금융 이해관계자들이 섹터간 협력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 체계를 만드는 것이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의 1차 목표!

8



감사합니다

T22. 역량강화 트랙 - 이슈토크 / 5.26 (금) 14:00



김정태 발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Kim, JeongTae
CEO, Merry Year Social Company, MYSC



석종훈 진행
경기도 사회적경제국장

Seok, JongHoon
Director of Social Economy, Gyeonggi Province

최근 늘어나고 있는 로컬 임팩트 펀드 결성 시도를 짚어보며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지 살펴 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 봅니다.

로컬 임팩트 펀드 생태계 조성 과 이해관계자 역할

5.26 (금) 14:00~14:45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역량강화 - 이슈토크

로컬 임팩트펀드 생태계 조성 이해관계자 역할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로컬임팩트 펀드 생태계 조성과 이해관계자 역할

(주)엠와이소셜컴퍼니(MYSC) 김정태

회사 소개

국내 최초 사회혁신 컨설팅-액셀러레이팅-임팩트투자 기관 MYSC

사회문제는 혁신의 원천

엠와이소셜컴퍼니(Merry Year Social Company)는 '혁신을 돕는 혁신 기업'입니다

Mission	Vision	Identity	Leverage
우리는 인간다운 삶의 회복, '희년'에 기여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사내기업가로서 혁신가와 동행합니다	우리는 컨설팅, 액셀러레이팅, 투자를 활용합니다
Merry Year는 희년(禱年)이라는 뜻입니다. 희년은 50년 마다 돌아오는 자유의 해이며, 이 때가 되면 노예는 풀려나 가족에게 돌아가고, 빚진 자는 부채를 탕감 받아 자유의 몸이 됩니다. MYSC는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사회양극화, 경제불평등,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3대 난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누릴 '희년'에 기여합니다.	3대 난제는 '시대적 문제'이면서 우리에게 혁신적인 관점과 접근, 해결책을 요구하는 '시대적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MYSC는 우리 세대가 직면하고 미래 세대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3대 난제를 혁신의 원천으로 삼아 이를 창의적인 비즈니스의 기회로 전환하고, 3대 난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합니다.	3대 난제는 복잡계가 작동하는 이슈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야, 융합적 접근, 집합적 임팩트가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에 나선 혁신가와 동행하며 혁신을 돕기 위해 MYSC 구성원 역시 '혁신가'에 준하는 사내기업가 정체성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는 혁신가를 돕는 사내기업가로서,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협업합니다.	3대 난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MYSC는 사회혁신 컨설팅,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임팩트투자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혁신가와 혁신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의 스케일업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익을 누리도록 지원합니다.

운용자산
500억+
임팩트투자
124건
기업가치 합산
1조1천억원+

※ 특수목적 비율
 비수도권 25.3%
 사회적기업 24.4%

“MYSC가 최초 시드 투자 이후 후속투자에 참여해 시리즈A/B로 진입하며, 특정 카테고리 최초/최대/최고의 포지셔닝 확보하고 있는 소셜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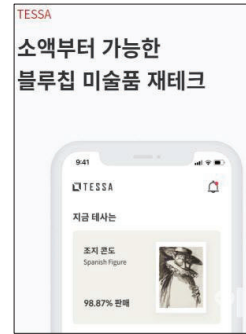
위허들링
 No.1 점심 구독 서비스



트래쉬버스터즈
 최초의 다회용기 서비스



테사
 최대 규모 미술 조각투자



유니크굿컴퍼니
 최초 몰입형 경험 플랫폼



로컬 기업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3가지 유형

- ① 지역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회를 통해 **투자 접근성 확대**
- ② 지역에서 펀드 출자(LP)를 통해 지역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 확대**
- ③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자가 지역 투자 목적의 LP 참여를 통해 **펀드 접근성 확대**

대구 최초

① 지역에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기회를 통해 투자 접근성 확대

사회적기업
할리케이
대구광역시
소셜벤처
최초의 투자

대구창경이 요청한 지역
소셜벤처 IR사업에서 투자

[조선일보] UAE 순방길에도 들었다... 김건희
여사, 20만원짜리 애착백 뒤풀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아랍에미리트(UAE)로
새해 첫 순방길에 오른 가운데, 김 여사가 착용한 가방이
화제다. 이 가방은 국내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할리케이'
제품인데, 김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착용한 적
있기 때문이다. (23년 1월 16일)



[대구일보] 대구지역 소셜벤처 2개사, 임팩트
투자유치 성공

MYSC 김정태 대표는 "대구를 비롯해 지역에도
무수한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소셜벤처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비수도권에서 자생하고 있는
로컬 소셜벤처들이 더 많은 기회와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21년 1월 13일)



전주 최초

② 지역에서 펀드 출자(LP)를 통해 지역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 접근성 확대

전북 전주 소재
쿨베어스
구선손반
임팩트투자 유치

전북창경 LP가참여한
MYSC 펀드를 통한 투자

쿨베어스

해적생물 유래 천연 탄산칼슘 활용한 기능성 소재로 골프웨어
브랜드(에이브) 제작 및 판매



구선손반(농업회사법인)

종가댁의 레시피를 기반으로 다양한 반찬, 밀키트의 제조 유통



경남 소재 기업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를 통해 임팩트투자 유치

거제, 밀양, 통영, 김해 등
기존 투자가 없었던
지역 스타트업 투자 사례 개시



경남 거제



경남 밀양



경남 통영



경남 창원



경남 김해



경남 통영

현실 이해하기 로컬에서의 임팩트투자가 어려운 이유

1. 일반 블라인드펀드에서 지역 소재 기업의 발굴과 투자 집행은 **활성화 가능성이 높지 않음** (심사역의 지역 방문이나 지역 소재 기업과의 관계 구축 등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 확보가 어려움 / 서울에서는 '망원경'발굴 전략이 가능하지만, 지역에서는 '현미경' 전략이 보다 유효함)
2.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LP를 구하기 매우 어려움** (지역 기업 투자가 주목적일 때를 제외하고 지역 투자를 응원하는 LP를 과연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현실 이해하기
로컬에서의
임팩트투자가
어려운 이유

- 3. 지역에 투자하는 임팩트투자 펀드의 경우 소규모(10~50억) 펀드에 관심있는 액셀러레이터 등 **운용사(GP)는 제한적임** (30억이면 연 관리보수 2.5% 적용시 연 7천5백만원으로, 운용사는 소규모보다는 중형 펀드 구성에 보다 집중함)
- 4. 일반 임팩트투자 펀드에서도 **Financial Return과 Impact 균형** 찾기가 어려운 과제임을 감안해 지역 기업 투자로 과연 의미있는 **IRR**이 나올 수 있는지 **성공사례가 아직 부족함** (지역 기업은 투자 외에 밀착 컨설팅, 사후관리 등의 지원이 필요함)

그럼에도
로컬에서의
임팩트투자
활성화 전략

- 1. 지역 거점 전문 사회적금융 기관을 육성, 로컬에서의 임팩트투자가 집행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임팩트투자는 일종의 관계 금융 성격을 가지므로, 지역을 알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임팩트투자 전문가 육성이 중요
- 2. 지역 소재 공공기관, 지역은행, 지역 기업, 지역의 오피니언리더/전문가 등 지역 연고가 있고 애정이 있는 곳들이 LP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설계
 - 로컬에 대한 투자는 로컬 출자자의 확보가 전제 조건
 - 공공기관, 지역 기업의 경우 ESG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출자 기획

그럼에도 로컬에서의 임팩트투자 활성화 전략

- 3. 지역 내 임팩트 전문 액셀러레이터/VC 육성을 통해 지역의 성장 단계에 맞는 소규모 펀드 조성이 가능한 플레이어 육성
 - 액셀러레이터는 설립자본금 1억원, 자격요건 인력 2명 등 설립 기준
 - 지역 기관 설립 이전에는 외부 AC/VC와 협업 통해 지식 전수

- 4. 투자 수익률(IRR)의 보완 및 사회적가치 지향을 위한 혼합금융 설계
 -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에 맞추어 투자(equity)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금/지원금의 매칭(TIPS형), 투자 조건부 융자 등 기존에 존재하는 지원제도의 통합 운영

벤치마크 1

펀드의 70%는 경남 소재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 30%는 경남과 관련된 기업에게

2020.10월 경남 하모펀드 22억 규모 출범

청년 창업의 디딤돌을 놓다

하모펀드(경남 청년임팩트 투자펀드) 결성총회 개최... 연내 투자 착수
출자기관, 투자처가 같은 지역인 임팩트 펀드는 전국 처음



통영관광개발공사 2억원 출자, 통영 소재 2개 기업 2.5억원 투자

통영관광개발공사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 보고서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11. 20. 통영시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11. 20.
- 위원회 상정일자 : 제20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20. 12. 2.) 상정-의결



II. 제안이유(제안설명 : 기획예산담당관 서영준)

- 지역청년들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활동에 대한 투자를 위해 경남도가 주관하는 「경남청년임팩트투자펀드」에 통영시가 참여 요청을 함에 따라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통영시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고자 함
-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규정에 따라 출자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III. 주요내용

- 출자의 필요성
 - 통영시 청년들의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청년 유출 방지 및 회귀 창업 유도
 - 통영시 청년창업 생태계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공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의무 이행
 - 해당 펀드 조합 출자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마중물 역할 기대 가능

지역 은행, 지역 기업, 지역 공기업 등이 출자 또는 기부를 통해 펀드 기여

일부 출자자는
기부처리를 통한
출자 간접 참여

경남향 사회적경제조직 100%

- 경남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소셜벤처) 70% 이상
- 경남 경제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소셜벤처 등

| 운용사



대표운용사



공동운용사

| 주요출자자



벤치마크 2

성동구 소재 (본점 또는 지점) 사회적경제-소셜벤처에 60% 투자

성동구 1차 5억, 2차 15억 출자를 통해 2개의 펀드 결성 참여

성동임팩트벤처투자조합(20억)
2020년

성동ESG임팩트펀드(30억)
2022년



벤치마크 2

성동구의 출자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지자체 주도형 임팩트투자 펀드 결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및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460
----------	------

제출연월일: 2020. 5.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 함에 출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출자

1) 출자 개요

- 출자대상: 성동 소셜 임팩트 펀드(가칭)
- 펀드규모: 우리 구 출자 5억 원(총 펀드규모 20억 원)
- 운용기간: 8년(2020 ~ 2028)
- 투자대상: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 20여 개
- 출자내용: 성장가능성이 유망한 소셜벤처 및 창업기업에 투자 지원

2) 출자목적: 소셜벤처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투자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감사합니다
jtkim@mjsc.co.kr

T23. 역량강화 트랙 - 튜토리얼 / 5.26 (금) 15:00



김선영 발표
재단법인 밴드 공동 설립자, 이사

Kim, SunYoung
Co-Founder & Director, Foundation Band



이강익 진행
춘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Lee, KangIk
Director, Chuncheon Social Economy Center

지역 기반 풀뿌리 자조기금 시도의 의미를 짚어 보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기금 조성 및 운용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 봅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기금 조성과 운용

5.26 (금) 15:00~15:45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역량강화 - 튜토리얼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기금 조성과 운용

김선영
(재단법인 밴드 이사)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기금 조성과의 운용

김선영, 재단법인 밴드 이사

한겨레 “우리끼리 돕자”...전국 단위 ‘연대 금융’ 첫발 뒀다

사회적 경제 공제 기금 본격화

중복에서 전환된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산형 영농주요업종인 저산채 300여종을 들여 전통 식재료를 원료로 배합된 유제품과 농산물을 소재로 특색 있는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장 한·프랑스인사이드협동조합은 2022년 12월, 수제 식재료로 제조된, 국민 새콤 노후 조형상해와 유청 시스템을 바꾸는 등 공정을 개선했었다.

이와 함께 기업도 수업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건 ‘사회적 경제 기금’ 때문이다. 이 기금은 2020년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이 일부 인 300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중 사회적 경제는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형태라며 함께 사회적 기금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4월 4차 산업혁명진흥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 및 영농주요업종 모두 1000여명씩을 대상으로 지원금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 이후에 사회적 경제를 위한 대안으로 선정되면서 장바구니 조성 및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기금 조성회(이하 주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 기금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 기금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 기금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과도 있다. 올해 들어서만 전국 단위로 20여개에 달하는 공제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사회적 기금의 설립과 운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함께 일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연합회 등 제각각의 사회적 경제 연합회들이 이 기금 운영을 위해 단체로 300여명씩 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올해 4월 4차 산업혁명진흥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 및 영농주요업종 모두 1000여명씩을 대상으로 지원금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 이후에 사회적 경제를 위한 대안으로 선정되면서 장바구니 조성 및

사회적기업(공제)기금

목적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한 자금 지원
가입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제도의 대상 기업
부담금 100만~1000만원 (연간 한도)
유형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지원
대상기업 1년 미만 창업 기업
대출기간 1년 미만(연간 한도)
대출이자 연평균대출금리를 상환액의 10% 이내, 담보대출금리는 상환액의 10% 이내
상환방식 1년 단위로 상환, 담보대출은 상환액의 50% 한도
운영기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회 주관, 협회별 2차년도 운영기관

사회적기업

목적 기업지원 지원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가입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영농주요업종
부담금 1000만원 이상-100억원 이하(연간 한도)
대상기업 1년 이상(연간 한도) 1년 이상, 영업은 4년 이상(연간 한도) 2000명 이하, 매출액 200억원 이하, 직원 100명 이하
대출기간 1년 이상(연간 한도) 1년 이상
대출이자 연평균대출금리를 상환액의 10% 이내, 담보대출금리는 상환액의 10% 이내
상환방식 1년 단위로 상환, 담보대출은 상환액의 50% 한도
운영기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회 주관, 협회별 2차년도 운영기관

일정에 참여하기 위한 임시적인 비록금 마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수련단체에 이관되는 ‘재원은 신용 후 기금에 의해 마련될 수 있다’는 방침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끼리 돕자’라는 명칭으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경제 공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회(이하 주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 기금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 기금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 사회적기업(공제)기금 40여 회원 참여
사회적기업(공제)기금 2025년 1월 1일 구도 안정을 위해 본격적인 공제 사업 나서
▶ 1년 미만 창업 중소기업 등 대출
▶ 1년 미만 창업 중소기업 등 대출
▶ 1년 미만 창업 중소기업 등 대출



사회적경제 공제기금(전국, since 2014)

대구동구우애기금

- 대구 동구 사회적경제 협의회 (2019년 12월 개시)

(23.03 기준)

- 17개 기업 가입.
- 부금 누적 약 1.4억원 적립
- 대출 누적 약 1.1억원 집행



강원사회적경제 공제기금

- 강원사회적경제연대 (2022년 6월 개시)

(23.04 기준)

- 39개 기업 가입.
- 기금 누적금액 5.3억원
- 부금 누적 약 1.3억원
- 강원도 매칭 1억원
- 강원랜드 희망재단 매칭 3억원
- 대출 누적 약 5800만원 집행



강원도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자금조달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기금을 만들어 어려울 때 서로 돕기 위한 연대 금융입니다. 기업이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매월 부금을 납입하다가, 자금이 필요할 때는 납입한 부금의 5배,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직이 스스로 1억원의 공제기금을 조성하면, 강원도에서 1억원, 전문공제운영기관인 재단법인 밴드에서도 1억원을 매칭하여 총 3억원이 공제기금으로 조성되어 운영됩니다.

마포사회적경제 연대기금

-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22년 6월 개시)

(23.05 기준)

- 3개 기업 가입.
- 부금 누적 약 1500만원
- 대출 누적 2000만원

비상금

마포사회적경제연대기금

급할 때 찾아서 사용하는 믿는 구석, '비상금(非常金)' + '비상(飛上: 높이 날아오름)'을 위한 자금

평소 매월 정기적으로 꾸준히 납입하는 회원사들의 부금을 기반으로 기금이 조성된다는 점(비상금)의 근간이며 정체성입니다.

회원기업의 납입 부금을 기반으로, 이후 본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적합한 정책자금이나 사회공헌기금을 발굴, 매칭하여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회원기업들이 필요한 대출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해 볼 계획입니다.

자금의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공급자가 됩니다.

기금 가입



가입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사회적경제연대조직(지역/부문/업종 네트워크) 등 강원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및 유관 기관



부금납입 1구좌 월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5만원 단위)



부금만기 36개월, 48개월, 60개월



납입방법 CMS 자동이체



가입방법 재단법인 밴드 홈페이지(<http://sefund.or.kr>)에서 온라인 회원가입 →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공제가입] 탭에서 가입신청서 신청



대출 상품

대출한도	납입한 부금 이내	납입 부금의 5배(최대 2천만 원) - 담보 등으로 신용보강 가능 - 담보에 따라 납입 부금의 최대 10배 (최대 2천만 원 한도 동일) - 선납은 가능하나, 대출의 배수에 포함하지 않음 - 협의체는 대출 한도 최대 3천만 원, 선납에 대해 배수 대출 가능
이자율	연 2%	부금 내 연 2% / 부금 초과 3.75%
상환기간	최대 2년 (거치기간 최대1년 포함)	

기금의 운영 실무는 은행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기금운용업무

기금 회원 커뮤니케이션	대출 거래	목합금융 + 미재무지원	(재무)위험관리	기획/조정 (비 재무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가입 및 변경, 해지 - 납입 부금 현황, 대출 이용 현황 등 정보제공 - 가입문의 응대 - 납입증명서 발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심사,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문의안내, 접수 - 용자심사, 약정, 대출 실행 • 대출 거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원장/상환스케줄 등 관리 - 연체관리, 조건 변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금융(소설P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분석/재무계획수립 - 공동 투융자 사회적금융 발굴/연계/PF기획-계약-관리 • 비재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경영역량 강화, 마케팅/유통/판로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위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별/일자별 현금흐름 - 현금흐름 시뮬레이션 • 신용위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부실을 관리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및 필요 서류 관리 • 내부보고,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운영 및 방향 제시 및 논의 - 자금 조달, 상품기획 등 결정 • 기부/지자체 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 제안서 작성, 미팅 - 정책자금 조달 제안

기금관리 시스템과 관리 인력이 필요합니다.

대출신청

대출 > 보험신청 > 장

가입신청

청약정보 (아래 기재사항 필수)

사회적경제공제기금	<input type="radio"/>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지역/업종 특종 기금	<input type="radio"/> 대구동구사회적경제우애기금
	<input type="radio"/> 화성사회적경제자조기금
	<input type="radio"/> 마포사회적경제자조기금 비상'금
	<input type="radio"/> 여성사회적경제자조기금 어울'목
	<input type="radio"/> 울산사회적경제자조기금
<input type="radio"/> 강원사회적경제공제기금	
청약금(월부금액)	<input type="text" value="선택"/> 만원 ※공제기금 10만원 단위 / 특종기금 5만원 단위
부금 납부일	<input type="radio"/> 10일 <input type="radio"/> 25일
부금 납부기간	<input type="radio"/> 36개월 <input type="radio"/> 48개월 <input type="radio"/> 60개월

증명서 발급

대출납입내역 증명서 발급 신청

가운일자 선택

번호	가운일	신청일	문서종류	상태	증명서 다운로드
1	2021-10-19	2021-10-20 04:48:02	부채납입증명서	승인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2	2021-10-14	2021-10-21 11:20:44	부채납입증명서	승인	<input type="button" value="다운로드"/>
3	2021-11-03	2021-11-04 03:08:09	부채납입증명서	취소	

대출 신청 내역

기입명	대표지 이름	대표지 연락처	대표지 연락처	대표지 연락처	대표지 연락처
대표지 이름	채담법인밴드				
당첨지 이름					
신청금액(총액)		일			
부금내 금액		일	대출종류	<input type="radio"/> 부금내대출	<input checked="" type="radio"/> 신용대출
부금 초과 금액		일		<input type="radio"/> 담보대출	
대출기간 (최대 6년)		개월	상환방식	<input type="radio"/> 원리금 균등분할	<input type="radio"/> 만기일시
				<input type="radio"/> 기타	

대출기업정보

조직형태	<input type="text"/>	사회적기업유형	<input type="text"/>
사업개시일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인증(거장)일자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input type="text"/> 일
전체종업원수	<input type="text"/> 명	취약계층수	<input type="text"/> 명
		취약계층 대수의 유형	<input type="text"/>
대부금사용처	<input type="text"/>		

지역 기금의 구성과 운영을 협력, 지원합니다.

지역 기금마다 별도의 상근인력이나 사무국을 갖추기는 어려워 밴드 사무국이 각 자조기금의 공동 사무국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기금과 협력합니다.

지역기금 협력 구조



구분	지역					
기금명	대구사회혁신기금	대구 동구 사회적 경제 우애기금	화성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울산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마포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비상금	강원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기금주체	대구 사회적기업협의회	대구동구사회적 경제협의회	화성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울산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사)마포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사)강원사회적 경제연대

부문			업종
노동자협동조합 연대기금	여성사회적경제 자조기금 어울목	용인시민기금	사회주택활성화 기금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사)여성이만드는 일과미래	용인시민재단	(사)한국사회주택 협회
일하는사람들의 협동조합연합회	(사)여성이만드는 일과미래	용인 소재 사회적 경제(TI)사업기	(사)한국사회주택 협회

기금의 발전 과정에서 다시 만나는 질문들...

■ 기금 역할 및 포지셔닝 “왜”

- 우리 지역에서 다른 금융(정책금융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수요에 대응하고, 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금이 필요한가?

■ 기금 조성의 주체: 해당 기금 조성운영을 소관하고 책임을 지는 당사자 그룹 “누가”

- 지역/업종 협의회 등이 주로 당사자 협의체가 기금의 주체를 맡거나, 기금에 참여할 기관들이 모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도 함

■ 기금의 조성

- 당사자가 납부하는 부금을 중심으로 지자체 정책자금, 공공기관/대기업 사회공헌자금 등 다양한 재원을 조달**

■ 기금의 사용(사업/상품) “무엇을”

- 특별한 필요성과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기금이므로 **해당 목적에 맞는 사업/상품을 설계하고 추진**
(예시) 단기소액 긴급대출사업 1년 미만, 1천만원 이하 | 임직원 생계비 긴급 소액대출사업 1인당 500만원 이하 | 투자펀드 LP참여 등

■ 기금의 관리 및 운영(규정, 시스템, 인력 등) “어떻게”

- 사업 초기에는, 기존 기금 전문 운영기관의 시스템과 인력을 활용, 협력함
- 이후 **자체 성장 로드맵에 따라 기금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발전**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T31. 자금순환 트랙 - 패널 토론 / 5.26 (금) 15:45



이종익 회장

(재)한국사회투자 대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Lee, Jongick
CEO, Korea Social Investment Foundation

사회적 금융의 장점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투자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사회적 투자에 우선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자금은 공공기관, 기업 사회 공헌 부서, 민간 공익법인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 보유한 자금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민간 공익법인의 사회투자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내 선행 사례 분석을 통해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합니다.

**임팩트 생태계의 토대,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5.26 (금) 15:45~16:45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이 세션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박형규 발제
행복나눔재단 임팩트투자 담당

Park, HyungKyu
Manager, The Happiness Foundation



김종훈 발제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본부장

Kim, Chonghoon
Director of Investment,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SVS)



임창규 지정토론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전무이사

Lim, Chang Gue
Managing Director, ARK Impact



김호선 지정토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Kim, HyoSun
Lawyer, Deoham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행복나눔재단과 임팩트 투자

박형규
(행복나눔재단 매니저,
임팩트 투자 담당)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행복나눔재단과 임팩트 투자



행복나눔재단의 임팩트 투자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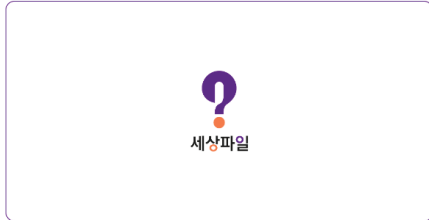
행복나눔재단 소개



행복나눔재단은 2006년 설립한 SK그룹 사회공헌 재단으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사업모델 개발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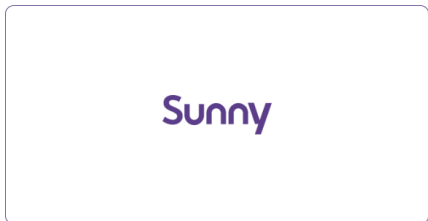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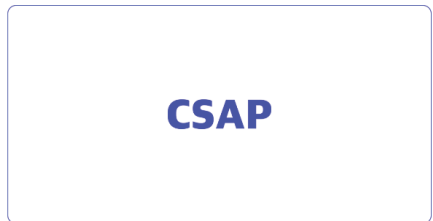
행복나눔재단 소개



행복나눔재단은 2006년 설립한 SK그룹 사회공헌 재단으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사업모델 액셀러레이팅

재단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혁신적 모델의 액셀러레이팅



임팩트투자 배경

사회적 경제 생태계 활성화 위한 **측매 자본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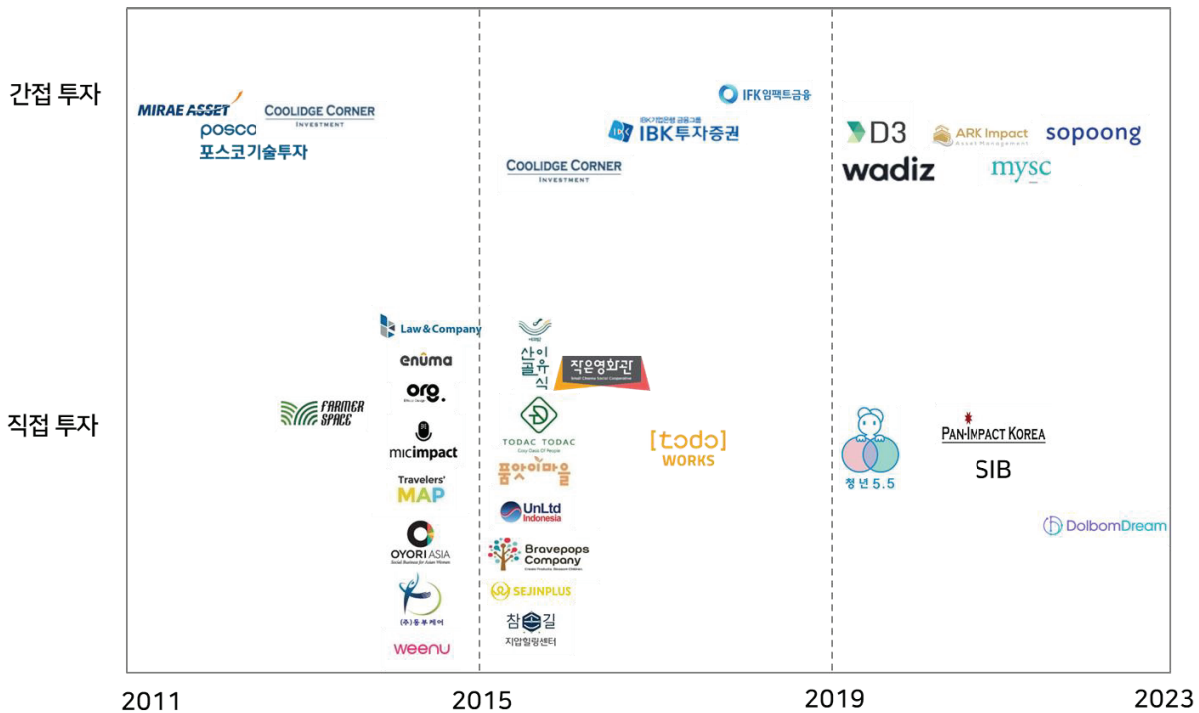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 직접 설립
- 우수 모델 발굴/육성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기업가 MBA 개설
- 대학 내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 및 교과 지원

- **임팩트 펀드 참여 (정책/민간)**
*고용노동부 주관, 사회적기업 제1호 펀드(2011) LP 참여
- 청년창업투자지주 설립/지원
- 사회적 가치 기반 임팩트 투자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현황 - 특징

SV 측정을 바탕으로
기존 투자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투자 시도

다양한 투자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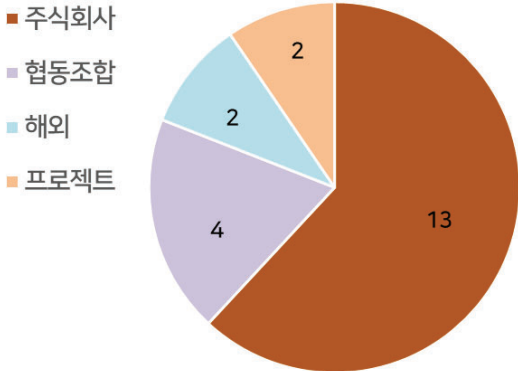
임팩트 테마
투자 대상
투자 방식

인센티브 Sc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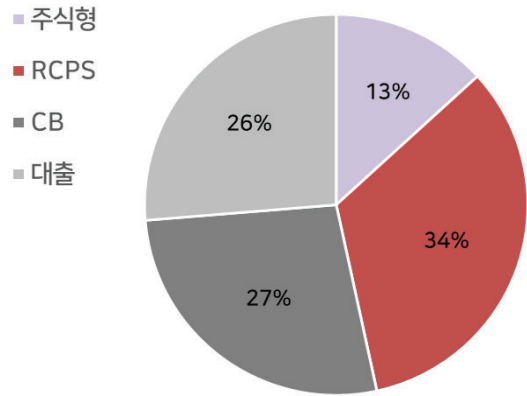
투자 구조 내
성과 지표 및 보상 탑재

투자 현황 - 대상/방식

✓ 투자 대상
: 협동조합, 프로젝트, 해외 등 다양



✓ 투자 방식
: 메자닌, 대출 등
여러 방식을 결합하여 투자



*시설(공간)투자, 조건부 면제 대여금, 조합 초기 출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기타 투자 진행 (상기에는 포함하지 않음)

투자 현황 - 임팩트 테마

■ 교육



■ 취약계층 고용



■ 마이크로 금융



■ 지역 개발



■ 음식/농업



■ 정보 비대칭 해소



■ 문화/예술



■ 업사이클링



■ 심리 건강



■ 노인 돌봄



■ 장애



투자 현황 - 사회적가치 측정과 인센티브

✓ 투자 시 성과 목표 합의 반영

구분	지표	비고
Biz	매출	• 공통 적용
Social	사회적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들의 멀티플렉스 방문 대비 절약한 교통비 총액 • 신진 예술작가의 플랫폼 이용에 따른 소득 개선분 • 연평균 취약계층 고용 인원수 및 취약계층 직업훈련시간 • 청년들의 대출 이용건수 * 금융비용 절감액 • 상담사별 상담 시간 * 시간당 비용 총액

✓ 성과 목표 대비 초과 달성 시 배당률, 이자율 조정/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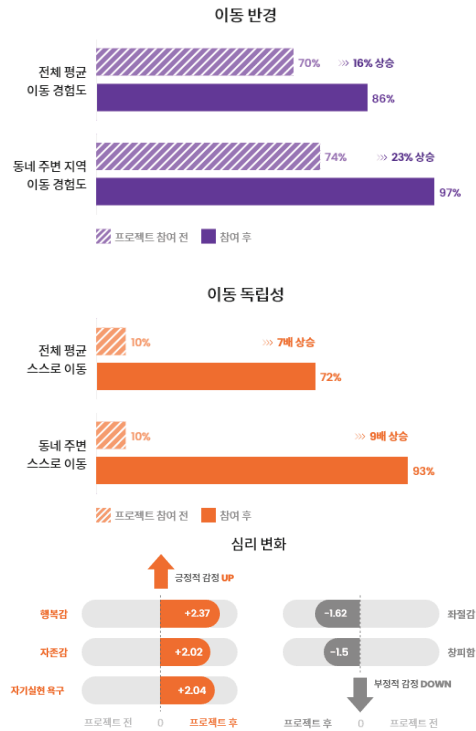
목표달성률	120%이상	110%~	100%~	90%~	90% 미만
배당률, 이자율	0%	1%	2%	3%	4%

투자 사례

[토도웍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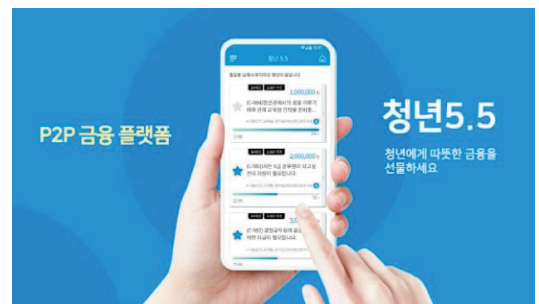
- Biz. 모델 : 휠체어 파워어시스트 제조업
- 사회적 가치
 - 수동휠체어 보조동력장치를 낮은 가격에 제공함으로써(기존 대비 1/3 수준) 제품 접근성 개선
 - 기술 혁신을 통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제고**
- 투자 내역 : 상환전환우선주 투자 중
- 재단 연계
 - '휠체어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
 - 휠체어 사용 만 6~13세 아동 전원에게 파워어시스트 제공 및 활용 교육
 - 프로젝트 기간 3년, 외부 기업으로부터 사회공헌 자금 편당 (40억)
 - 현재 누적 1,907명의 휠체어 아동 이동성 향상



투자 사례

["청년5.5" P2P 투자]

- Biz. 모델
 - 크레파스솔루션(주)의 대안신용평가 모델 및 P2P 플랫폼을 활용하여 저소득 청년의 신용 평가 및 대출
 - 일반 투자자와 재단 투자금 50:50 매칭을 통해 신속한 대출 실행
- 사회적 가치
 - 신용 등급이 없는 청년층에게 비금융권 대비 저금리의 소액 대출 실행(평균 16.5%→5.5%)
 - '대안 신용 평가'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 청년의 금융 접근성 제고
 - **포용 금융 확대를 통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 투자 내역
 - P2P 매칭형 대출(1억원)
 - 재단 SIT 참여 기업 "크레파스솔루션" 과 협업 프로젝트로 진행
 - 누적 255명의 청년에게 재단 매칭 대출 실행, 청년 금융비용 약 1,400만원 금융비용 절감 효과



투자 사례

[국내 SIB 4호 - 부여군 치매예방 프로젝트]

- Biz. 모델 : 부여군 경도인지장애인 치매진단율 감소를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 사회적 가치
 - 만 60~80세 부여군 거주 **경도인지장애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시스피커를 활용한 '메타기억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이환 예방**
 - 경도인지장애인 환자의 자연적 치매 이환율 15%를 10% 이하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함
- 투자 내역 :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투자 중
(치매 이환율 15% 이상 시 전액 원금 손실 / 10%~15% 달성 시 일부 원금 손실 / 10% 미만 달성 시 수익 발생)
- 재단 연계
 - '노인 치매 예방 디지털 인지훈련 프로젝트' 시너지 기대
 - 사업 수행기관 "행복커넥트" (SKT 산하 재단, 시스피커 활용 치매예방 집중)
 - 프로젝트 기간 3년, 현재 누적 218명 참여 중



기타 사례

[엔젤스헤이븐(구.은평천사원) - 장애인 생활시설 건축사업 지원 / 조건부 자금 대여]



- 투자 내역: 장애인 재활 전용 건물 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조건부 대여로 제공
- 진행 방법
 - 자금 대여 후, 총 3년간 1년 단위로 상호 계약에 따라 정해진 평가 자료를 제출
 - 시설운영보고서, 파일럿 결과보고서 등 연차별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원금 및 이자 면제

[어댑핏 스튜디오 -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 공간 및 시설 투자]



- 투자 내역 : 재단 건물 중 유휴 공간을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의 '서울 지점'으로 시공,
초기 공사비 전액 및 임대료 면제
- 진행 방법
 - 재단의 '장애인/비장애인 운동 인프라 불균형 완화 프로젝트' 협업 진행 중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재단의 임팩트투자 제약 사항 - 제도적 측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5% 미만 보유 규정]

- 상증세법 제16조에 따라 재단은 내국법인의 지분 5% 이상 취득시 증여세 이슈 발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아닌 재단법인의 경우 10%까지 취득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산입 시 상이한 비율 적용]

- 이자수익은 100% 산입 가능,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등 기타 발생 수익은 50% 산입 가능
 - 영리법인의 세무상 손금산입과 유사한 의미

[주무관청과의 협의가 필수적]

- 재단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로 임팩트투자를 시작한 케이스
 - 정관 제4조(목적사업)의 1항 2호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원 등의 사업'을 광의로 해석

재단의 임팩트투자 제약 사항 - 제도 외적 측면

[VC 업계의 일반적인 특례사항 답습]

-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는 상대적으로 업력 대비 매출 신장이 더딘 경우가 많음
 - 설립 7년 내~, 설립 3년 내~ 와 같이 일반적인 특례사항을 그대로 가져온 현재 임팩트펀드의 한계성

[임팩트 생태계의 한계 - 임팩트 워싱 / 그린 워싱 / 비목적 투자를 통한 주 수익 창출]

- 시장성이 보장된 일부 사회적기업에 편향
 - 친환경, 바이오, 헬스케어, 교육 등 수익성이 뛰어난 특정 분야에 임팩트 투자 집중
 - 재단의 주요 사회문제 분야는 장애, 시니어, 다문화 (임팩트투자 시장에서도 투자 유치의 사각지대에 존재)
 - 사회적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실질적인 사회문제 모델을 개발하려는 재단 입장에서 현재의 임팩트 투자 생태계에서는 우수한 협업 기업의 발굴이 어려움

재단의 임팩트투자 제약 사항 - 투자 방법 측면

[투자 형태의 한계 / 펀드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공제 혜택]

- 주식회사 및 지분투자(특히, RCPS) 에 집중적인 투자 형태
 - 마을기업, 협동조합,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은 투자 유치가 어려움
- 벤처투자세액공제 적용의 상이함
 - 벤처투자조합/합자회사/유한회사 형태의 임팩트펀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나 사모투자조합(PEF)형태는 세액공제 없음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

각종 규제 완화 및
투자자 풀 확대

- 비금융업 & 공익법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지분을 5% 제한 규정,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준비금 산입 50% 인정 규정 등)
- 기업별 형태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투자 방식의 허용

장기 인내 자본
투자 확대

- 사회적 경제의 성장 속도 감안 8~10년 이상
(재단 평균 투자기간 4~7년, 다수의 기업 기간 연장 중)

활성화 방안 및 시사점

공통의 규정과
기준 마련

- '주무관청별 협의'를 아우를 수 있는 완화된 공통의 규정 기대
- 형태에 따른 규제보다는 실질에 따른 기준의 확대

사회 문제 해결 성과 기반
Impact 확대

- 업력이나 인증을 초월하여, 사회 서비스 자체에 집중하는 소셜벤처에 주목
- 실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사례의 구축
(보건복지부 주관, 모태펀드의 '사회서비스 펀드(2023-2차)')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투자 운용사례

김종훈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본부장)



SMS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사회투자 운용사례

2023. 5. 26(금) 15:45~16:45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WE ADD
 SOCIAL VALUE
 TO FINANCE**

금융에 사회적 가치를 더합니다.

SMS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9년 1월 국내 최초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으로 출범한 공익재단입니다.

WE ADD SOCIAL VALUE TO FINANCE

금융에 사회적 가치를 더합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지속가능한 사회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규모화를 위해 사회투자를 통해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있으며, 사회문제 예방과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핵심적 파트너로서 함께 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 모든 분야를 공익법인의 중요 고유목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공익법인으로서 임팩트를 창출하는 접근방식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INVESTMENT AND LOAN PROGRAMS



INTERVIEW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투자

기업명 ㈜코끼리공장
 대표자 이재진
 설립일 2014년 9월
 주소 용인광역시 중구 성안길 156-1
 홈페이지 koorigong.com
 주요 서비스(상품)
 장난감 수리 및 대여, 장난감 소환 체험
 플랫폼 ㈜임팩트스퀘어

장난감 전문 자원순환 기업 (주)코끼리공장

이재진 대표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위기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되는 사이클이 매우 짧은 장난감을 순환시킴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친환경과 소외계층 아동을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투자 CASE : 간접투자

소비 사이클이 매우 짧은 장난감 자원순환 사회적 기업인 코끼리 공장은 청년, 노인 어르신을 약 140명 고용하면서 친환경과 소외계층 아동을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초기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성장지원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임팩트스퀘어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결성한 임팩트스퀘어 사회적기업 디딤돌 펀드에 공익법인 사회적투자자로 참여하여

코끼리공장에게 인내자본을 공급하였습니다

* 인내자본 : RCPS (전환상환우선주)형태로 지분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1

사회적금융 투자중개기관 : 임팩트스퀘어

임팩트스퀘어 사회적 기업 디딤돌 펀드

사회적경제기업 현장 욕구에 부합하는 자금의 공급과 동반자 전문 중개기관의 성장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금융 투자시장의 공급 확대를 목표로 결성된 투자조합에 출자 참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디딤돌 벤처투자조합(디딤돌 펀드)은 제6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으로 고용노동부 출자 40억 원, 민간출자 18억 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주)임팩트스퀘어는 투자와 더불어 사업기반 구축 단계에 있는 초기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성장지원(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펀드 결성 후 총 13곳에 투자하였습니다.

임팩트투자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자립단계(Pre-Series A)의 (예비)사회적기업에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전략 수립 및 민간 네트워크 형성, 판로개척 및 후속 투자유치 등 운용사의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치 상승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합니다.

2

사회투자 동료: 소셜임팩트 펀드 임팩트LP 출자

펀드 결성총액의 70.7%를 사회적 가치 창출 목적의 프락티스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탄소저감의 폐수처리 기술, 폐기를 데이터 분석, 복합 플라스틱 제품의 업사이클링 및 해양 쓰레기 처리, 아이 돌봄 등의 친환경, 돌봄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투자대상 사전승인제도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형태	투자
기간	8년 (20.11~28.11)
SVS 약정액	900백만원
결성액	5,800백만원
중개기관	(주)임팩트스퀘어

SVS IMPACT GOAL(SIG)

- 1 사회주목 지역자산화
- 2 교육·보육
- 3 도시재생·문화예술
- 4 건강·고령화케어·장애인복지
- 5 환경·에너지·농어업
- 6 양질의 일자리·고용



투자 지원사례

㈜잇그린 (대표 이준형)

용기 대어-배달-회수-세척까지, 일회용품을 대체하는 친환경 디회용기의 대어 및 회수 서비스 '리턴잇'을 운영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뉴트리인더스트리 (대표 홍종주)

음식물 쓰레기를 곤충 먹이로 활용하여 처리하고, 애벌레는 사료로 가공하여 대체 단백질 생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푸드체인을 만들어갑니다.



커피사업과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킹덤플랜트 협동조합

김한동 대표

성장을 저하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업명 킹덤플랜트협동조합
대표자 김한동
설립일 2016년 11월
주소 경북 안동시 중앙로 72
홈페이지 kingdomplant.co.kr
주요 서비스(상품)
 원두커피, 침출차, 음료농축액, 카페-베이커리
 중개기관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사회투자 CASE : 간접대출

경북 안동 소재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킹덤플랜트 협동조합은 경북1위 커피원두 제조기업이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전체 근로자 40명중에 65% 이상이 장애인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지역 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광역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이자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을 통한 채용자 프로그램을 통해

킹덤플랜트 협동조합에게 경영안정 운용자금을 대출지원하였습니다.



1 사회적금융 대출중개기관 : 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은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60개월, 1억원을 대출하는 사회적 금융 상품을 구성하고 대상에 특화된 사회적 금융 공급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개선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의무 지원비중을 50%로 설정하는 등 지역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2년 12월 말 기준 누적 대출기업은 41곳이고, 비수도권 대출기업은 23곳(56%)입니다.

대출사업 수익의 일부를 대손충당적립금으로 유보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금융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재대출형 지원사업의 부담 요인이었던 대손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형태	대출
기간	6년 ('20.1~'26.1)
SVS 약정액	1,500백만원
결상액	1,500백만원
중개기관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SVS IMPACT GOAL(SIG)

- 1 도시재생 문화예술
- 2 건강-고령화케어장애인지역
- 3 환경-에너지 농업
- 4 양질의 일자리고용
- 5 금융접근성



2 사회투자 통로: 대출중개기관 채용자 프로그램

투자 지원사례

쉬어스맨 (대표 최희진)

마을과 마을을 잇던 보부상의 마음으로 다양한 지구마을을 연결하고 소개하는 공정무역 브랜드입니다.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인자)

부천나눔지역자활센터 자활공동체사업의 결정체로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간존중 가치를 실현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동행 (대표 강현구)

청소년/청년의 자립, 일자리 창출 및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먹거리 사업과 문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대표 송유정)

장기요양, 지역통합돌봄 시설/위탁사업 등 생애주기별 종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전문 사회적기업입니다.



조합원이 주인인 의료기관, 웃음꽃이 피는 건강한 마을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박관림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을 설립하여 요양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노후까지 보살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업명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 김권희
설립일 2004년 4월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168, 5층
홈페이지 jhwsc.co.kr
주요 서비스(상품) 보건의료
중개기관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투자 CASE : 직접출자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수 1,755명으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 내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전복을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협동조합 우선출자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사협의 지역자산화 과정에 행정안전부(신용보증기금), 지자체 기금(전라북도) 등이 참여하는 지역자산화 금융제공 협력 모델 완성을 위해서 기관출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1 사회적금융 공급기관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출자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 (20.5월)하고,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새안산헬스케어센터와 통합돌봄센터의 지역자산화 사업에 조합원으로 출자 참여하였습니다.
(한의원, 치과 등의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통합된 커뮤니티케어 거점공간 확보를 지원하고, 취약계층 등 지역의 의료 돌봄서비스 강화 및 돌봄인력의 고용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출자기간(5년) 동안 무이자대출 효과로 절감된 이자비용과 협동조합의 재원을 매칭하여 지역의 취약계층 등 400여명에게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나다.

기관 조합원 출자를 통해 무배당 규정으로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후에도 우선출자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도기적 자금을 공급하고 재무구조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지자체(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및 도메기금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2년 12월 기준 조합원수 754명, 출자금 1767백만원으로 기관 조합원 참여선 사업인 '20년 2월 대비 각각 15%, 41% 증가하였습니다.

형태	투자
기간	5년 (20.05~25.05)
SVS 약정액	90백만원
결상액	4,400백만원

SVS IMPACT GOAL(SIG)

- 사회적·지역자산화
- 건강·고령화케어 장애인복지



2 사회투자 통로: 직접출자

전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출자

지역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지역자산화 사업에 대출방식이 아닌 기관 출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지역자산화를 통해 전주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 공간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높여 지역사회 내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합니다. 또, 출자기간(5년) 동안 무이자대출 효과로 절감된 이자비용과 협동조합의 재원을 매칭하여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2년 12월 기준 지역사회에 제공된 연간 사회서비스는 38.8백만원 규모입니다.

우선출자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해 행정안전부(신용보증기금), 지자체 기금(전라북도), 7개 의료협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자산화 금융제공 협력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22년 12월 기준 조합원수 1755명, 출자금 711백만원으로 기관 조합원 참여 전 시점인 '20년 8월 대비 각각 10.6%, 58.0% 증가하였습니다.

SVS IMPACT GOAL(SIG)

- 사회적·지역자산화
- 건강·고령화케어 장애인복지
- 양질의 일자리·고용



형태	투자
기간	5년 (20.12~25.12)
SVS 약정액	44백만원
결상액	2,050백만원



SVS IMPACT



전주의료사회협 분기별 사회성과 보고

전주의료사회협-SVS 사회공헌사업 추진 결과 공유(분기)

조합원수	1,847명	출자금총액	740,949,000원
추진일시	2023년 1월 1일 ~ 3월 31일	활동장소	전주시
참석자명	고선미(전무이사), 정미수(실장), 백기원(팀장), 윤혜경(사회복지사), 김수현(간호사), 양경모(팀장), 황영순(사회복지사), 한상복(간호조무사) 외 자원봉사자		
사회공헌 대상개요(개인, 가정 또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전주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 지원배경 : 조합원 후원을 통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사회공헌 내용(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 후원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수요일 반찬 10명 나눔 - 사회서비스제공 금액산출 : 130회×10,000원=1,300,000원 			
활동사진			
 <p style="text-align: center;">기대요과</p>		 <p style="text-align: center;">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확인 및 물품나눔을 통한 사회적 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제공 및 기부자 확대 	

사회투자 동료: 직접출자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5층, 6층
(신안산선 성포역 - 2024년 완공예정)
☞ 면 적 : 전용 483.72 m²(분양 913.91 m²)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SVS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사회투자 포트폴리오

INVESTMENT AND LOAN PROGR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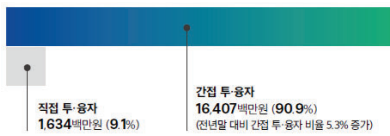


'22년말 기준으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목적 프로젝트에 대한 33개 기금 투융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국 19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과 협력하여 180억원을 사회적 경제 현장에 약정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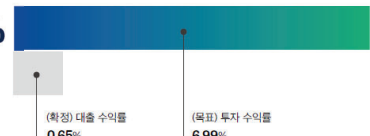


투융자 포트폴리오 High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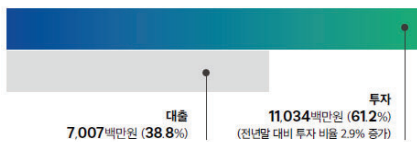
간접방식 90.9%



기대수익률 4.53%



투자방식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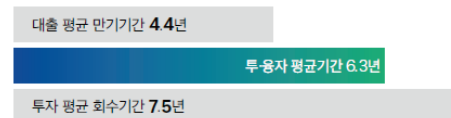


사회목적프로젝트

18.1%



회수기간 6.3년



임팩트 Spectrum

A 영역 37.3%
(원금회수 추구 + 시장수익률)



원금회수 및 일정수익률 이상을 추구하는 투용자인 A영역 비중은 37.3%,

B 영역 25.4%
(원금회수 추구 + 시장수익률 대비 낮은 수익률)



사회적금융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가치를 감안하여 시장수익률 대비 낮은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원금회수를 추구하는 B,C 영역은 54.8%,

C 영역 29.4%
(원금회수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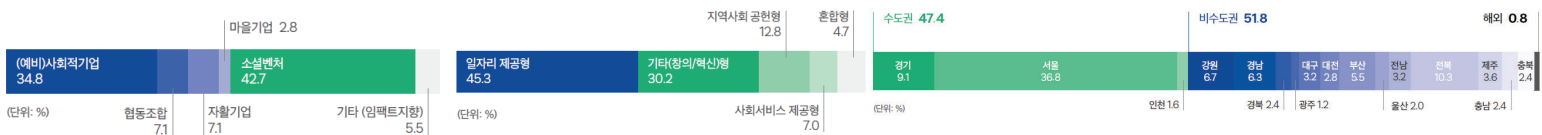


사회적가치 실현 및 중개기관 육성을 위해 원금 비보호를 감수하는 D영역은 3.4%를 보이고 있으며 이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D 영역 3.4%
(원금비보호 추구)



SVS 투용자 참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업종별 (표준산업대분류)	기업 수	비중	주요기업 사례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8	3.2%	지역수산물재고해결, 공정무역기반 카카오키의 제주농가결함판매, 곤충스마트팜
제조업(10~34)	63	24.9%	업사이클 패션제품제조, 폐기물활용 원단제조, 음식물쓰레기활용 곤충사료제조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	1	0.4%	임여전력 이웃간거래와 전력판매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36~39)	23	9.1%	주민참여형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해양폐기물 활용 재생원료 제조
건설업(41~42)	5	2.0%	자활기업 위주, 취약자소득계층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매 및 소매업(45~47)	19	7.5%	식물성 닭고기 대체육 유통, 중고의류 재사용판매, 로컬특산물 리브랜딩판매
운수업(49~52)	1	0.4%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소프트웨어를 통한 청각장애인 택시운용
숙박 및 음식점업(55~56)	4	1.6%	폐조선소활용 복합문화공간활용, 외국인여성고용 음식점운용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63)	24	9.5%	청각장애인 지원서비스, 용돈관리핀테크 플랫폼, 디지털아동그림 보관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62~66)	4	1.6%	이주노동자 해외송금, 신재생에너지프로젝트, 대출형임팩트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부동산업 및 임대업(68)	15	5.9%	로컬공간컨텐츠기획, 유희공간활용 도시재생, 사회주택 건축 및 임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0~73)	26	10.3%	치매치료용 패치개발, 제3세계 백신보급위한 마이크로니들개발, 해양기름수거로봇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76)	9	3.6%	취약계층인력 청소년역서서비스, 친환경 다회용기대어/회수서비스, 폐기물관리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2	0.8%	지역 사회적경제통합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교육 서비스업(85)	15	5.9%	지역아동치료, 전통놀이보급, 공예교육서비스, 지역컨텐츠 보급 및 교육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21	8.3%	돌봄(가사,간병)서비스, 치매진단케어, 장기요양돌봄인력제공, 언어재활솔루션제공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0	4.0%	취약계층 일자리연계 스포츠프로그램 교육/행사, 문화예술 공연기획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94~96)	3	1.2%	공익활동가 상호부조, 장난감 수리 및 재생판매
합계	253	100%	

THE IMPACT OF INVESTMENTS AND LOANS

SVS 투·융자 임팩트

SVS 임팩트 영역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사회적 금융·도매금융으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회적 경제 및 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효과를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임팩트 분류 등을 참고하여 개별 투·융자가 목표로 하는 임팩트 영역을 8개로 설정하고, 임팩트 효과를 분석·보고하고 있습니다.



SVS 투융자프로그램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기금 매칭



전북 사회적경제
기금 매칭

SVS IMPACT GOAL(SIG)

- 0 도시재생 문화예술
- 0 건강-고령화케어-장애인복지
- 0 환경-에너지-농어업
- 0 양질의 일자리-고용
- 0 금융접근성



에너지협동조합
자립지원사업 매칭

SVS IMPACT GOAL(SIG)

- 0 사회주택 지역자산화
- 0 금융접근성



사회주택 크라우드
펀딩 투자

SVS IMPACT GOAL(SIG)

- 0 사회주택 지역자산화
- 0 금융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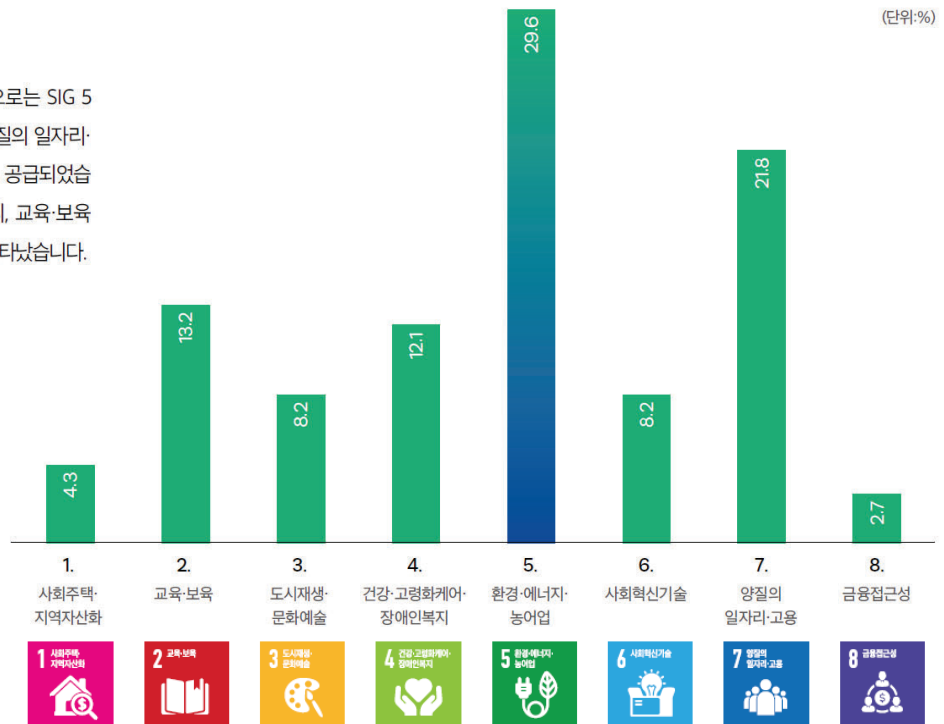
SVS기금 투·융자프로그램	투·융자 약정액	SVS 임팩트 영역							
		사회주택 지역자산화	교육· 보육	도시재생· 문화예술	건강·고령화케 어 장애인복지	환경·에너지· 농어업	사회혁신 기술	양질의 일자리·고용	금융 접근성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D3 임팩트벤처투자조합 2호 출자	2,000								
엑스트라임 임팩트2호 투자조합 출자	378								
소셜벤처피크너 투자조합 1호 출자	202								
이크 임팩트벤처투자 펀드 출자	2,500								
블루포인트 사회적혁신기술 창업벤처전담PEF 1호 출자	2,500								
임팩트스퀘어 사회적기업 디딤돌 펀드 출자	900								
티비티 오픈노베이션 펀드 출자	430								
경남 청년 임팩트 투자펀드 출자	200								
강원 피크너투자조합 출자	100								
씨비비이씨 우리미래 도시재생펀드 출자	300								
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1,500								
밴드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1,500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1,200								
경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250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매칭대출 (1차)	60								
전북 사회적경제기업 매칭대출 (2차)	85								
경북 청년애꿈 ESG벤처투자조합 출자	100								
평택협동사회네트워크 자조기금 매칭대출	100								
사회주택협회 중개대출 (나눔하우징)	100								
대구사회기금용 자조기금 매칭대출	200								
사회목적 프로젝트 투·융자									
서울시 청년실업해소 사회적과보상사업(SB) 투자	1,100								
부여군 차세대형 사회성과보상사업(SB) 투자	100								
안산시로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출자 (지역자산화)	90								
전주의로복지사회적협동조합 출자 (지역자산화)	44								
지역자산화 크라우드펀딩 매칭대출	162								
전국화합심원시흥산업노동조합 분재민공제회 대출	500								
불안정고용 노동자공제단체 대출	500								
서울시 사회주택 임대보증금 빈틈보증사업 대출	100								
사회주택 입주자 보호기금 매칭대출	140								
사회주택 크라우드펀딩 투자 (디디롬하우스)	50								
중소기업 공장지붕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투·융자	490								
에너지협동조합 자립지원사업 매칭대출	150								
경남사회기금용대부 설립출자	10								

SVS SIG



SVS 임팩트영역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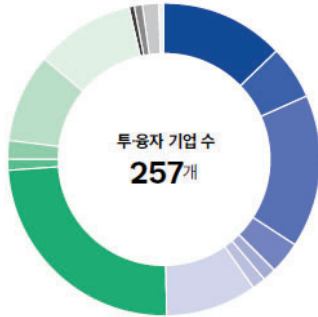
'22년 투·융자 기업 수(257개) 기준으로는 SIG 5 (환경-에너지-농어업) 29.6%, SIG 7(양질의 일자리·고용) 21.8%, SIG 2(교육·보육) 13.2% 공급되었습니다. 공급액 대비로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보육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UN SDGs분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22년 투·용자 기업 수(257개)' 기준으로는 SDG 8(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24.1%, SDG 3(건강하고 행복한 삶) 15.6%, SDG 1(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12.8% 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SDG 1. 빈곤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 SDG 2. 기아종식,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장려
- SDG 15. 산림강화 등 육상생태계 보전
- SDG 16. 포용적인 사회진전 등

SDG 번호	SDG 내용	비중 (%)
1	빈곤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12.8%
2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5.8%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15.6%
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3.5%
5	성평등 보장	1.2%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1.6%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9.3%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24.1%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1.2%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1.9%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9.3%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0.1%
13	기후변화 대응	0.8%
14	해양생태계 보전	0.8%
15	육상생태계 보전	1.6%
16	안전-정의-평화	0.4%

SVS IMPACT GOAL 기준
임팩트 영역 주요 투·용자 사례

SIG 분류	주요 투·용자 사례	SIG 분류	주요 투·용자 사례
1. 사회주택·지역자산화	[사회주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시공 및 운용을 하는 사회주택사업자에 대한 건축자금 브리지 대출을 사회주택협회를 통해 지원 [지역 자산화] 서울 M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렌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자산화를 추진하는 H사회적협동조합 시설자금 매칭대출	5. 환경-에너지-농어업	[메이랑 재활용] 부산소재 설립 2차 소셜벤처인 N사는 페이머에서 나일론을 재활용 추출하는 양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성 등 대기업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환경·사회적가치를 인정받아 T사회혁신펀드를 통해 RCPS 형태로 10억원 투자 지원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서울 강북소재 W협동조합은 주민참여형 공공부지 발전사업을 위해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회수조건 충족형태로 44백만원 시설자금 지원
2. 교육·보육	[직무교육 중개 플랫폼] 직무교육 중개 및 콘텐츠 플랫폼 제공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취업불균형 해소를 소실미션으로 하는 C기업에 대해서 D소셜임팩트 펀드를 통해서 RCPS 형태로 11.8억원 투자지원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남양주 소재 일자리창출기업 N기업은 15년차 사회적기업으로 매출 18억, 고용인원 16명으로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 등 보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비영리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해 72백만원 운전자금 대출지원	6. 사회혁신기술	[건설노동자 안전] IOT기반 건설현장 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사고위험을 감소시키는 사업 모델을 보유한 M기업은 D임팩트펀드를 통해 10억원 투자지원 [인구소멸지역 활성화] 중장기 숙박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M기업은 도시재생구역 및 인구소멸 지역의 중소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펀드를 통해 5억원 투자지원
3. 도시재생·문화예술	[지역컨텐츠 개발] 총목육천소재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인 G기업은 해당지역 컨텐츠 발굴 및 인프라 확장을 주요 비즈니스모델로 매출 5억원의 재무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출 중개기관을 통해 34백만원 운전자금 대출지원 [지역 구도심 도시재생] 부산지역 구도심 도시재생을 위한 복합공간을 개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소셜벤처로 D소셜임팩트펀드를 통하여 RCPS형태로 5억 투자지원	7. 양질의 일자리·고용	[청각장애 택시기사 고용창출] 서울소재 설립 4년차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인 C기업은 청각장애 취약계층 35명 (총고용 64명)을 고용하여 청각장애인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 청각장애인 택시기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M임팩트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2억원 투자지원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구소재 설립해년차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인 D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도시락 제공을 주업으로 하면서 보호종료아동 및 청년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비영리 대출중개기관을 통해 시설자금 84백만원 지원
4. 건강·고령화케어·장애인복지	[돌봄서비스 인력매칭]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기업인 K기업은 요양보호사업의 규모화 및 플랫폼화, 요양보호사 적정임금 제공 및 서비스 질 개선으로 고품화 케어에 주목받고 있으며 A임팩트펀드를 통하여 RCPS 형태로 20억원 투자지원 [돌봄(가사/간병)서비스] 설립 14년차 사회적협동조합·지활기업인 H기업은 매출 66억으로 취약계층 205명 (총고용 392명)을 고용하고,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복지 및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비영리 중개기관을 통해 시설자금 3억원 대출 지원 받음	8. 금융접근성	[미주노동자 해외송금 플랫폼] 기존 은행대비 90% 저렴한 수수료로 적용한 미주 노동자를 위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제공업체인 C사는 D임팩트펀드를 통해 RCPS 형태로 5억원 투자지원 [공익활동가 상호부조] 불안정 고용 및 긴급자금 수요가 있는 사회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사회적협동조합 D사는 매출 45억, 자산규모 31억원으로 비영리 대출중개기관을 통해 동사가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와 공익성을 인정받아 운전자금 50백만원 대출지원



아직까지 공익법인의 사회투자는 낯설은 영역임이 분명합니다



경제와 사회의 혁신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의 든든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 TIP

임창규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전무, CFA)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 TIP

목적사업/비목적사업, 기본재산/보통재산, 프로그램 전문성/
투자전문성, PRI/MRI, 직접투자/간접투자
- 임창규 CFA,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전무

아크임팩트자산운용 소개

ARK의 임팩트투자 철학

**“시장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사회변화테마 투자”**

ARK의 임팩트투자 원칙

“임팩트와 재무적 수익의 통합적 가치 창출”

- 벤처기업이 미션으로 삼고 있는 임팩트 창출이 매출과 수익에 연동
-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가 임팩트 수혜자이며 동시에 구매 시장인 통합 모델을 선호



ARK의 임팩트투자 여정

2003
SRI & Value 투자

- ARK 투자자문 및 사모펀드 출범
- SRI 및 가치 투자

2005
소셜벤처 한국사회 소개

- 한국소셜벤처대회(SVCK) 출범
- '05~'10년 집행대표, 심사위원장, 재정지원 파트너

2010
SVCA로 소셜벤처 전파

- Social Enterprise Network (SEN) 창립
- '10~'15년 이사장, 재정지원파트너
- 아시아소셜벤처대회(SVCA)와 대학생소셜벤처클럽 운영

2017
글로벌 임팩트투자 벤치마킹

- ARK임팩트자산운용으로 사명변경
- 아크임팩트글로벌사모펀드 설립
- GIIN과 Tonic 회원
- Tonic 100% Impact Network 멤버

2015~
임팩트투자 대학생 교육

- 책임과가치투자(R&V) 클럽 출범
- 대학생연합임팩트투자클럽(SAIIIC)으로 명칭변경
- 1년 프로그램

2010/2018
임팩트투자 세미나

- 제 1, 2회 임팩트투자 세미나
- SEN 및 이화여대 글로벌사회책임센터 공동개최

2019
임팩트투자 확립과 실행

- 「임팩트투자, 투자의 미래」 출간, 이철영, 임창규(2019.1)
- 2018 Impact Report 발표
- B Corp. 인증 (2019.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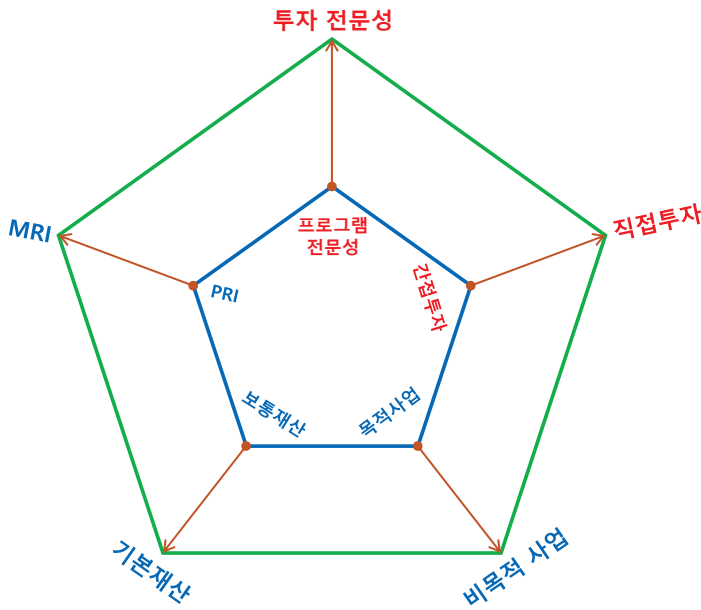
2020
국내 임팩트투자 펀드 설정

- 아크임팩트벤처 일반사모펀드 설정
- 한국성장금융/KBS사회투자펀드/26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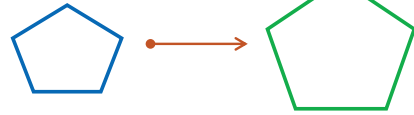
2021/2022
임팩트투자 지평 확대

- CREO 경희원 가입/연례총회참석
- 아크리젠트지속가능솔루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결성(23.5월 예정) 한국성장금융/KBS사회투자펀드/서울시/205억원

공익법인 임팩트투자의 5가지 차원



공익법인 임팩트투자의 확장 방향



임팩트투자

두 가지 목표 모두 의미 있는 비중의 사회적/재무적 혼합가치 추구 투자

사회투자

재무적 가치 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더 우선시 하는 투자

목적 구분: 목적사업 / 비목적사업

- 주무관청의 이해도를 높여 **임팩트투자**를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승인 받음
- 목적사업 수행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공익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투자의 방식으로 수행
- 승인을 위한 **근거**
 - 1) 원금 및 수익의 회수는 **목적사업의 확장**과 **지속성**을 위해서만 사용
 - 2) 임팩트투자를 통한 사업목적의 **달성 정도를 증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함
- **정관상 비목적사업 분야**이나 공익법인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회 및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까지 확장할 수 있음
 - 1) **공익법인의 재산 운용**이 사회 및 환경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데 동원됨
 - 2) 다른 미션 지향적인 자금제공자들에게 **신호 역할**
 - 3) 목적사업으로 분류되기에 애매한 경우 **비목적사업 임팩트투자**로 분류

재산 구분: 보통재산 / 기본재산

- 기본재산으로 임팩트투자를 수행하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 정관의 수시 변경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매우 어려움
- 따라서 기본재산 중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하여 목적사업 및 비목적사업으로 임팩트투자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
- 기존의 **보통재산으로 임팩트투자를 수행**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목적사업과 연계하여 투자**하며, 이 때 **수익률 보다는 임팩트 창출을 우선시**하고 일정 부분 **원금의 손실**에 대해서 수용
- ✓ 이 경우에는 지분성 투자를 포함하지만 **가급적 융자 또는 보증의 방식**으로 대출 만기를 분산
- ✓ 회수 자금을 임팩트 창출 효과가 크며 **검증된 프로그램에 더 많이 투입**
- 기본재산에서 편입된 보통재산의 경우에는 좀 더 **폭넓은 사회 및 환경적 임팩트 창출 사업에 투자**하되 **시장수익률을 추구**함으로써 임팩트의 **확장**과 임팩트창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
- ✓ 이 경우에는 (간접투자든 직접투자든)보통주, RCPS(전환상환우선주), CB(전환사채) 등 **지분성 투자**로서 **인내자본**의 공급에 초점

임팩트 분야: PRI / MRI

- Program Related Investment(PRI): 본질적으로 공익법인의 구체적인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활동**으로서 투자 수익 보다는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것
- ✓ **미국에서 1969년** 세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재단이 투자방식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프로그램연계투자(PRI) 제도를 도입
- ✓ 한국식으로는 보통재산으로 융자, 보증, 지분 취득 등 투자 방식으로 목적사업 수행
- Mission Related Investment(MRI): 공익법인의 특정 **목적사업의 범위를 넘어** 여러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위험가중 시장수익률을 목표로** 기본재산 중 일부를 여러 자산군 및 투자증권에 투자
- ✓ 2015년 보유자산 운용 차원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즉 미션연계투자(MRI)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발표
- ✓ 한국식으로는 기본재산 운용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이지만, 국내 규율 상 실행에 어려움

전문성: 프로그램 전문성 / 투자 전문성

- 공익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자금의 원금과 수익의 회수라는 **투자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부분 **매우 생소한 개념**
- 이상적으로는 투자전문성과 프로그램 전문성을 모두 갖춘 **하이브리드 인재가 최선**, 조직적으로는 투자전문 인력과 프로그램 전문인력의 **상승적 역량 통합 방식의 조직 운영이 최선**
- 공익법인은 법인 설립 목적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경험 및 전문 인력 그리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사회투자를 당초 법인 설립의 목적으로 둔 기관들을 제외하면 **투자 전문성을 내부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음** (사회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들조차 비금융권 비영리 근무경력 담당자들이 많은 편임)
- 사회투자는 사회적 가치 즉 **임팩트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는 필수적**이지만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투자전문 역량**을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
- ✓ 그러나 내부 역량만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전문가 자문 등 외부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이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방식 모두 해당)

투자 방식: 간접투자 / 직접투자

-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비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자, 보증 또는 지분성 투자의 방식을 직접 수행하는 방법과 여러 다양한 중간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간접투자의 방법이 있음
- 사회투자 및 임팩트투자를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방식을 혼용하여 수행할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공익법인의 경우 **직접투자 방식보다는 간접투자 방식이 더 적합함**
- 간접투자의 방식의 경우라 하더라도 임팩트 역량 뿐 아니라 기관 내부의 투자역량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며 임팩트 성과의 측정을 위한 역량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 **가능하면 투자심의위원회를 자질을 갖춘 내부인력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덜 소싱, 분석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책임성, 일관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 ✓ 다만, 덜 고유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공익법인 사회투자 활성화 방안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

2023.05.26.

김효선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

Unleashing the power
of endowments: The
next great challenge for
philanthropy



Darren Walker, President
5 APRIL 2017

In time, I fervently believe, we will see a thriving, mature sector in which everyone can make impact investments that produce both sustainable financial returns and substantial social returns. Maybe it will take decades more to get there. But we'll never know if we don't make a start.

해외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

▪ Ford Foundation

- 1968년 PRI를 시작. 저금리 대출 및 주식투자를 통해 투자 진행하였고, 6억 7천만 달러 이상 지원하며 촉매자본으로 평가
- 2017년 MRI로 10년간 1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발표. 재단은 2021년까지 4억 2,500만 달러를 투자 풀로 할당하고 실제 3억 8,500만 달러 투자하였고, 이 기간동안 연평균 28% 복합 수익률 창출

▪ The Rockefeller Foundation

- 1990년대부터 PRI를 시작. 2,500만 달러를 투자풀로 조성하여 대출, 지분투자 및 보증 형태로 운영
- 2019년부터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하여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Zero Gap 펀드 출연 및 운영
- 2020년 임팩트 투자자, 정부 등과 협력하여 자금조달 규모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임팩트 투자를 위해 RFCC(RF Catalytic Capital)를 설립.

해외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

▪ Bill and Merinda Gates Foundation의 전략적 투자

- 결핵, 에이즈, 코로나19을 포함한 전염병 문제, 영양실조, 성평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선사업 선도
- 2009년 SIF(Strategic Investment Fund)팀을 구성하여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투자를 진행. 투자금은 25억달러 투자풀에서 사용하고, 대출, 신용보강, 직접 지분투자 등으로 투자방법 다양
- SIF팀은 투자은행, 벤처 캐피탈 및 사모펀드 분야의 금융 전문가로 구성. SIF팀은 재단의 프로그램팀, 글로벌 개발 등 다른 팀과 협력하여 전략 수립
- 전략적 투자영역은 크게 글로벌 개발, 글로벌 보건, 글로벌 성장 및 기회, 미국 교육으로 구분됨.
- 현재까지 85개 기업에 투자하였고, 그중 직접 지분투자(38개사)와 대출 및 신용강화(22개사)가 가장 많음.
- 투자수익은 재단에 환원되어 보조금 지급과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도록 함.

해외 임팩트 투자 사례의 시사점

- 임팩트 투자의 다양성
- 공익법인 임팩트 투자에 대한 공감대 - 인내자본 또는 촉매자본으로의 역할
- 공익법인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
- 임팩트 투자를 지원하는 정부와 관련 법제

공익법인 임팩트 투자의 특징

	벤처투자조합	사모펀드	비영리법인
운용목적	창업초기기업에 모험자본 공급	제한 없음	<u>비영리 목적사업 수행</u>
자금조달	정부(모태펀드)+기관투자자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u>기부금</u>
운용대상	중소, 벤처기업	제한없음	<u>목적사업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비영리법인 등</u>
운용주체	벤처캐피탈(창투자, 신기사)	자산운용사/GP	직접 또는 간접
진입규제	등록	일반사모, GP 등록	없음
지분투자	가능	가능	<u>제한적 가능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내)</u>

국내 공익법인 임팩트 투자 관련 법제 한계

-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를 활성화하는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는 부재하거나 불확실
-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공익법인 지분 보유 제한
 -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 자금에 대한 기부금품법상 기부금품 등록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지출 규정에 임팩트 투자금 포함 여부
- 다수의 공익법인이 벤처투자법에 의하여 임팩트 투자를 수행
 - 벤처투자와 임팩트 투자의 본질적 차이
 - 창업기획자 제도 하에서 투자 대상 등에 있어서 차이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향

- 공익법인의 임팩트 투자에 대한 법률적 측면의 불확실성 제거
 - 공익법인의 의무지출 범위에 임팩트 투자금을 포함
 - 임팩트 투자 관련 목적사업 및 기본재산 운용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
 -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범위에 임팩트 투자금 배제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지분 제한 규제 완화
 - 기업의 지배력 유지 및 확보가 목적이 아닌 지분 보유 자체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불합리
 - 미국의 경우 공익법인의 지분 제한 기준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내(예외적으로 특정기업이 제3자에 의해 유효하게 지배될 경우 35%까지 허용)

감사합니다.

T32-34. 자금순환 - 워크숍 프로그램 / 5.26 (금) 오전 오후



T32. 기술 워크숍

5.26 (금) 10:30~11:50, 온드림 소사이어티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사회적경제 기업 용자사업 실무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용자사업에서 어려웠던 심사케이스를 모아 분석해 봅니다. 채권추심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을 워크숍 방식으로 풀어 봅니다. 유사한 케이스를 가진 다른 기관의 다른 관점과 해결방법도 공유하고 학습하며, 참여자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참여자 사전 신청을 받아 구성합니다.

협력: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T34. 상담 & 설명회

5.26 (금) 14:30~16:30, 온드림 소사이어티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사회적 금융 전문가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 자금조달 전략을 수립해 보는 시간입니다

-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소개
- 자금조달 컨설팅 사업 소개
- 주요 부문별 상담회 (후원형 펀딩, 증권형 펀딩, 자금조달 컨설팅) - 사전신청, 30명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오마이컴퍼니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기간: 5.4 ~ 5.24

협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마이컴퍼니

T33. 사회적금융 프런티어상 시상식

5.26 (금) 12:00~12:30, 온드림 소사이어티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금융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해 수상하는 자리입니다.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금융 프런티어상 선정위원회'에서 사회적 금융 우수사례와 함께 후보를 추천 받았고,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행사 당일 수상 사례 발표 및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주최: 사회적금융 프런티어상 선정위원회

사회적금융 프런티어상 선정위원회

(사)강원사회적경제연대	소풍벤처스
(사)나눔과미래	신나는조합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엠와이소셜컴퍼니
(재)대구사회가치금융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재)밴드	(주)한국사회혁신금융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평택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동작실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디쓰리 주빌리 파트너스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북서울실험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사회투자 IR 간담회

5.26 (금) 10:40~13:10

사회투자 IR 간담회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또는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조직들과 사회투자에 관심을 가진 기관들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미래의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주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공익재단, 기업 사회공헌 담당부서, 사회책임투자 실행조직과 구체적인 자금 수요를 매개로 교류함으로써, 서로의 지향점과 활동 방식을 보다 잘 이해하고, 사회변화 창출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업 설명
- 공공기관 사회투자 활성화 사업 소개

협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후원: 은행연합회



T41. 포용금융 트랙 - 패널 토론 / 5.25 (목) 14:30



최현자 좌장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Choe, Hyuncha
Board Member,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



조혜진 발제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Cho, HyeJin
Professor, Incheon Univ.

ESG에서 사회적 가치를 의미하는 S는 조직 안팎에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DEI는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원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 포용금융 실현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짚어 보고,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취약한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해 봅니다

엔데믹 시대, 포용금융 실현 전략

5.25 (목) 14:30~15:5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이 세션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김상빈 발제
크레파스솔루션 실장

Kim, Sangbin
Director of Strategy and Planning, CrePASS
Solutions



변혜원 지정토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Byun, HaeWon
Research Fellow,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안준상 지정토론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사무국장

Ahn, Joonsang
Director, Social Solidarity Bank



김미혜 지정토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부장

Kim, Mihye
Director, Finance Programs, Korea Inclusive
Finance Agency

엔데믹 시대, 포용금융 실현 전략

디지털금융시대, '포용금융'의 나아갈 방향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디지털금융시대, '포용금융'의 나아갈 방향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포용금융의 개념 및 배경

포용금융 (Inclusive Finance)

포용금융의 핵심가치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Leave No One Behind)’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핵심원칙에서 파생

Financial inclusion means that **individuals and businesses have access to useful and affordable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that meet their needs** – transactions, payments, savings, credit and insurance – delivered in a **responsible and sustainable way**.

- World Bank -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금융 산업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
- 고소득·고신용자에게 금융서비스 접근 기회가 집중되는 것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들도 공정하게 제도권 금융시스템 내에 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이 포용금융이 확산된 계기

➔ **금융의 신뢰회복 수단으로 급부상**

포용금융의 개념

포용금융 (Financial inclusion)

- **금융소외계층이 필요한 제도권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Worldbank, 2013)
- 경제주체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가용성 증가시켜**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포함 시키는 것을 의미 (CGAP, 2011)



포용 금융이란,
자신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 이를 가능하도록 돕는 것

금융소외 (Financial exclusion)

- 개인이나 경제주체가 **금융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에서 배제되는 현상** (Leyshon and Thrift, 1995)

- Ex 1) 금융소외 계층 소비자들이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
- EX 2) 은행 점포 부족 등의 물리적 제약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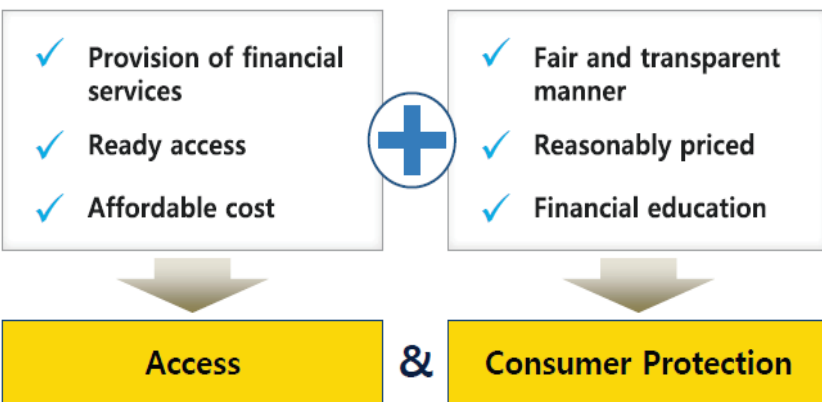
➔ **금융소외란 개인이 처한 여러 가지 취약상황으로 인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포용금융의 발전

ADB(2000)	소규모 기업과 저임금 가계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UN(2006)	적격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과 보험에 대한 접근, 모든 사람의 저축과 지출에 대한 접근
WorldBank(2008)	금융서비스 이용에 가격 및 비가격 장벽이 없는 것
GPMI(2010)	G20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출범
CGAP(2011)	금융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연령의 성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서비스 접근
BIS(2011)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사회계층에 적절한 가격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OECD(2013)	금융교육 을 통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금융서비스 이용 확대 및 저렴하고 적절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
ADB(2015)	적절한 가격으로 가계와 기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G20(2017)	포용적 금융 액션플랜 마련 ① 중소기업 금융지원 ② 금융 규제 ③ 금융소비자 보호 ④ 경제 시스템 등 4개 분야 14개 과제 제시
OECD, G20(2019)	고령층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을 통해 금융체계 안정에 기여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을 강조
WorldBank(2022)	개인과 기업이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필요한 유용하고 저렴한 거래, 지출, 저축, 신용 및 보험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것

포용금융 개념의 확장

정의의 확장 : Vulnerable Groups ⇒ All groups



※ 2017년 현재 전세계 성인의 31%(17억명) ⇒ 계좌 미보유
 Source: World Bank(2018), "The Global Findex Database 2017"

※ 단순 계좌보유에서 비용, 가격, 채널, 기타 소비자보호 이슈로 개념 확대

-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에서 점차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으로 확장
-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서
 - 더 나아가 금융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금융교육을 제공하고,
 - 공정한 시장 거래 및 적절한 거래 비용 제공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시키는 등
 -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로 확대**

포용금융의 발전

- G20 혁신적 포용금융 원칙

항목	내용
리더십 (Leadership)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포용금융에 대한 정부의 약속
다양성 (Diversity)	공급자의 다양화와 함께 빈곤층의 다양한 금융서비스(예금, 대출, 지급결제 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지속 가능하도록 경쟁 촉진 및 시장친화 인센티브 제공
혁신 (Innovation)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술/제도적 혁신 촉진
협력 (Cooperation)	정부 내 명백한 책임과 조율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업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파트너십 및 직접적 지문을 장려
지식 (Knowledge)	개선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거에 기반을 둔 정책 마련 및 진척 상황 측정을 시행하고, 규제당국과 서비스 공급자 받아들일 수 있는 점진적 확대 접근법 고려
규제 체계 (Framework)	국제적인 기준, 자국 내 상황을 반영하는 규제체계를 고려하고 경쟁을 지원
보호 (Protection)	정부, 공급자, 소비자 역할이 인식되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종합적 접근법 장려
역량 강화 (Empowerment)	금융 이해력 및 금융역량 개발
비례성 (Proportionality)	혁신적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과 편익에 비례하면서 기존 규제의 공백과 장애요인에 기반을 두는 정책 및 규제체계를 조성

출처: GPMI, 2010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 (G20, 2017)

Areas	Plans
SME Fi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Facilitate the expansion of financial services to SMEs Identify and Promote good practice
Regulation & Standard-Setting Bod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instream financial inclusion in the work of SSBs Include financial inclusion in financial sector assessments
Consumer Protection & Financial Litera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Improve the capacity of public authorities Promote consumer protection and financial education
Markets & Payment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Reduce the cost of sending remittances Expand opportunities to responsible financial inclusion
Cross-Cutting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novative solutions to increase digitization Engagement with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services among the hard-to-reach segments Women's economic empowerment

Source: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GPMI, 2017), "2017 Financial Inclusion Action Plan"

10

포용금융의 발전

○_높음 / △_중간 / X_낮음

단계 Key words	주요 특징	지속 가능성	효율성	유효성	차별화
1단계 (1970~1980) 녹색 혁명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주도의 농업 관련 정책 금융 - 저개발국, 개발도상국 - 자원: 공여국, 정부 기금 - 녹색혁명, 빈곤에 대한 재정적 지원 	X	X	△	X
2단계 (1980~2000) 소액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주도의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빈곤층, 여성, 농촌민 등) - 자원: 개인의 재정, 공여국 - 소액 대출, 유박사, 그라민 은행, 빈곤 	△	△	○	○
2.5단계 (2000~2010) 소액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 부문 및 세계적 협력 - 소액 대출의 소액 금융으로서의 확장 - 세계의 인정(노벨상)과 협력(World Bank, CGAP, ADB ...) - 저개발국, 선진국 (빈곤에 초점) - 자원: 개인의 재정(일부 지나친 상업화), 공여국 	△	○	△	○
3단계 (2010~2015) G20 주도 포용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와 G20가 주도하여 지역 협력 강조 - 세계의 불평등 악화 문제 관리 - 자원: 정부 기금 - 불평등, 정부의 정책 	△	○	△	○
4단계 (2015~) 디지털 포용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조정, 민간 산업 참여 - 4차 산업혁명(빅데이터, AI, IoT ...)과 핀테크의 발전 - 강조된 지역 협력 - 기회와 위험의 공존 	○	○	○	○

출처: Financial Inclusion Through Fintech in the Digital Economy(2021)

포용금융과 사회적 금융

• 포용금융과 사회적 금융

- 공통점: 저소득층의 금융접근성 확대
- 차이점: 저소득층의 보호를 위해 제도권 내에서 금융 접근성 확대

- 대출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여 금융서비스,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로 포용 금융의 범위 확장

SDGs 17개 목표



포용금융과 지속가능한 금융

- 지속가능금융: 기업과 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기여하는 금융서비스·상품, 관련 제도와 시장체제 (G20 지속가능스터디그룹)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공유가치창출(CSV) 차원을 넘어 ESG가 기업과 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에 주요 영향 요소로 부상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사회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후생 증진에 초점을 두는 금융활동을 포괄하므로 포용금융의 범위에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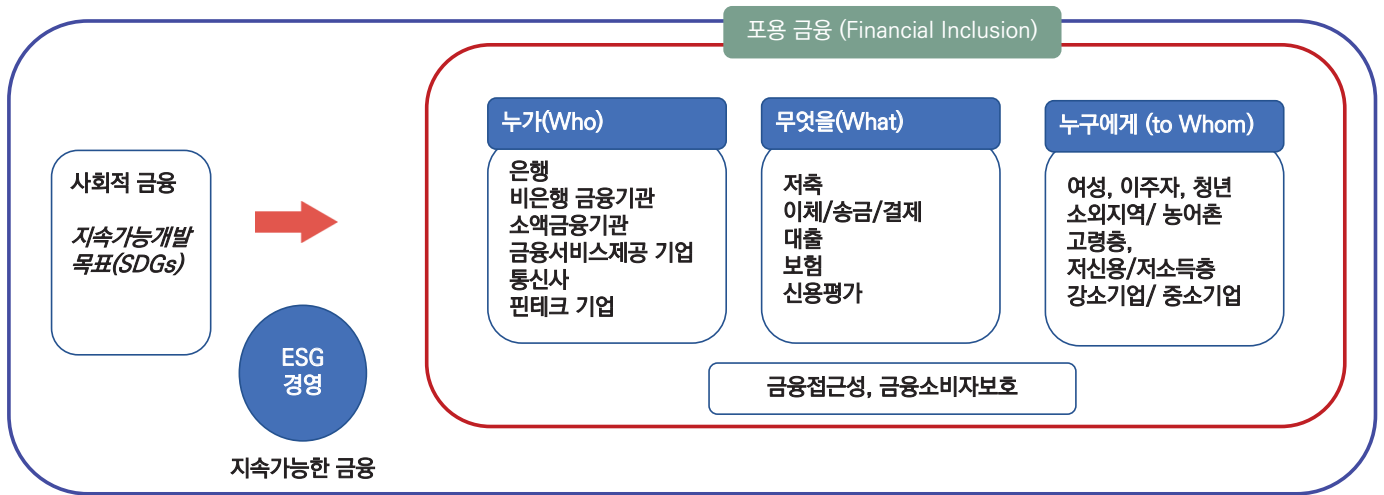
ESG는 기업 장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Sustainability Capacity)

금융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할 강화 및 인식 전환

• 금융포용성 · 금융접근성 증진, 금융소비자 보호, 인적자원 개발 및 지원, 데이터 ·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금융회사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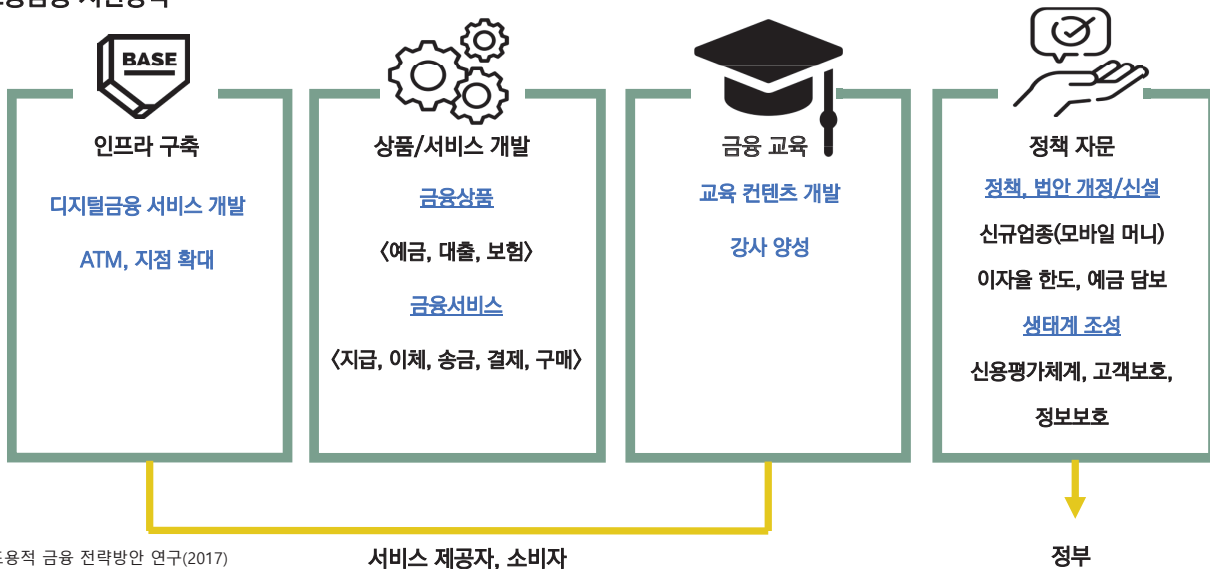
포용금융과 사회적금융, 지속가능한 금융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라는 '사회적 금융' 에서 출발한 '포용 금융' 은 ESG경영으로 대표되는 '지속가능한 금융'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포용금융 지원 방식

- 포용금융의 핵심 : 제도권 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금융 접근을 위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소득 격차, 지위, 성별과 관련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포용금융 지원방식



출처: 포용적 금융 전략방안 연구(2017)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정부

포용금융의 효과

- 포용금융의 확대 효과

- 1)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낮추고**, 금융자산 증가를 통해 경기하락 등 외부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여** 경제 및 금융 전반의 건전성을 개선
 - 2) 제도권 신용이용이 불가능한 **저신용자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이어** 지하경제를 축소
 - 3) 경제 내의 자본형성을 증대하는 역할, 소득보조 가능, 금융취약계층(저소득, 저신용)이 저축 및 보험을 통해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게 하여
- =>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충격에 대한 완충능력 향상에 기여

포용금융의 국내외 현황

포용금융의 해외 현황

- 2017년 기준, 성인 1/3에 가까운 17억 명이 여전히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음
- 2011~2014년 사이 7억명이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주류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음(Global Findex)
- 중국, “실속형 은행계좌” 보급을 통해 금융 소외자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 미국, 탭투페이 (tab-to-pay) 혹은 디지털 지갑 사용 증가, 2023년 실시간 결제시스템 ‘패드나우(FedNow)’ 상용화를 통해 디지털 페이먼트 구현
- 중국과 인도, QR코드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페이먼트, 모바일 지갑 사용 증가



- 컨택리스 신용카드
- 스마트폰 또는
- 컨택리스 결제기술이 적용된 기기



출처: 헤럴드경제

<https://www.worldbank.org/en/publication/globalindex>

포용금융의 해외 현황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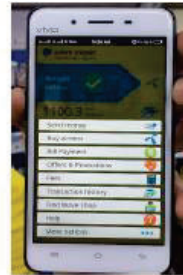
- M-PESA : 모바일 뱅킹 앱 (케냐) – 핀테크를 활용한 포용금융
 - 금융인프라가 거의 갖춰지지 않은 저개발국가에서는 물리적으로 금융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보다 핀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
 - 2007년 케냐, 사파리콤 이동통신사(시장점유율 80%)가 영국의 보다폰과 함께 개발한 모바일 뱅킹 앱 서비스
 - 모바일 기반으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 개인 간 거래와 은행과 거래 가능
 - 사파리콤과 제휴한 슈퍼마켓, 동네 잡화점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계좌로 입금을 하면 문자로 돈을 쉽게 이체하고 인출할 수 있게 함
 - 2015년 기준 케냐 성인의 80%이상이 은행지점이 아니라 M-PESA 통해 금융거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17)
 - 효과 => 금융접근성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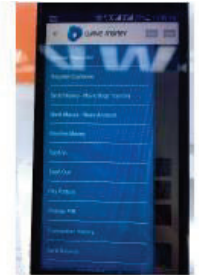
출처: 포용적 금융 전략방안 연구(2017)

포용금융의 해외 현황 (기업)

- 웨이브 머니 : 모바일 금융서비스 (미얀마) _ 금융과 비금융서비스의 결합
- Wave Money는 미얀마 민간은행 Yoma Bank와 노르웨이 통신업체 Telenor가 미얀마 에서 출시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 웨이브머니 가맹점은 환전소, 식료품 잡화점, 모바일상점 등이 겸업 운영, **모바일 계좌 내 예금, 출금 및 송금 서비스 대행**
- 웨이브머니는 스마트폰 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계좌 등록,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용’ 과 ‘가맹점용’ 2가지 버전
- **고객용 어플리케이션은 현금 거래, 휴대폰 Pay as you go 충전,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Find Wave Shop)를 제공, 상수도세 및 전기세 납부 서비스 제공**
- **가맹점용 어플리케이션은 고객 등록, 현금 예금, 현금지급, 현금 수취, 타 가맹점 대상 현금 송금, 타 웨이브머니 계좌 현금 송금 등의 기능**
- 웨이브머니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가맹점을 통해 이체거래 가능
- **특징 : 핀테크 적용, 금융과 비금융서비스의 결합, 확대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관 자원 결합**



Wave Money 어플리케이션 (고객용)



Wave Money 어플리케이션 (가맹점용)

출처: 포용적 금융 전략방안 연구(2017)


포용금융의 국내 현황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서민 금융부담 완화, 취약 채무자 보호 강화
 - 연체발생 사전 예방 및 부담 최소화, 장애인 금융서비스 접근 개선을 위한 전통 휠체어 보험, 인터넷전문은행 심사 시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등 포용성 고려
 -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금융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제공
 -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고령층의 공정한 거래환경조성,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및 착취 방지 강화 중심 금융환경 조성방안 제시

• 2022년 금융정책 추진방향(금융위원회)

• 2023년 금융정책 추진방향(금융위원회) 12대 정책과제

04. 포용금융 및 금융신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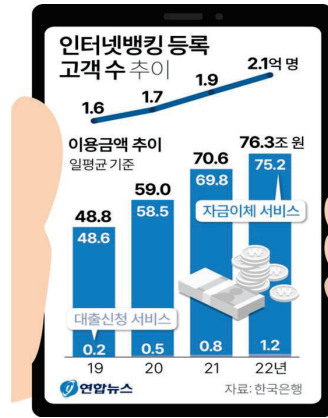
- 취약처주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서민금융 공급·신용회복 지원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소비자 편의증진, 피해근절 등 추진
- 공정성 확립 → 투자자 보호·가상자산 등 관리 강화

- 5.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6.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에 따른 주거, 금융애로 완화
- 7. 고금리시대, 가계취약차주 자금난, 상환부담 경감
- 8. 금융범죄, 사기로부터 국민 보호
- 12. 소비자신뢰와 편의증진 도모

포용금융의 국내 현황

• 금융시장

- **모바일뱅킹 활성화, 2020년 이후 인터넷뱅킹 고객 수 급증**
(내지갑 통장, 페이스시스템 연동, 마이데이터 연동 자산관리 등)
- 국내 은행 점포 감소,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 증가(5대 은행 기준 2019년 525만 명→2021년 857만 명)
- **신한금융** : 2021년 무인형 점포 “디지털 라운지” 설치 및 인공지능 뱅커, 스마트 키오스 도입을 통해 점포 통·폐합으로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고객 불편 최소화**
- **DB생명** :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위한 “시니어 고객 전용 콜센터” 운영을 바탕으로 **노년 금융소외 계층 지원**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음**, 중저신용자들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1금융권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효과



디지털금융시대, '포용금융'의 나아갈 방향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소비자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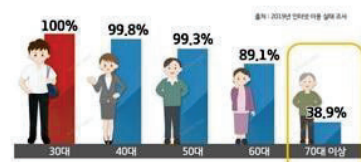
디지털포용금융

디지털기술발전과 포용금융

- 핀테크(FinTech) 활용한 금융접근성 개선 전략: **지리적, 물리적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금융소외계층에게 핀테크(FinTech)를 활용하여 금융접근성을 개선하고 금융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리적 거리로 인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웠던 소비자의 금융접근을 가능케 하고, 지불 가능한 비용과 간편한 방법으로 저축, 송금, 지급, 대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용금융 가속화**
- Global Findex 자료에 의하면, 2011~2014년 사이 세계 7억여 명이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주류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었음
-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용가능해진 비전통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에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거나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소비자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사례 증가
 - 미국의 Grameen America , 모바일장치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집적하고 이를 이용하여 상환능력 평가, 후속 대출 결정 및 창업 컨설팅 등을 하고 있음
- 디지털금융 활성화로 인한 역기능
 - **디지털취약계층의 등장 (새로운 금융취약계층)**
- 고령자, 장애인, 디지털금융취약층

KB의 마이데이터 사업

✓ 디지털 포용



- KB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정말 필요한 계층에 주목

디지털 혁신기회? 코로나19 여파에 디지털 소외 양극화

“일주일 더 기다리세요” 디지털취약층 애타운 재난지원금

디지털화가 가난을 만든다는 역설

모바일 티켓에 보편화-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불편 느껴

디지털취약계층과 포용금융

-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디지털 접근 능력 차이로 인한 양극화 심화**
- 디지털금융취약계층의 금융소외 개선 방안
- 2020년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발표
-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추진
 - 2022년, ‘고령자친화적 모바일금융 앱 구성지침 (가이드라인)’ 자율규제 신설,
 - 고령자 모바일금융 앱 개발, 제공
- 비대면영상상시스템 활용, 시니어특화점포 운영 (시니어플러스 효심 영업점)
 - ⇒ **금융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
-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원
 - 음성 OTP, 디지털 OTP 확대
 - 2023년까지 장애인 친화적 ATM 환경 조성
 - 장애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 시각장애인이 텔레뱅킹 등 이용 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 메인 화면에서 고령자 모드로 진입 예시 】

< 기존 금융앱 메인화면 >	< “고령자모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22),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9LNKLGf>

고령층과 포용금융

- 2019년 OECD와 G20: 고령층의 금융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령화와 금융포용을 위한 정책 우선과제」 초안 마련
 - 고령자의 금융역량 강화 → 저축증가, 노령기 빈곤 방지, 생애 재무계획 개선, 세대 간 불평등 개선 등을 통해 금융체계 안정에 기여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 디지털 금융의 발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고령층의 금융 소외현상 개선 방안 :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이해력 교육, 인터페이스 개선**
 - 디지털기술 활용 예) 생체정보인증방식, 음성명령, 받아쓰기 실행 기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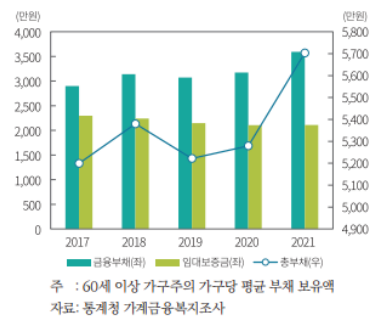
내용	
1	어떠한 정책이 효과가 있고 어떠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와 증거 사용
2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
3	장기 계획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상품 개발
4	고령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5	금융상품 개발, 소비자 보호, 금융교육 제공
6	고령자가 학대나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문제 신속 식별
7	포용금융에 대한 일관적 종합적 접근을 위해 다양한 부문과 협력
8	취약하고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는 집단(금융취약집단)의 필요 고려

자료 : OECD and the G20 Japanese Presidency for the GPF(2019), G29 Fukuoka Policy Priorities on Aging and Financial Inclu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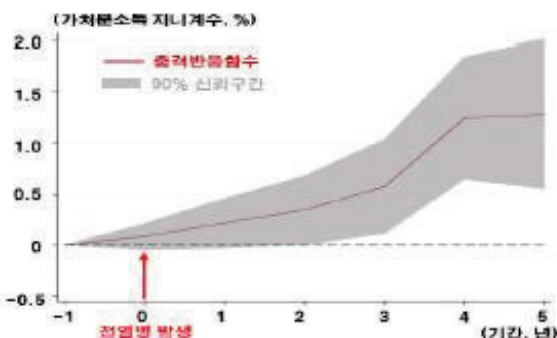
저신용·저소득층과 포용금융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 충격도 양극화 심화 및 금융소외계층 양산 촉발 가능성
- 경기침체기에는 저임금·저숙련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경기충격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
- 가계부채 1870조원(2022년 상반기), 취약차주의 이자 상환 부담과 부채 부실화 경고
 - 제2금융권 대출 다중채무자 비중 증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부실화 우려
- 주식 및 부동산 투자의 증가, 자영업 진출 및 관련 대출 규모 확대 등으로 고령층 가계부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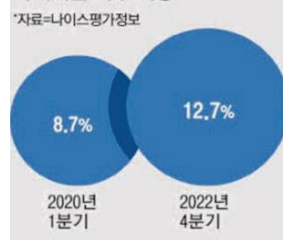
고령층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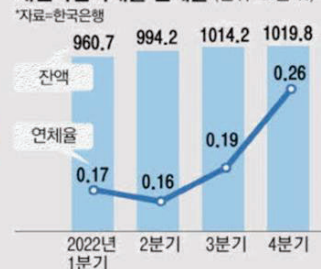
팬데믹에 따른 양극화 심화



사업자대출 동시 보유 중인 가계대출 차주 비중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단위=조원-%)



자료 : 한국은행, 나이스 평가정보, 연합뉴스

Furceri, D., P. Loungani, J. Ostry, and P. Pizzuto(2020), "Will COVID-19 affect inequality? Evidence from past pandemics", Covid Economics, CEPR.

디지털금융시대, 포용금융의 방향성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금융소비자보호) “상생금융”

①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② 취약 채무자 보호 ③ 국민 재산형성 지원 ④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와 실제 취급액

연도	공급 목표 (3조)	실제 취급액 (2조)
2018년	3005억	6612억
2019년	3010억	7563억
2020년	4010억	6794억
2021년	4965억	1734억
2022년	6000억	3478억

- 은행권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새희망홀씨 대출)
- 연소득제한으로 공급 목표보다 실제 대출 규모는 적음
- 자격: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1.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제고

-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위험을 실질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다면적 정책 필요
 - 취약차주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대환
 - 원금/ 이자 감면
 - 실효성 증대 _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 증대
 - 소액생계비 대출 확대 등 선호필요 정책적 지원
-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에서 개별 소비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경제상황과 환경에 적합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구축

디지털금융시대, 포용금융의 방향성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금융소비자보호) “상생금융”

①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② 취약 채무자 보호 ③ 국민 재산형성 지원 ④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연령별 금융이해력 점수 [단위: 점]

평균 66.5점

연령	점수
성인 전체	66.5
29세 이하	65.8
30대	69.0
40대	68.9
50대	67.0
60대	64.4
70대	61.1

2022년 디지털 금융이해력 점수(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2022년도 우리나라 성인의 디지털 금융 이해력 점수는 42.9 점, 일반 금융 이해력 점수(66.5점) 보다 매우 낮은 수준
- 특히, 70대 고령층(36.0점), 저소득층(39.4점) 및 고졸 미만(35.9점) 등의 디지털 금융이해도가 낮음

2. 금융소비자보호 (금융교육)

- 금융소외자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는 것을 목적, 신용공급 채널 다양화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전략 필요
 - ⇒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역량 향상
-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교육(신용교육)을 강화해야 함**
 - 목적 : **금융이해력(+ 디지털 금융이해력), 금융접근성, 금융활동력 향상**
 - 금융소비자 책임의식, 금융윤리(시민성) 향상 필요

디지털금융시대, 포용금융의 방향성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금융소비자보호) “상생금융”

①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② 취약 채무자 보호 ③ 국민 재산형성 지원 ④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AI 활용한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자료=각 은행

신한은행	상품 가입 시 고객 반응을 녹취해 시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추진 중
하나은행	고객 필체를 시로 인식, 상품가입서 자서 누락 방지, 상반기 상용화 예정
우리은행	신규 상품·서비스 출시 때 소비자 보호 항목 등 약관을 시 활용해 검토

강화된 판매 절차 설명의무 '자료=금융위원회

- 판매자와 투자자 모두 자필과 음성으로 상품 특성과 위험성 숙지
- 판매자가 투자자 성향 분류하거나 대신 기재 시 임원 해임,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 제재
- 만 65세 이상 및 투자성향 부적합 투자자는 숙려기간 중 별도 승낙 표시해야 투자 확정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 판매자의 고의나 실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를 시로 실시간 감시
- 소비자 피해와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 실시간 불완전판매 진단, 필수 스크립트 이행 여부, 전체 상담 내용 텍스트 점검

2.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시대에 맞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점검)

디지털 금융포용과 디지털 금융격차 해소의 균형 필요

- 디지털환경에서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충분히 숙지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거래환경 조성
- 디지털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필요
 - 예) 고령층을 위한 화상상담서비스
- 디지털 금융거래 관련 피해구제 강화
 - 예)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
- 디지털 금융감독 시스템 활용
 - 금융회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집적된 빅데이터를 시가 분석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법추심, 불완전판매 식별, 불법광고 감시, 불공정거래 조사에 활용
- 금융취약계층의 소외를 막기위해 디지털 리터러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필요

디지털금융시대, 포용금융의 방향성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금융소비자보호) “상생금융”

①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② 취약 채무자 보호 ③ 국민 재산형성 지원 ④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디지털 교육 생태계 조성

- 디지털 교육 실현을 위한 회원국 간의 체계적 협업 지원
- 포괄적인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위한 혼합 학습 접근법 개발
- 유럽 디지털 교육 콘텐츠 프레임워크 개발
- 디지털 교육을 위한 접근성 및 기기 지원
- 교육 기관의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
- 교육자를 위한 AI 및 데이터 사용에 관한 윤리 지침 개발

디지털 기술 및 역량 강화

- 디지털 리터러시 촉진을 위한 교육 관련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 AI 및 데이터 관련 기술을 포함하도록 'Europe Digital Competence' 프레임워크 갱신
- European Digital Skills Certificate(EDSC) 개발
- 디지털 기술 교육의 개선에 관한 이사회 제언
- 국가 간 데이터 수집 및 학생의 디지털 기술 교육에 관한 EU 차원의 목표 수립
- 디지털 기회 연구 프로그램 제공
- STEM에 대한 여성의 참여
- 유럽 디지털 교육허브(European Digital Education Hub) 운영

※ 출처: <https://education.ec.europa.eu/focus-topics/digital-education/action-plan>

- 디지털 기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정책·이니셔티브 개발
-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 EU 회원국 디지털 교육의 공통 비전 설정
- 2030 Digital Compass :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구성된 정책안
- 기술, 기업, 디지털 인프라, 공공서비스

2. 금융소비자보호

디지털 금융포용과 디지털 금융격차 해소의 균형 필요

- 금융취약계층의 소외를 막기위해 디지털 금융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
 - 디지털역량 + 금융역량 향상
- 금융역량에 디지털역량을 추가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가이드라인 필요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보완
- 미국, 디지털 격차 해소 및 공평한 디지털 접근 보장을 위한 제도와 법안 마련 (The Digital Citizenship and Media Literacy Act,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등)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비영리단체와 연구소 중심의 교육
 - Family Online Safety Institute, Senior Planet from AARP16
- 유럽연합, 디지털 교육 액션 플랜 (Digital Education Action Plan)
 - 디지털 교육 생태계 조성 (디지털 교육 콘텐츠 프레임워크 개발)
 - 디지털 기술 및 역량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촉진을 위한 교육 관련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

감사합니다

엔데믹 시대, 포용금융 실현 전략

포용금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김상빈
(크레파스솔루션 전략기획실장)

포용금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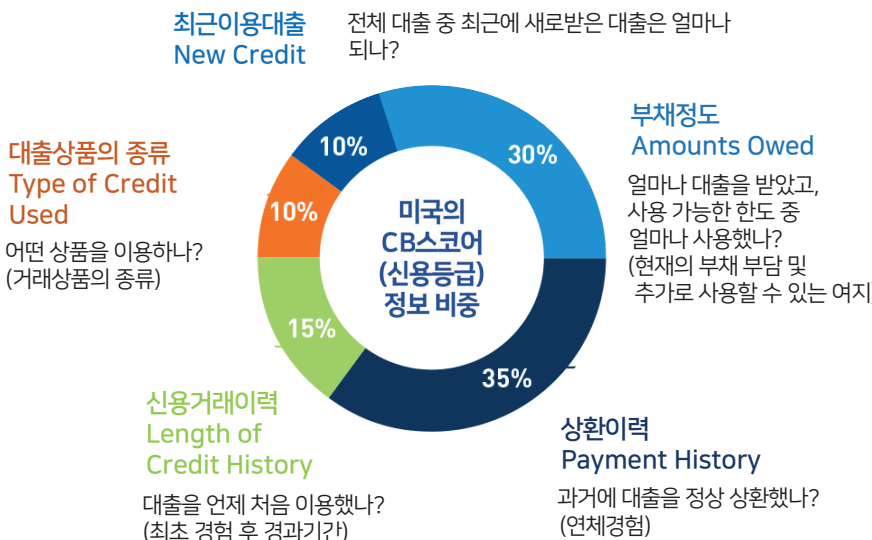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비금융정보의 활용

김상빈, 크레파스솔루션 전략기획실장



신용등급이란?

과거 데이터를 통계분석하여 유사한 금융거래 기록으로 프로파일링, 미래 고객에게 적용하여 리스크를 예측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등급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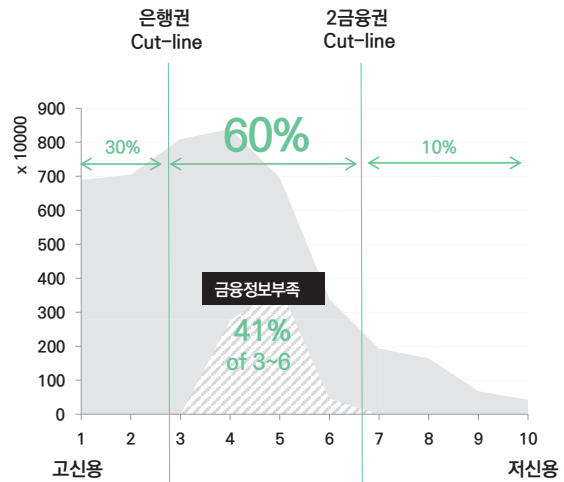
비슷비슷한 금융거래 이력 + 1,200만 싼파일러 = 정교한 중신용자 신용평가의 한계

신용등급 평가 항목의 종류

평가요소	반영비중	
	NICE	KCB
상환이력정보	40%	28%
현재부채수준	23%	28%
신용거래기준	11%	14%
신용행태정보	26%	32%

- ✓ 금융 이력만 같으면 동일한 신용도로 간주
- ✓ 금융 이력정보가 불충분한 사람은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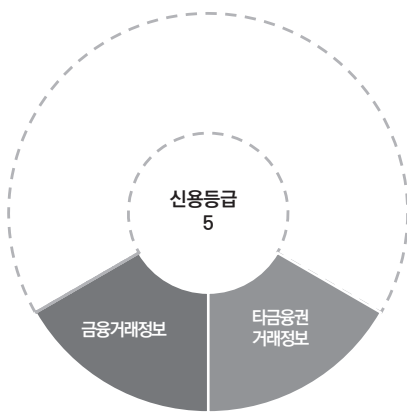
신용등급 분포



전통적 신용평가 vs. 대안신용평가

금융정보가 없거나 비슷한 사람의 정교한 신용평가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

전통적 신용평가



대안신용평가



포용적 금융의 실현을 위한 크레딧뷰로 설립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신용평가업의 세분화 → 크레파스솔루션 1호 전문 개인신용평가업 인허가 취득 (2021.12.8)

기존의 신용평가

크레파스 대안신용평가의 혁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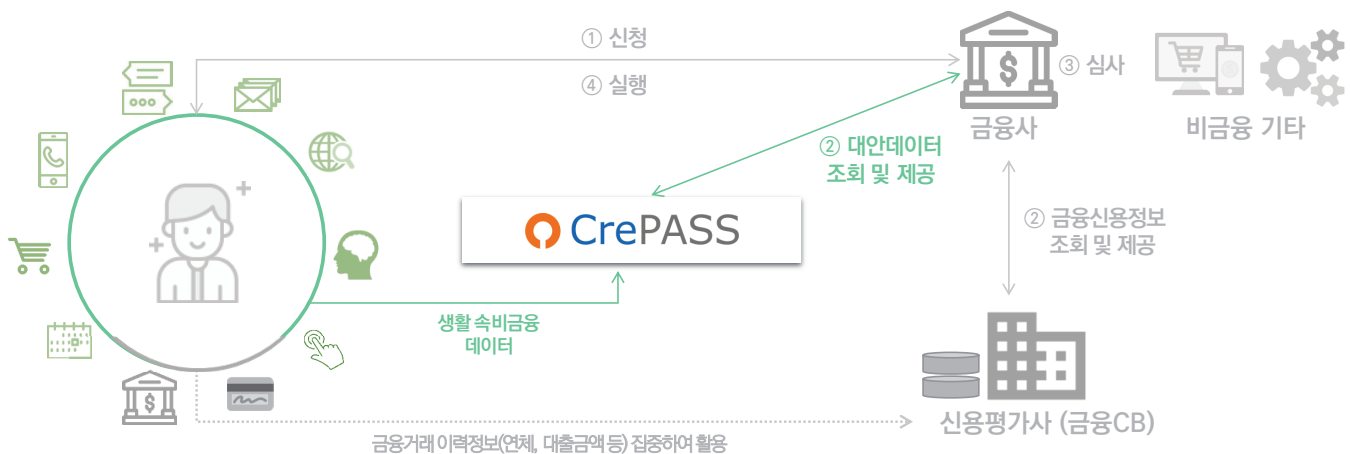
크레파스 대안신용평가의 유용성

금융정보 위주의 획일적 신용평가	정보의 혁신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관점	금리단총 현상 해소 금융정보로는 비슷해보이는 신청 건 중에서 신뢰성 높은 신청 건을 추가 선별 가능
Small Data 기반의 거래 요약 정보	기술의 혁신성 Big Data 기반의 개인 성향 정보	중소형 금융사 경쟁력 강화 빅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금융사도 여러 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하여 초개인화 상품 제공 가능
금융정보를 보유한 사람의 평가에 유리	대상의 혁신성 신평일자를 포함하는 신용평가	신용평가의 사각지대 해소 다양한 정보를 활용한 360° 신용평가를 통해 신용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평가 가능

- ✓ 금융정보 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주부/노령층/외국인 등 신용 취약층의 금융기회 확대에 기여
- ✓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중소 금융사에게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한 건전한 중금리 금융상품 개발에 기여

데이터 활용의 혁신을 통한 다차원 신용평가

다차원 개인 성향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크레파스 대안신용평가 모델의 효용성과 신용평가의 사각지대 해소

중신용자 차별적 리스크 세분화에 효과적임을 검증 (국내 카드사, 통신사 및 자체운영 P2P금융)

카드사 중신용 포트폴리오
모바일 스코어 Case

68% ↑

중신용 고객 중에서
대안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추가 승인 가능 고객 발견

모바일 스코어 x CB등급
교차 활용 성과 Test

52% ↑

추가승인대상자 발견(Thick)

CB등급 x 통신스코어(13% ↑)
CB등급 x ML스코어(21% ↑)

대안신용평가 적용
청년 중금리 대출 실행

56% ↓

대부업 수준의 고객 중
중금리 가능 고객의 발견
(대부업 평균 연체율 8.6% 대비 성과)

대안정보 다각화를 통한 포용금융의 확대

데이터 파트너를 확대하여 신뢰성, 소비성향, 소득능력 데이터를 보강하고 다양한 측면의 대안데이터를 평가에 반영

Alt. Data X : 신뢰성 Behavior

BAND	CP Score Bad Rate	Telco	Mobile	PG	MZ Score
1	0.00% ~ 0.12%	14.83%	0.10%	9.30%	2.59%
2	0.12% ~ 0.22%	16.80%	0.31%	22.09%	13.49%
3	0.22% ~ 0.38%	20.44%	1.79%	0.00%	19.10%
4	0.38% ~ 0.64%	15.42%	12.05%	30.56%	23.32%
5	1.12% ~ 1.18%	12.51%	9.12%	0.00%	19.95%
6	2.08% ~ 2.13%	7.26%	22.83%	16.25%	8.79%
7	3.02% ~ 3.06%	2.73%	12.71%	9.61%	4.17%
8	6.60% ~ 6.76%	4.97%	29.14%	6.46%	4.22%
9	12.08% ~ 12.11%	2.48%	11.43%	4.18%	2.44%
10	20.00% ~ 21.88%	2.56%	0.51%	1.54%	1.93%

Alt. Data Y : 소비성향

- 11ST 이커머스 구매성향
- OK CASHBAG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사용
- 소비의미학 beelleeplay 스타트업 대안금융 (BNPL, 월세보증..)
- NINEDOCK 무방
- map 목적지 성향, 이동거리 일관성

Alt. Data Z : (미래)소득능력

- GHC 건강관리 이력
- 스타라가 이륜차 운행 기록
- Psychometrics 성향평가 모델

OCEAN모델 (FFM) **O** 상상력이 풍부 새롭고 다양함 즐김 **C** 충동을 통제 끈질키게 목표 추구 **E**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감 **A** 이타적이고 온화함 **N** 쉽게 불쾌감을 느낌

일관성 | 성실성 | 꼼꼼함 을 나타내는 포착하는 빅데이터 행동과학 모델

대안신용평가를 적용한 포용금융 사례

[case 1] 대안신용평가 기반 대안금융의 가능성

비슷한 타겟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 평균 연체율 8.6% 대비 우수

청년5.5 플랫폼 누적 데이터 (기준, 2021. 7. 31)

대출 누적 데이터 (기준, 2021. 7. 31)



APP 다운로드(iOS 사용자 제외)

14,969건



APP 회원가입

11,855건



누적 대출액

1,042,500,000원
+ 연계대출 5억원



누적 대출건

765건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청년

75.4%(577명)

연체율 : 3.8% (30일 이상 연체율, 2021. 7. 31 기준)

20대 청년 : 91.5% (700명_ 남511명, 여189명)

30대 청년 : 7.8% (60명 _ 남33명, 여27명)

40대 청년 : 0.7% (5명 _ 여5명(목적사업 대상자))

[case 2] 대안신용평가 적용, 금리 할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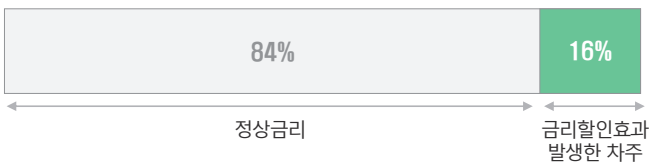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로 포용금융 적극 실천

P2P 금융의 금리할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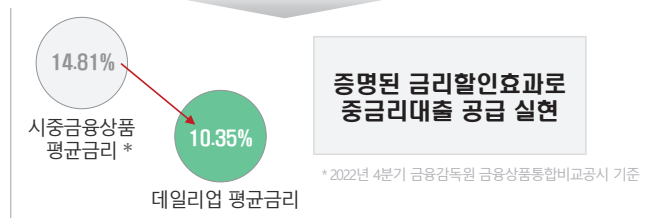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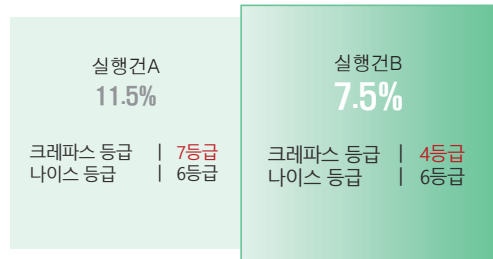
- 크레파스 대안신용평가를 적용한 P2P금융, 데일리업 운영

데일리업 상품개요	
성격	데일리펀딩(P2P)과 크레파스 협업 신용대출
대출한도	최대 300만원
금리	연 7.5%~11.5% 고정금리 (플랫폼이용료 별도 부과)

- 대안신용평가의 혜택을 받은 차주가 전체 대출자의 16%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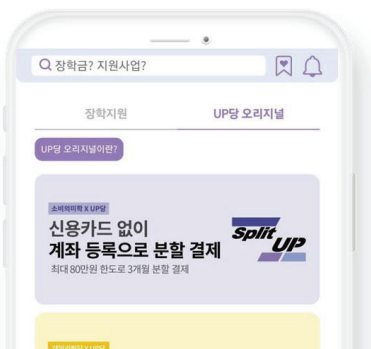
[case 3] 대안신용평가 적용, BNPL 서비스

분할결제와 같이 대안신용평가가 필요한 영역에 대한 중저신용자의 수요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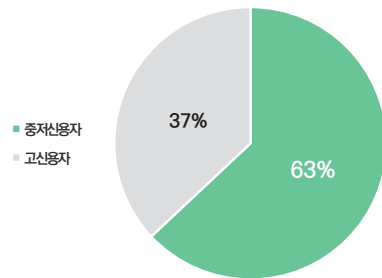
스플릿업 상품소개	
성격	소비의미학과 크레파스 협업 후불결제 서비스
한도	대안신용평가에 의한 한도조회 결과에 따라 차등화 (8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기타	신용카드 없이 계좌등록만으로 분할결제 가능

연간 앱 다운로드 수
8,50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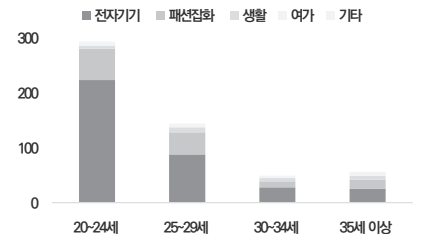
연간 신규회원 수
5,43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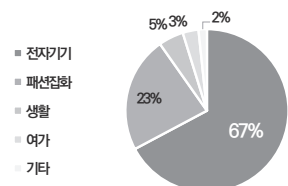
중저신용자 비율



연령대 비율



상품종류별 비중



신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신용자의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인 가능

감사합니다

엔데믹 시대, 포용금융 실현 전략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요소와 경감방안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엔데믹 시대, 포용금융 실현 전략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잠재적 위험요소와 경감방안

변혜원 | 보험연구원

2

디지털 금융서비스와 금융포용

-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소외 해소에 기여했다고 평가됨**
 - 이 밖에도 디지털 금융서비스는 신속하고 편리한 거래,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경쟁과 시장혁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OECD, 2020, 2018; GPFI, 2018)
- **전통적인 데이터 이외에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기존 금융소외 계층을 포용함**
 - CrePASS: “신용 취약층의 금융기회 확대”, “상대적으로 낮은 연체율, 금리할인 효과 등”
 - 디지털 형식의 신분확인을 통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에 대한 장벽을 낮출 수 있음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잠재적 위험

-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소비자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음
 - 사이버리스크 확대
 - 무분별한 정보수집이나 이용 동의
 - 데이터분석 과정 상의 문제 (알고리즘의 오류나 남용)
 - 신종 금융사기
 - 무분별한 대출 및 투자
 - 고령소비자의 금융소외

잠재적 위험 경감방안

-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형식을 개발하고, 현존하는 동의형식의 약점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 소비자들은 조건을 읽어보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해당 금융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대출은 더욱 그러할 것임)
 - 표준화된 동의형식, 순차적 동의, 유효기간 설정이나 선택적 동의방식 등을 활용
 - cf. Privacy by Design
- 알고리즘의 남용이나 오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데이터분석의 강건성, 보안, 정확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개선해야 함
 - OECD(2020):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명확하고, 투명하며, 설명가능하고, 불법적이거나 배제하기 위한 편이가 없어야 하고 보상청구권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

잠재적 위험 경감방안

- 소비자의 **행태편향**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야 함
 - 신속성과 편리성이라는 디지털금융의 특성과 금융소비자의 행태편향이 결합되어 과도한 대출이나 투자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 분할결제(BNPL: Buy Now Pay Later)는 편리한 서비스이나 현재편향(Present Bias)이나 과신(Overconfidence) 등의 행태편향과 상승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 **고령소비자들의 디지털 금융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면서비스 제공 유지 방법을 모색하고 고령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금융앱이나 특화된 금융교육이 필요함
 - 특히 디지털이해도가 낮은 고령층은 문자 등으로 이용한 신종금융 사기에 더욱 취약하므로 고령층의 인식 제고 노력도 필요함

질문: CrePASS

- 소비자가 CrePASS의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금융회사와 거래하기 위해 비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지?
 - 정보동의에 비금융정보 수집 범위를 설명하고 있는지
- ‘소비의미학’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행태 형성의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 사용소비자 집단이 젊은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더욱 소비습관 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CrePASS가 보유한 신용정보 중 연령별 분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 발표자료에서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비정규직, 주부, 노령층, 외국인 등 신용 취약층의 금융기회 확대”를 언급하셨는데, 보유 정보 중 해당 집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잠재적 위험 경감방안

위험요소	경감방안
사이버리스크 (정보 유출사고, 서비스중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리스크 관리를 위한 데이터 보안정책 주기적인 사이버보안 평가
무분별한 정보수집 및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조건 이해도 제고, 순차적 동의, 유효기간 설정, 선택적 동의방식 등 정보에 기초한 동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들을 활용
알고리즘의 오류나 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분석의 강건성, 보안, 정확성 관리 알고리즘의 설명가능성 및 투명성 개선 알고리즘의 오류나 문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대응절차 마련
디지털 금융범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중 금융사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금융시장에서의 새로운 범죄유형 모니터링 및 수사 강화
무분별한 대출이나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의 행태특성을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개선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위험과 혜택을 균형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고령소비자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면 통합지점 활용 고령층 전용 앱 활용,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위한 고령자 특화 금융교육 제공 강화(대면, 비대면)

자료: 변혜원(2023.2), 「디지털 환경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KIRI 리포트, 보험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감사합니다.

엔데믹 시대, 포용금융 실현 전략

대안적 포용금융의 역할
- 금융취약계층의 위기와 대안적
포용금융의 필요성

안준상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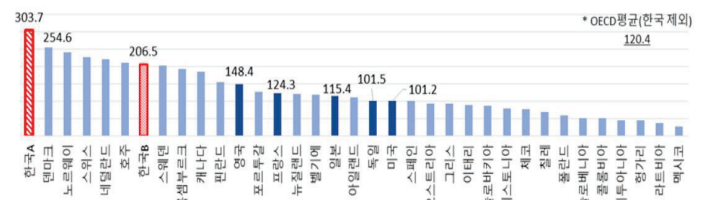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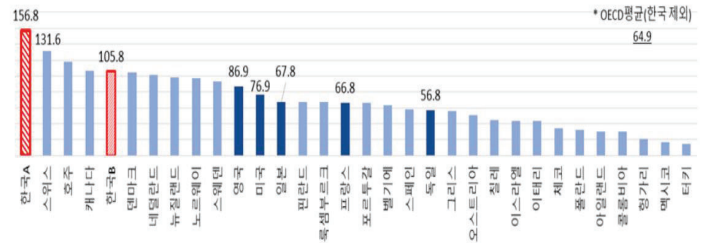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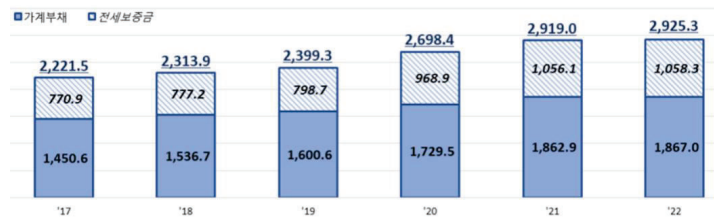
대안적 포용금융의 역할

금융취약계층의 위기와 대안적 포용금융의 필요성

안준상, (사)함께만드는세상 사회연대은행 사무국장

가계부채의 급속 증가의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위기

- 최근5년간(2017~2022)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부채 700조 증가
 - 1,058.3조원; 전세보증금포함시 2,925.3조원으로 OECD 최고수준
 - 집값 및 전세값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대출 증대
- 2021년 기준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8%로 OECD 국가중 4위
 -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OECD 31개국 중 1위
 -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
- 2021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206.5%로 OECD 국가중 4위
 -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로 OECD 국가중 1위
 - 영국(148.4%), 프랑스(124.3%), 일본(115.4%), 독일(101.5%), 미국(101.2%)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50% 수준



출처: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2023.03, 한국경제연구원)

가계부채의 급속 증가의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위기

30대 이하 청년층 다중채무자 139만명으로 전체 다중채무자(447만명)의 31%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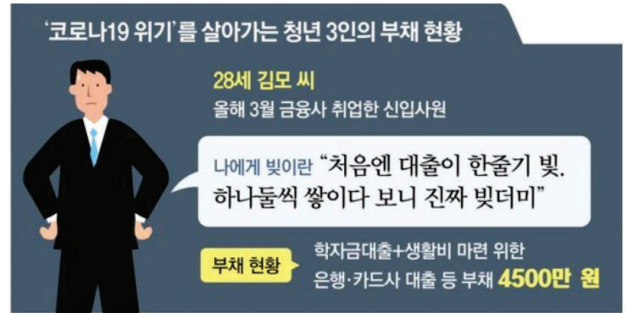
- 다중채무자의 총 채무금액은 589조원, 이 중 청년층의 채무금액은 전체의 26%(155조1000억원)를 차지
- 청년층 1인당 대출 잔액은 약 1억1158만원 수준

출처 : 진선미 의원실, 한국은행(2022.4분기 기준)

2021년 기준 30대 이하 청년층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00% 넘는 비율이 21.75%

- 청년 4~5명 중 1명은 자신이 연소득 3배이상의 부채 보유중
- 청년층 평균 부채는 8,455만원(2021년 기준)으로 2012년 (3,405만원) 대비 약 2.5배 증가 (無채무자 포함)
(부채 보유자만의 평균 부채는 약 1억1511만원 규모)
- 평균 부채액 중 79%인 6,649만원. 금융기관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은 1,342만원

(2012년 금융기관 담보대출 2587만원, 신용대출 670만원; 10년 사이에 각각 2.6배, 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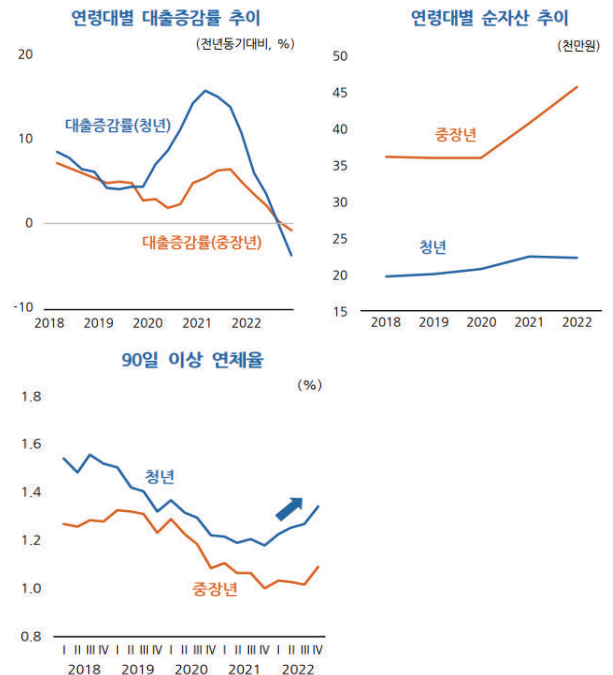


출처 : '청년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보고서(2023.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계부채의 급속 증가의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위기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청년층의 대출 급증으로 위기가 가능 성 확대

- 코로나19 시기(2020~21년) 중장년층 대비 청년층의 대출 급증
- 중장년층 대비 순자산 및 추가 대출여력 모두 부족한 청년층은 큰 폭으로 소비활동 축소 중



출처 :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증가와 시사점(2023.KDI 김미루)

시장금리상승에 따른 청년층의 DSR 급격 상승 부담

- 취약차주 보호 정책에 따라 2021년까지 연체율은 대체로 하락하였으나, 최근 청년층을 위주로 연체율 상승
- 청년층의 경우 중장년층에 비해 소득수준과 신용점수가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연체율 추이
- 코로나19 위기 시 원금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2021년 4/4분기까지 연체율이 대체로 하락한 후 청년층부터 연체율 상승 추세 나타남

가계부채의 급속 증가의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위기

- 2023년 1분기 신부위 채무조정제도 신규 신청자 6만3천여명
 - 20~30대 2만2천여명으로 35.4% - 코로나19 시작 시기인 2020년 이후 최대 (20대 신청자 2020년 1만4천여명 -> 2022년 1만7천여명)
 - 신청자 소득수준 상향 -> 평균 수준 근로소득으로 늘어난 원리금 부담 감당 못하기 시작 (신청자중 월소득 3백만원 이상 소득자, 6,149명->11,435명)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 급증 (2020년 7,166명 -> 2023년 1분기 14,435명)

채무조정 신청자 비중 (단위=%) *2023년은 1분기 기준. 자료=윤영덕의원실-신용회복위원회

연령별	20대 이하			40대		60대 이상		원소득별	100만원 이하			200만~300만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00만~200만원	300만원 초과						
2020년	11.0	21.6	29.5	24.6	13.3	2020년	33	50	13	4			
2021년	11.6	20.7	28.3	24.7	14.8	2021년	32	50	14	5			
2022년	12.5	22.6	27.8	22.9	14.1	2022년	22	52	18	8			
2023년	12.7	22.7	28.5	22.4	13.6	2023년	17	52	21	10			

출처 : 윤영덕 의원실 (2023.04, 신용회복위원회)

- 제도권 금융의 금융공급 축소에 따른 금융취약계층 금융조달 위기 상승
 - 2금융권 신용등급 하위 50%에 공급하는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 축소 (2023년 1분기, 1조6685억원 / 전년 동기 2조7595억원 대비 40% 감소)
 - 7개 전업카드사 카드론 취급액 축소 (2023년 1분기, 10조2373억원 / 전년 동기 14조6136억원 대비 30% 감소)
 - 중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같은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대출공급 축소로 더 큰 위기 봉착 예상

자산감소, 부채증가, 금리상승의 여파로 저신용, 저소득, 다중부채 상황의 금융 취약계층 위기 증대

제도권 금융, 정부 지원정책 등과 협력적 방식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위기를 호혜적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포용금융의 역할 필요

부채경감 및 지원

- 다중부채 보유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전환대출 등 호혜적 금융 운용
- 채무조정 등 제도 인지도제고

신용형성 및 금융역량지원

- 신용상담 등 관련 영역 전문 멘토링
- 신용관리 및 금융관련 역량제고
- 대안적 신용정보의 활성화

자산형성 지원

- 자기 소득에 기반한 매칭형 자산형성 프로그램 확대
- 자선적, 호혜적 운용 가능한 기금조성

감사합니다

엔데믹 시대, 포용금융 실현 전략

토론문: 정책적 대안금융 지원의 필요성

김미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부장)

[토론문] 정책적 대안금융 지원의 필요성

- 김미혜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부장)

①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한 대안금융 지원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정부주도 마이크로 파이낸스 지원 현황

-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회사의 위축경영을 불러일으켜, 저신용·저소득자의 금융지원 급감
- 복지부와 민간주도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영을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2008년 확대
 - (실적) 2008년부터 총 27개 기관을 통해 2022년까지 총 2,576억원, 52,495건 지원
 - (지원분야) 영세자영업자 창업, 사회적기업 지원, 신용회복(금융채무 불이행자 지원)

○ 정책적 대안금융 지원 필요성

- 신용평가체계 기반 제도권 금융에서는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재기를 지원
 - (사례) 지역기반 특수계층 고용 사회적기업의 창업지원(제주 여성근로자 고용 반찬가게), 재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파산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사업운영 자금 지원 등
- 민간사업수행기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의 건전성·수익성 제고 지원
 - 채권 사후관리 노하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한 비금융서비스 지원(채무자 금융교육 콘텐츠, 자영업자 대상 컨설팅 서비스 등)

② 금융지원의 사각지대 지원의 필요성

○ 소액생계비 대출상품 출시 운영

- (지원배경) 시중금리 상승, 경제상황 악화,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어 금융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어 긴급 소액자금 지원필요(매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지속 증가 약 14.4만건) → 총10만명, 1,000억원 수준
-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하,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기존 정책금융에서 제외되던 연체자, 무소득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약 757만명 수준으로 추정

- (한도) 최초 50만원 지원 6개월이상 성실상환시 추가 대출 가능(최대100만원, 동일인 1회)
- (이율) 15.9%. 시장수준보다 낮은 금리 설정시 제도권 금융이용가능자가 유입되어 자금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역효과 발생 우려, 성실상환자 6개월 단위 3% 인하로 최종 9.9%로 이용이 가능하며 금융교육 이수시 0.5% 추가인하로 최종 9.4% 이용 가능
- (지원현황) 일평균 약 1,000여건 6억원 수준으로 대출 실행

○ 상품 이용자 현황

- (대상) 3.27 ~ 4.28, 약 25,545명
- (연령대) 20대 10.8%, 30대 22.6%, 40대 27.9%, 50대 22.4%, 60대 13.3%
- (소득) 연소득 2500만원 이하자가 89.1%,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가 95.3%, 연체자가 42.7%
-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자가 95.3%
- (이자납입 현황) 월 이자 납입 현황 분석시 미납율은 약 00% 수준으로 유지

☞ 고시원비, 병원비, 교육비 등의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사금융보다 낮은 부담으로 긴급자금을 해소하고, 본 대출이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업지원, 복지안내, 다중채무자 대상 채무조정 안내 등 금융지원 외 추가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③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맞춤형 대안 신용평가구조 마련 필요

○ 씬 파일러(청년층)에 대한 평가정보 수집에 집중

- 인터넷 쇼핑, 통신료 이용현황, SNS 이용, 모바일 결제에 집중되고 있음

○ 포용금융이 바라봐야 할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 필요

- 소액생계비 대출 운영 과정 중 금융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년층 노년층이 다수 존재
- 대상자들은 금융이용 경험과 지식이 낮고, 청년층처럼 정보탐색, 수집능력도 낮으나, 이자 등에 대한 미납율은 청년층 대비 월등히 낮음
- 웹, 앱 등을 통한 거래기록이 부족한 노년층 특성에 맞는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도 필요하며 신용평가에 대한 지표 반영비율을 연령대별로 달리해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끝.

T42. 포용금융 트랙 - 패널 토론 / 5.26 (금) 14:30



김동만 좌장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금융산업공익재단 이사

Kim, DongMan
Chairperson, Korea Platform Freelancer
Worker's Mutuals; Board Member, KFIF



송명진 발표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Song, MyungJin
Director, Korea Platform Freelance Workers'
Mutuals

기존의 정규직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회안전망(4대 보험 등)에서 소외된 비정규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 연대를 이루며 만들어가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공제 등의 대안적 안전망에 대해 알아보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연대,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5.26 (금) 14:30~15:3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이 세션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이혜원 발표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부장

Lee, Hyewon
Senior Manager, Ubuntu Foundation



김순미 발표
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방

Kim, Soonmi
Mutuals team manager, Poolbang Workers'
Mutuals Association



정흥준 지정토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Jung, HeungJun
Professor, Seoul Tech University



일하는 사람들의 연대,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 바깥 노동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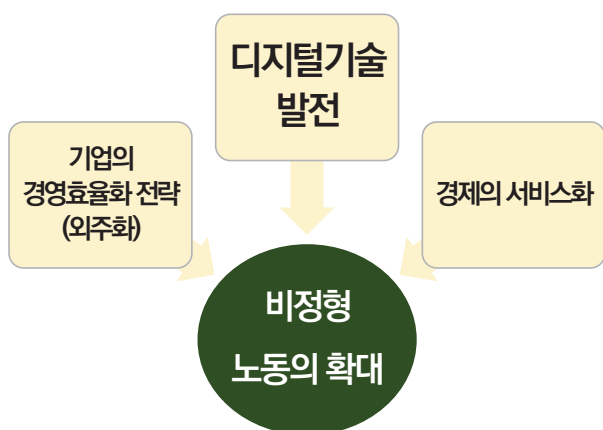
송명진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제도 바깥 노동을 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 :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 취약노동계층 보호를 위한 포용금융의 모범 사례
- 송명진,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사무국장

한국노동공제회 설립 배경 : 제도 바깥 노동의 확대



대표적 플랫폼노동
음식배달 라이더

(19년) 34만 9000
(21년) 42만 8000

플랫폼노동형태 확대
대리운전

(13년) 8만 7000
(20년) 16만 5000

3.3% 원천징수
인적용역사업소득
원천징수 납세자

(16년) 519만 1341
(20년) 704만 3964

비정형노동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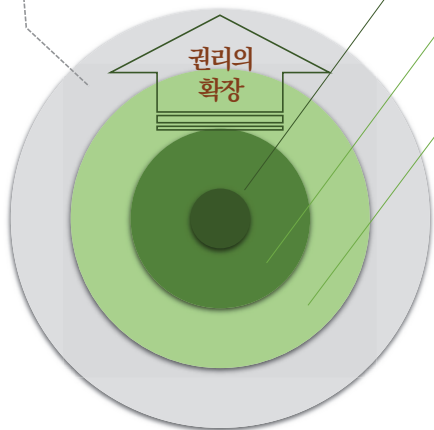
-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
- 노동보호제도 바깥에 위치
- 기업복지 부재
- 나홀로 노동
- 이해대변 취약
- 일의 경비, 위험의 책임을 스스로 부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 바깥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

제도 바깥 노동자 보호의 기본 방향

권리의 확장 : 노동법 및 사회보험 적용 확대,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

제도바깥 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노조법 적용 확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 보장

※ 일의 세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권의 확장은 시대적 흐름

- ❖ ILO는 2019년 일의 미래 보고서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제중 하나로 '보편적 노동권의 보장'을 제시함.
- ❖ 대다수 국가들에서 이미 플랫폼노동, 프리랜서에 대한 노동법/사회보험 적용 확대 추진
- ❖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적용확대를 비롯한 보호정책을 실시.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입법 추진중.

제도 바깥 노동자 보호와 노동공제의 필요성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각지대 발생/온존 가능

제도화와 실질적 적용까지 권리의 공백 기간

부분적 권리보장가능성 (퇴직금, 보수미지급 구제 등)

높은 경비부담 지속 (업무상보험, 교통비, 장비구입·유지비 등)

형식적 권리보장가능성 사회보험/직업훈련/안전보건 권리 실제 이행 환경 미비

기업복지의 부재 (사내대출, 건강검진, 휴양시설 등)

경력·지격 증명제도, 세무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

노동공제의 필요성

사회보호제도/기업복지 보완

- 퇴직공제, 소액대출 등 경제적 지원
- 생활복지 및 상호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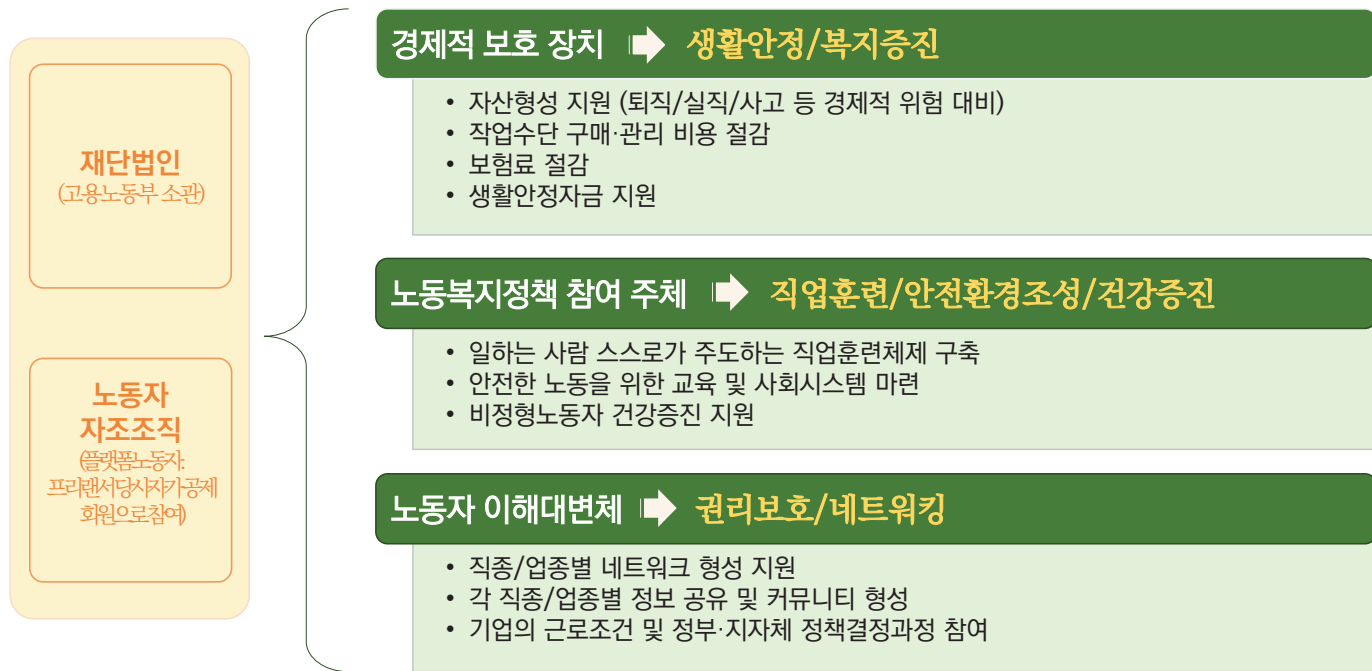
일 지원체계 구축

- 직업훈련
- 안전교육 및 안전환경 조성
- 업무상 보험 등 경비절감

이해대변 역량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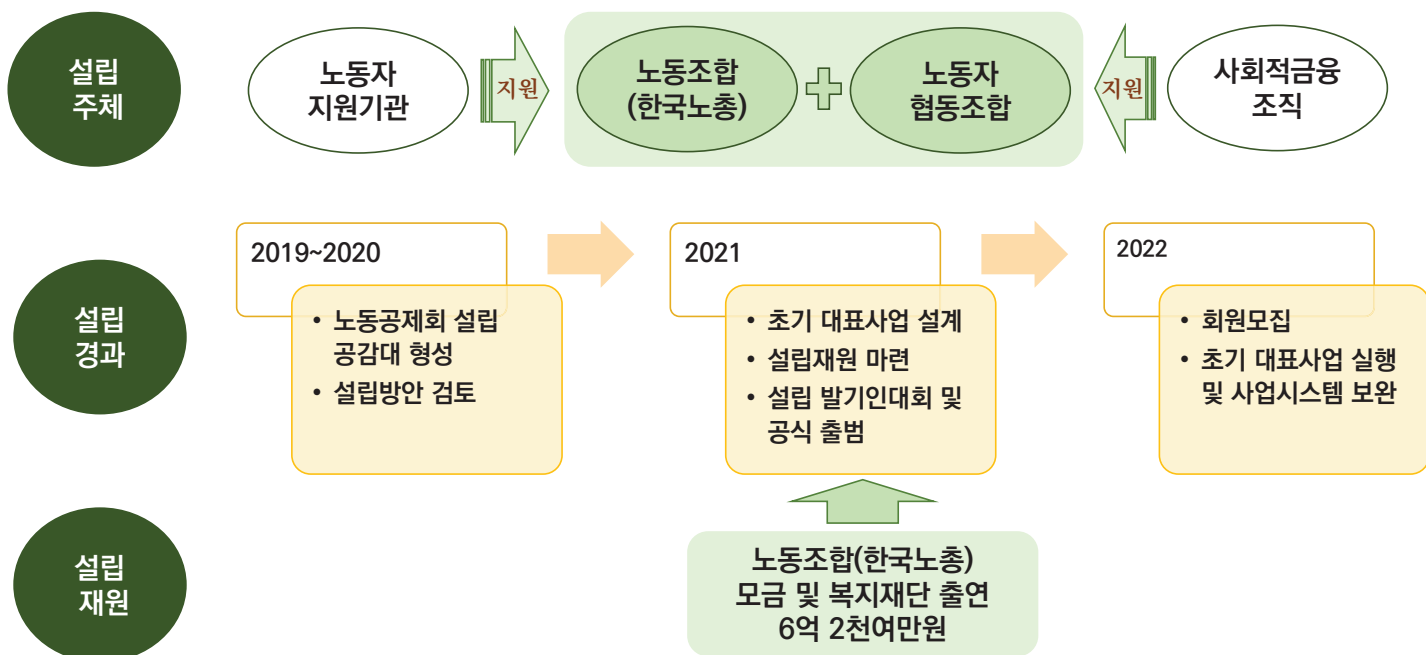
- 네트워킹 계기와 자원의 제공
- 공통 고충 발굴 및 해소 지원
- 문제해결 역량 지원

한국노동공제회의 성격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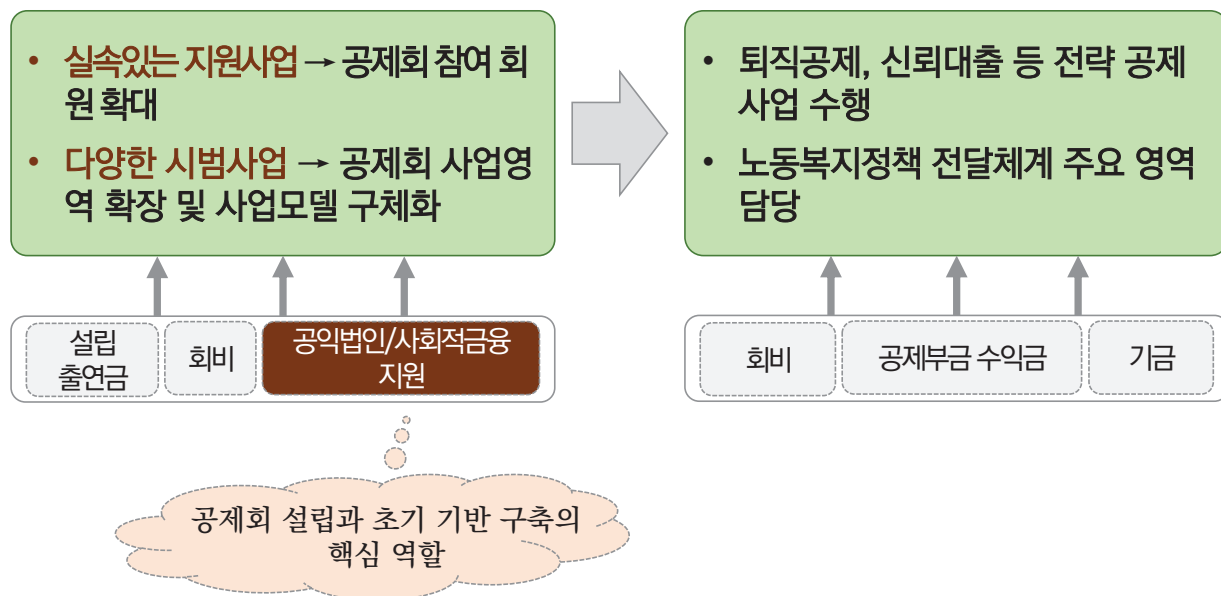
5

한국노동공제회 설립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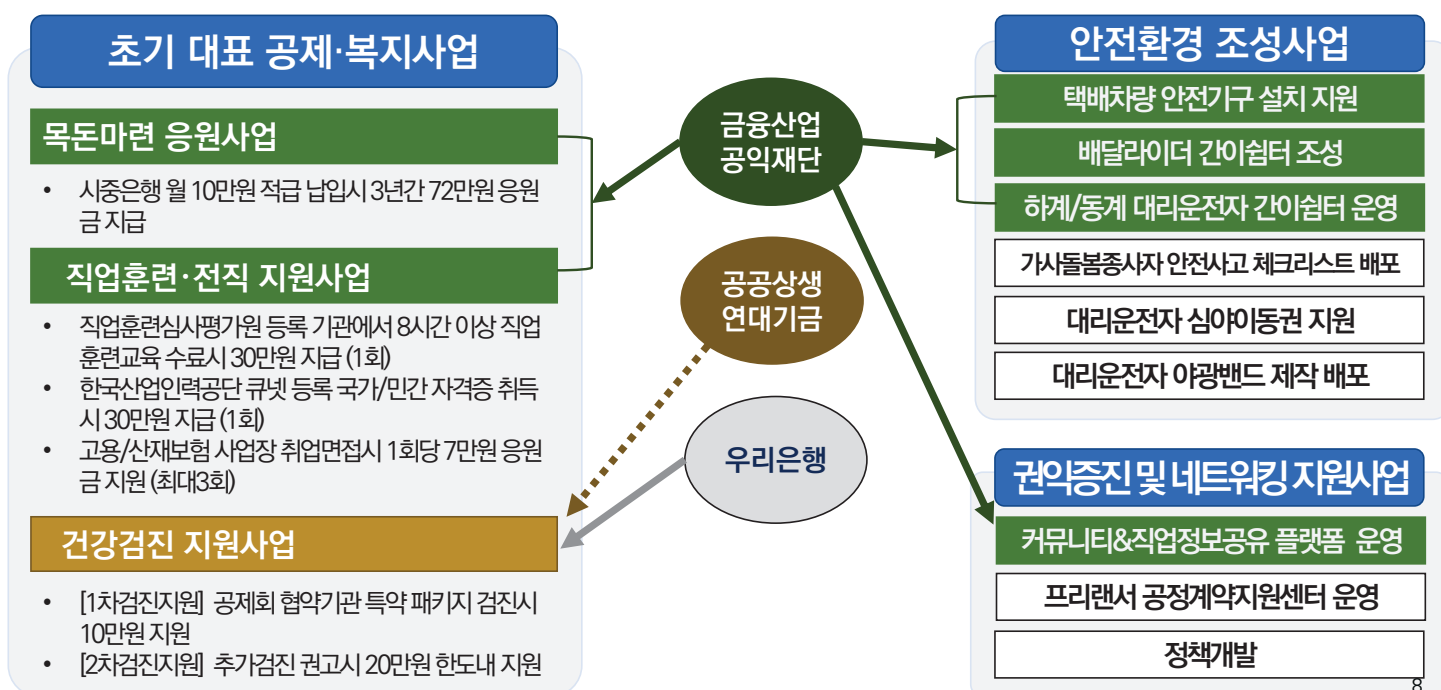


6

한국노동공제회 초기 전략 및 재원



한국노동공제회의 초기사업과 공익재단/금융의 역할



사회적금융의 한국노동공제회 지원의 의의

- ❖ 대다수의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개인과 가족의 생계, 또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미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불안정한 상태나 불합리한 구조를 벗어나기 힘들며,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울타리와 생태계가 필요함. 한국노동공제회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인 상호부조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중물임.
- ❖ 또한 제도와 규칙, 권리가 부재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산업과 노동시장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룰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와 고용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 한편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유형의 노동방식과 신생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당사자 단체들의 사업도 각각의 효과성을 검증할 만큼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만큼, 다양한 방식과 내용의 사업들이 시도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한국노동공제회는 이러한 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성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연대,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사회연대의 희망, 우분투

이혜원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부장)

사회연대의 희망, 우분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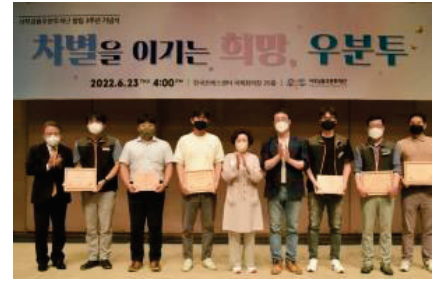
일하는 사람들의 연대,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이혜원,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국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 한국의 노동시장은 정채된 고용률, 청년의 고용불안 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이원화 및 임금 격차 확대 등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함.
- 더불어 비정규직의 고용형태가 빠르게 다양화되고 있어 제도권 밖의 노동자들이 증가하여 노동시장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경제구조가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위에서 제시한 노동시장 과제의 문제는 더욱 더 심화 되는 경향을 띠고 있음.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 소개

- 사무금융우분투자재단은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무금융 노사가 사회연대기금을 출연하여 2019년 설립한 재단법인.



- 우분투재단은 사무금융 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차별 완화를 시작으로, 사무금융 밖의 불안정하고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OS/연봉/연도/비정규직/7차 등 불연속 상임직을 위한 무료심리상담 안내

마음이 힘들 때 신청하세요

개인상담
상담시간: 매주 11시 ~ 12시 / 주 1회 50분씩 5회~10회 진행

상담결과
MMPI-2/TCI 등 심리검사 진행 후 상담시간: 매주 11시 ~ 12시 / 주 1회 50분 진행

* 출퇴근하시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나 홀로 프리랜서 플랫폼 무료노동상담

대금체불: "나의 생수 판매처가 갑자기 사라진 건 아닐까요?"

계약 종료 후 수검요구: "계약 종료도 일손이 끊기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인근상담: "여가 시간에 함께 공부해요!"

* 꼭꼭해서만 해당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전하는 청년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

우분투재단의 사회안전망 사례

- 배달 노동자의 긴급 소액대출
- 공익활동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한 삶터 마련

배달노동자의 긴급 소액대출

2019년 라이더유니온과 3년간 업무협약

- 공제회에서 자차수리비 및 사고시 병원비 지원
-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3사의 AI 알고리즘 시스템 검증
- 안전배달시간 642초(10분 07초) 산출
- 기름값 10만원 긴급 생계유지 소액대출 시작



(인터넷 은행 모임 통장에 200만원을 넣어두고, 급전이 필요한 노동자가 빌리고 갚는 방식, 실시간 대출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배달노동자 간 사회적 연대와 상부상조에 기반한 공제 사업으로, 회원과 회비 늘려나가고 있음

공익활동가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익단체와 활동가에 특별용자



- 수행기관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이후 사회를 준비하는데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나 당시 후원회원의 감소 등으로 조직과 개인의 삶이 불안정한 상황이었음.
- 서울시(8억6천만원)와 4개 노사기금재단(5억8천5백만원)이 마련한 13억9천5백만원의 운용자금은 3년간 단체 최대 2천만원, 활동가는 최대 1천만원 한도로 대출(이율3%)하여 단체 21곳, 개인활동가 77명을 지원함.
- <대출 신청자 개인 통계> : 평균연령 48세, 재직기간 7년 10개월, 월급 1,980,000원, 43%가 부채 보유, 대출 신청용도는 고이율 전환대출과 긴급생활자금이 많았음.

자립준비청년의 안전한 삶터 마련

-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을 지원함.
- 우분투하우스에는 성별이 같은 청년 3명이 공동생활을 하며 서로 의지하고, 보살피며 지역 사회와의 연계로 사회적 지지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에 대한 이익 회수보다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투자를 하고 있는 셈.

사회연대의 희망, 우분투정신 확산

- 100만원 받으러 비행기 원정까지
- 사회연대로 혁신적인 사회적 금융모델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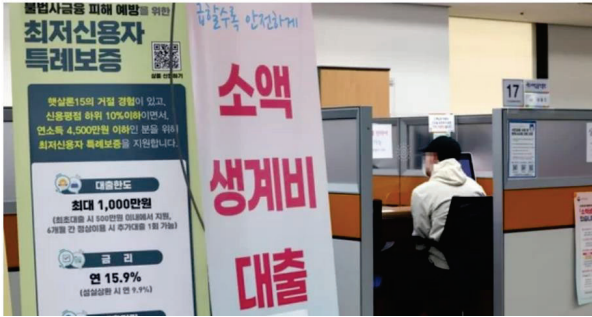
100만원 받으러 비행기 원정까지

100만원 받으러 비행기 원정까지...소액생계비대출 쓸쓸한 흥행

파이낸셜뉴스 원문 | 기사전송 2023-05-02 14:55 | 최종수정 2023-05-02 17:14

댓글 1 | 6 | 공유 | 가 가

한달간 대출 신청은 2만3532명, 대출금액은 총 143억3000만원



-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이 출시 한 달 만에 143억 원을 넘어섬.
- 금리(연 15.9%)가 취약계층 대상 대출 상품인 데도 높고, 한도(최대 100만원)가 적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출시 초반부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림.
- 제주에서 광주센터까지 비행기를 타고 생계비 대출을 받으러 원정을 갔다고 할 정도이니, 이는 당장 10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함.

사회연대로 사회적 금융모델 마련 필요

- 정부의 긴급 소액대출은 급한 불을 끄는데 일시적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금융 불평등이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
- 선배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잉여를 이전하고, 더 많이 가진 기업이 노동자를 위해 이익을 나누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시민이 사회약자를 위해 자원을 내어 시대적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함.
- 아울러 일반 시민도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여 혁신적인 사회적 금융 모델을 마련해야 예방과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엮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네가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의 공동체 정신이 사회에 점차 확산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밑바탕이 되길 희망함.

- 네가 있어, 내가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연대,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노동공제로 희망을 찾다

김순미
(노동공제연합 (사)풀빵 공제팀장)

노동공제로 희망을 찾다

노동공제연합 (사)풀빵 공제팀장 김순미



01 노동공제연합 (사)풀빵 설립배경 및 소개

제도 바깥의 노동자 확대 / 소득 불균형

노동공제운동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자!



정신

조선노동공제회

+

전태일의 풀빵연대

방향 / 목적

사회적 연대

+

상호부조

노동자 결사체
활성화

+

불안정한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
권익증진

01 노동공제연합 (사)풀빵 설립배경 및 소개



조직 현황 (총 27개 회원단위)

당사자조직(18단위)

(사)일하는 사람들의 생활공제회 좋은이웃, 라이더유니온, 경기북부노동공제회, 민주일반노동조합 제화지부, 이음나눔유니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주민협동연합회(사협) 우리함께,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봉제인공제회, 청년신협추진위원회,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카부기상호공제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스마트협동조합, 협동운동 다람쥐회

지원조직(9단위)

공생사회적협동조합, 노회찬재단,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전태일재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주)공감만세

02 노동공제 운영현황

노동공제 품목 및 가입 현황 (23년 5월 16일 기준)

풀장가입

- 가입비 1만원
- 노동복지 서비스 : 의료, 상조, 생활 등 풀빵의 제휴처에서 할인 서비스 제공
- 법률상담, 신용상담

2132명

- 풀빵공제 1호 - 기본 공제

- 공제회비 : 6000원
- 1. 년 1회 명절선물(설)
- 2. 소액대출(150만원)
- 3. 입원수당 : 년 최대 16만원
- 4. 재해사망 위로금 : 300만원

1662명

- 풀빵공제 2호 - 적립형 공제

- 목돈 마련 목적
- 매월 5~20만원
- 3년 또는 5년 적립
- 만기시 응원금과 축하금 지급

14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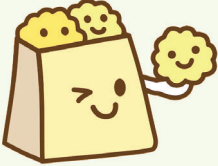
- 풀빵공제 3호 - 비상금고

- 비상금(100만원) 마련 목적
- 비상금 적립 90만원 + 응원금 10만원 = 100만원 비상금 마련
- 만기후 금고예치시 최대 300만원 대출

215명 {적립 및 예치: 71명
만기수령: 144명}

02 노동공제 운영현황

노동공제 사업 현황 (23년 5월 16일 기준)



대출사업

기본공제 소액대출 48명 / 72,000,000원
비상금고 대출 2명 / 6,000,000원

입원수당

총 42명
누적지급액 6,040,000원

명절선물

22년 추석 : 381명 전달
23년 설 : 1,043명 전달

비상금마련

100만원 비상금마련 지원
144명 목표달성

03 풀빵금고지기 기금조성사업

01 사업 배경

풀빵공제 1호(기본공제) 대출기금 부족
노동자 자주복지 마중물 자조기금 마련 목적

02 모집 내용

1구좌 100만원, 무이자 3년 약정으로 풀빵금고에 신탁

03 사업 경과

2022.12.12. '풀빵금고지기' 모집 시작(2023년내 300구좌 목표)
- 1차 집중모집기간: 23년 1월 30일까지 100구좌 목표
119구좌 모집(목표 초과달성)
- 2차 집중모집기간: 23년 4월 11일까지 전체 300구좌 목표
23년 3월 20일 300구좌 모집 달성
2023년 5월 16일 기준 385구좌

04 사업 의미

노동조합, 단체, 가족, 모임, 개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 목적 지지 확인
노동자 자주복지를 위한 자조기금 조성의 가능성 확인

04 향후 계획과 과제

플빵의 성장을 위한 주목 사업

1. 노동공제교육 확대
2. 맞춤형 선택공제 개발
3. 회원조직 활성화 지원
4. 지역형 노동공제회 설립 지원

중장기적 과제

1. 사회연대기금 확대
2. 노동금고 구축
3. 노동공제 법/제도 개선

감사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연대,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토론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023 사회적금융포럼

일하는 사람들의 연대,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토론문

2023. 5. 26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1.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 늘어나는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노동자

- 헌법은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며 일하는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 이를 위해 법률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법·제도와 달리, 현실에서는 보호의 사각지대가 만연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 사내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노동관계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함.
- 기존 조사에 따르면, 전체노동자 2200만 명 중 40~50%의 노동자가 노동관계법 상 부분 또는 전부 사각지대에 해당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	규모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00~500만 명
초단시간 노동자(주당 15시간 이하 노동시간)	150~200만 명
사내하청 노동자	90~100만 명 (300명 이상 사업체 만)
특수고용 노동자	220~250만 명
플랫폼 노동자	60~80만 명

1.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의 역설

-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고용과 근로시간 보호를 받지 못하며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음. 용역 및 사내하청노동자, 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자는 교섭할 권리를 갖지 못함. 결과적으로 이해 대변의 한계가 발생
- 보호가 필요한 취약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목소리가 작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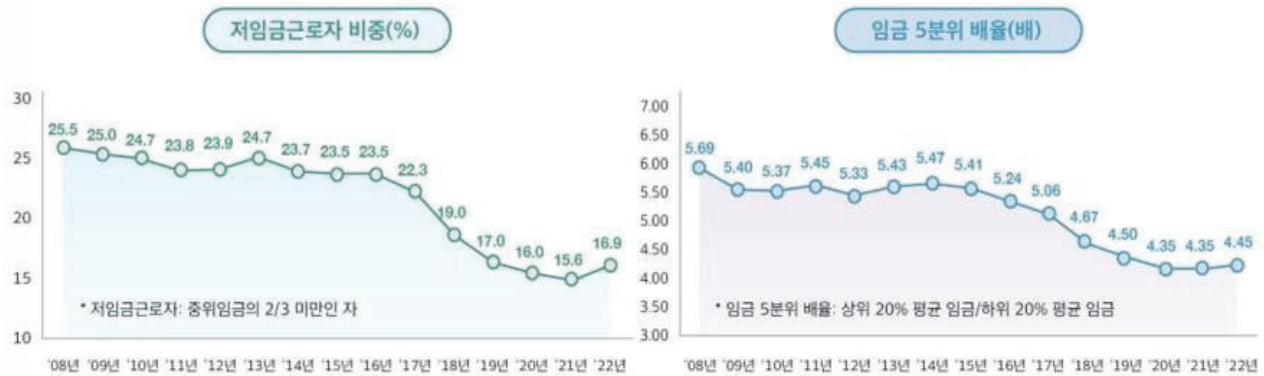
구분	보호받지 못하는 내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유 없는 해고,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미적용
초단시간 노동자(주당 15시간미만 노동시간)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고용/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미적용
용역, 사내하청 노동자	원청과의 교섭권 제한
특수고용 노동자	근로기준법 미적용, 교섭제한
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미적용, 교섭제한

1.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이유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임금

- 노동시장 양극화는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2000년대 이후 심화되기만 할 뿐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 2022년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시장의 악화
- 노동시장 이중 구조는 국가와 기업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정적이며 고임금 노동시장을 형성해 온 노동조합에 책임이 전가됨

(*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일제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기준 *)



고용노동부. 5. 23 보도자료

공제조직 및 기금의 역할과 과제

2. 공제조직 및 기금의 역할과 과제

□ 공제조직과 기금의 역할

- 최근 만들어진 공제 조직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풀빵>은 노동조합의 전폭적인 지원과 전략적인 연대를 통해 소액대출에서 직업훈련 등에 이르기까지 개별노동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효용성과 정당성을 인정받는 과정임
- 취약 노동자를 지원하고 공익활동을 후원하는 노동 기금도 활성화되고 있음. 공공부분의 <상생연대기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금융부분의 <금융산업공익재단>, <우분투재단> 등이 대표적인 기금으로 취약노동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특징을 가짐
- 공제 조직과 기금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보다는 상호 보안을 통한 사회안전망과 민주주의의 확대로 해석할 수 있음

7

2. 공제조직 및 기금의 역할과 과제

□ 향후 과제 1. 노동조합과의 전략적 연대와 사회 가치 제고 활동

- 공제조직이나 기금의 초기 마중물은 노동조합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음. 기금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재정적 투자, 노사 공동기금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으며 공제조직의 회원의 노조가입을 추진 등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음. 기금과 공제조직 간의 전략적 연대도 계속 모색해 보아야 할 과제임
- 기금이나 공제조직이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의제화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야 함. 정부나 노사가 주저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반값 등록금, 천원의 아침, 작업복세탁소, 공동근로복지기금 등과 같은 기획 사업). 이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유도

8

2. 공제조직 및 기금의 역할과 과제

□ 향후 과제 2. 기금 마련과 제조부문 및 지역으로의 확산

- 기금 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금 확충이 필요함.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금융부문의 기금은 모두 노사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사용자를 설득하여 전략적 투자를 이끌어 낸 것.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예를 들면 복권사업을 통한 기금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의 확산도 필요함. 특히 **취약노동자가 다수 존재하는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으로의 확산이 필요하고 지역차원의 기금조성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 있음.** 지역 기금은 노사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출연이나 물적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2. 공제조직 및 기금의 역할과 과제

□ 향후 과제 3. 공제 조직 및 재단 활동의 제도적 보장

- 공제회조직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함. 공제회 조직이 회원 사업 외 수익사업 등을 추진하거나 비영리단체로서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교직원공제회, 소상공인공제회(노란우산), 건설업공제회 등 주로 개별 업종을 중심으로 공제회에 대한 법규정이 존재함. 개별 업종별로 공제회의 성격과 역할을 법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나 **공제회기본법처럼 큰 틀에서 전체 공제회조직의 역할과 위상, 사업범위, 사회적 지원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운용은 주로 재단법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기금 운용이 효과적이며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모금 및 재단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지속 검토

감사합니다

T43. 포용금융 트랙 - 딥다이브 / 5.25 (목) 11:15



양갑수 발표
토스뱅크 정책협력전무

Yang, Gapsu
Government relations team leader, Toss Bank



박진영 진행
포브미디어(어피티) 설립자, 대표

Park, JinYoung
Founder & CEO, UPPITY



플랫폼 금융은 정말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토스뱅크의 사례를 통해 모두를 위한 금융의 가능성을 타진해 봅니다.

토스뱅크 사례로 알아보는
플랫폼 금융의 포용 잠재력

5.25 (목) 11:15~12:00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 이 세션은 대담 방식으로 진행되어 발표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T44. 포용금융 트랙 - 딥다이브 / 5.26 (금) 16:00



이지윤 발표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기획팀장

Lee, JiYoon
Project Planning Team Head,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KFIF)



추원서 진행
금융산업공익재단 상임이사

Choo, Won-Suh
Executive Director, Korea Financial Industry Foundation (KFIF)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금융노사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공동으로 재단을 운영하는 노사 파트너십 사회공헌 재단입니다. 노사협력과 사회헌신을 핵심가치로 사회적 연대의 길잡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노사협력과 사회연대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

5.26 (금) 16:00~16:45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 이 세션은 금융산업공익재단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포용금융 - 딥다이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과 과제

이지윤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기획팀장)

2023 사회적금융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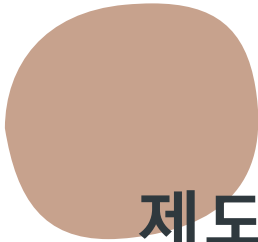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권의 역할과 과제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기획팀장 이지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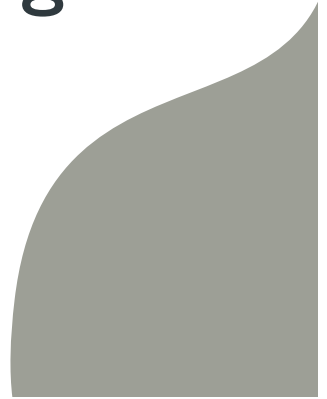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 01 제도권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 02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사회공헌활동
- 03 재단이 꿈꾸는 지속가능한 사회
- 0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의 역할

2023 사회적금융포럼



제도권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은행권 사회공헌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3개년 평균
사회공헌실적[A]	7,417	9,905	11,359	10,929	10,617	10,968
당기순이익[B]	109,112	149,383	123,678	126,872	153,315	134,621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A/B]	6.8%	6.6%	9.2%	8.6%	6.9%	8.2%

- 국내은행 최근 3년간('19년~'21년) 사회공헌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환원
- 22년(잠정)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지출액은 1조 1,305억원으로 '19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대략 1조원 수준을 유지
- 경영성과 대비 사회공헌 비율 또한 동 기간 평균 8.2%를 기록, 연간 이익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통상 당기순이익의 6% 수준

* 자료출처 : 은행연합회

은행권 사회공헌 실적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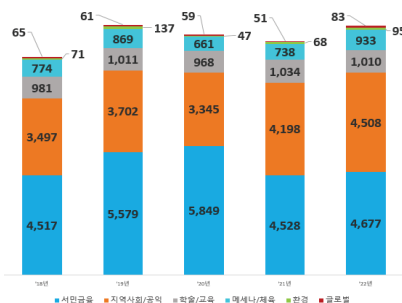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내 은행권	4.79%	6.06%	6.73%	4.60%
국내 기업	1.90%	4.00%	3.70%	1.40%
글로벌(Fortune 선정100대 기업)	0.95%	1.04%	1.86%	0.79%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	0.74%	0.66%	1.14%	0.55%

- 최근 3년('19년~'21년)간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에 따르면, **국내은행권 4.60%~6.73%**, 국내기업 1.40%~4.00%으로 국내 은행 사회공헌 규모는 이익대비 가장 큰 규모
- 글로벌기업 0.79%~1.86%, 글로벌 주요 금융회사 0.55%~1.14% 대비해도 상당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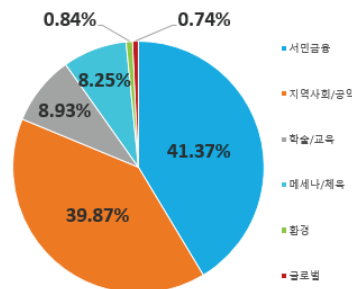
* 자료출처 : 은행연합회

은행권 사회공헌 실적

국내은행 사회공헌활동 분야별 지출금액



'22년 사회공헌활동 분야별 지출비중



- '22년(잠정) 기준 ①서민금융이 4,678억원으로 41.4%를 차지, ②지역사회·공익 분야 4,508억원(39.9%)
- 그 외 ③학술·교육 1,010억원(8.9%), ④메세나·체육 933억원(8.3%), ⑤환경 95억원(0.8%), ⑥글로벌 83억원 (0.7%) 순

* 자료출처 : 은행연합회

은행권 사회공헌 주요 내용



* 자료출처 : 2021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은행권 사회공헌 주요 내용

- 지속가능한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부문 -



사회혁신 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혁신적 사회문제 해결 방법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 지원 등 지속적인 성장에 투자하여 더 큰 사회적 임팩트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투자지원 수혜기업 17,126여 개(11개 은행 집계), 비금융 지원 868건(10개 은행 집계), 투자 등 지원 금액 1,478억 5,600만 원(13개 은행 집계)

> IMPACT <

- 사회적기업 스케일업을 통한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
-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혁신 장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소규모 대면서비스업 경영악화 극복 및 수익성 회복을 위해 금융지원,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원 기업 2,774개(4개 은행 집계), 소상공인 컨설팅 8,235건(5개 은행 집계), 지원 금액 4조 5,503억 원(5개 은행 집계)

> IMPACT <

- 경영 안정성 향상
-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을 통한 경제회복 기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저소득,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자립지원을 위해 계층별 취업 멘토링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 1,802명(6개 은행 집계),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수 1,221명(4개 은행 집계), 일자리 창출 지원금 18억 9,600만 원(4개 은행 집계), 여성 및 장애인 등 일자리기업 보증 지원 5,785억 원(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 IMPACT <

- 취약계층 경제적 안정성 보장
- 맞춤형 일자리 창출

* 자료출처 : 2021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

은행권 사회공헌 주요 내용

- 사회책임금융 및 코로나19 대응 -



소외계층 금융부담 완화

다양한 대출상품 및 맞춤형 금융상품을 통해 저소득층, 저신용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8조 7,931억 원(8개 은행 집계), 지원 건수 313,454건(5개 은행 집계)

> IMPACT <

-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



글로벌 지역사회 발전 지원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위기에 놓인 배려계층에게 후원을 통해 글로벌 상생을 도모합니다.

지원 국가 10여 개국, 지원 금액 6억 1,300만 원(3개 은행 집계), 지원 건수 3,860건(5개 은행 집계)

> IMPACT <

- 글로벌 시민의식 강화
- 글로벌 안전보건 확보



소외계층 대상 나눔활동 및 봉사활동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이웃나눔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자립기반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봉사자 수 10만 3,022명(10개 은행 집계), 수혜 건수 17만 7,909건(18개 은행 집계), 지원 금액 66억 6,820만 원(15개 은행 집계)

> IMPACT <

- 빈곤 및 가난 극복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웰빙 도모

은행권 사회공헌 주요 내용

- 사회책임금융 및 코로나19 대응 -



국내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업체를 대상으로 임차료 감면 및 방역물품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건수 3,872건(8개 은행 집계), 지원 금액 21억 1,800만 원(8개 은행 집계)

> IMPACT <

- 소상공인 경제·사회적 안정성 확보
- 동반성장 촉진



코로나19 방역 근무자 지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보건인력 및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마스크, 아이스머플러, 간식꾸러미 등을 후원하였습니다.

지원 물품 약 50만 7천 개(5개 은행 집계), 수혜자 수 9,080명(3개 은행 집계), 지원 금액 43억 4,300만 원(6개 은행 집계)

> IMPACT <

- 방역 근무자 피로감 해소
- 보건위기 확산 방지

은행권 사회공헌 주요 내용

-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 상환유예 -

-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20년 4월 1일부터 25년 9월까지 만기연장, 23년 9월까지 상환유예 지원 (6개월 단위 반복 연장)

-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보호
- 20년 4월부터 22년 6월까지 2년 3개월 간 362.4조원 대출에 대하여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지원



은행권 사회공헌 주요 내용

- 포용적 금융서비스 구축 -



청소년 및 시니어 대상 금융교육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확립을 돕고 어르신들의 디지털화된 비대면 금융업무 친숙도를 높여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합니다.

금융교육 실시 횟수 6,581회(19개 은행 집계), 청소년 및 시니어 등 금융교육 수혜자 수 246,376명(19개 은행 집계)

> IMPACT <

- 양질의 금융교육 제공
- 금융업무 접근성 향상



시니어 고객 금융 접근성 향상

6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전용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고객 대상 인프라 종류: 시니어 맞춤형 ATM, AI기술 활용 안내 서비스, 어르신 전용 전화 상담 창구, 안내 책자 등

> IMPACT <

-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다문화 및 외국인 고객 금융 접근성 향상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 및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원 활동을 진행합니다.

외국인 대상 서비스 종류: 금융거래 가이드북, 금융거래 피해예방 자료, 모바일 뱅킹 앱 외국어 지원 등

> IMPACT <

- 공공 서비스 접근성 보장



장애인 고객 금융 접근성 향상

장애인 비장애인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불편함 없이 금융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배리어 프리 금융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용가능 인프라 종류: 장애인 고객 전용 창구, 수어 금융상담, 저시력자용 화면확대 서비스,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OTP 서비스, 청각 보조 대체수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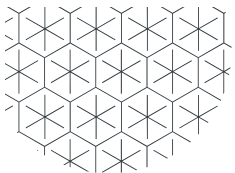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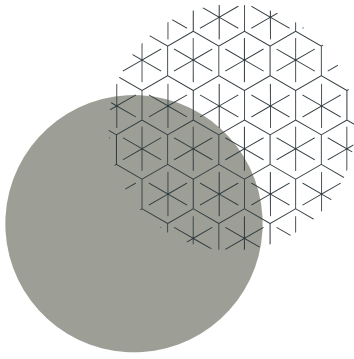
> IMPACT <

- 금융 서비스 편의성 증대
- 포용금융 실현

2023 사회적금융포럼

02

금융산업공익재단의
사회공헌 활동



33개 금융기관
'노사' 공동기금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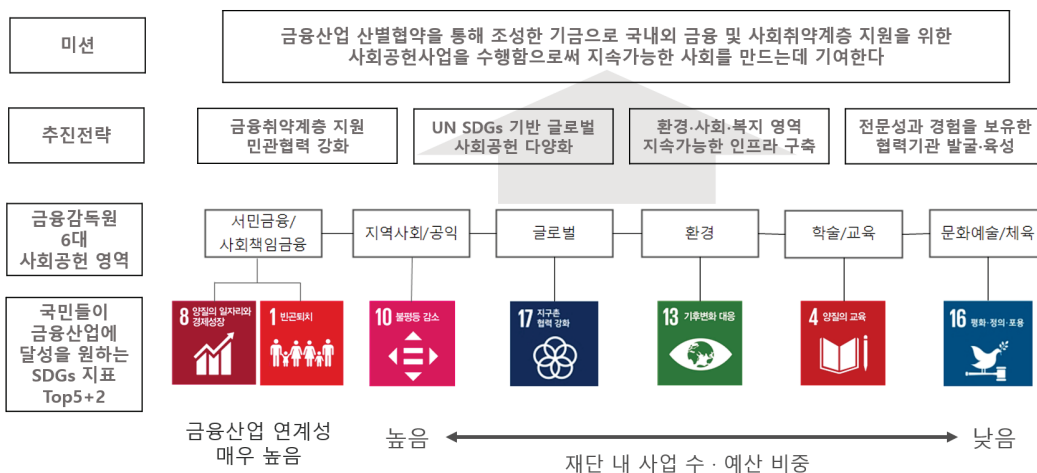
금융산업 노사 공동기금 출연

○ 금융노사의 역사적 합의 성과

연도	산별노사 합의 내용	기금 조성
2012	2012년 임금 3.3% 인상분 중 0.3%를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며, 사용자 측도 동일 금액 이상을 부담한다.	약 330 억원
2015	근로자는 2015년 임금 2.4% 인상분에서 0.4%를 기여한다. 동 재원은 향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한다.	약 370 억원
2017	금융 노사는 2012년과 2015년에 노사합의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약 700억원)과 사용자가 2017년부터 3년간 임금총액의 0.1%씩 출연하는 기금(약 300억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한다.	약 300 억원
2018	2018년 임금 2.6% 인상분 중 0.6%를 설립 추진 중인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하고, 사용자도 동일금액을 출연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사용한다.	약 1,000 억원

2018년 10월 4일 재단 출범, 최종 출연기금 1,850억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 미션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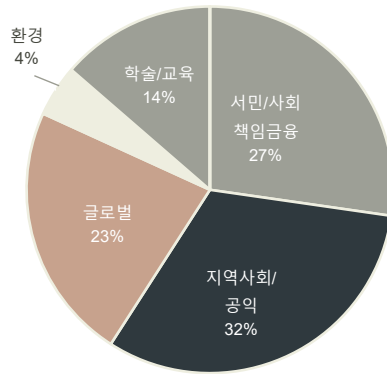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 미션과 전략

23년도 회계연도 예산 기준,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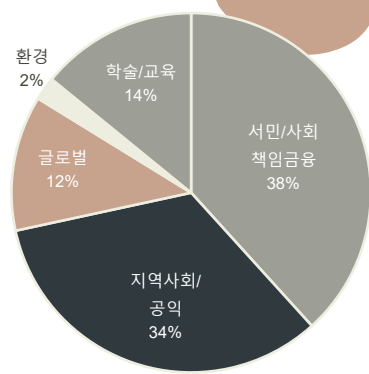
구분	사업수	예산
서민/사회책임금융	6개	54.82
지역사회/공익	7개	41.62
글로벌	5개	17.44
환경	1개	3.0
학술/교육	3개	20.22
문화/예술	-	-
기타사업	3개	4.1
합계	25개	141.2

* 소규모 후원 사업, 예비사업비 포함 예산 연 170.32억

사업수 기준 비중



예산 기준 비중



제도권 금융기관의 재원을
사회적 영역으로 연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금융산업공익재단 주요 사업

- 금융 및 경제생활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신용상승·자산형성 지원사업 -



수혜자 선정

- 19세~39세 청년
- 21년 2500명 선정
- 22년 4000명 선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 직업훈련과정 지원
- 자격증 취득 지원
- 면접비 지원
- 직업상담사 취업컨설팅
- 창업 컨설팅



신용개선지원 프로그램

- 신용 도우미 : 모바일 앱을 통한 신용도 상승 솔루션 지원
- 신용 컨설팅 : 신용복지컨설팅센터 상담을 통한 재무관리 지원
- 수혜자 선정 1년 후 신용점수 30점 이상 신용개선 격려금 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

- 적금 가입시 매 6개월 적금액의 20% 응원매칭 지원, 총 36개월 지급

금융산업공익재단 주요 사업

- 금융 및 경제생활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신용상승·자산형성 지원사업 -



수혜자 선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용개선지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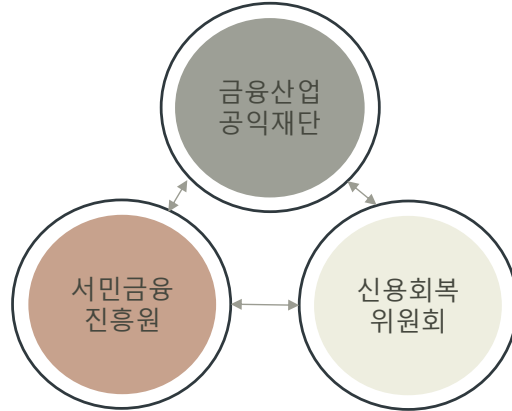
자산형성 프로그램

One-stop 지원 프로그램

경제생활 회복을 위한 생활지원, 신용회복부터 자산형성까지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

금융산업공익재단 주요 사업

- 금융 및 경제생활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신용상승·자산형성 지원사업 -



전문성 있는 기관과의 파트너십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성 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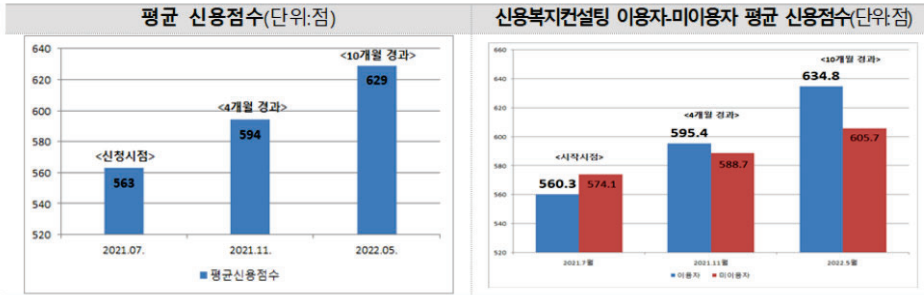
금융산업공익재단 주요 사업

- 금융 및 경제생활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신용상승·자산형성 지원사업 -

	<지원 항목>	<지원내용>	<지원기관>
채무조정	① 채무조정	▶ 장기 분할상환(최장 10년) 지원	신복위
	② 생활지원금 안내	▶ 취업준비 기간 식비, 교육비, 주거비 등 생활지원금(정부 및 지자체 청년지원프로그램) 안내	정부·지자체
채무관리	③ 신용복지 컨설팅	▶ 신용복지컨설턴트의 신용·채무관리 상담 ▶ 모바일 신용관리서비스(신용비타인, 신용도우미) 제공	신복위
	④ 신용개선 격려금	▶ 신용점수 상승시 격려금 지원(50만원, 1회)	신복위·금산공
취업지원	⑤ 취업·자영업 컨설팅	▶ (취업) 직업상담사의 1:1 맞춤상담, 일자리 알선 ▶ (자영업) 예비(기)창업자 대상 경영컨설팅 제공	서금원
	⑥ 직업훈련 지원금	▶ 자격증 취득, 교육 수료 등 직업훈련 비용(30만원, 1회) 및 면접비(회당 7만원, 최대 3회) 지급	금융산업공익재단
금융지원	⑦ 응원매칭 지원	▶ 적금상품(월 10만원 또는 20만원, 만기 3년 이내) 6개월 이상 납입시 납입 금액 20% 매칭 지원	서금원·금산공
	⑧ 저금리대출 지원	▶ 취업성공대출 지원(최대 300만원, 연 4.5%)	서금원
	⑨ 신용카드 발급 지원	▶ 소액 신용카드 발급 지원(월 30만원 한도)	신복위

금융산업공익재단 주요 사업

- 금융 및 경제생활 재기를 위한
채무조정 미취업청년 신용상승·자산형성 지원사업 -



- (신용도 개선 효과) 신용복지컨설팅 이용자의 신용점수 상승폭은 평균 74.5점, 미이용자의 신용점수 상승폭은 평균 31.6점
- 신용복지컨설팅 이용자 중 신용점수 상승자 비율은 63.0%, 미이용자 중 신용 점수 상승자 비율은 49.1%로 신용복지컨설팅 이용자가 13.9%p 높음
- (취업연계 효과) 1차년도 수혜자 2,500명 중 550명 취업 연계 완료

금융산업공익재단 주요 사업

- 경제·금융활동 취약계층 자산형성·취업지원 사업 -

- 한부모가정
-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 플랫폼노동종사자
- 이주배경 청년·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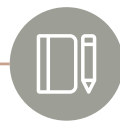
취업지원

- 국가자격증 취득시 격려금 지원
- 직업훈련과정 이수 완료시 격려금 지원
- 취업 및 창업 컨설팅 지원
- 취업 및 창업 후 3개월 유지시 축하금 지원
- 면접비 지원(총 3회)



자산형성

- 10만원/20만원 적금가입 시 매 6개월마다 20% 응원매칭 지원, 최대 3년 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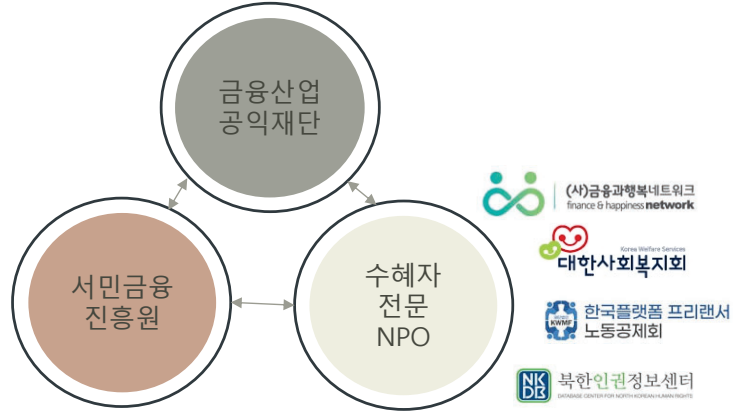


금융생활 및 일상생활 지원 등

- 금융교육 및 금융생활 멘토링 지원
- 각 대상자별 맞춤형 일상생활 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주요 사업




- 경제 · 금융활동 취약계층 자산형성 · 취업지원 지원사업 -



전문성 있는 기관과의 파트너십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성 담보

금융산업공익재단 주요 사업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영리영역 특별 용자사업 '동행' -

 코로나19 팬데믹	 대출지원 출연	 경제적 위기 지원
<p>비영리단체 및 공익 활동가 활동 위축, 경제적 어려움 가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 3배 이상 축소 · 최저임금 미만 활동가 22.6% 부채 증가 경험 	<p>비영리단체 및 개인 활동가 대출지원 프로그램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 대출의 어려움 · 대출원금 상환 부담 	<p>비영리단체 경제적 위기 해소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들의 버팀목 기능 · 지속가능금융의 역할

금융산업공익재단 주요 사업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영리영역 특별 용자사업 '동행' -


구분	집행금액	인원/개	세부 집행 내역		
			구분	대출집행금액(원)	집행 내역
개인활동가	531,500,000	77명	서울	461,500,000	63명
			서울 외 지역	70,000,000	14명
비영리단체	345,000,000	21개	서울	225,000,000	13개
			서울 외 지역	120,000,000	8개
합계	876,500,000			876,500,000	




- 전국 소재 비영리단체 상근 공익활동가/비영리 단체 대상 긴급생활자금 대출
- 개인활동가 최대 500만원 36개월 상환, 연이율 1%
- 단체 최대 2,000만원 36개월 상환, 연이율 1%

금융산업공익재단 주요 사업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


**재한 외국인 학생
 코로나19 기초생활
 장학금 지원사업**

국내 미안마 유학생
900명 대상 매월 30만원
기초생활비 8개월 간 지원


**무보험 외국인
 코로나19
 진료비 지원사업**

상호주의 원칙에서 제외된
미지원 국가 또는
일부지원 국가의
무보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


**코로나19 방역기기
 및 방역물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766개소 대상
발열체크 기기 포함
방역물품 지원 등

금융산업공익재단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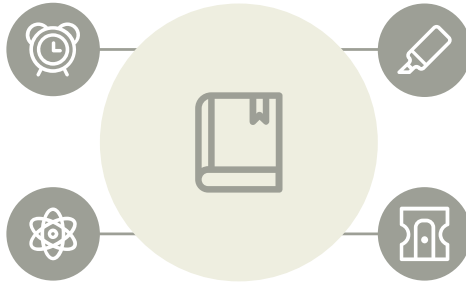
- 금융접근성 확대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사업 -

**초등학생 금융교육
지원사업**
서울지역 초등학교
200개교(23년 기준) 금융교육 지원

**디지털 소외계층(시니어)
지원사업**
노년층 대상 모바일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 지원

**메타버스 금융교육
게임 개발사업**
메타버스 활용 비대면 청소년
금융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지원

**소비자 맞춤형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사업**
금융취약 청년층 재무관리 및
금융생활 상담지원



금융산업공익재단 주요 사업

- 아시아 금융 취약계층 지원사업 -

**네팔 성(Gender)구분
화장실 건립지원**

**스리랑카 여성 영농인 자립 및
학교급식 지원**
농업 및 양계업 기술 훈련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농산물 거래소 설치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

**필리핀 파야타스 지역
직업훈련센터 설립 지원**
마닐라 내 금융기관 연계
봉제훈련, 컴퓨터 기술훈련 등 지원을 통한
취업연계 및 경제활동 개선 지원

**한국 금융산업진출
동남아시아 지역(8개국)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



2023 사회적금융포럼



03

재단이 꿈꾸는 지속가능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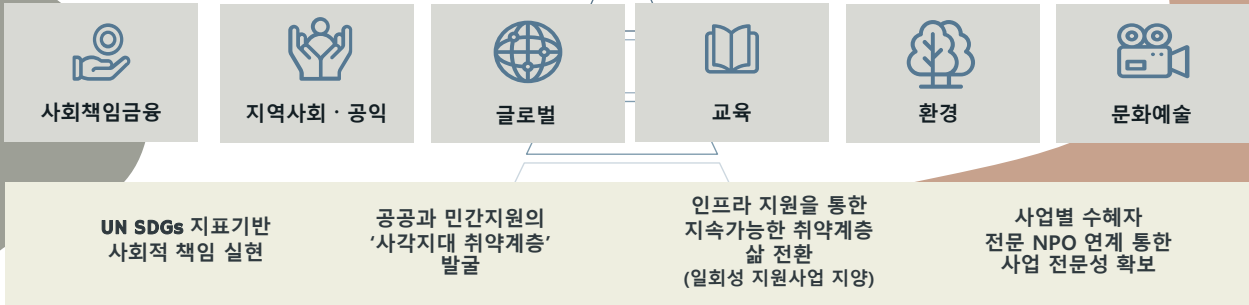


제도권 금융기관의 재원을
사회적 영역으로 연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재단이 꿈꾸는 지속가능한 사회

금융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단의 노력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내용 다각화

-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혜자가 발굴되고 있는가?
- 대상자가 제대로 발굴되었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이 맞는가?

사회적 임팩트 실현을 위한 사업 내용 고도화

- 우리의 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하고 있는가?
- 지원의 방식에 '과정'이 보이는가?

포용금융 및 사회적 투자 확대 방안 검토

- 우리의 지원이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는가?
- 지속가능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가?

사업수행 NPO 역량강화 및 파트너십 강화

- 전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인가?
- 진정성을 가지고 수혜자들을 만날 수 있는가?

2023 사회적금융포럼

0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도권 금융의 역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도권 금융의 역할



제도권 금융시스템
탈락 계층
금융 접근성 기회 제공
(포용금융기능 확대)



사회 임팩트 투자
확대를 통한
은행의 공공성 확보



금융권 재단 확대 및
역할의 이전을 통해
사회공헌 전문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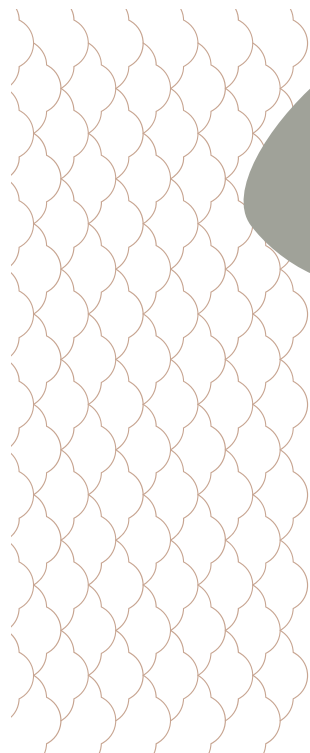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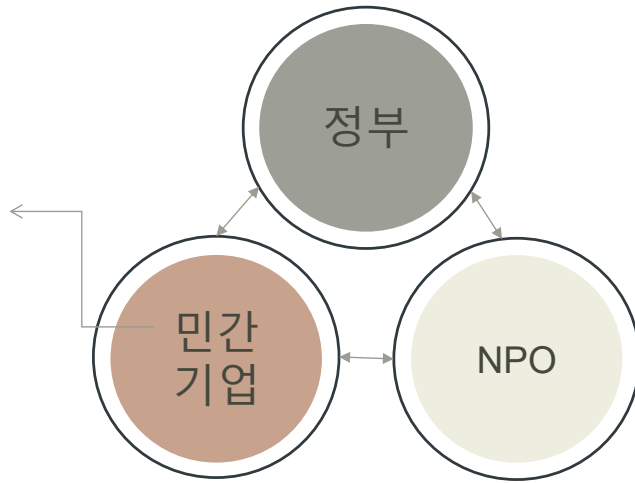
은행의 ESG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가치창출
기능 강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도권 금융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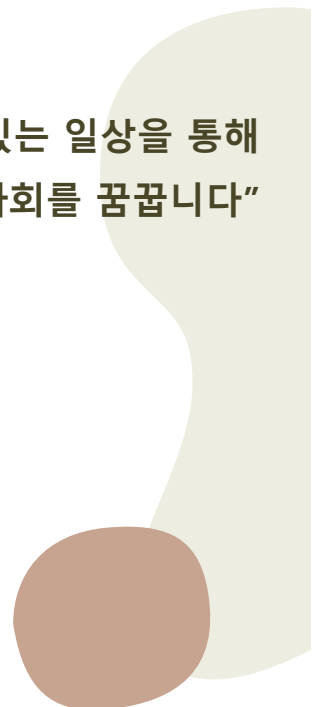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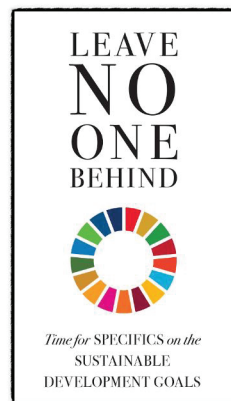
은행의 재원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수익을 만드는 것도 은행의 기능이지만 수익의 재분배 및 사회적 투자를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 및 공공의 성격을 강화할 필요

금융산업공익재단도 금융기관 재원으로 설립된 금융권 공익재단으로서의 책임감



“회복탄력성 있는 일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꿉니다”



T51. 회복력 트랙 - 패널 토론 / 5.25 (목) 16:00



김형미 좌장
한국협동조합학회장

Kim, HyungMi
President, Korean Society for Cooperative Studies

협동조합 보험과 공제는 위기 상황과 예상치 못한 변화에 높은 대응력과 회복탄력성을 보여왔고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국제상호보험협회 ICMIF와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해 팬데믹 등 위기 상황에서 협동조합 보험과 공제의 대처와 강점을 알아보고, 회복 과정에서 위기 극복 전략은 무엇인지 귀 기울여 봅니다.

또한 조합원의 요구에 맞는 상품을 통해 연대의 원리로 역경을 이겨내는 이들 사례가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를 토론하고 법 제도 정비로 새로운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공제의 포용력과 공동체 강화 역할, 제도개선 과제

5.25 (목) 16:00~17:2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이 세션은 i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iCOOP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i라이프케어 icoop



캐서린 호크 발제

국제상호보험협회 ICMIF 부사장

Catherine Hock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ICMIF) -
Online



도시아키 와다 발제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Toshiaki Wada
Chairperson of Japan CO-OP Insurance
(Kyosai) Consumers' Co-operative Federa-
tion (CO-OP Kyosai)



윤영귀 지정토론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장

Yun, YongGwi
Director of Sustainable Economy,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최혁진 지정토론

i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Choi, HyuckJin
Secretary General, iNLifecare Cooperative
Federation

협동조합 공제의 포용력과 공동체 강화 역할,
제도개선 과제

왜 협동조합보험/공제인가? Why Cooperative/Mutual Insurance?

캐서린 호크 Catherine Hock
(국제상호보험협회 부사장, ICMIF VP)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국제 협동조합 및 상호 보험 연합회(ICMIF)

2023 사회적금융포럼 |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금융: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금융의 역할

왜 협동조합보험/공제인가?

서울,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2023년 5월 25일, 16:00 ~17:20 am UTC



www.icmif.org



[@ICMIF_Web](https://twitter.com/ICMIF_Web)



linkedin.com/company/icmif

26.2%

2021년 기준 전세계 보험 시장에서 협동조합 보험 및 공제의 시장 점유율

상호 부문의 보험료는 1.4조 달러, 전체 보험 시장의 보험료는 5.4조 달러

2007년 기준 24.5%에서 증가

238 000명 고용

1억6천9백만명 상호보험 가입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상호보험 시장 점유율

USD
194
billion

in premium income
보험료소득 1억9천 4백만달러

11.2%
share of the total
regional market
지역 시장의 11.2%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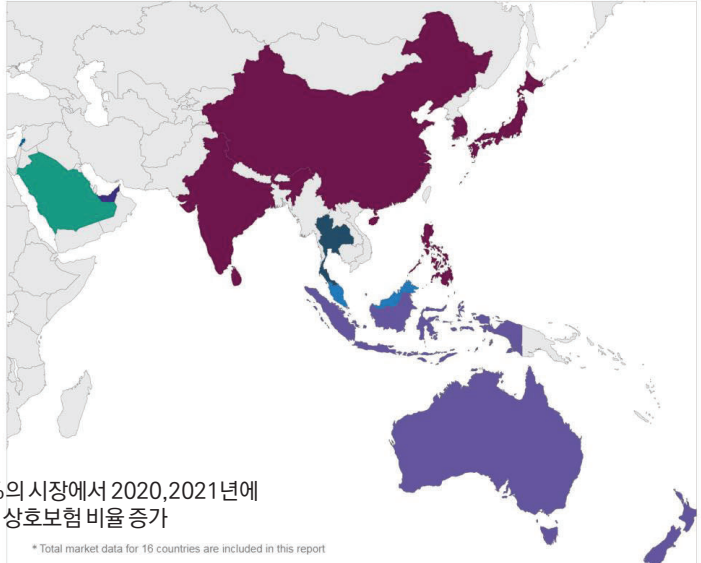


A market share
decrease of
10
percentage points
since 2007 (21.2%)

2007년(21.2%) 에서 10% 감소

62%
of Asian/Oceanian
markets saw
their local mutual
market share
increase between
2020 and 2021

62%의 시장에서 2020,2021년에
지역 상호보험 비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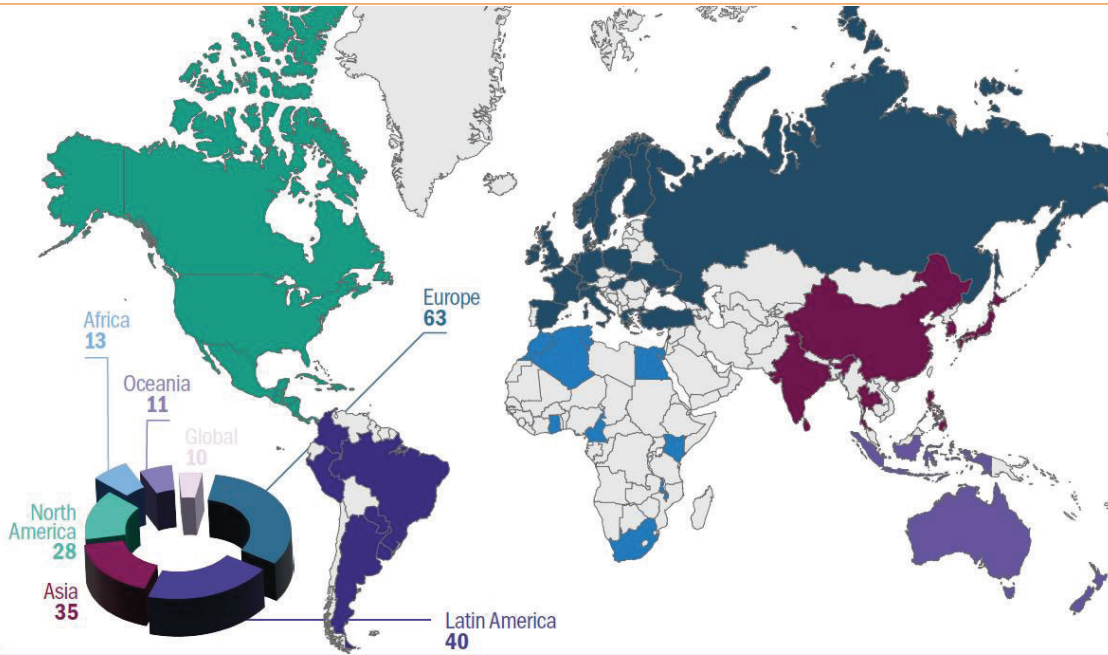


* Total market data for 16 countries are included in this report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국제 상호보험협회(ICMIF)

icmif

ICMIF – 협동조합 보험 및 공제의 국제 네트워크



icmif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www.icmif.org

전 세계의 회원 소유 보험사

Mutual insurers
공제

Fraternal Benefit Societies 우애공제회

Cooperative insurers
협동조합보험

Burial societies
상조회

Takaful
이슬람보험

Friendly Societies 우호조직

Community-based Organisations
지역기반조직

Risk Pooling Organisations
리스크풀링 조직

P&I clubs
보호 및 배상보험

Non-profit insurers
비영리보험

Mutual Benefit Associations (MBA)
상호 이익 협회(MBA)

Discretionary mutuals
임의공제

Reciprocals
호혜조직

Mutual Holding Companies
상호지주회사

icmif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www.icmif.org



Strength and resilience of cooperative mutual insurers in challenging times

변화의 시대 협동조합 상호보험의 강점과 회복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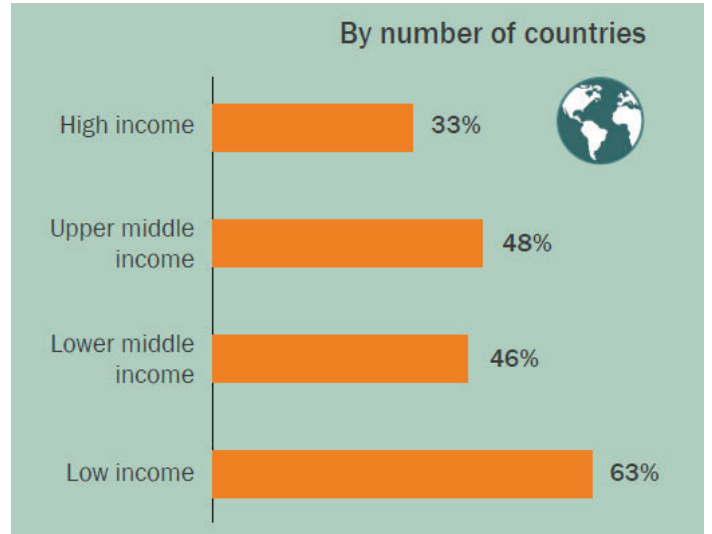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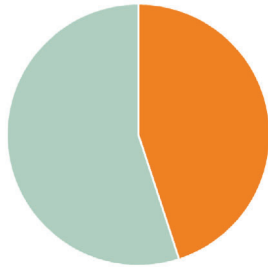
icmif

REGULATORY MATTERS 법제의 문제



상호 보험 접근성

세계 45%의 국가에서
법적으로 상호/협동조합 보험
불허



*Country income classifications as per the World Bank (2016)

icmif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www.icmif.org



A practical guide to understanding mutual insurance

상호보험의 이해를 위한 실용 가이드



서문

"이 가이드는 실무에서 보험 규제 적용을 감독하는 감독자들이 상호보험사의 특수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감독 조치는 규모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성격에 따라 비례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호보험사에 특정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호보험사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Karel van Hulle

- KU Leuven 및 Goethe University Frankfurt 명예교수, 전 유럽실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보험 및 연금국장



유럽 연합의 Solvency II*

the Solvency II framework에 대한 현재의 평가 :

- 소규모 보험사의 운영 복잡성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례성
- 문턱을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보험사 면제
- 감독 당국에 사전 통보 후 자동으로 적용되는 '저위험 프로파일 사업' 개념 도입

* 솔벤시 II 지침 2009(2009/138/EC)는 유럽연합 보험 규정을 명문화하고 조율하는 유럽연합 법률의 지침. 주로 EU 보험회사가 지급불능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 등에 관한 것. 2016년부터 시행중.(Wikipedia)



비례성- 어떤 국가에서?

분기별 보고의 비례성 및 간소화 :



연간 보고의 비례성 및 간소화:



정책 결정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협동조합 및 상호금융기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보장

다양한 기업 소유권에 대한 정책적 노력

- ✓ 다양한 금융 분야 환경
- ✓ 모든 비즈니스 모델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국제조직

- G20 – B20, FSB, IAI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 UN, 월드뱅크, OECD
- 국가/주 정부 및 규제당국

협동조합 및 상호금융기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보장

무추월과 협동조합의 소유 구조 및 각기 다른 기업 목적에 민감하고, 보장하는 위험에 비례하는 규제

- ✓ **국가 및 정부차원:** 규제 당국은 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의 서로 다른 사업 목적에 따라 규제가 민감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함.
- ✓ **국제적 차원:** 관련 위험에 비례하는 상호/협동조합 보험사 감독을 위한 기본 기준을 제공

협동조합 및 상호 보험사와 협력하여 생명과 생계 지원

소외된 사람들이 양질의 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경제 발전을 촉진

- ✓ 정부와 IAIS 는 소액보험의 발전에 요구되는 법과 제도를 제공
- ✓ UNDP 와 ICMIF 재단 이 수행한 혁신 챌린지(Innovation Challenge) 프로그램은 상호 및 협동조합 보험사가 개발도상국의 소외된 가구 및/또는 특히 여성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MSME)의 니즈를 충족하는 혁신적이고 저렴한 포용적인 보험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지금까지의 성과

- 3백만 저소득 가정에 보험 제공
- 1천5백만명의 생명이 보호받고 있음
- 18건의 기술지원 제공
- 2백만달러 모금
- 30개의 협동조합 및 상호보험사가 지원
- <1 USD 보험 가입건 당 1달러 미만의 기금비용



그래서, 왜 상호보험인가?

- 상호보험은 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적 법인임
- 상호보험은 자금의 집합체가 아닌 사람들의 집합체
- 상호보험은 조합원/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소유 및/또는 통제
- 조합원/보험계약자는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어느 정도 통제권을 행사함.
- 모든 수익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며, 때로는 조합원에게 재분배되기도 함
- 상호보험은 외부 주주가 없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됨
- 상호보험은 대형 금융 그룹으로부터 독립적
- 상호보험 P2P 모델은 몇 가지 공통점을 공유: 상호주의 2.0(per Swiss Re)

마치며

- 본질적으로 다른 모델보다 우월한 모델은 없습니다.
- 다양성을 통해 이점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다원적 시장 개념을 장려하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규칙은 주주 소유 기업에 대한 감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성공적인 모델을 파괴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를 육성하는 것이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와 양립할 수 없음을 규제자/감독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생태계가 다양성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처럼, 세상은 다양한 기업 형태가 존재할 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이코노미스트, 2010).

감사합니다



Pieter Breughel the Elder, Tower of Babel, ~1563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Social Finance Forum 2023 | Financing Our Common Future: Role of Finance for Sustainable Society

Why cooperative/mutual insurance?

Seoul, Korean Association of Banks Building, 25 May 7:00 ~8:20 am UTC



26.2%

Mutual and cooperative insurers' share of the global total insurance market in 2021

USD 1.4 trillion in premiums written by the mutual sector, USD 5.4 trillion by the total insurance market.

An increase from a global mutual market share of 24.5% i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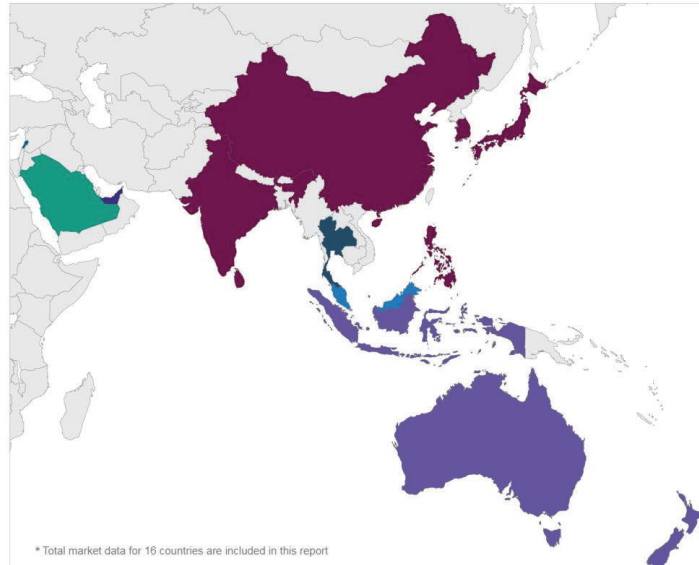
238 000 employees

169 million insured

Asian & Oceanian Mutual Market Share

USD
194
billion
in premium income

11.2%
share of the total
regional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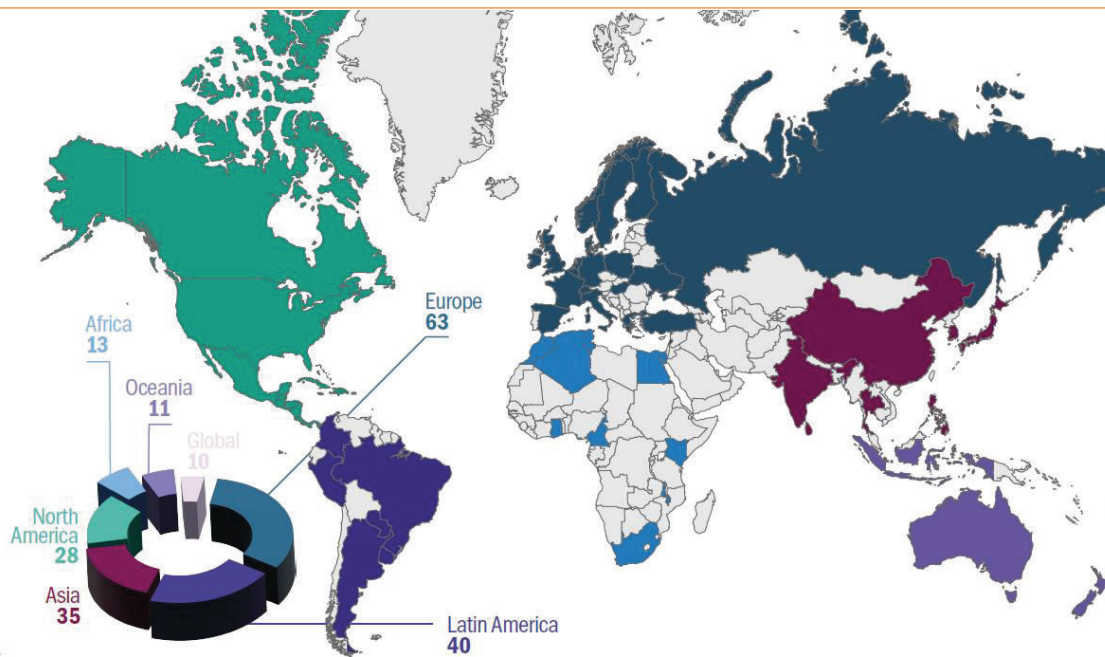
A market share
decrease of
10
percentage points
since 2007 (21.2%)

62%
of Asian/Oceanian
markets saw
their local mutual
market share
increase between
2020 and 2021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icmif

ICMIF - the global network for mutual/cooperative insurers



icmif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www.icmif.org

Member-owned insurers around the world

Mutual insurers

Fraternal Benefit Societies

Cooperative insurers

Burial societies

Takaful

Friendly Societies

Community-based Organisations

Risk Pooling Organisations

Mutual Benefit Associations (MBA)

P&I clubs

Non-profit insurers

Discretionary mutuals

Reciprocals

Mutual Holding Companies

icmif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www.icmif.org



Strength and resilience of cooperative mutual insurers in challenging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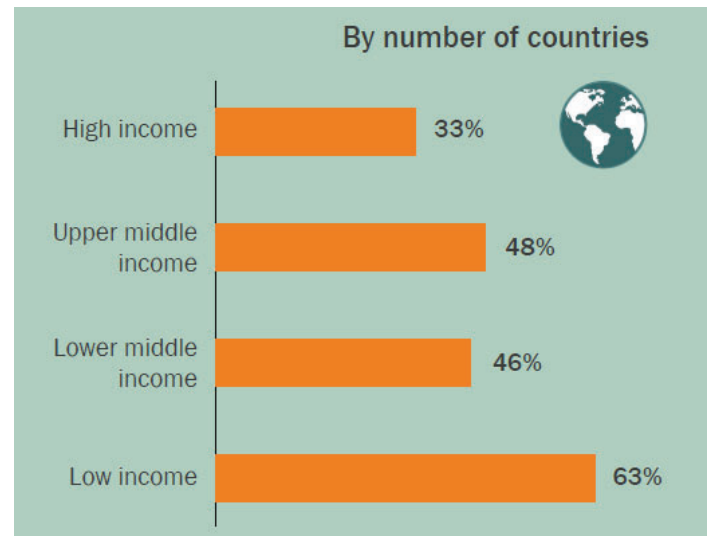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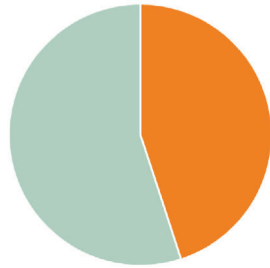
icmif

REGULATORY MATTERS



Access to mutual insurance

In **45%** of the world's countries, local law does not allow mutual/cooperative insurance



*Country income classifications as per the World Bank (2016)

icmif

International Cooperative and Mutual Insurance Federation

www.icmif.org



A practical guide to understanding mutual insurance

Foreword

“This guide should remind supervisors, who are supervising the application of insurance regulation in practice, that they must consider the particular nature of mutual insurers in their actions. Supervisory actions must be proportionate, not only with the size but also with the nature of the insurer. The question is not whether a mutual insurer should be required to apply a particular rule, but how the rule should be applied in a manner that respects the particularities of a mutual insurer.”

Karel van Hulle, Prof. em. KU Leuven and Honorary Professor Goethe University Frankfurt, former Head of the Insurance and Pensions Unit at the EU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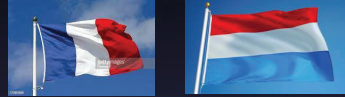
Solvency II in the European Union

Current review of the Solvency II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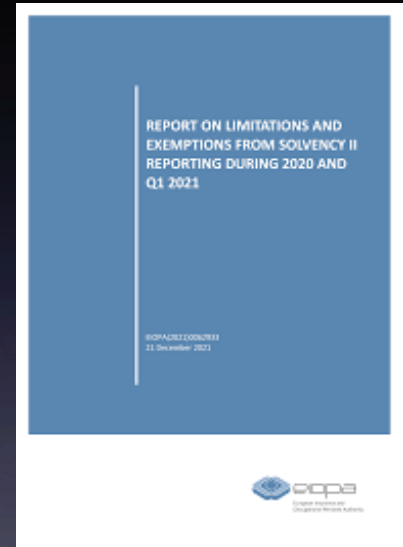
- **Proportionality to reduce operational complexity and burden for smaller insurers.**
- **Exempting smaller insurers by raising certain thresholds.**
- **Concept of ‘low-risk profile undertakings’ to apply automatically after an ex-ante notification to the supervisory authority**

Proportionality– which countries?

Proportionality and simplifications in quarterly reporting:



Proportionality and simplifications in yearly reporting:



Our message to policymakers



Ensure an appropriate business environment for coops and mutuals

POLICY COMMITMENT TO DIVERSE CORPORATE OWNERSHIP

- ✓ A diverse financial sector environment
- ✓ Free and fair competition for all business models

International Bodies

- G20 – B20, FSB, IAIS
- United Nations, the World Bank, the OECD
- National/State Government and Regulators

Ensure an appropriate business environment for coops and mutuals

REGULATION THAT IS SENSITIVE TO THE OWNERSHIP STRUCTURE OF MUTUALS AND COOPS, THEIR DIFFERENT CORPORATE PURPOSE, AND IS PROPORTIONATE TO THE RISK COVERED

- ✓ At a **national and state level**, regulators should ensure that regulation is sensitive to the different business purpose of cooperatives and mutuals
- ✓ At an **international level** - deliver basic standards for supervising mutual/coop insurers that are proportionate to the risk involved

Engage with coop & mutual insurers to help to protect lives and livelihoods

**FACILITATE ECONOMIC DEVELOPMENT BY INCREASING ACCESS TO QUALITY INSURANCE
WHERE PEOPLE ARE EXCLUDED**

- ✓ **Governments** and the **IAIS** provide the required legislative & regulatory frameworks for development of microinsurance
- ✓ **The UNDP** and **ICMIF Foundation** Innovation Challenge will help mutual and cooperative insurers scale up innovative, affordable and inclusive insurance products which specifically serve the needs of underserved households and/or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MSMEs), with a particular focus on women, in developing economies.



17

What have we achieved so far

- **3 million** low-income households currently insured
- **15 million** lives protected
- **18** Technical assistance assignments provided
- **2 million** dollars raised
- **30** cooperative and mutual insurers supporting
- **<1 USD** funding costs per insured policy



So, why mutuals?

- Mutuals are private legal entities governed by private law.
- Mutuals are groupings of persons rather than poolings of funds.
- Mutuals are collectively owned &/or controlled by their members/policyholders.
- Members/policyholders exert some control through democratic governance.
- Any profit is used for the benefit of members, sometimes redistributed to them.
- Mutuals have no external shareholders, hence their focus is long term.
- Mutuals are independent from large financial groups.
- Mutuals & P2P models share some commonalities: Mutualism 2.0 (per Swiss Re)

Concluding words

- No model is inherently superior to another.
- Advantages accrue through diversity.
- It is thus valuable to promote a pluralistic market concept.
- Yet, most rules are created for oversight of the shareholder-owned firms.
- Call for caution against destroying any successful model.
- Remind regulators/supervisors that nurturing different business forms is not incompatible with their objectives of facilitating competition.
- *‘Just as an ecosystem benefits from diversity, so the world is better off with a multitude of corporate forms’* (The Economist, 2010).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Pieter Breughel the Elder, Tower of Babel, ~1563

협동조합 공제의 포용력과 공동체 강화 역할,
제도개선 과제

CO-OP 공제 발표 (CO-OP Kyosai)

도시아키 와다 Toshiaki Wada
(일본 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
CO-OP Kyosai Chairperson)

【패널토론】 협동조합 공제의 포용력과 공동 체 강화 역할, 제도개선 과제

CO-OP공제 발표



코프공제 캐릭터 “코스케”
CO-OP kyosai

일본 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도시아키 와다(Toshiaki Wada) 이사장

CO-OP공제 소개

- 회원 생협은 일본 전국에 존재
- 일본 전체 가구 중 **39%**가 지역의 구매생협 조합원
- 지역의 구매생협 조합원수 **약 2,300만 명**
- 대학생협 조합원 수 **약 150만 명**
- 일본 생협은 원외이용 금지가 원칙으로, 생협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제 이용 불가



- ✓ 연합회는 전국 145개 구매생협과 212 대학생협으로 구성
- ✓ 가까이 있는 각 지역·대학 생협 직원이 창구



Home Delivery Service
(가정공급, 주1회)



CO-OP kyosai

생협은 소비자 스스로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설립한 곳. 생협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조합원의 참여와, 조합원의 요구로 탄생한 CO-OP 상품으로 큰 성장

196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기, 물가 급상승 시대
심각한 공해 문제, 유해 첨가물 등 문제 발생



가족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엄마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의 목소리를 현실화한 상품 개발

1971년

■ 무첨가, 무표백 밀가루



당근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당근을 먹고 싶다는 엄마들의 소박한 마음을 실현하여 탄생하게 된 캐럿 주스는 지금도 인기 상품

지금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생활을 서포트하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

전국 각지 구매생협의 2021년도 공급사업 및 매장사업 총 공급액은 **3조 엔!**

1981년

■ CO-OP 믹스 캐럿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태어나, 성장하는 CO-OP공제

소매



의료



돌봄



공제



- 전국의 회원생협에서는 안전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료사업과 복지사업** 등 조합원의 생활에 꼭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펼침
- 작년 10월부터 코프공제연합회의 회원이 된 **대학생협**에서는 구매(매점), 학생식당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커리어 지원, 멘탈 케어**도 진행
- 다른 CO-OP상품과 동일하게 CO-OP공제도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태어나 성장
- 전국의 생협은 조합원과 밀접하고 폭넓게 활동하고 있기에 CO-OP공제 또한 매장이나 가정공급 등 가까운 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솔직한 조합원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음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태어나, 성장하는 CO-OP공제

1984 《서로돕기》 탄생 ~ 시작은 조합원 간 위로금 제도 ~



1970 ~ 80년대...
 당시 일반적인 생명보험은 세대주인 남성을 위한 상품이 많아, 조합원의 대부분인 여성의 니즈에 부합하는 보장이 거의 없던 시대

이같은 상황 속에 여성과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태어난 것이 CO-OP공제

초기, 매월 400엔 정도의 저렴한 납입금으로 "커피 한 잔 값으로 서로돕기"를 캐치프레이즈로 조합원에게 입소문



◀ 당시 광고



CO-OP공제 개요 (2022년도 사업) ※ 원수(元受)공제

관할관청

후생노동청

소관법률

소비생활협동조합법

가입자 수



970만 명

공제부금 수입금



2,117억 엔

회원생협



361개 회원

공제지급금



1,528억 엔
287만 건



CO-OP공제 상품

생명공제 · 주택재해공제 · 어린이공제



주니어 코스

가입 연령: 0세~만19세 (발효일 시점)
 성별: 여성 / 남성
 보장기간: 만 30세 만기일까지

납입금 지급 내용 일부 소개	예: J1000엔 코스
월 납입금	1,000엔
질병입원, 사고(상해) 입원 (1일째부터 360일분)	일비 6,000엔
사고(상해) 통원 (사고일부부터 180일 이내, 1일째부터 90일분)	일비 2,000엔
수술 (공제사업 규약에서 정한 지급 대상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내용에 따라 금액 변경	1, 5, 10, 20 만 엔

성인 코스

가입 연령: 만 20세~만 64세 (발효일 시점)
 성별: 여성 / 남성
 보장기간: 만 65세 만기일까지

납입금 지급 내용 일부 소개	예: 성인 코스(여성) 2000엔 코스
월 납입금	2,000엔
질병 입원, 사고(상해)입원 (1일째부터 184일분)	일비 6,000엔
여성 입원 시 제비용 지원 (1일째부터 184일분)	상기 일비 + 일비 2,000엔
사고(상해)통원 (사고일부부터 180일 이내, 1일째부터 90일분)	일비 1,500엔

기타 : 고지 기준 완화 코스

※ 상기는 상품 일례 ※ 본 슬라이드의 보장 내용은 간략화된 발표용

대학생종합공제

CO-OP
대학생종합공제

CO-OP
学生総合共済

G1200엔 코스

가입 연령: 만 18세~만 34세 (발효일 시점)
 가입 조건: 대학생 및 전문대생
 성별: 여성 / 남성

납입금 지급 내용 일부 소개	G1200엔 코스
월 납입금	1,200엔
질병 입원, 사고(상해)입원 (1일째부터 360일분)	일비 10,000엔
사고(상해) 통원 (사고일부부터 180일 이내, 1일째부터 90일분)	일비 2,000엔
수술 (공제사업 규약에서 정한 지급 대상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 당 5만 엔
마음의 조기 대응 보장 (정신질환 진료를 받았을 경우)	1년 1회 10,000엔

기타: 사회초년생 코스



CO-OP공제 상품

정기 생명 공제



만 18세~만 60세 (발효일 연령) 대상이 가입 가능한 상품

성별: 여성 / 남성 공제기간: 10년 (만 85세 까지 계속 가능)

생명 보장	
사망 · 중증 장애 (질병 · 사고)	300만 엔 2,000만 엔
	500만 엔 2,500만 엔
	1,000만 엔 3,000만 엔
	1,500만 엔

입원 특약	
질병입원 · 사고(상해)입원 (1일째부터 180일분)	일비 5,000엔 일비 10,000엔
장기 입원 (270일 이상 연속 입원)	30만 엔 60만 엔
수술 (공제사업 규약에서 정한 지급 대상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내용에 따라 금액 변경	5, 10, 20만엔 10, 20, 40만 엔

신(新) 암 특약

※ 만 60세~만 70세가 가입 가능한 아이플러스도 有



※ 본 슬라이드의 보장 내용은 간략화된 발표용

CO-OP공제
ぞとあい
종신의료



가입 연령: 0세~만 70세
 성별: 여성 / 남성
 보장기간: 종신

특징
① 비갱신 납입금으로, 평생 입원 및 수술 보장
② 입원 1일째부터 180일분까지 보장 장기 입원 및 재입원 대비 보장
③ 중증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납입면제

종신 공제

CO-OP공제
ぞとあい
종신생명
<저해약환급금형>



가입 연령: 0세~만 70세
 성별: 여성 / 남성
 보장기간: 종신

특징
① 비갱신 납입금으로, 평생 생명 보장 저해약 환급 상품이므로 매월 납입 부담은 줄이면서 만일에 대비 가능
② 5개 코스, 4개 납입 지급 기간 등 선택 가능
③ 리빙니즈 공제금* 지급 (* 피보험자가 여명 6개월 판정을 받을 경우의 사망지급금 일부에 대한 선지급금)

기타 보장 (국민공제CO-OP)



CO-OP
화재공제

자연재해
공제

마이카공제

65세 이상 시니어 대상 상품



CO-OP공제의 재난 지원



“이상 재해 위로금” 지급 주요 실적 (2023년 3월 20일 현재)

- 2016년
구마모토, 오이타 지진 9,852가구 / 2억 3,744만 엔
도토리현 중부지진 549가구 / 669만 엔
- 2018년
오사카 북부 지진 2,766가구 / 3,138만 엔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 지진 1,120가구 / 1,884만 엔
- 2019년
야마가타현 해역 지진 99가구 / 107만 엔
- 2021년
후쿠시마 해역 지진 2,495가구 / 3,463만 엔
미야기현 해역 지진 234가구 / 326만 엔
- 2022년
후쿠시마 해역 지진 4,613가구 / 6,517만 엔



동일본대지진 - 전국 생협의 지원



2011년 동일본대지진 지진피해 발생 후 1개월간

- 전국의 생협에서
- 지원자 총 3,217명
 - 배송차량 총 829대
- 가 지원 활동에 참가



동일본대지진 - 전국의 생협과 함께한 가입자 방문활동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일본 전국의 회원 생협과 CO·OP공제연합회가 공동으로 방문활동 실시

전국에서 미야기 생협에 7주간, 41개 생협, 217명이 지원 활동에 참여하여 17,990명의 조합원 가정을 방문



동일본대지진 - 정부 평가

후생노동성 평가

“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구입, 의료, 공제 등 공적인 사명을 책임지는 생협은 일시적으로 기능 불능 상태였던 지자체나 지역 조직을 대체하는 주체 중 하나로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략) 생협은 긴급 의료나 구호물품의 공급에서부터 방문활동, 자원봉사를 통한 심리 케어와 커뮤니티 재생, 구매력 및 상품 기획력을 활용한 산업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력을 가진 조직이다. (동일본대지진에서 보여준) 이러한 포괄적 대응은 생협과 그 연합체의 특징점이 발휘된 중요한 공헌이라 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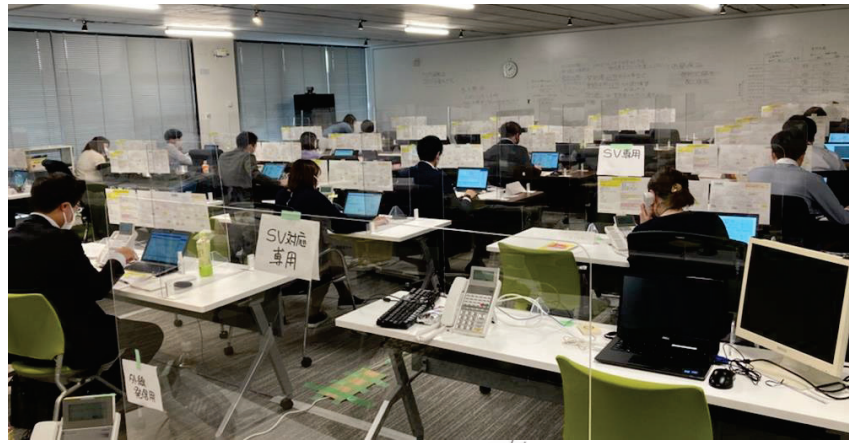


COVID-19 대응

CO-OP공제 코로나 관련 지급 금액

사업연도	지급건수	지급금액
2020년	1.4만 건	6.1억 엔
2021년	10.3만 건	62.3억 엔
2022년	145.8만 건	810억 엔

보험 납입금 유예 기간 연장 실시



조합원의 목소리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 공제금을 받았습니다.
40도 넘게 열이 나서 아파했고, 치료 기간과 연휴가 겹쳐서 여름방학 계획이 모두 백지화 되었습니다. 저(엄마)와도 격리해야 해서 얼마간 떨어져 생활했기 때문에 아이는 매일 밤을 울며 지새웠습니다. 이번에 받은 공제금은 저희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조합원 간의 서로돕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낸 납입금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과거 사업연도 지급 공제금 금액

사업연도	지급건수	지급금액
2020년	129만 건	674억 엔
2021년	144만 건	724억 엔
2022년	287만 건	1528억 엔



COVID-19 대응

의료기관 기부 프로젝트, 대학생 기부 프로젝트 실시



공제의 가치

공제와 보험: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구조

공제와 보험의 차이

○ 운영

- * 법적 근거 차이
- * 공제 원외이용 금지(일률 납입금, 일률 보장)
- * 이용자와 출자자 일치

○ 이익 환원

- * 환급금 / 계약자 배당금

공제 사업은 조합원의 것
이용자와 출자자(조합원이 출자하는 생협)가 일치하기
때문에 진정한 조합원을 위한 사업 가능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제1조】 이 법률은 국민의 자발적 생활협동조직의 발달을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생활문화 향상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 조합은 전개하는 사업에 따라, 그 조합원 및 회원(이하 ‘조합원’으로 총칭한다)에게 최대의 봉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CO-OP공제의 특징① 조합원의 목소리

CO-OP공제연합회 관련 조직

소비생활협동조합법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성과 어린이 상품 라인업 강화

지병이 있는 아이들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합원의 바람을 생협 직원이 전달하여 'J1900엔 코스'가 개발

Staff's Voice!



지병이 있는 아이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 완화 필요!



《서로돕기》J1900엔 코스 개발



- 「현재 입원 여부」, 「의사로부터 앞으로 1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을 권유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와 같이 완화된 고지만으로, 지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도 건강한 아이들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장
- 이후 만기 계속, 또는 전환 절차를 밟으면 건강 상태에 관계 없이 최장 85세까지 보장 지속 가능

생협 직원이 가정공급으로 각 조합원 자택을 방문하면서 당시 가입 조건으로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없는 조합원이 많음을 인식

⇒ 한층 더 완화된 가입조건이 필요하다는 직원의 목소리가 전국의 생협 직원 및 조합원으로 확대되어 상품 개정으로 결실



CO-OP공제의 특징②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환원

- 매년 결산을 통해 지불 공제금과 사업경비를 뺀 납입금 중 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 환급금으로 가입자에게 환원
- 주력 상품인 《서로돕기》는 연령 및 건강위험 정도에 상관 없이 코스마다 일률적으로 환급금 환원 (정기 생명공제 상품의 가입 코스는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상이)

2021년도까지 환급금 《서로돕기》 일부 코스 예

	2019	2020	2021
V2000	21.3%	21.2%	22.5%
L2000	22.7%	22.5%	20.5%
J1000	16.4%	16%	3.2%

※ V2000, L2000은 성인 코스, J1000은 주니어 코스

인터넷 신청으로 바뀌고 나서 더 편리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해 통원만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어 갑작스럽게 다칠 때 고마운 존재입니다.

큰 지진이 다시 왔습니다. 가구는 눈에 띄게 손상되지 않았지만, 식기 대부분이 깨지고 가전 제품도 새로 사야 해서 침울했어요. 하지만 공제에서 보내준 응원 엽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진 몇 장만 보냈는데 위로금이 지급됐구요.

청구 시 서류 작성법을 몰라 라인 채팅으로 질문했더니 바로 답장을 주셔서 좋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전화 상담은 어려웠기 때문에 도움이 컸습니다.

우리의 존재 의의 · 가치 = 조합원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것
CO-OP공제는 앞으로도 전국의 지역생협과 협동하여 조합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합원과 지역사회에 계속 기여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공제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청구하면서 보니 고정 도구 장착 일수가 개정되었더군요.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객만족도
1위
 (통산7번째)
 CO-OP공제

2022년 일본고객만족도지수
 생명보험부문



2022年度JCSI(日本版顧客満足度指数) 調査結果 生命保険部門

인터넷으로 신청했더니 종이로 신청 서류를 내는 것보다 보장 개시 및 가입이 빨라서 좋았다.



- 감사합니다 -

分科会セッション： 協同組合共済における包容力と コミュニティへの寄与、制度的な課題

CO・OP 共済のご報告



CO-OP kyosai

CO・OP 共済キャラクター
コーすけ

コープ共済連
和田 寿昭

CO・OP 共済のご紹介

- 日本の全都道府県に
会員生協がある
- 日本の全世帯のうち、
39%が地域購買生協の組合員
- 地域購買生協の組合員数
約2,300万人
- 大学生協の組合員数
約150万人
- 日本の生協は、員外利用が禁止
されており、生協に加入しない
と共済等を利用できない



145の各地の地域購買生協と212の大学生協でコープ共済連ができています。窓口となるのは、普段から組合員の近くにいる各地域・各大学の生協職員。

Supermarkets



Weekly Delivery Service

CO-OP kyosai

消費者自らが豊かな生活を求めて設立した生協、生協事業・活動への組合員参加と組合員の声から作られたCO・OP商品で大きく成長

1960s

戦後復興から高度成長期、物価が急上昇した時代。公害問題も深刻化しており、有害な添加物等も問題視されていた。



家族の健康、安全・安心を願った母親たちを中心とする消費者の声を実現した商品を開発した。

1971

■無駄な添加物を入れないで作った無漂白小麦粉



にんじん嫌いの子どもに何とかにんじんを食べさせたい！という母親たちのささやかな願いを実現した。今日も大人気のおいしいキャロットジュース

1981

■CO・OPミックスキャロット

現在も組合員の声を聞きながら、食品から生活用品まで、生活を支え、彩る多種多様な商品を提供し続けています。

全国の地域購買生協の2021年度の宅配や店舗の総供給高は**3兆円！**



組合員の声から生まれ、成長するCO・OP共済

小売



医療



介護



共済



■安全・安心の食品・生活用品の提供だけでなく、全国の会員生協では、**医療事業**や**福祉事業**等、組合員のくらしに欠かせない、様々な事業を行っています。

■10月からコープ共済連の会員となった**大学生協**では、大学での購買・カフェテリア事業等だけでなく、キャリア支援やメンタルケア等、様々な取り組みを行っています。

・ほかのCO・OP商品と同様に、CO・OP共済も組合員の声から生まれ、成長している。

・全国の生協で、組合員に密着した幅広い活動をしているからこそ、CO・OP共済にも宅配や店舗など、組合員の暮らしに身近なところで加入することができ、率直な組合員の声を集めることができる。



組合員の声から生まれ、成長するCO・OP共済

■1984 《たすけあい》が誕生
 ～はじまりは、組合員同士の見舞金制度～



◀当時の広告



1970～80年代…

一般的な生命保障は世帯主である男性向けの商品が多く、組合員の多くを占める女性のニーズに合った保障がほとんどない状態でした。

そのような状況の中、女性と子どもに焦点をあてて組合員の声に応じて誕生したのがCO・OP共済なのです。

初期は、月額400円と手ごろな掛金で、「コーヒー1杯の助け合い」をキャッチフレーズに、組合員同士の口コミで広がりました！



CO・OP共済概況 (2022年度事業) 元受共済

管轄省庁

厚生労働省

根拠法

消費生活協同組合法

加入者数



970万人

受入共済掛金



2,117億円

会員生協



361会員

支払共済金



1,528億円

287万件



CO・OP 共済の商品

生命共済・住宅災害共済・こども共済



ジュニアコース

加入できる年齢：0歳～満19歳（発効日時点）
性別：女性／男性
保障期間：満30歳の満期日まで

大人向けコース

加入できる年齢：満20歳～満64歳（発効日時点）
性別：女性／男性
保障期間：満65歳の満期日まで

掛金・お支払い内容の一部紹介	例：J1000円コースの場合
月掛金	1,000円
病気入院・事故（ケガ）入院（1日目から360日分）	日額 6,000円
事故（ケガ）通院（事故日から180日以内。1日目から90日分）	日額 2,000円
手術（共済事業規約に定める支払対象手術を受けた場合） 手術の内容により金額が変わります	1・5・10・20万円

掛金・お支払い内容の一部紹介	例：大人向けコース（女性）2000円コースの場合
月掛金	2,000円
病気入院・事故（ケガ）入院（1日目から184日分）	日額 6,000円
女性入院時諸費用サポート（1日目から184日分）	上記の日額にプラス 日額2,000円
事故（ケガ）通院（事故日から180日以内 1日目から90日分）	日額 1,500円

その他：告知緩やかコース

※本スライドの保障内容は登壇用の内容として簡易化しています。加入検討用の内容ではございません。

※上記記載のコースは一例です

学生総合共済

CO-OP 学生総合共済

G1200円コース

加入できる年齢：満18歳～満34歳（発効日時点）
加入条件：大学生・専門学校生
性別：女性／男性

掛金・お支払い内容の一部紹介	G1200円コース
月掛金	1,200円
病気入院・事故（ケガ）入院（1日目から360日分）	日額 10,000円
事故（ケガ）通院（事故日から180日以内。1日目から90日分）	日額2,000円
手術（共済事業規約に定める支払対象手術を受けた場合）	1回の手術につき5万円
こころの早期対応保障（精神疾患の診療を受けたとき）	1年につき 1回 10,000円

その他：新社会人コース



CO・OP 共済の商品

定期生命共済



満18歳～満60歳（発効日の年齢）の方が加入できるプラン

性別：女性／男性
共済期間：10年（満85歳まで継続可能）

生命保障

死亡・重度障害（病気・事故）	300万円	2,000万円
	500万円	2,500万円
	1,000万円	3,000万円
	1,500万円	

+

入院特約

病気入院・事故（ケガ）入院（1日目から180日分）	日額 5,000円	日額10,000円
長期入院（270日以上連続した入院）	30万円	60万円
手術（共済事業規約に定める支払対象手術を受けた場合） 手術の内容により金額が変わります	5・10・20万円	10・20・40万円

+

新がん特約

※《あいぶらす》には満60歳～満70歳の方が加入できるプランもございます。

※本スライドの保障内容は登壇用の内容として簡易化しています。加入検討用の内容ではございません。



65歳からのシニア向け保障の商品もあります。

終身共済



ずっとあい 終身医療

加入できる年齢：0歳～満70歳
性別：女性／男性
共済期間：終身



ずっとあい 終身生命〈低解約返戻金型〉

加入できる年齢：0歳～満70歳
性別：女性／男性
共済期間：終身

特徴
① ずっと変わらない掛金で、一生涯の入院・手術を保障
② 1入院1日目から180日分まで保障 長引く入院や再入院に備えてしっかり保障します。
③ 重度障害状態になった場合、それ以降の掛金はいただきません。

特徴
① ずっと変わらない掛金で、一生涯の生命保障をご用意 低解約返戻金型なので、月々の掛金負担を抑えつつ万が一に備えることができます。
② 5つのコース、4つの掛金払込期間のバリエーションから選べます。
③ リビングニーズ共済金があります。

その他の保障（こくみん共済coop）



CO・OP 共済の災害支援



昨今の主な異常災害見舞金

お支払い金額(2023年3月20日現在)

■2016年

熊本・大分地方の地震 9,852世帯に2億3,744万円

鳥取県中部地震 549世帯に669万円

■2018年

大阪北部地震 2,766世帯に3,138万

北海道胆振東部地震 1,120世帯に1,884万円

■2019年

山形県沖を震源とする地震 99世帯に107万円

■2021年

福島県沖を震源とする地震 2,495世帯に3,463万円

宮城県沖地震で234世帯に326万円

■2022年

福島県沖を震源とする地震で4,613世帯に6,517万円

 **CO-OP kyosai**

東日本大震災 全国の生協の支援



2011年 東日本大震災

震災から1か月強で

全国の生協から

・延べ3,217人の支援者

・延べ829台の配送車

が支援活動に参加

 **CO-OP kyosai**

東日本大震災 全国の生協と力を合わせた契約者訪問活動



2011年 東日本大震災

日本全国の会員生協とコープ共済連共同で訪問活動を実施。

宮城県のみやぎ生協には全国から7週間にわたり41生協217名が支援にかけつけ、17,990名の組合員を訪問。

 CO-OP kyosai

東日本大震災

厚生労働省からの評価

「過度な利益を追求せず、共同購買や医療、共済等の公的な使命を担う生協は、一時的に機能しなくなった行政や地元組織を代替する主体の一つとして、十分な資格と能力を有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中略)生協は緊急医療や災害支援物資の供給から訪問活動やボランティア等による心のケアやコミュニティの再生、購買力・商品企画力を活かした産業の復興まで、総合的な対応力を持つ組織であり、このような包括的な対応は、生協とその連合体の特長を活かせる重要な貢献であると考えられる」

 CO-OP kyosai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対応

CO・OP共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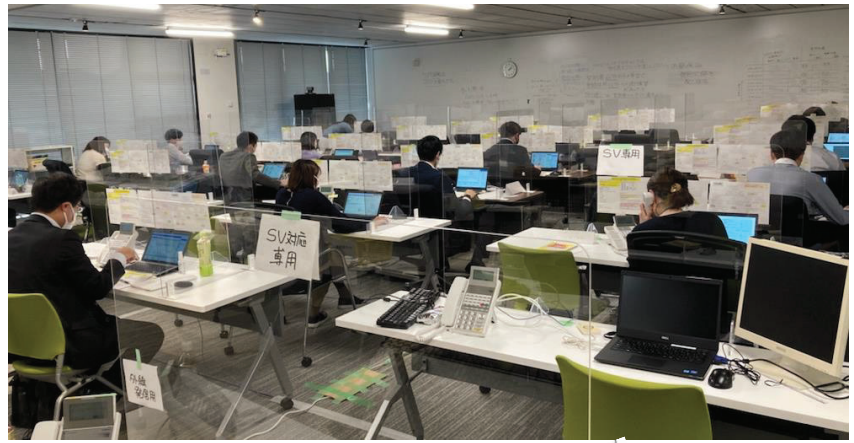
新型コロナウイルス関連症に関連するお支払い金額

事業年度	支払件数	支払金額
2020年	1.4万件	6.1億円
2021年	10.3万件	62.3億円
2022年	145.8万件	810億円

掛金払込猶予期間の延長も実施

(参考) 過去の事業年度の支払共済金の金額

事業年度	支払件数	支払金額
2020年	129万件	674億円
2021年	144万件	724億円
2022年	287万件	1528億円



Member's Voice!

今回子どもがコロナで共済金をいただきました。40°C以上の発熱など身体的に辛そうで、療養期間がお盆にかぶり夏休みのイベントがすべて白紙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私（母）とも隔離でしばらく離ればなれで生活したので、毎晩泣いていました。この共済金を子どもたちが何か楽しめることに使えたらと思っています。組合員の助け合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度は私の掛金が他の人の助けになったらいいなあと思います。

CO-OP kyosai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対応

医療機関への寄付プロジェクトや
学業継続が厳しくなった学生への
寄付プロジェクト等の実施



CO-OP kyosai

共済の価値

共済と保険：一般消費者からみた場合の、仕組みはほぼ同じ。

共済と保険の相違の一例

○運営面

- * 根拠法の相違
- * 共済の員外利用の禁止（一律掛金、一律保障）
- * 利用者と出資者が一致している

○利益の戻し方

- * 割戻金/契約者配当金

共済事業は、組合員のもの。
利用者（組合員が出資する生協）と出資者（組合員）が一致しているからこそ、真に組合員の為の事業をすることができる

消費生活協同組合法

第一条

この法律は、国民の自発的な生活協同組織の発達を図り、もって国民生活の安定と生活文化の向上を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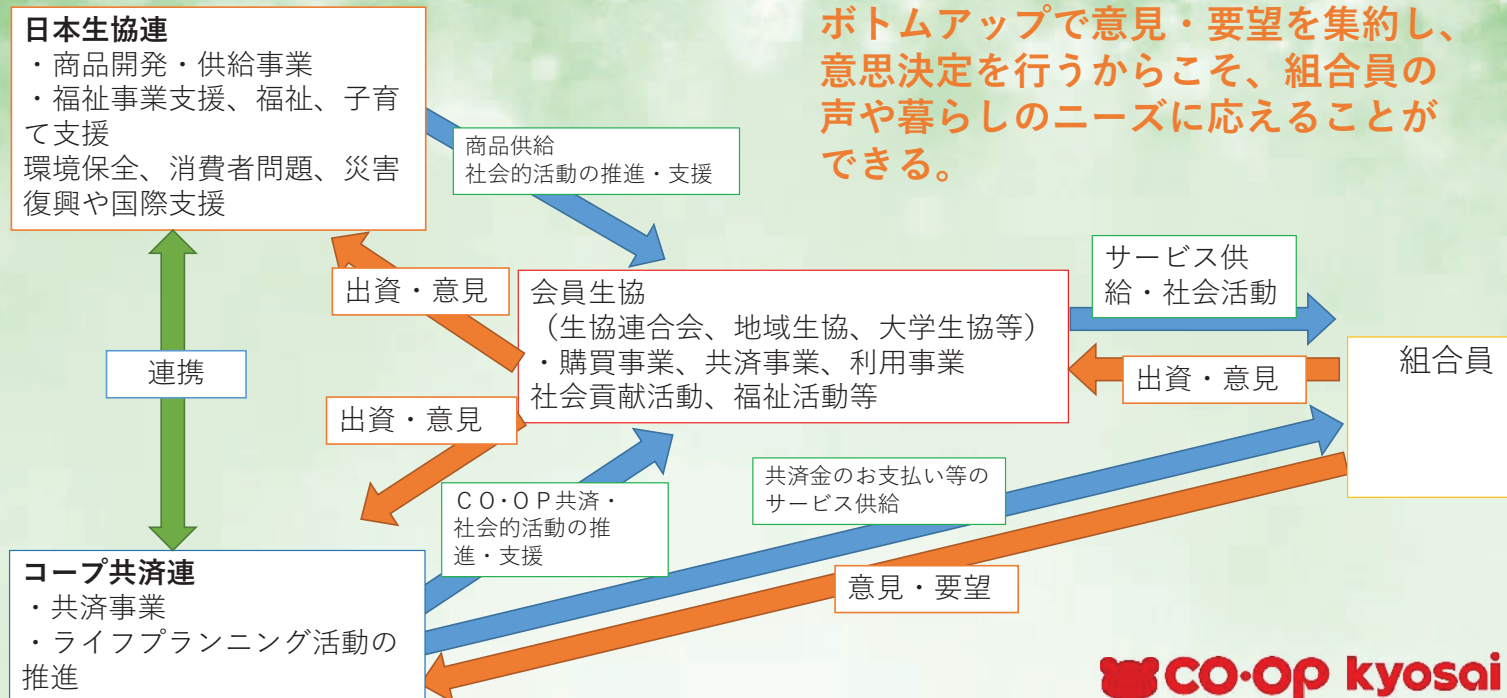
第九条

組合は、その行う事業によつて、その組合員及び会員（以下「組合員」と総称する。）に最大の奉仕をすることを目的とし、営利を目的としてその事業を行つてはならない。



CO・OP 共済の特長① 組合員の声 コープ共済連と関連組織

消費生活協同組合法



組合員の声から、女性と子どもに強いラインナップへ

持病のある子どもにも保障を。
組合員の願いを生協職員が広め、保障（J1900円コース）を開発

Staff's Voice!



持病のあるお子さんも
加入できるよう、加入
条件の緩和を！



生協職員が宅配をしていたときに、当時の加入条件ではコープ共済に加入できない組合員さんが多くいた。
加入条件のさらなる緩和を求めて声を上げ、全国の生協の職員や組合員に広がり、改定につなげた。

・《たすけあい》J1900円コースを開発。

・「現在入院中かどうか」「現在医師から「今後1年以内の入院・手術をすすめているか」の告知のみで、病気に苦しむお子さんも、告知該当なしの子どもとほぼ同様の保障内容を受けられる。

・その後も満期継続や移行の手続きを行えば、健康状態にかかわらず最長で85歳まで保障を継続することが可能。



CO-OP kyosai

CO・OP 共済の特長② 剰余が出たら組合員に還元

・毎年の決算後、お預かりした掛金から、お支払いした共済金と事業経費等を差し引き、剰余金が発生した場合、割戻金として加入者に還元。

・主力商品《たすけあい》ではコースごとに一律で割戻金を還元。年齢や健康リスクの高さに依らない。

（定期生命共済の商品は加入コース、年齢、性別等によって異なります）

21年度までの割戻金《たすけあい》一部コースの例

	2019	2020	2021
V2000	21.3%	21.2%	22.5%
L2000	22.7%	22.5%	20.5%
J1000	16.4%	16%	3.2%

※V2000、L2000は大人向けコース、J1000はジュニアコース。

Web手続きになってから、さらに利便性が増し、感謝しています。ケガ通院だけでも保障していただけるので、思わぬケガの際には本当にありがたい。

再びの大きな地震。家屋に目に見える損傷は少なかったものの、食器の殆どが壊れ、家電も多くを買い替えることになり落ち込んでいたが、共済さんから葉書をいただき励まされた。数枚の写真を添付しただけでしたが、お見舞金を頂きました。

請求の際の書類の書き方が分からずLINEのチャットで質問したところ、すぐ返信を貰えてよかった。小さい子がおり電話は手間がかかるため助かりました。

私たちの存在意義・価値＝組合員の声に応えること
CO・OP共済は、これからも全国の地域生協と協同し、
組合員の声を聞き、組合員や地域社会に貢献し続けます。

息子が足を骨折したのですが、思ったより多くお支払い頂きました。今回の請求で固定具装着日数の改定があったことを知りました。大変助かります。



ネットで申し込みだと紙の申し込みより、保障開始が加入が早くスタートできてよかった。

CO-OP kyosai

Thank You

T52. 회복력 트랙 - 딥다이브 / 5.25 (목) 15:00



황재목 발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장

Hwang, Jaemok
Director of Planning Mutuals,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김형탁 진행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Kim, Hyungtag
Secretary General, ROH HOE-CHAN Foundation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로 출발해 14년 만에 가입자 150만명, 기금 20조원 규모로 성장한 '노란우산공제'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 봅니다.

노란우산공제 설립과 성장 과정

5.25 (목) 16:00~17:20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 이 세션은 i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iCOOP 후원으로 제공됩니다.

iN라이프케어 icoop

회복력 - 딥다이브

노란우산공제의 설립과 성장

황재목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장)

노란우산공제의 설립과 성장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장 황재목

KBIZ 중소기업중앙회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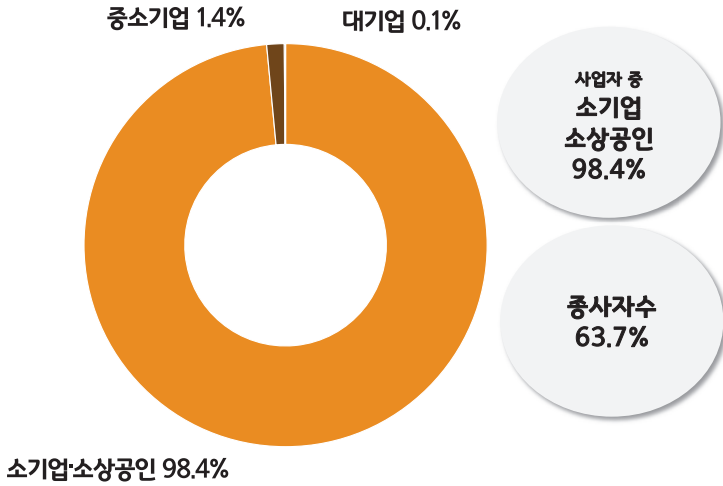
1. 노란우산공제 소개
2. 설립 과정
3. 성장 과정
4. 주요 파트너십 및 운영 주안점
5. 앞으로의 계획

KBIZ 중소기업중앙회

1. 노란우산공제 소개

» 설립 배경

소기업·소상공인 비중



Source: 2020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 중소벤처기업부

•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3층	개인연금		
2층	퇴직연금	주1)	지역연금
1층	국민연금		
0층	기초노령연금(무기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직역연금자

주1) 음영-다층보장체계의 사각지대 < 출처 : 효율적 다층노후소득보장시스템을 위한 국민연금 구조개선 방향, 보험연구원 >

“일반 근로자와 달리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 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체계가 취약”

KBIZ 중소기업중앙회

1. 노란우산공제 소개

» 설립 목적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마련

도입 배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006)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보장**”을 목적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

법적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소상공인 공제사업의관리·운영)
~제121조(보험업법의적용배제)

제도의 목적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폐업·퇴임·노령화·사망**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 재기, 생활안정 지원**(2007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마련) 제도**로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 역할

제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감독
중소기업중앙회 운영

» 제도 소개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사치향락업종 제외)

가입기간

- 폐업 등 지급사유 발생 시 까지 (노령의 경우 60세 이상&10년 납)

부금납입

- 월 5 ~ 100만원 (1만원 단위 선택)

가입채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
- 금융기관·공제상담사
- 온라인(스마트앱)

KBIZ 중소기업중앙회

1. 노란우산공제 소개

»» 상품혜택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구분	사업(또는 근로) 소득금액	최대 소득 공제한도	예상세율	절세액
개인, 법인	4천만원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1,155,000원
법인	4천만원초과 567만원이하			
개인	1억원초과	200만원	38.5%~49.5%	770,000원~990,000원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연 복리이자로 목돈마련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신규가입시 월1~3만원 / 14년간 지원)

 다양한 복지혜택(휴양시설등)

»»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

- 폐업(법인의 폐업, 해산 포함) 및 사망
-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자의 지위에서의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방법

- 지급형태 : 일시금 지급 원칙(일정 조건 충족시 분할 지급 가능)
- 수급권자 : 계약자 본인, 사망 시에는 상속인(양도, 압류, 담보 금지)

»» 해약금 지급

지급사유

- 계약자 본인의 희망시
- 부금납부 3회 이하시 납부부금의 80%, 부금납부 4~6회 이하시 납부부금의 90% 환급

지급내용

- 가입 6개월 이내 일반해약시 원금손실 일부 발생
- (소득공제 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부과(16.5%))
- 일반해약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 환수

KBIZ 중소기업중앙회

2. 설립 과정

- 상공부, 『소기업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소기업 공제 제도 도입 건의

- 민주자유당, 『2000년대를 향한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심포지엄』에 소기업공제제도 도입 건의

- 상공부, 소기업공제제도 도입계획 발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입법 발의 (김기현 의원 대표 발의)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입법 공청회 개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 소상공인공제사업 추진 TF팀 구성

1990

1996-7

2006

2007

- 소기업복지공제제도의 도입 건의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간담회)

- 소규모기업 복지공제제도 도입 건의 (국회 경쟁력강화 특위와의 간담회)

- 소기업공제제도의 도입 건의 (통상산업부장관 초청 간담회)

- 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입법 발의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 소상공인공제팀 신설

- 공제 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출범 (9월 15일)

KBIZ 중소기업중앙회

3. 성장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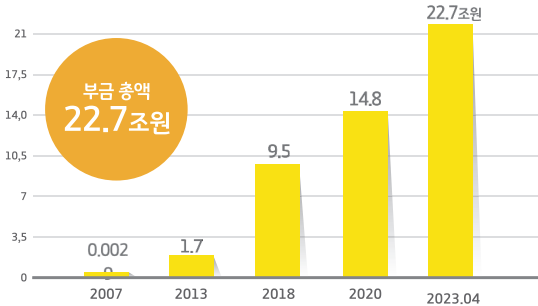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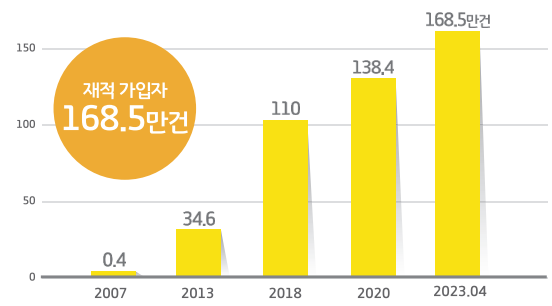
KBIZ 중소기업중앙회

3. 성장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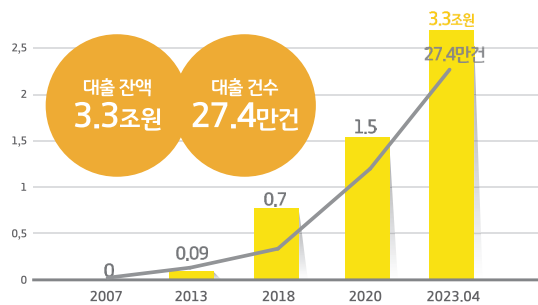
부금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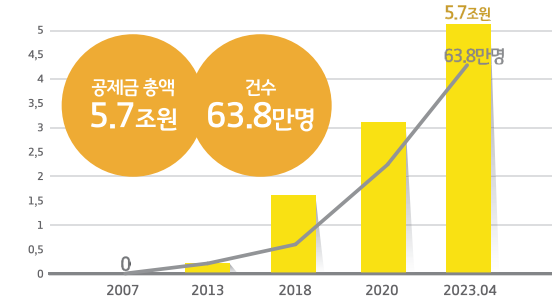
가입현황



대출잔액



공제금 지급액 및 건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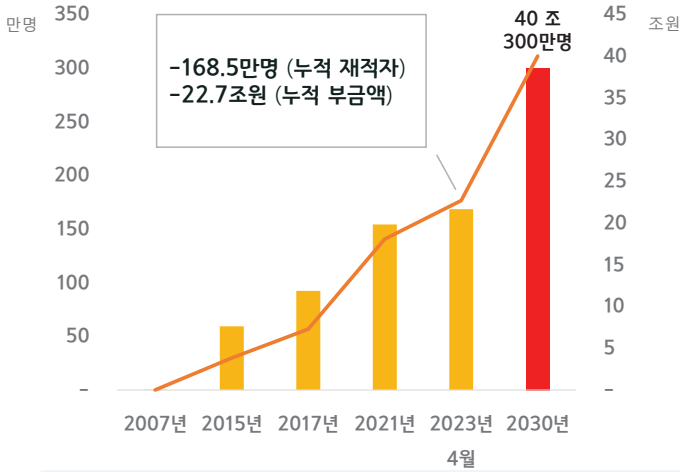


KBIZ 중소기업중앙회

3. 성장과정

지난 15년, 노란우산은 6대 공제로 빠르게 성장

노란우산 누적 가입자 및 부금액 추이



2030년, 누적 재적자 300만명, 누적부금액 40조원 목표

노란우산의 성공요인

정책에 기반한 회원 증가

- 2007 노란우산 출범
- 2010 소득공제 혜택 영구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2016 희망장려금 지원(서울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월 1~5만원의 희망장려금 지급
소득공제 한도 확대(300만원 → 500만원)
- 2020 •예금 금리보다 높은 공제이율 적용
•코로나 시기에 지자체 희망장려금 확대
現 17개 광역 지자체로 확산

내실 있는 운영

- •기 구축된 지역조직과 시스템 인프라로 운영비 절감
- •협력 파트너십 체결(사중은행, 지방은행 등)

KBIZ 중소기업중앙회

4. 주요 파트너십 및 운영 주안점

주요 파트너십

- 중소벤처기업부
- 노란우산 관리감독 부처 및 제도개선을 위한 협력 수행
- 코로나19 시기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중앙회 상호 협력을 통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

지자체

- 노란우산 장려금 지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월1~3천원 1년간 지원)

금융 기관

- 15개의 금융 기관과 가입 유치 업무 협약 체결
(하나, 국민, 신한, 기업, 우리, 우체국, 전국저축,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 수협, 새마을금고)
- 기업은행과 'ESG 동반 성장 금융지원' MOU 체결
(노란우산 가입고객대상 대출금리감면)

운영 주안점

-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화
- 안정적인 공제기금 운영
- 사회적 안전망 기능 강화
- 자산운용수익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 혜택 증진



가입자와 함께 성장하는



KBIZ 중소기업중앙회

5. 앞으로의 계획

노란우산의 질적 성장을 위한 과제

복지 서비스 강화

- 1 노란우산 복지 플라자 운영**
 - 지역 별로 특화사업 추진
 - 레저, 컨벤션 등 공간 기반 오프라인 서비스
- 2 온라인 복지 플랫폼 구축**
 - 가입자간 협동과 상생 플랫폼
 -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허브 역할
- 3 PLCC 복지카드 개발**
 - 소상공인 특화 혜택과 회원증 기능
- 4 수익형 자회사 설립(리조트, 실버타운 등)**
- 5 회원 간 제휴(멤버십)를 통한 상호부조**
 - 회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멤버십 포인트 등 개발 (벤치마킹: 지역화폐, L 포인트)

<신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신규 서비스	선호도(5점 만점)
가입자 전용 카드 혜택	4.1점
종합복지지원센터 이용	4.0점
가입자 전용 휴양시설 이용	3.9점
가입자 온라인 커뮤니티	3.8점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3.6점

자료: PwC, 2021년 노란우산 고객 복지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고서

전문적 자산운용

- 1 전문인력의 내재화**
 - 전문인력을 적극 영입
 - 자산 운용의 전문성 강화
- 2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
 - 주식, 채권 외에 대체 투자 확대
- 3 금융과 마케팅 확대**
 - 부가상품 개발 등 금융 기능 확대
 -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시장 확장
- 4 신규 수익사업 개발**
 - 사전 테스트를 통한 신규 사업 추진

KBIZ 중소기업중앙회

- Q&A -



[SFF X H-ESG포럼] 5.26 (금) 11:00



박성훈 발표

CSES 사회적가치연구원 S-Lab 실장

Park, SeongHoon
Director, S-Lab, CSES



박은경 진행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 나은사회연구센터장

Park, EunKyung
Director, Better Society Research Center,
HERI

사람(H)중심 ESG를 지향하는 [H-ESG포럼 : 전환을 위한 대화]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지식허브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ESG 경영의 부상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사회혁신과 지속가능성의 토대가 되는 ESG가 제도와 규제를 넘어 규범과 프랙티스,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모임입니다.

사회적금융포럼과 H-ESG가 함께 준비한 이번 협력 세션에서는 사회적가치연구원 박성훈 실장을 모시고 사회적 가치 경영에 관한 다양한 논점을 짚어 봅니다. 기업 경영과 사회 시스템에 사회적 가치를 접목하려는 목적으로 그동안 진행해 온 여러 가지 실험과 제안, 시도에 관해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SK CSES 사회적 가치 연구 동향

5.26 (금) 11:00~12:20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 이 세션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Hankyoreh Economy & Society Research Institute

SFF x H-ESG포럼

SK CSES 사회적 가치 연구 동향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S-Lab 실장)

2023 사회적 금융 포럼

SK CSES 사회적 가치 연구 동향



박성훈 실장

seonghoon@cses.re.kr



사회적가치연구원 (CSES)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Vision

사회적 가치/ 가치 측정

전문 연구기관

SOCIAL VALUE HUB

(<http://svhub.co.kr>)

오늘 다룰 내용

- 1 **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 SPC)**
- 2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 3 ESG 연구

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 SPC)

SK는 증폭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성과 비례 인센티브' 제안

증폭되는 사회 문제

사회문제 해결 속도와 양 대비
문제 발생 정도가 더 심각

성과 비례 인센티브 제안

2013년 다보스 포럼
패널 토론 (최태원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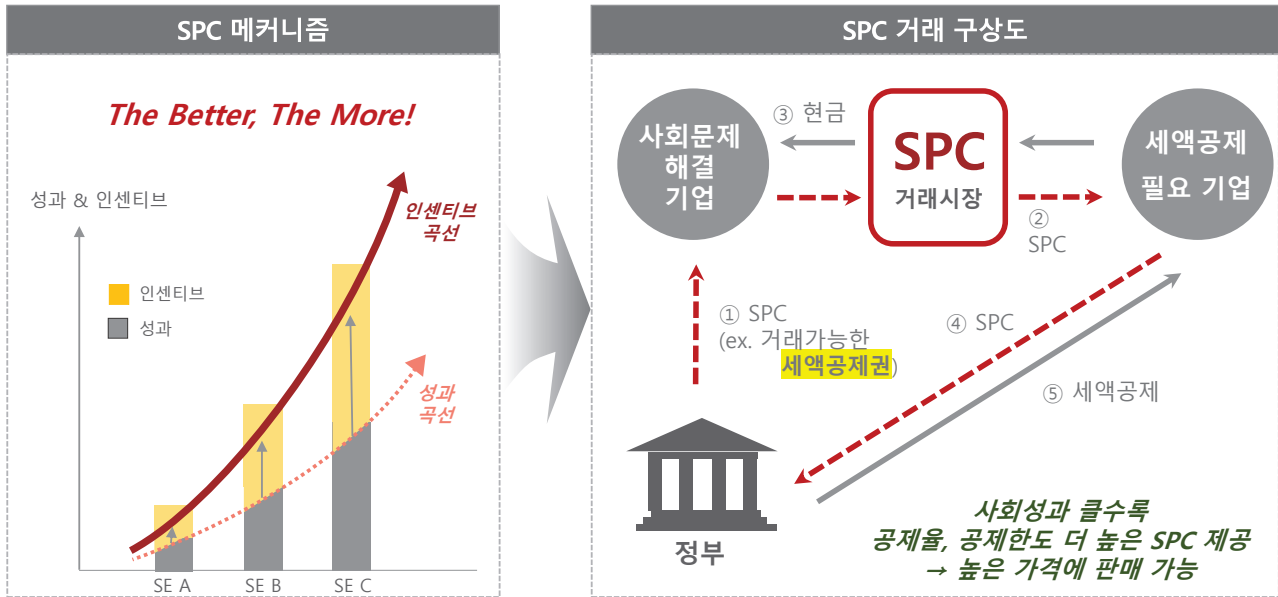
2014년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 출판

**사회문제를 해결한
성과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주면
동기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이다.**

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 SP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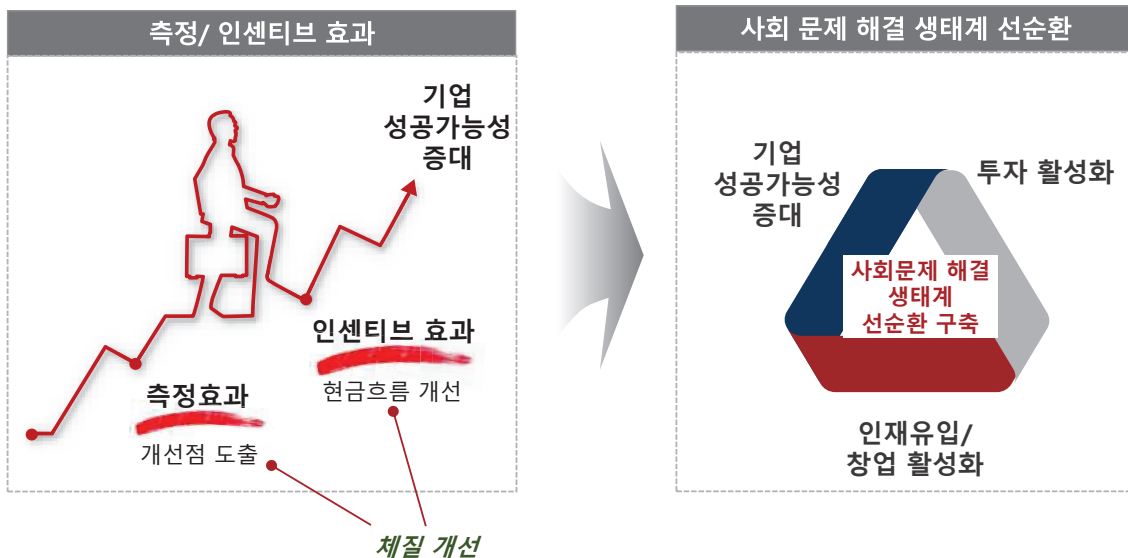
SPC는 기업의 사회성과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거래가능한 유가증권.

'The Better, The More' 메커니즘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참여 거래시장 제안



SPC의 효과

측정/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고, 성공가능성을 높여
투자/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사회 문제 해결 생태계의 선순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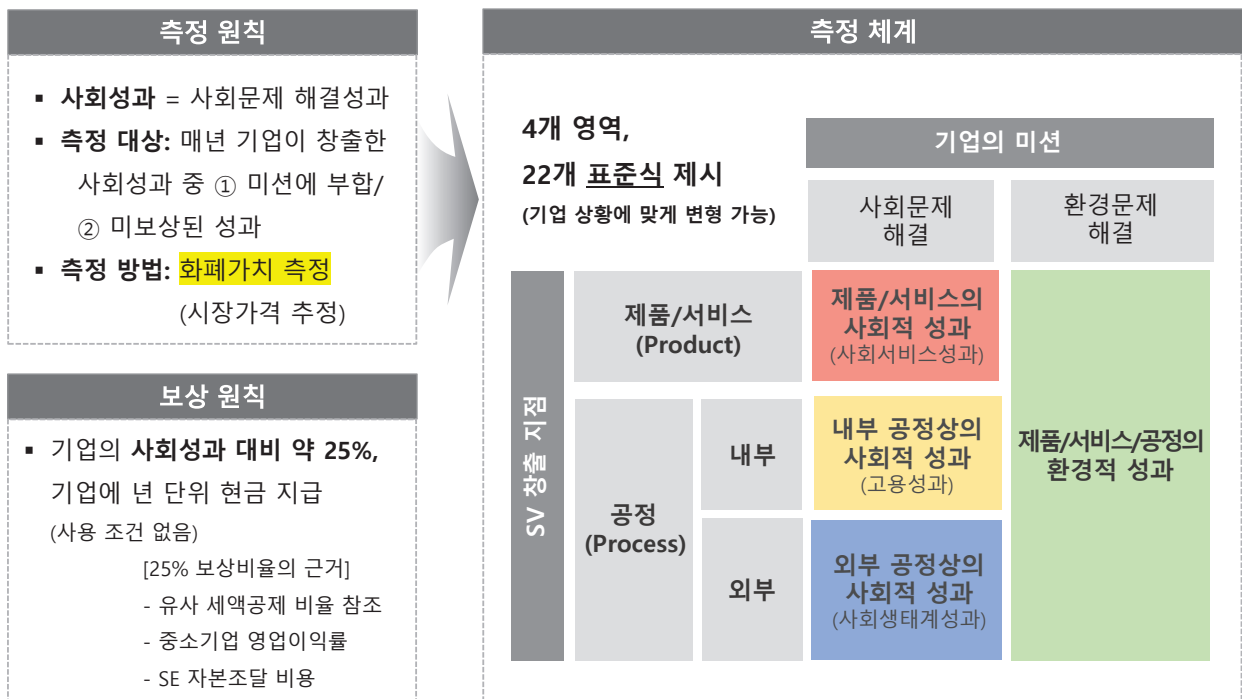
SPC 현장 실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 성과 비례 보상을 정책제안 하기 위해서는 ① '사회성과 측정 체계' 개발,
 ② 인센티브의 효과성 실험이 필요하여 사회적 기업(SE)을 대상으로 '15년 정책 실험 시작'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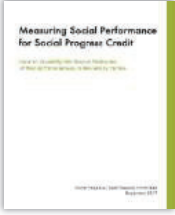
'15년 선발된 44개 SE를 모델로 '사회성과 화폐가치 측정 체계 개발'. 성과 대비 약 25% 보상 중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측정

'15년 측정 매뉴얼 공개,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 개발하여 참여기업 측정 중


참여기업 특성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체계

- '15년 매뉴얼 공개
 - 약식 버전/ Full 버전
 - 한/영/중어 (약식 버전)
- 사회성과인센티브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관련 학술연구 학술지 게재 (가톨릭대 라준영 교수, 한국사회가치평가감수진이사 등)


자동화된 측정 시스템 (SPAS, Social Progress Appraisal System)



사회성과인센티브 웹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측정 시뮬레이션도 가능



참여기업이 직접 Raw Data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성과 계산



측정 결과는 pdf 리포트로 다운로드 가능

[Raw Data 예시]
(취약계층 고용 성과 입력 예)

- 취약계층 개별 ID 입력(의명보장)
- 개별 취약계층 유형 선택
- 개별 중증/경증 등 부가유형 선택
- 성별
- 연령 (연령에 따라 인정범위 다름)
- 근속년수 (근속년수에 따라 인정 범위 다름)
- 고용 형태
- 업무 시간
- 월급
- 돌봄 성과

→ 개별 상황에 맞는 기준값 자동 적용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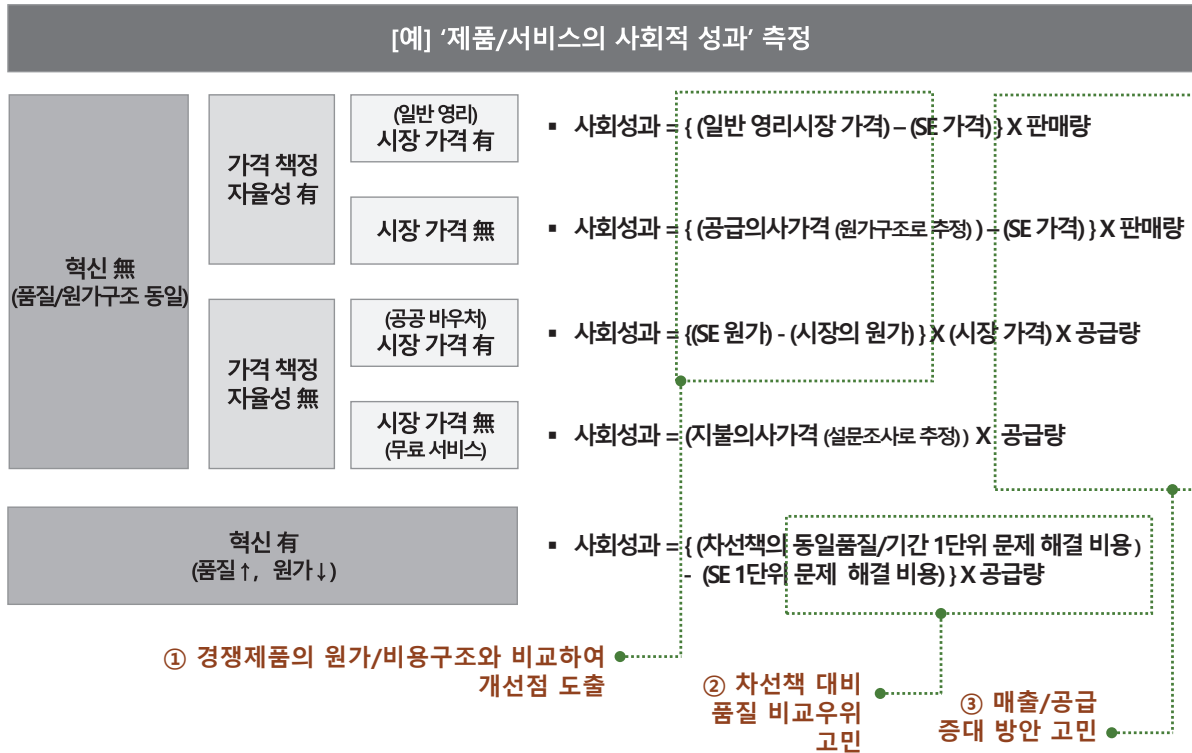
측정 지표는 (영리시장 경쟁제품의) **시장 가격 대비 SE의 가격을 비교하는 방식.** (외부보조금 제외)
비교할 시장 가격이 없을 경우 공급의사/수요의사가 가격을 추정

[예]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성과' 측정

혁신 無 (품질/원가구조 동일)	가격 책정 자율성 有	(일반 영리) 시장 가격 有	$\text{사회성과} = \{(\text{일반 영리시장 가격}) - (\text{SE 가격})\} \times \text{판매량}$
		시장 가격 無	$\text{사회성과} = \{(\text{공급의사가 가격 (원가구조로 추정)}) - (\text{SE 가격})\} \times \text{판매량}$
	가격 책정 자율성 無	(공공 바우처) 시장 가격 有	$\text{사회성과} = \{(\text{SE 원가}) - (\text{시장의 원가})\} \times (\text{시장 가격}) \times \text{공급량}$
		시장 가격 無 (무료 서비스)	$\text{사회성과} = (\text{지불의사가 가격 (실문조사로 추정)}) \times \text{공급량}$
혁신 有 (품질 ↑, 원가 ↓)			$\text{사회성과} = \{(\text{차선책의 동일품질/기간 1단위 문제 해결 비용}) - (\text{SE 1단위 문제 해결 비용})\} \times \text{판매량}$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측정

참여기업은 스스로 사회성과 측정을 경험하면서 성과 향상 방안을 고민



사회적 가치 측정의 효과

사회적 가치 측정의 효과로, '루미르'는 점점 더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 중

루미르 C



(출처: 네이버 블로그 '미엘')

루미르 K



(출처: 루미르 소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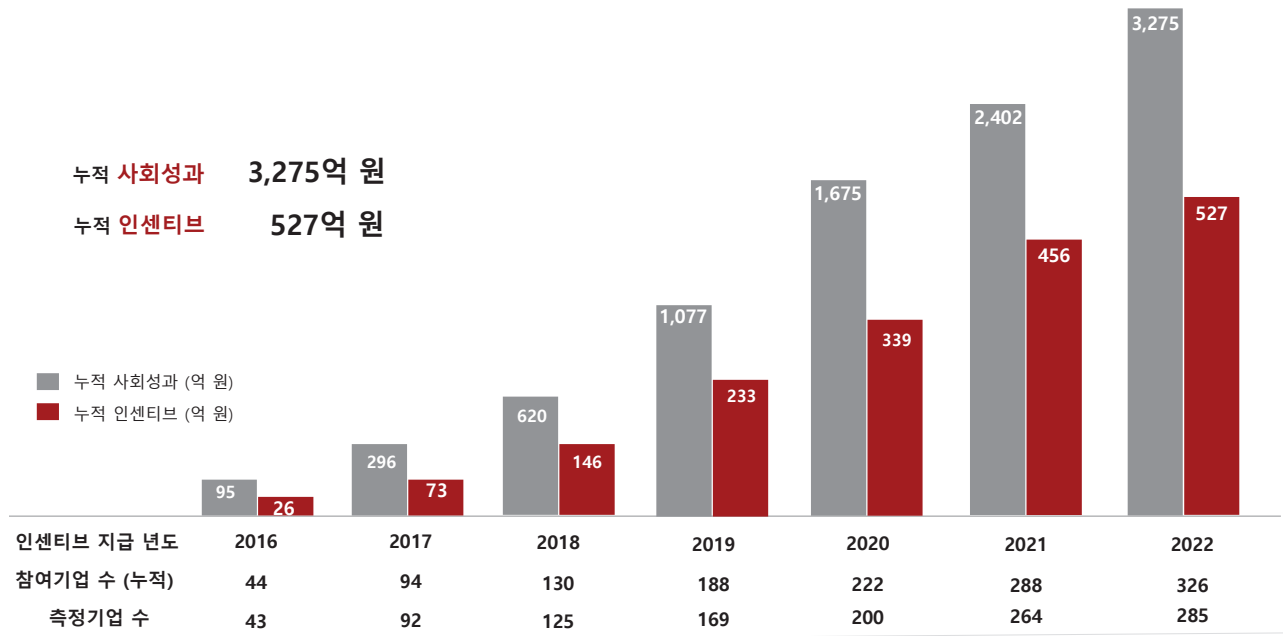
루미르 H



(출처: 루미르 공식 블로그)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성과

'15년 프로젝트 론칭 이후, 참여기업들은 누적 **3,275억 원의 사회성과**를 창출했으며, 사회성과에 비례하여 누적 527억 원의 현금 인센티브가 지급



SPC Data 현황과 확산

SPC DB 현황

SPC DB		데이터 셋 18 개
- 기간: 2015-2021		
- 자료: 기본현황, 재무성과, 사회성과		변수 139 개

SPC Survey		자료 12 개
- 기간: 2020-2022		
- 자료: SPC 참여기업/기업가 특성		변수 306 개



2018년 CSES Colloquium

DB 활용 및 확산 성과

DB 다운로드 (2020 - 현재)	9,100	여 건
* KOSSDA 기탁 자료의 다운로드 수 포함 (다른 CSES DB 다운로드/논문 수와 합산된 수치)		

DB 활용 논문 (2016 - 현재)	43	편
* 학술지 게재, 학위 논문 포함		

Management Science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in Mission-Driven Firms

March 3, 2022

정선문 교수 (동국대)
신재용 교수 (서울대)

SPC 효과성 관련 사례와 논문 게재

글로벌 최상위권 대학의 경영사례, 공신력 있는 학술지(글로벌 Top 5)에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효과성 관련 사례와 논문 게재

하바드 경영대 경영사례로 SPC 소개 ('21년)

HARVARD BUSINESS SCHOOL
DRAFT
OCTOBER 16, 2019

GEORGE SERAFEIM
ETHAN ROSEN
DAVID FREIBERG

SK Group: Social Progress Credits George Serafeim 교수

After spending several weeks traveling across South Korea to meet with heads of his conglomerate affiliates, Chey Tae-won, Chairman and CEO of SK Group, returned to Seoul with a clear message: SK's future was bright as long as the societal ecosystem around SK was being nourished and strengthened. What he had heard from his direct reports confirmed his long-held belief that social progress in Korean society was of utmost importance, and that companies need to be judged not only by their financial performance but also on their social impact.

Chairman Chey demanded that SK, the third largest conglomerate in South Korea, had a responsibility to use its size and financial strength to promote positive social value. For many years, the company was a major philanthropic donor in Korea, but Chey had recently started questioning whether these charitable efforts were producing the desired results, as SK had no way to measure the impact of its giving.

경영학 Top Journal에 SPC 효과성 논문 게재 ('22년)

제목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in Mission-Driven Firms

저자 정선문 박사과정(서울대 경영학, CSES 펠로우)
신재용 교수(서울대 경영학, 회계)

신재용 교수

학술지 Management Science (경영학 Top 5 저널)

내용

- 측정효과
 - ✓ 측정만족도가 높을수록 매출대비 SV, 자산대비 SV 증가
- 인센티브효과
 - ✓ SPC 참여기간이 길수록 매출대비 SV 증가
 - ✓ 인센티브 수령하면 다음해 매출대비 SV 증가
- 조직문화 & 인센티브활용
 - ✓ 규율중심 조직에서는 인센티브를 임직원 보너스로 지급하면 SV 증가
 - ✓ 가치중심 조직에서는 인센티브를 사회적 재투자에 활용하면 SV 증가

학술지 Reviewer 반응

- ✓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이런 사회 실험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가? 재미있는 실험이다."

성과 비례 보상 = 증거기반 정책 결정

성과 비례 보상은 새로운 개념이 아닌,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일환임 (EbPM, Evidence-based Policy Making)

증거기반 정책결정

- 정책결정자의 의견기반(Opinion-based) 정책결정과 대비되는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
- 1997년 영국의 **토니블레어 수상**이 제안

"통계는 국가 경영의 기반이다"

효과

1. 예산 낭비 방지
2. 혁신적 정부사업 추진 가능
3. 정부정책의 책임성 강화

선진국 사례

- 미국
 - 2018년 Evidence Act 제정 (연방정부의 증거 구축/ 공공 데이터 관리)
- 일본
 - 2018년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 예산집행의 질적 향상 도모)

성과 비례 보상의 지방정부 확산

경기도 화성시 등 성과 비례 보상의 지방 정부 확산 위해 노력 중



경남도 협약 (2023.1.27)



춘천시 협약 (202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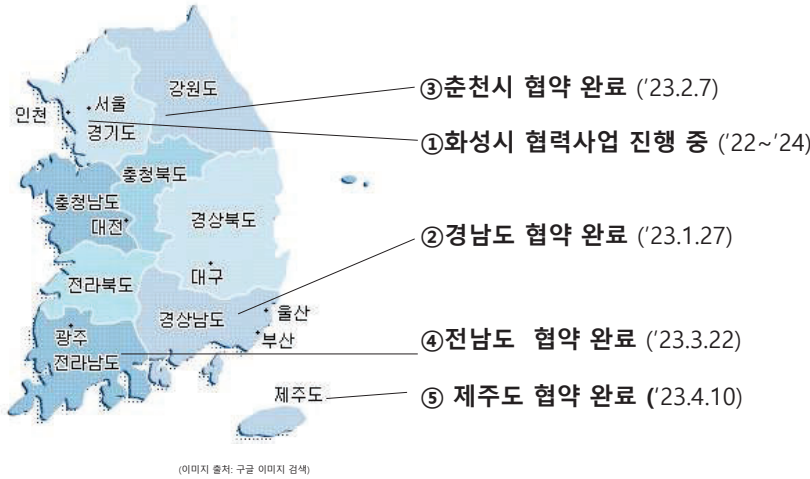


전남도 협약 (2023.3.22)



제주도 협약 (2023.4.10)

확산
현황



경기도 화성시

- SK가 3년간 매년 4개 기업 선발 (총 12개 기업)
- 총 3억원 성과 비례 보상



'22년 협력사업 성과 보고회 (경기도 화성시)

지방정부 확산 사업 진행 방식

지자체와의 협약 후, 기존 지자체 사업에 '성과 비례 보상' 방식을 파일럿으로 포함시켜 효과성 검증
 → 데이터로 지방의회를 설득하여 '성과 비례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 목표

협력
과정

(1) 협약 체결

(2) 기존 지자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내, 사회성과 측정·비례보상 **파일럿 사업**을 포함시켜 진행

- 기존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파일럿 대상 선정 → 측정/ 성과 비례 보상
- 측정: 해당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CSES 지원
- 보상: (지자체는) 기존 사업비 지급 방식대로 일을 지원, (CSES는) 그 금액에 매칭하여 성과 비례 보상 지원

(3) 3년간 해당 파일럿 사업의 성과 측정/ 효과성 검증 → 지방의회 보고

(4) 지자체가 "성과 비례 보상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조례 제정** (SK는 EXIT)

국제 확산: 일본 펀드레이징협회 & SIMI와의 협력

CSES와 일본 펀드레이징협회는 SPC 방식으로 사회적기업(NPO)에 성과 비례 보상하는 IMM(Impact Measurement & Management) 사업을 3년간 진행하기로 함

(아래 사진은 지난 5월 16일 일본 도쿄 현지 언론에 일본 펀드레이징협회 우오 회장과 CSES 나석권 원장이 SPC 사업을 소개 하는 장면)



WEF OpEd에서 SPC 측정의 효과 인정 (사회적 기업 측정 → 영리 기업 측정)

'23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홈페이지 오피니언사설(OpEd)에 사회성과인센티브가 대기업-소셜벤처 등 사회적 기업간 우수한 파트너십 사례로 소개

매일경제

2023년 01월 25일 수요일 A17면 기업

SK '사회성과 인센티브' 다보스서 호평

최태원 회장 10년전 첫 제안 326개 기업에 527억원 보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독창적 아이디어로 제안해 추진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그램이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호평을 받았다. 앞서 최 회장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회 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처음 제안했다. 24일 SK그룹에 따르면 다보스포럼

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 사무국은 최근 홈페이지에 '사회적 기업들과의 협력이 어떻게 대기업들에 지속 가능 혁신의 방안이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와 세계 최대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 인베브의 스타트업·소셜혁신기업 펀딩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사무국은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으로 소셜 임팩트 창출과 ESG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 목표 달성에 나서고 있다"며 "특히 SK는 사회적 기업들이 창출하는 사



회적 가치에 비례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독창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평가했다.

사무국 평가처럼 SK그룹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26개의 사회적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운영한 결과 이들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환경 문제 해결, 생태계 문제 해결 등 4개 분야에서 총 3275억원의 사회적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K그룹은 인센티브로 총 527억원을 사회적 기업들에 지급했다. 이영욱 기자

오늘 다룰 내용

- 1 **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 SPC)**
- 2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 3 **ESG 연구**

CSES 사회적 가치 측정 라인업

사회적 기업 측정 가이드

사회성과인센티브 SPC 측정체계 (2015)

사회성과인센티브 (SPC) 측정체계	기업의 미션	
	사회문제 해결	환경 문제 해결
제품/서비스 (Product)	제품/서비스의 사회적 영향	제품/서비스/공정의 환경적 성과
내부	내부 공헌성의 사회적 성과	
공정 (Process)	외부 공헌성의 사회적 성과	

SPC 온라인 측정시스템 (2015)

소셜벤처 밸류에이션 가이드 (2021)

영리 기업 측정 가이드

SK SV 측정체계 (2018)

비영리 조직 측정 가이드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2021)

UN SDGs 측정 가이드

UNRISD SDPI (2023)

글로벌 아웃리치

WEF Op Ed (2023)

공공기관 측정 가이드

중국 국유기업 SV 측정체계 (2020)

공공기관 SV 측정연구 (2021)

SV 측정 보고서

소셜벤처 임팩트 리포트 (2021)

SPC 리뷰 (2021)

사회적가치 측정 리뷰 (2021)

글로벌 임팩트 측정의 흐름 (측정 이니셔티브 중심)

1. 벨류에이션 가이드

임팩트 측정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트렌드는 IMP로 수렴되는 분위기

* The 1st Social Responsible Investing (SRI) Index



IMP, Impact Management Project (Platform)

1. 벨류에이션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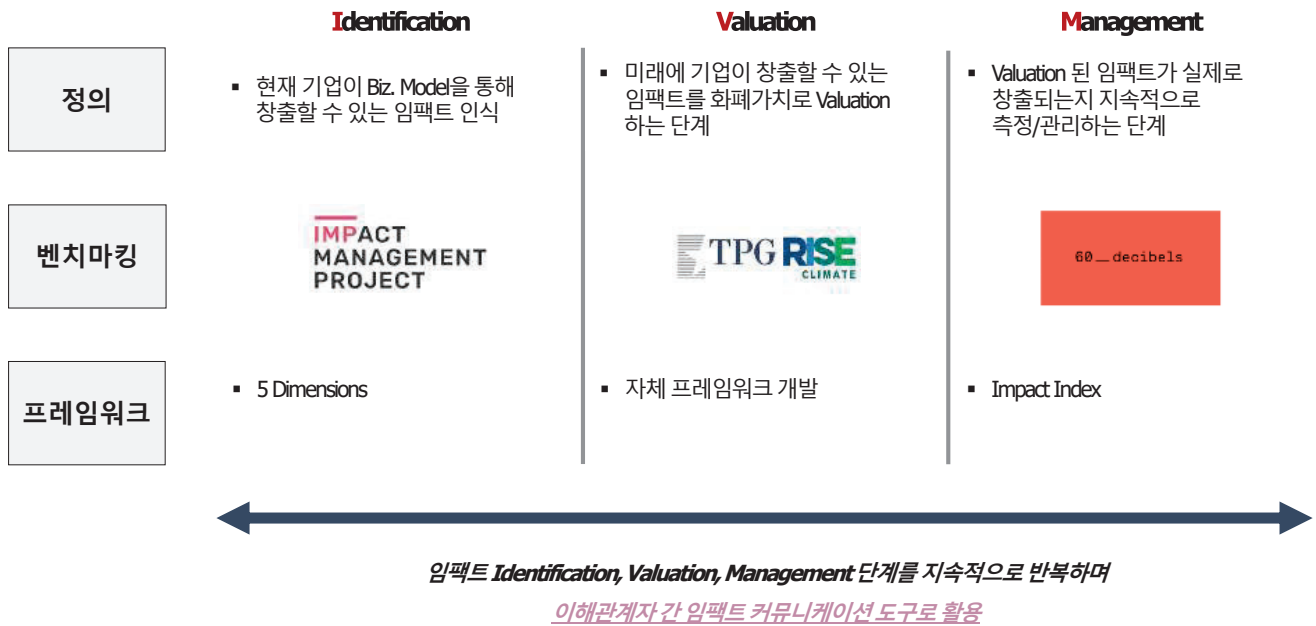
· 2016 결성 이후, 현재 2,200여 개 기관 참여



IMP 방식 준용, 소셜벤처 벨류에이션 가이드 발간

1. 벨류에이션 가이드

기업이 창출하는 임팩트를 **Identification, Valuation, Management (IVM)** 단계로 구분



루미르 K 사례

1. 벨류에이션 가이드



측면	구분	세부 내용
1. What	1-1. Out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미르 K" 사용에 따른 CO 배출량 감소
	1-2. Outcome Level in Period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 11mg/h 배출
	1-3. Outcome Thresho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유램프의 경우, CO 1,132mg/h 배출
	1-4. Importance of Outcome to Stakehol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유램프 사용으로 인하여 CO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발생
	1-5. SDGs and/or IRIS+ Impact The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SDGs : Goal 7 - Affordable and Clean Energy IRIS+ Impact Theme : 8. Energy – Clean Energy
2. Who	2-1. Stakehold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Kalimantan Barat 주(州) 내 전기 보급률이 낮아 등유램프를 사용하는 주민
	2-2. Geographical Bounda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전기가 보급률이 낮은 마을
	2-3. Outcome Level at Basel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유램프 CO 배출량 X 가구수
	2-4. Stakeholder Character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가구당 월수입은 1,704,000RP (한화로 약 14.8만원)
3. How Much	3-1. Sc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전기 사용이 불가능한 주민은 약 41만명
	3-2. Dep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미르 K" 사용으로 인하여 CO 1,121mg/h 감소
	3-3. Du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미르 K"는 LED 램프로써 약 5만시간 사용 가능
4. Contribution	4-1. Depth & Duration Counterfactu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루미르 K"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전력망을 구축할 때까지 등유램프 사용으로 인하여 다량의 CO 배출
5. Risk	5-1. Type &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가지 위험 종류 / 정도 (High, Medium, Low) e.g. 인도네시아 정부의 전력망 설치로 인하여 "루미르 K" 사용이 불필요한 위험 - 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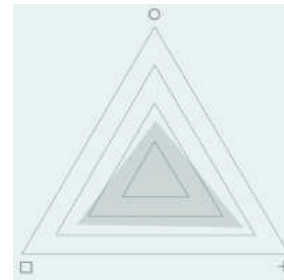
Management

1. 벨류에이션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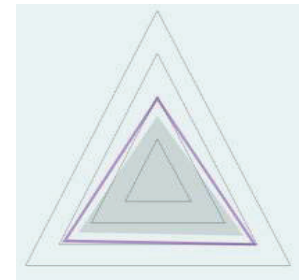
실제 현지에서 성과가 발생하고 있는지 현지 코디네이터가 직접 고객 조사

<임팩트 Management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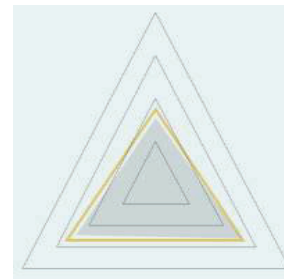
- ○ **Who** : 인도네시아 Kalimantan Barat 주(州) 내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못해 램프를 사용하지 못하던 주민에게 "루미르 K"가 판매 되었는가?
- □ **What** : 실제로 "루미르 K"를 활용하여 램프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과 호흡기질환이 감소하고 있는가?
- + **Contribution** : "루미르 K"를 제외하고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램프가 공급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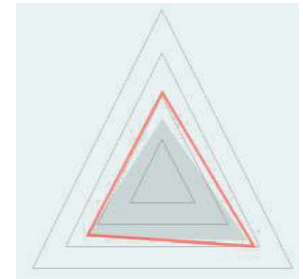
<임팩트 벤치마크>



<1년차 임팩트>



<2년차 임팩트>



<3년차 임팩트>

$$\text{각 인덱스 계산식: } \frac{(\text{actual value} - \text{minimum value})}{(\text{maximum value} - \text{minimum value})}$$

Management 단계 이후..

1. 벨류에이션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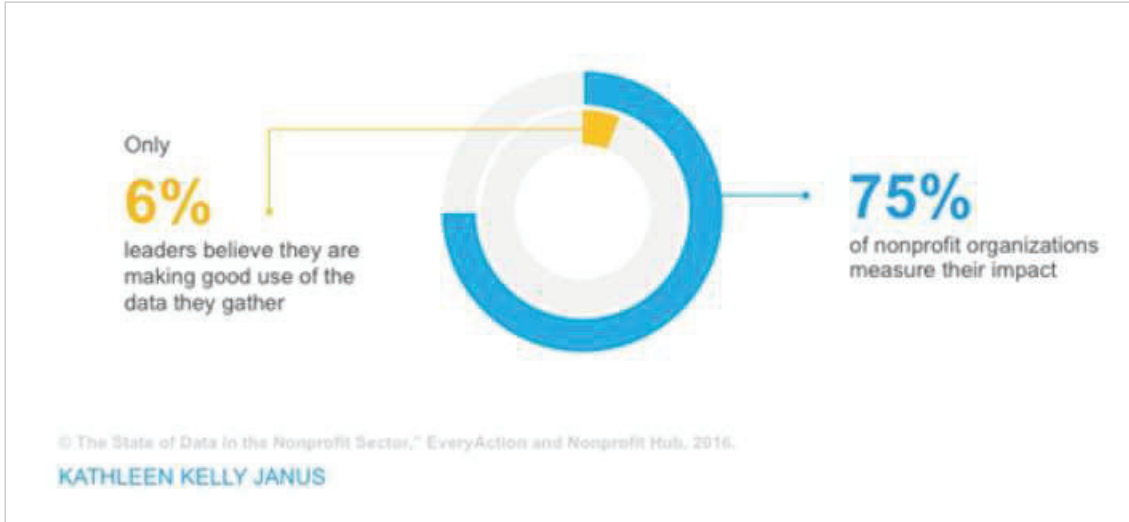
벨류에이션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성과들을 알 수 있었다.

벨류에이션이 끝이 아니라, 매니지먼트가 중요하다.

Dimensions	Details
1. What	등유 대신 식용유 사용 → 연료비 절감 → 생활비 감소 탄소 배출 감소 → 실내 공기질 향상 → 병원비 절감 → 생활비 감소 SDGs: Goal 3 – Good Health and Well being
2. Who	전기 공급이 안되어 등유램프를 쓰던 주민들 월 소득 수준 Rp 1,704,000.
3. How Much	Lumir K 의 unit 당 연료비 절감 × units sold - 연간 연료비 절감액: USD 15.6/unit CO reduction per Lumir K unit × units sold - 병원비 절감액 USD 564/unit

시장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

75%의 비영리기관이 임팩트를 측정한다?



(출처: ssir.org)

시장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

- ✓ 펀드레이징 자료
- ✓ 멤버십 성장 자료
- ✓ 점유율 자료
- ✓ 스태프 성과 자료
- ✓ 수혜자/수혜조직 숫자 자료
- ✓ 제공 프로그램 숫자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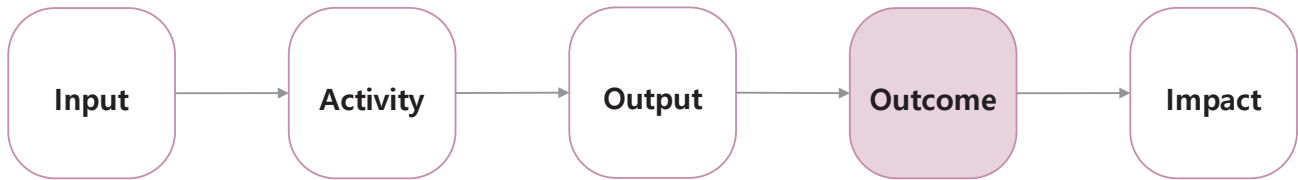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

1 미션 중심인가? vs 과정 중심인가?

2. 임팩트 파운데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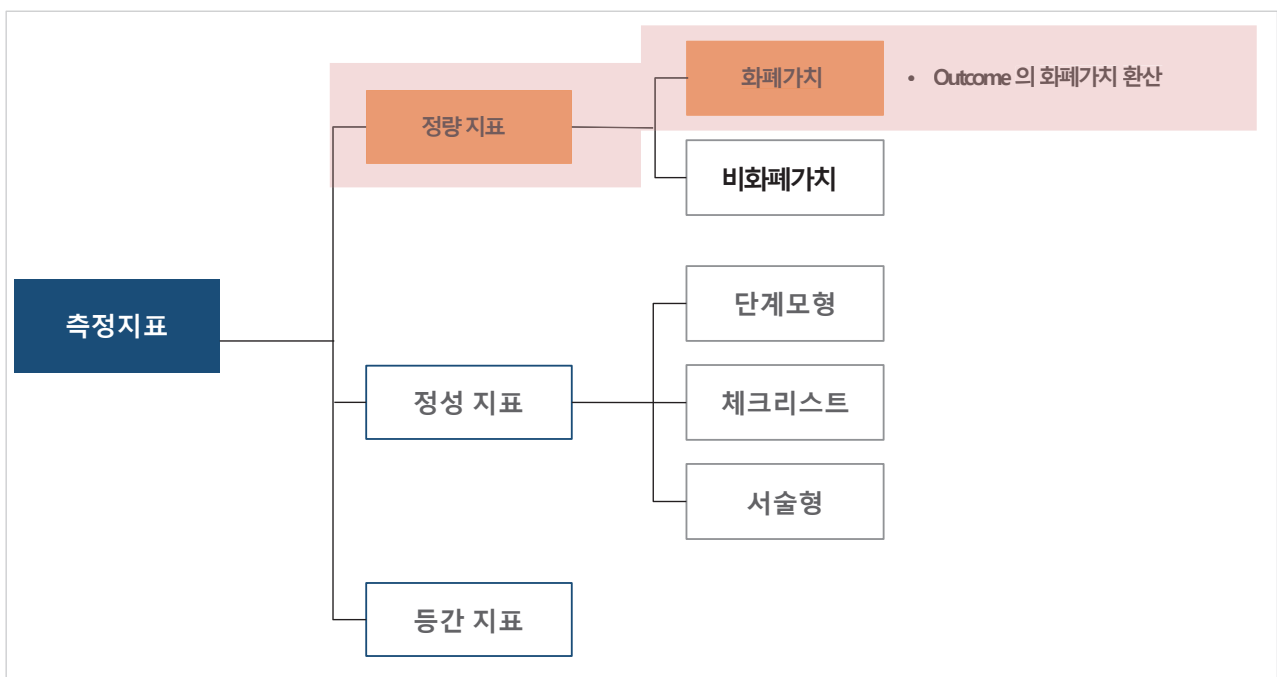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의 “과정” 중 성과



1 미션 중심인가? vs 과정 중심인가?

2. 임팩트 파운데이션

다양한 측정지표 중 화폐가치 지표



1 미션 중심인가? vs 과정 중심인가?

2. 임팩트 파운데이션

진정 미션을 측정하는 지표는? - 화폐가치 측정이 어렵다면?

✓ 친구가 몇 명이나 늘었을까?

✓ 몇 명이나 졸업했을까?

✓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케어하고 있을까?

2 계속 사업인가? vs 단년 사업인가?

2. 임팩트 파운데이션

측정 비용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

측정비는 사업비인가? 운영비인가?

✓ 운영비: 전체 사업비 중 15~20% ?

✓ 측정비는 운영비 중 몇 % ?



✓ 교수님 용역/자문비

✓ 설문조사비

✓ 보고서 출판비

2 계속 사업인가? vs 단년 사업인가?

2. 임팩트 파운데이션

측정 지표가 **과대/ 과도**하지 않은가?

대안적 지표 예시

- ① 발달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프로그램의 시그니처 지표: **“발달장애인의 친구 수”**
- ② 이주민 여성의 사회적응도를 평가하는 시그니처 지표: **“활성화되어 있는 카톡 친구 대화방 수”**
- ③ 시각장애인이 안내하는 ‘어둠체험’의 시그니처 지표: **“안내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고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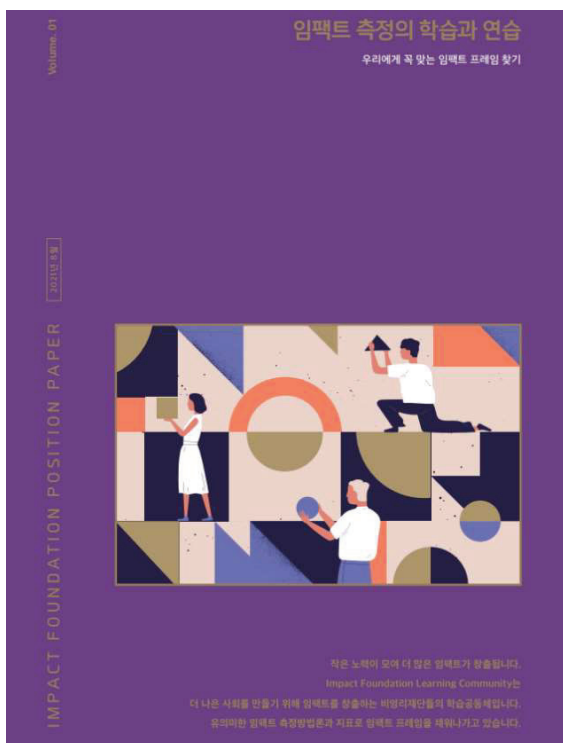
대안적 측정 방법

- ① 출석 체크 (Activity-based Measurement)
- ② 회신율
- ③ 실무자 중심 측정 워크숍

[참고] 임팩트 파운데이션의 측정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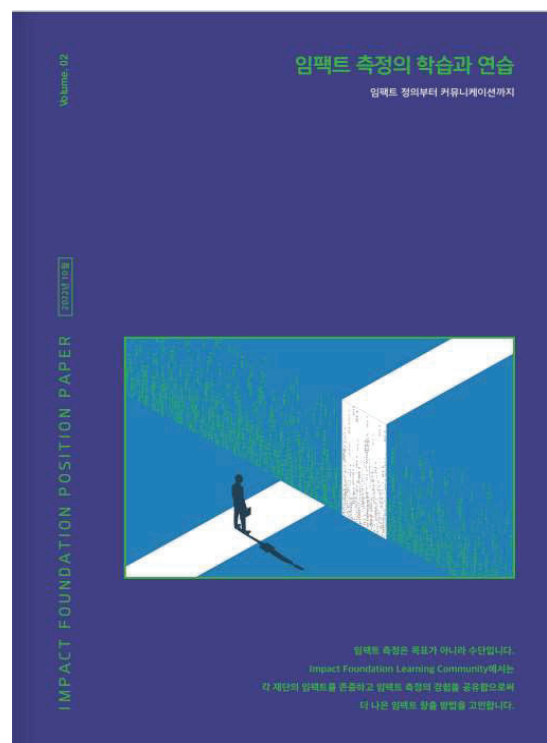
2. 임팩트 파운데이션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2021~)



2023

2021



2022

3 자산 관점인가? vs 도구 관점인가?

2. 임팩트 파운데이션

스태프(직원)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우리는 직원의 '성장'을 측정하고 있나?

- ✓ 인당 펀드레이징 성과 ?
- ✓ 인당 수혜자/조직 수 ?
- ✓ 인당 프로그램 수 ?



- ✓ 낮은 월급
- ✓ 낮은 학습기회
- ✓ 잦은 이직

3 자산 관점인가? vs 도구 관점인가?

2. 임팩트 파운데이션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조직에는 무엇이 남는가?

새로운
무형자산
정의

- 미래 사회적가치 창출의 잠재력이 있고, 우리 조직의 경쟁우위를 만드는 자산으로 정의
(ex, 커피지아 '초능력 공감별사')
- 인적자원(사람) / 공익재산권(프로그램/노하우/네트워크) 으로 분류

자산가치
추정 방법

Initial 측정

취득원가

해당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
(일회성 운영비 제외)



현재가치 재평가

델파이 방식 활용
현재가치 추정

전문가 합의를 통해
현재가치 평가

[참고] 델파이 (Delphi) 방식

2. 임팩트 파운데이션

적용 예시	전문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CSR교수, 컨설턴트,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임팩트투자자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10~15명으로 구성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CSR 활동으로 축적된 사람/노하우/네트워크를 가급적 수치와 함께 자세히 설명하고 질문 (추득원가 함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 1: 해당 무형자산(사람/공익재산권)의 현재가치는 얼마로 추정할 수 있는가? ✓ 질문 2: 해당 자산가치의 지속년수는 몇 년 이라고 생각하는가?
	컨센서스 형성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답치'가 일정범위로 수렴할 때까지 반복 (3~5회) 매회 (상하위 각 10% 제외한) 참가자들의 '응답치/ 근거'를 모두에게 피드백 후 질문 반복

[컨센서스 형성과정 개념도]

성과 측정의 세 가지 방향

2. 임팩트 파운데이션

좀 더 지속가능한 측정을 위해

- 1

미션 중심으로 !
- 2

계속 사업을 가정하고 !
- 3

자산 관점에서 !

게임 체인저

3. SVMR

코로나19로 인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다.



- 유명 화가 「뱅크시」의 그림 '게임 체인저', 224억 원에 최고가 기록 경신하며 판매 (가로/세로 각 1m 크기의 흑백 작품)
- 판매금액은 영국 사우샘프턴 병원에 기부되어 의료진/ 환자 복지에 사용

(출처: 연합뉴스, 21.3.24)

코로나19의 영향

3. SV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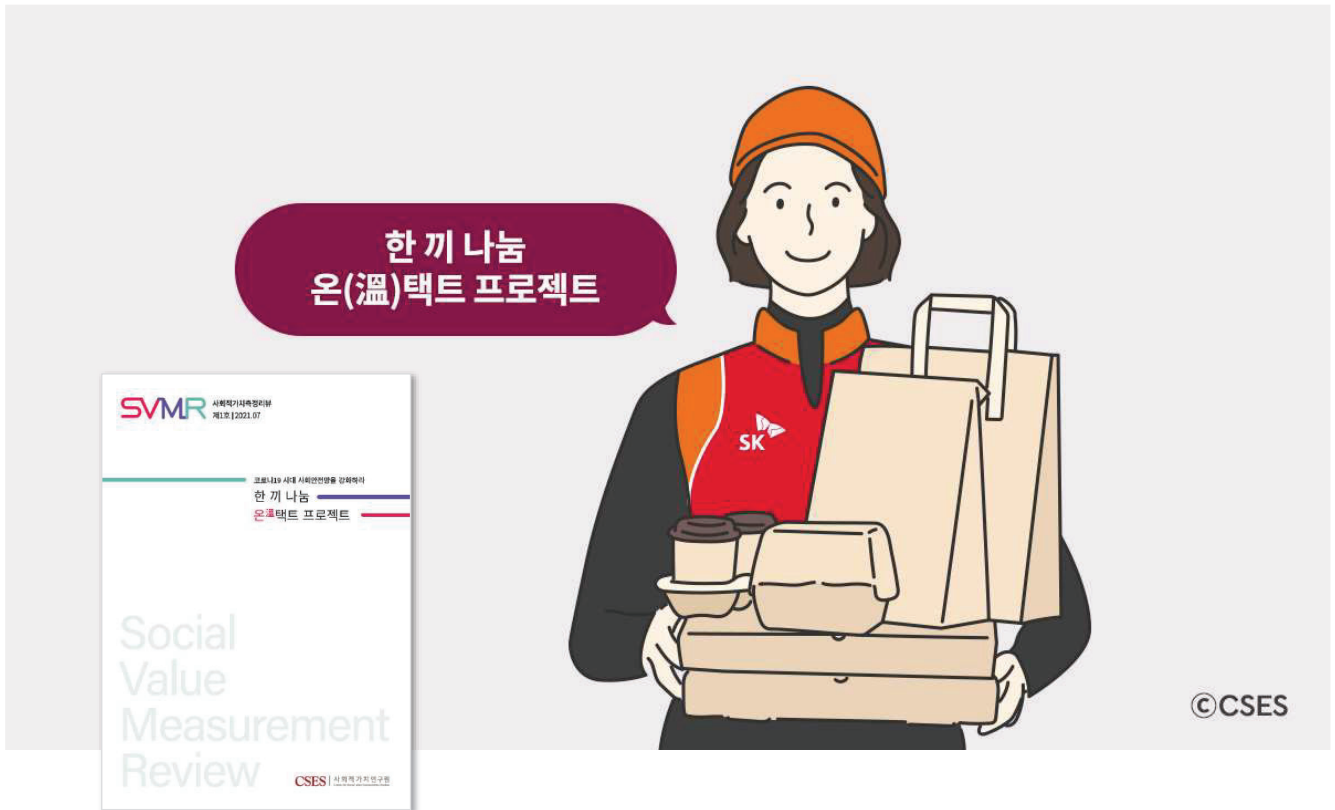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사회공헌 전달체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기업의 손길이
달지 못함

한끼나눔 온택트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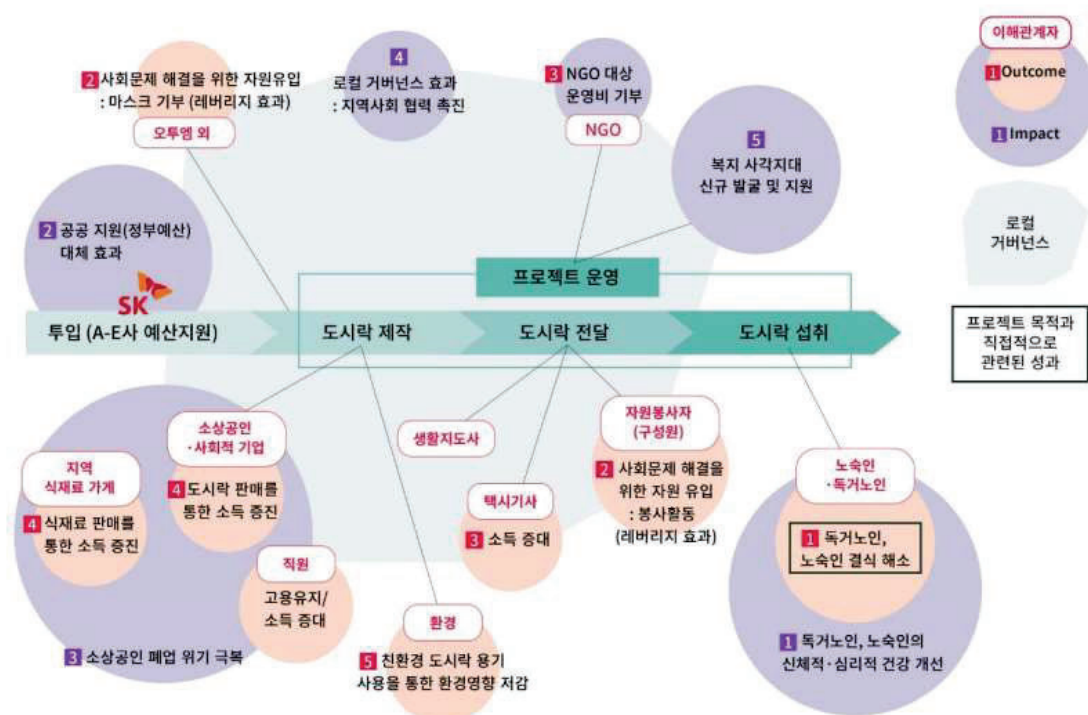
3. SVMR



한끼나눔 온택트 프로젝트

3. SVMR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창출된 성과



한끼나눔 온택트 프로젝트

3. SVMR



Outcome		
성과지표	측정결과	
1	독거노인, 노숙인 결식 해소	11.42억 원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 유입 (레버리지 효과)	1.69억 원
3	택시기사 소득 증진 외 기타성과	0.39억 원
4	소상공인 소득 증진	2.10억 원
		0.06억 원
5	친환경 도시락 용기 사용을 통한 환경영향 저감	0.09억 원
		0.01억 원
Outcome 합계		16.09억 원

Impact		
성과지표	측정결과	
1	독거노인, 노숙인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개선	(정성측정)
2	공공지원(정부예산) 대체 효과	7.64억 원
3	소상공인 폐업 위기 극복	0.20억 원 ~ 8.79억 원
4	로컬 거버넌스 효과: 지역사회 협력 촉진	(정성측정)
5	복지 사각지대 신규 발굴	(정성측정)
Impact 합계		7.84 ~16.43억 원

코로나19와 사회공헌

3. SVMR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사회공헌의 역할 ?



사회공헌분야
지진대피 훈련



리스크 관리 **체계**

(대기업 사회공헌의 새로운 역할)

오늘 다룰 내용

- 1 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 SPC)
- 2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 3 ESG 연구

ESG의 등장 (2003~2005)

ESG,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 (UNGC 등)
 →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투자자 가이드**로 제안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의 제안에
 월스트리트 투자계가
 나름의 머리를 써서 화답한 것 아닐까?

ESG 중 'S (Social)'의 정의

ESG 중 E, G의 정의는 일반적 정의와 동일하지만, **Social의 정의**는 다른 측면이 있다.

일반적 Soc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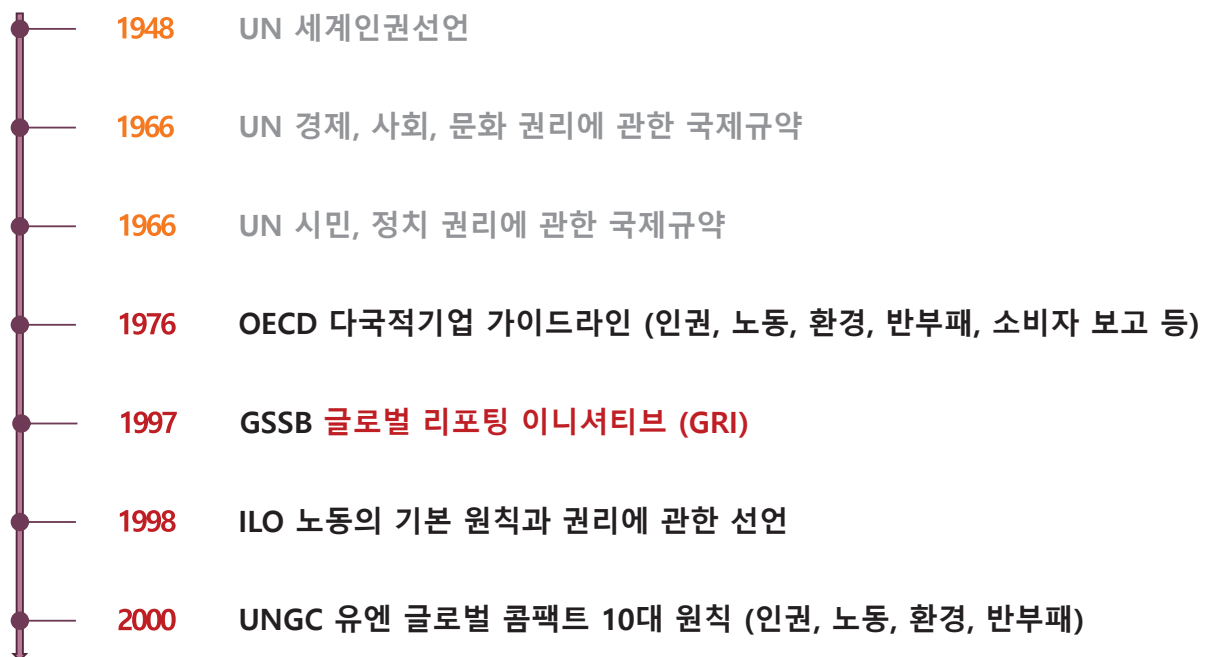
- 빈곤 탈출
- 불평등 완화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 보편적 교육
- 보편적 건강
- 다양성/ 평등/ 인권

ESG Social

- 종업원 교육
- 종업원 안전
- 다양성/ 공정
- 공급업체 인권
- 소비자 보호
- 지역사회 공헌

ESG 중 'S (Social)'의 정의

보통 Social (in ESG)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Social의 역사는 사실 일반적 Social의 역사다.



ESG 중 'S (Social)'의 정의

S (in ESG)는 'Social'이 아니라 'Stakeholder (이해관계자)'다.



- ✓ 일반적 Social과 같은 단어를 써서 '개념화 실패'
- ✓ 오히려, Social → Stakeholder (이해관계자)
 - 종업원, 소비자, 투자자,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시민사회

Stakeholder(이해관계자)와 ESG의 만남

S (in ESG)는 'Social'이 아니라 'Stakeholder'다.

Business Roundtable

BR Business Roundtable

* 1972년 설립, 미국 시가 총액 약 30% 차지

(출처: 가디언출판사)

기업의 목표 재정의

주주 최우선

↓

이해관계자에 가치 제공

Davos Manifesto

WORLD ECONOMIC FOR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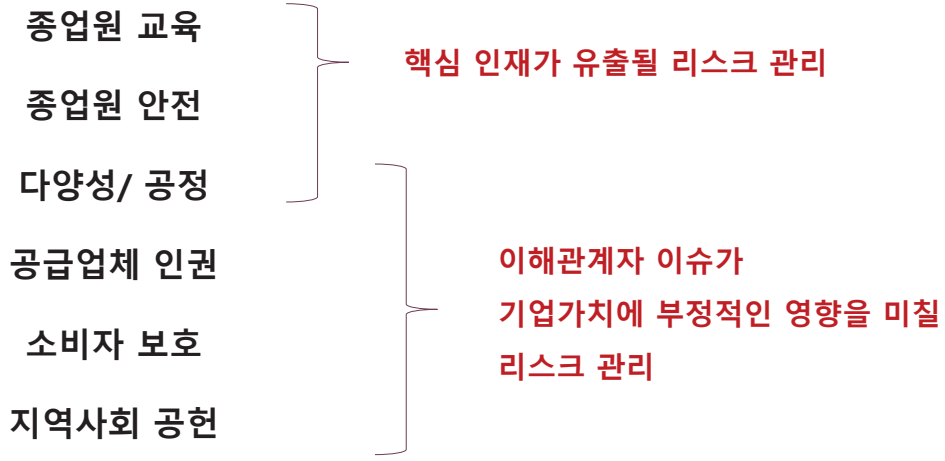
Stakeholder Capitalism
 A Global Economy that Works for Progress, People and Planet
 Klaus Schwab
 WILEY

Davos Manifesto 2020:
 기업의 목표
 to engage all its **stakeholders**

Stakeholder(이해관계자)와 ESG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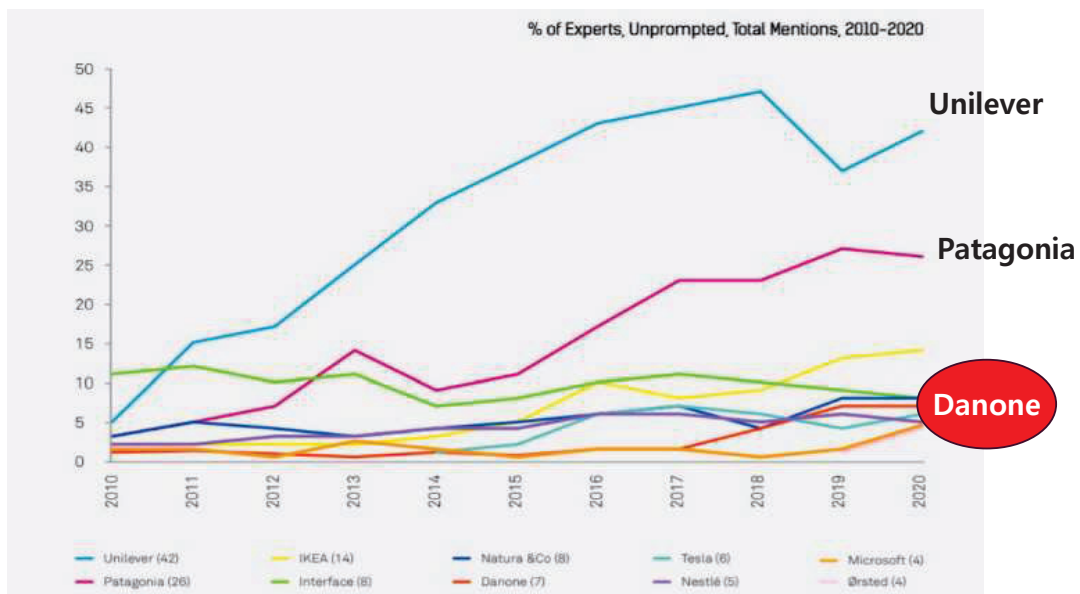
ESG에서의 Social은 재무리스크와 직결되는 **이해관계자들의 리스크를 관리**하라는 의미.

ESG Social



[참고]

전문가 평가 글로벌 지속가능기업



(출처: GlobeScan & Sustainability)

ESG, 무엇이 중요한가?

결국은 '사업' 실적이다?

한국경제

2021년 03월 22일 월요일 A12면 국제

'ESG 경영'의 딜레마 ... 佛 다논, 사회적 책임 집착하다 최악 실적

(최대 식품기업)

프랑스 최대 식품기업 다논의 에마누엘 파베르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사임하기로 발표하면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딜레마가 부각되고 있다. 파베르 CEO는 대표적인 ESG 경영자로 알려졌지만, 회사정관에 지구와 자원을 보존한다는 목표를 넣을 정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영 성과는 좋지 못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회사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요 투자자인 연미권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공

ESG 경영의 딜레마 보여준 다논 파베르 CEO는 지난 15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사를 떠나기로 했다. 다논의 주요 투자기관인 영국 블루벨캐피탈파트너스, 미국 어티잔파트너스 등의 끈질긴 요구가 관철된 순간이었다. 이들 행동주의 헤지펀드는 다논의 주력 제품인 유제품-생수 판매 부진, 주가 폭락 등의 책임을 지고 파베르 CEO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논은 생수 브랜드 에비앙과 요구르트 브랜드 예티비아 등을 거느린 유럽 대

지역사회·환경 강조 파베르 CEO 7년간 이익 전망치 세 차례나 낮춰 코로나 충격으로 매출 '근두박질' 경쟁사에 뒤처져 주가 30% 폭락

행동주의 헤지펀드 압박에 사임 佛 언론 "시장의 법칙에 완패"

등을 판매하지 않는 것도 다논 실적이 좋



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너무 적은 시간을 썼다고 FT는 전했다. 다논 이사회는 파베르 CEO가 네슬레와 유니레버 등 경쟁사에 비해 뒤쳐진 실적에 안주했고, 지난 7년간 연간 이익 전망치를 세 차례나 하향 조정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언론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프랑스의 경직된 기업 환경에서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승리한 드문 사례"라고 평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엄미식

(출처: 한국경제)

[참고] 파베르 CEO의 해임을 주도한 행동주의 펀드는 ESG를 고려하는 헤지펀드로서 단기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는 아님

ESG, 결국은 '사업' 실적이다.

유니레버도 'ESG 함정'에 빠진 것인가?

- 유니레버의 총수입(Total Return) 실적이 '네슬레', '프록터 & 갬블(P&G)' 등 경쟁사 실적 대비 저조



- ESG 선진기업인 유니레버의 실적 저하에 대해, '다논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
- 투자자들은 'ESG 활동으로 저조한 비즈니스 실적이 정당화되면 안된다'고 비판
 - 유니레버 10대 주주 '테리 스미스'는 "유니레버가 사업의 기본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지속가능성 증거를 공개하는데 집착한다**"고 비판
 - 블루벨 캐피탈 파트너스의 '마르코 타리코' 공동투자책임자는 "ESG가 저조한 성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됨"을 우려

ESG, 결국은 '사업' 실적이다.

ESG 경영은 '기업의 주가'와는 무관한가?

- 다농, 유니레버의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ESG에 소극적인 기업들의 주가는 오히려 상승 (2022.1.22, Financial Times)
- ESG 관련 지수/ETF 수익률도 벤치마크 대비 높지 않음
 - 세계 최대 연기금 '일본 공적연금(GPIF), '17년 이후 ESG 지수에 35조 원을 투자했으나 수익률은 TOPIX (도쿄증시지수)보다 저조 (2021.6.4, 조선일보)
 - GPIF,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환경이나 ESG라는 이름을 사려고 수익을 희생할 수 없다"고 밝힘
 - 국내 ESG ETF 7종, 초과성과 없어... (2021.12.25, 한국경제)
- 오히려 ESG 성과는 기업가치 상승이 아닌 '하락폭을 줄여주는 효과' → 리스크 관리에 더 효과적인가?
 - 'ESG 성과가 기업가치(Tobin q) 상승에는 영향이 없으나, 기업가치 하락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 (2018.11. Global Finance Journal)
 - '진정성 있는 ESG 성과 공시가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회복탄력성을 높인다'는 주장 (2022.4. HBR 풀 풀만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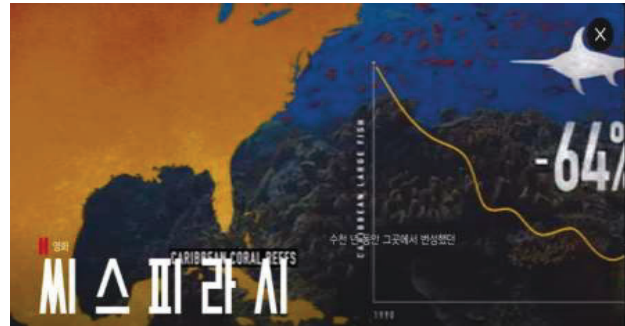
ESG, 지속가능성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지속가능성은 '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무관한가?

- MSCI의 ESG 평가, '환경/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판 (2021.12.10, Bloomberg, "The ESG Mirage")
 - 맥도날드는 '쇠고기 구매망'에서 (2019년 기준) 포르투갈, 헝가리 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MSCI의 ESG 등급은 오히려 상향
 - MSCI가 맥도날드의 수익성이 '기후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 오히려 재활용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포장재 관련 리스크를 줄인 것을 높이 평가
 - 할인소매업체 '달러 제너럴'은 회사 수익의 89%가 '탄소집약적 제품 판매'에서 나오지만 MSCI 평가 등급은 상향
 - 데이터 보호(최고정보책임자 임명), 내부 윤리 보호장치 마련이 등급 상향의 원인
- MSCI에 의해 '지속가능성 높은 펀드'로 평가 받는 블랙록의 'ESG 펀드'는 자사 'S&P 500 펀드' 보다 화석 연료 주식 12개 더 많고 수수료는 5배 더 비쌌
 - 블랙록의 前 최고지속가능투자책임자 '테릭 팬시'는 '월스트리트가 그린워싱을 조장한다'며 '녹색금융상품 반대 캠페인'을 벌임

ESG, 지속가능성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평가’와 ‘인증’을 믿을 수 있을까?



ESG, 지속가능성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ESG에 선도적인 기업/ 투자자에 대한 비판도 존재

Business Roundtable에 대한 비판

Columbia Business School
Aneesh Raghunandan/
Shivaram Rajgopal 교수의 지적

**“Business Roundtable 서한에
서명한 기업의 ESG 기록은
업계 동종 평균보다 더 나쁘다”**



BlackRock에 대한 비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자산규모 9,600조 원, BlackRock



(출처: boardagenda.com)

'이상'과 '현실'의 차이

ESG의 두 가지 흐름 → 사회적책임경영인가? 리스크 관리 수단인가?

사회책임경영 방법으로서의 ESG

- ✓ 결과 중심
- ✓ 주로 EU 세력
- ✓ 주로 환경/인권 성과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의 ESG

- ✓ 관리/평가 항목 중심
- ✓ 주로 투자자 세력
- ✓ 주로 산업환경 리스크/ 인재 유치 리스크

'이상'과 '현실'의 차이

EU 소셜 택소노미 구조



투자자들은 EU 소셜 택소노미가 보편적 규범에 그쳐 Social을 정의하거나 ESG 평가하는데에는 현실적인 지침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

(출처: 'S in ESG', 사회적책임연구원 펴냄)

ESG, 지속가능성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ESG와 그 거울 이미지인 이해관계자자본주의 둘 다 취약한 개념적 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적정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와 실제적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에 의해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 로버트 암스트롱



(출처 : Financial Ti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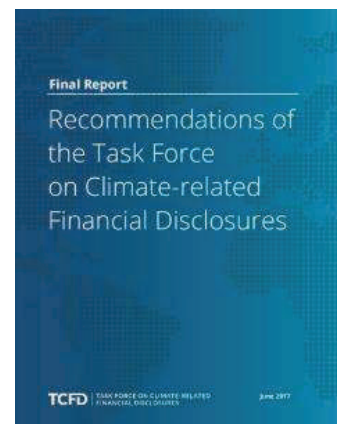
ESG의 본질이 무엇일까?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만들라는 것 아닐까?

부산, 2100년 해수욕장 사라진다!! (출처: YTN)



▲ 사진=YTN방송 화면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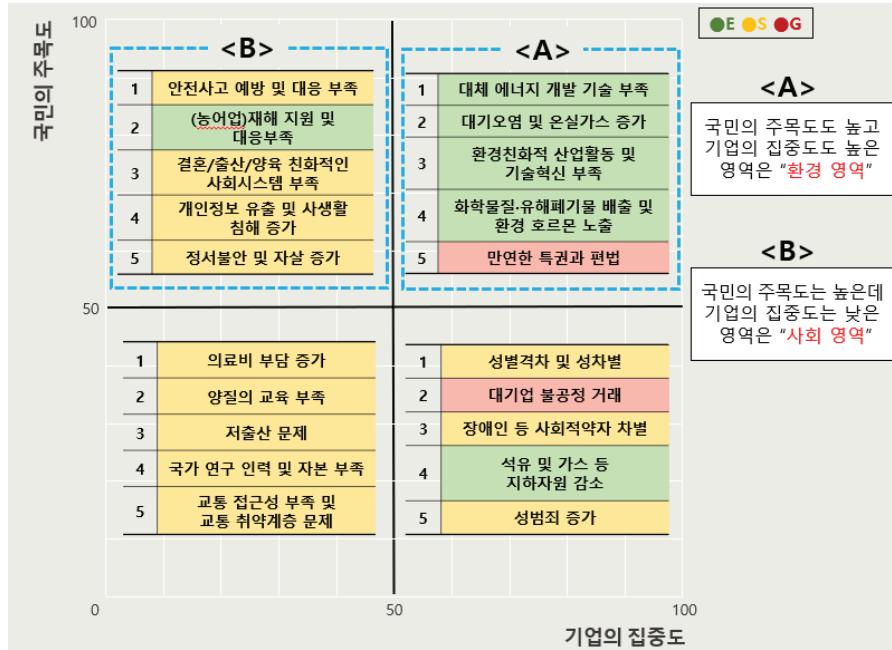


G20의 요청에 따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가 기후변화 리스크를 공시하는 가이드 마련

국민들의 ESG 성향

국민의 관심은 높는데, 기업은 관심 없는 이슈가 대부분 '사회'

2021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조사



사회 변화의 리스크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적 경제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2016.7.8)

✓ 1980년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문창초등학교

사회 변화의 리스크

단기적인 인구 특성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도)

무엇을 할 것인가?

1 단기 과제와 장기 과제를 구분하라. → 선택과 집중

Routine하게 할 일

✓ 경영평가 지표 관리

장기적으로 관리할 일

✓ 리스크 대응 체계 만들기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의 ESG

평가체계로서의 ESG ?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의 ESG ?

평가체계로서의 ESG

- ✓ 미세먼지 저감 장치?
- ✓ 대기전력차단 시설?
- ✓ 영업용 전기차로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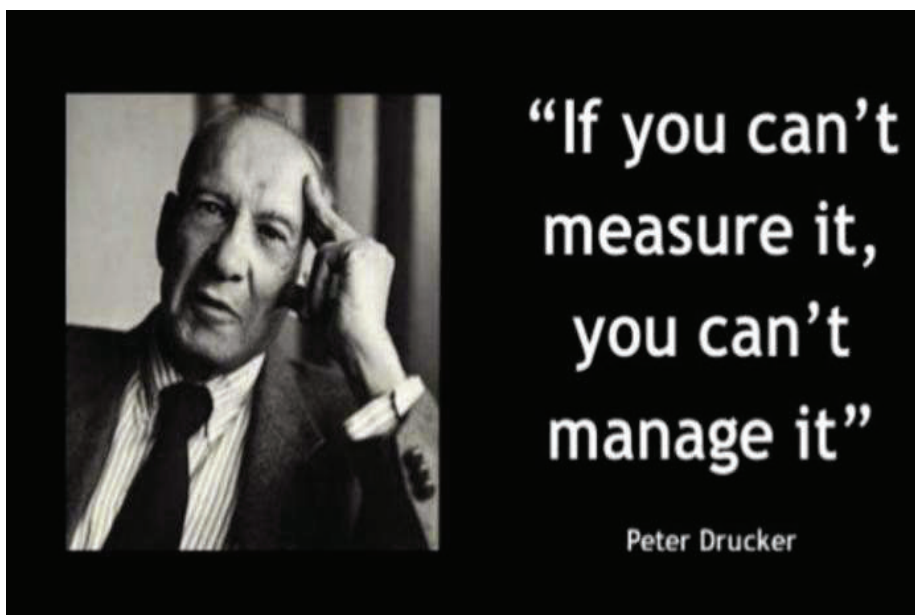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의 ESG

- ✓ 고령자 서비스 수요의 급성장?
- ✓ 기관지 환자 급증 리스크?
- ✓ 온열병 환자 급증 리스크?

해당 지역의 돌봄/요양/교육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의 ES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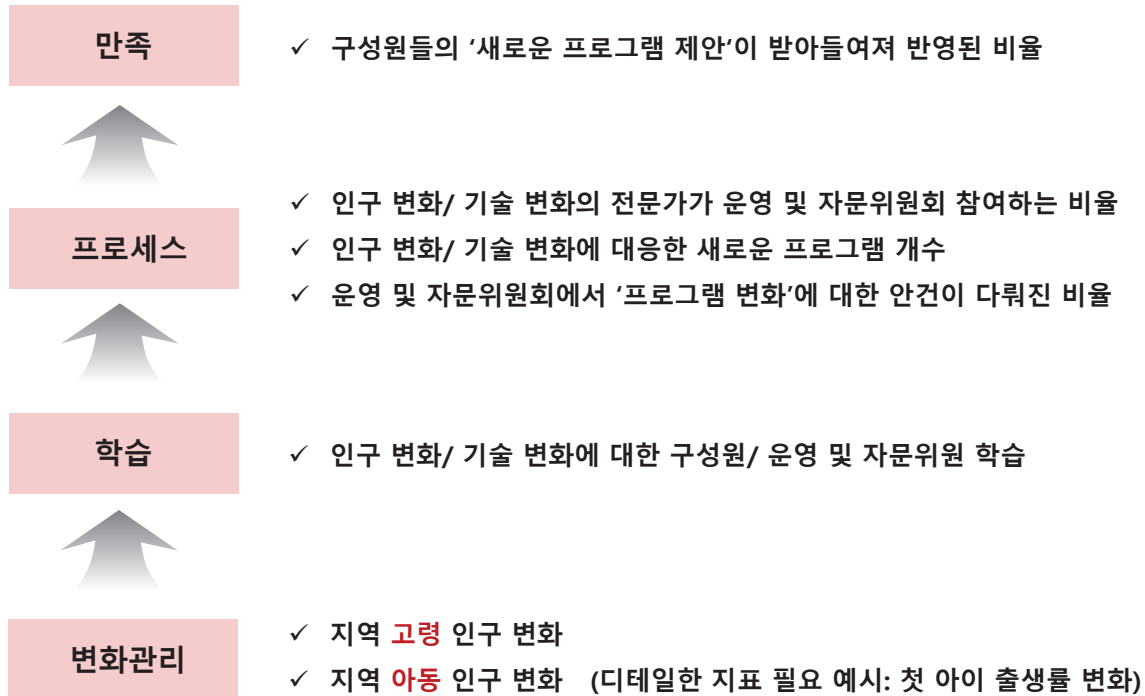
평가체계로서의 ESG ?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의 ESG ?



(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의 ESG

평가체계로서의 ESG ? 리스크 관리 체계로서의 ESG ?



무엇을 할 것인가?

2 정기 협의체를 만들어, 가장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 ✓ 직원 협의체
- ✓ 이용자 협의체
- ✓ 지역사회 협의체

회복탄력성

이해관계자 신뢰

진정성 있는 소통

무엇을 할 것인가?

투명한 공개/ 참여가 필수



(출처: SK라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입주로
 용인 안성천 수량 증가 → 생태계 변화

발견한 생물 사진을 찍어 올리면
 MS 인공지능 '에저'가 식별,
 생태계 종 지도 제작

무엇을 할 것인가?

3 ESG 담당 직원을 챙겨라.

- ✓ 과도한 행정/ 육체/ 정신 업무
- ✓ 높은 이직률



ESG 활동으로 담당자의 '관점' 생김
 → ESG 활동에 전권을 줄 필요

감사합니다

[사회투자IR 간담회] 5.26 (금) 오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업 설명 공공기관 사회투자 활성화 사업 소개

사회투자IR간담회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또는 임팩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조직들과 사회투자에 관심을 가진 기관들이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미래의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정현곤 기초발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참여로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 펀드가 결성,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투자 활성화의 필요성과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조상미 기초발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규모화를 촉진하는 투자펀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마중물을 제공하고 민간 중개기관을 통해 운용될 예정입니다.

#SIB 사업



sopoong

#지역혁신펀드

#기후펀드

IMPACT SQUARE.

envisi^oning
partners

#사회투자펀드

#사회투자펀드



#사회적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사업

#사회서비스 투자 활성화 사업



Financing Our Common Future

MAY 25-26, 2023

투명성 Transparency

역량강화 Empowerment

자금순환 Capital Mobilization

포용금융 Inclusive Finance

회복력 Financial Resilience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금융

2023 사회적금융포럼

2023. 5. 25~26 (목~금)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CO-HO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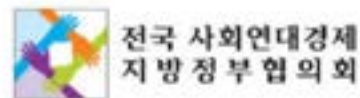


(재)금융산업공익재단은 국내 최초로 금융산업 노사가 함께 출연한 기금입니다. 33개 금융기관 노사의 상생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사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회 곳곳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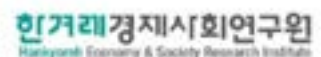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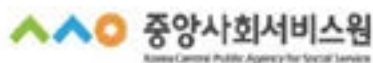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해 2019년 출범한 공익법인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과 규모화에 필요한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사회적 투자자 개발, 전문 중개기관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SPONSORS



PARTNERS



CONTACT US

www.svsfund.org
info@svsfund.org
02-2088-3288